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2권 (제13회 ~ 제24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3회 — 급선봉 동곽이 공을 다투고, 청면수 북경에서 무예를 겨루다 6
제14회 — 적발귀가 영관전에 취해 누워 있고, 조 천왕이 동계촌에서 의리를 인정하다 27
제15회 — 오학구가 삼완의 충돌을 말하고, 공손승이 칠성취의에 응하다 50
제16회 — 양지가 금은 짐을 호송하고, 오용이 지혜로 생신강을 탈취하다 84
제17회 — 화화상 노지심이 홀로 이룡산을 치고, 청면수가 두 번이나 보주사를 탈취하다 116
제18회 — 미염공이 날개 달린 호랑이를 지혜로 제압하고, 송공명이 몰래 조천왕을 놓아주다 147
제19회 — 임충이 수채에 큰 불을 지르고, 조개가 양산의 작은 포구를 빼앗다 172
제20회 — 양산박 의사 존조채, 운성현에서 달밤에 유당을 쫓다 .. 202
제21회 — 건파가 취하여 당우아를 때리고, 송강이 노하여 염파석을 죽이다 230
제22회 — 염파가 운성현을 발칵 뒤집고, 주동이 의리로 송공명을 풀어주다 265

제23회 — 횡해군에 머무는 시진,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는 무송 287
제24회 — 왕파가 뇌물을 탐해 풍문을 퍼뜨리고, 운가가 분노하여 찻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310

제13회 — 급선봉 동곽이 공을 다투고, 청면수 북경에서 무예를 겨루다

急先鋒東郭爭功 青面獸北京鬥武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주근과 양지 두 사람이 말을 멈추어 깃발 아래에 서서 막 서로 맞붙어 싸우려던 참이었다. 그때 병마도감 문달(聞達)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멈추시오!"

그러고는 직접 청(廳) 위로 올라와 양 중서(梁中書)에게 아뢰었다.

"은상(恩相)께 아룁니다. 이 두 사람의 무예 비무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아직 누구의 실력이 높고 낮은지 가려지지는 않았으나, 창과 칼은 본래 무정한 물건이라 오로지 적과 도적을 죽이는 데에나 써야 마땅합니다. 오늘처럼 군중(軍中)에서 자기들끼리 비무를 하다가는 자칫 상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가벼우면 불구가 되고 무거우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이는 군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두 자루 창에서 창끝을 빼고 각각 펠트 천으로 감싼 뒤, 바닥의 석회를 묻혀서 다시 말을 타

게 하고 모두 검은 적삼(皂衫)을 입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대로 서로 찔러서 흰 점이 많이 묻은 자가 지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양 중서가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오."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고 연무청 뒤로 가서 창 끝을 없앤 뒤, 펠트 천으로 감싸 뭉툭한 모양으로 묶었다. 그리고 각자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창을 석회 통에 담가 석회 가루를 묻힌 다음, 다시 말을 타고 진영 앞으로 나갔다.

주근이 말을 달려 창을 내찌르며 양지를 공격하자, 양지 역시 전마를 몰아 창을 휘두르며 주근에게 맞섰다. 두 사람은 진영 앞에서 창을 주고받으며 몇 번이고 다시 맞붙기를 반복했다. 서로 뒤엉켜 정신없이 싸우는데, 말 안장 위에서는 사람이 싸우고 말 아래에서는 말이 부딪히며 치열하게 격돌했다.

두 사람이 마흔에서 쉰 합가량 싸웠을 때, 주근의 창을 보니 마치 두부를 엎어놓은 듯 석회 가루가 서른에서 마흔 군데는 족히 묻어 있었다. 반면 양지의 창을 보니 왼쪽 어깨뼈 아래에만 하얀 점이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다.

양 중서(梁中書)는 크게 기뻐하며 주근을 청 위로 불러올렸다. 그리고 창에 묻은 흔적을 살펴보고는 꾸짖었다.

"전임 관리(前官)가 너를 군중(軍中) 부패(副牌)로 천거하여 임명하였다마는, 네 무예가 고작 이 정도이니 어찌 남정북벌(南征北討)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찌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부패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양지에게 이 자(주근)의 직역을 대신 맡으라고 명했다. 그러자 관군병마도감 이성(李成)이 청 위로 올라와 양 중서에게 아뢰었다.

"주근은 창법은 서툴지만 활쏘기와 말타기에는 능숙합니다. 그를 무턱대고 직위에서 내치시면 자칫 군심(軍心)이 흔들릴까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주근과 양지에게 활쏘기로 겨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 중서가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오."

그러고는 다시 장령(將令)을 내려 양지와 주근이 활쏘기 비무를 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장령을 받들고 각자 창을 거두어 세운 뒤, 활과 화살을 꺼내 들었다. 양지는 활집(弓袋)에서 그 활을 꺼내 시위를 똑바로 메기고는, 활을 든 채 말 위로 뛰어올라 청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말 위에 선 채 몸을 굽혀 아뢰었다.

"은상이시여, 화살이라는 것은 한번 시위를 떠나면 정을 두지 않는 법이라, 다칠 우려가 있으니 부디 분부를 내려주시옵소서."

양 중서(梁中書)가 말했다.

"무인이 비무를 하는데 어찌 상하는 것을 걱정하겠느냐? 실력만 있다면 쏘아 죽여도 따지지 않겠다."

양지는 명령을 받들고 다시 진영 앞으로 돌아갔다. 이성이 분부를 전하여, 활쏘기 비무를 벌이는 두 호걸에게 각자 몸을 보호할 차전패(遮箭牌) 한 면씩을 내주게 했다. 두 사람은 차전패를 받아 팔에 묶었다. 양지가 말했다.

"먼저 그대가 나에게 세 발을 쏘시오. 그다음 내가 그대에게 세 발을 갚겠소."

주근은 그 말을 듣자 양지를 단 한 화살에 꿰뚫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양지는 본래 군관 출신이라 진작 그의 수작을 간파하고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두 사람의 활쏘기 비무가 과연 어떠하였을까.

한 명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쏘던 실력이고, 다른 한 명은 바람을 가르며 버드나무 잎을 맞히는 데 익숙한 명궁이었다.

활시위를 가득 당기면 토끼와 여우가 목숨을 잃고, 화살이 날아갈 때면 독수리와 매조차 혼비백산한다. 두 사람의 기술을 겨루니 그 기세가 현장에서 맞붙고, 각자의 수단을 펼치니 구경하는 이들의 찬탄이 쏟

아진다. 한 명은 묵직하게 힘을 실어 쏘니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고, 다른 한 명은 몸을 번뜩이며 쏘니 도무지 막아낼 길이 없다. 순식간에 승부가 갈릴 것이요,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결정되리라.

그때 연무대 위에서 푸른 깃발이 휘둘러지자, 양지는 말을 몰아 남쪽을 향해 달려갔다. 주근도 말을 달려 쫓아가더니, 왼손으로 고삐를 안장 고리에 걸어 고정하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잡고 화살을 메웠다. 그러고는 활시위를 가득 당겨 양지의 등 뒤를 향해 화살을 휙 쏘았다. 양지는 등 뒤에서 활시위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몸을 휙 비틀며 등자(말 안장의 발 디딤판) 뒤로 몸을 숨겼고, 화살은 허공을 갈랐다. 주근은 첫 화살이 맞지 않자 당황하여 화살통에서 급히 두 번째 화살을 꺼내 시위에 걸었다. 그러고는 양지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보고 다시 그의 등 뒤를 겨냥해 쏘았다. 양지는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등자 뒤로 숨지 않았다. 화살이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오자, 양지는 즉시 활을 들어 활대 끝으로 화살을 툭 쳐냈다. 그러자 화살은 뱅글뱅글 돌며 풀밭 속으로 떨어졌다. 주근은 두 번째 화살마저 맞히지 못하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양지의 말은 이미 연무장 끝까지 달려가 있었는데, 양지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자 말은 곧장 정청을 향해 되돌아왔다. 주근도 급히 말을 멈춰 세운 뒤 기세를 몰아 뒤따라갔다. 푸른 풀이 우거진 벌판 위에서 여덟 개의 말굽 소리가 마치 북과 징을 번갈아 치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말들은 바람 뭉치처럼 쌩쌩 달려 나갔다. 주근은 다시 세 번째 화살을 꺼내 시위에 걸고 활을 가득 당겼다. 그는 평생의 기력을 다 쏟아부으며 양지의 등 뒤를 노려 화살을 쏘았다. 양지는 활시위 소리가 들리자마자 몸을 돌려 안장 위에서 날아

오는 화살을 덥석 낚아챘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연무장 앞으로 달려 들어가 주근이 쏜 화살을 내던져 버렸다.

양 중서(梁中書)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려, 이번에는 양지에게도 주근을 향해 화살 세 대를 쏘게 했다. 연무대 위에서 다시 푸른 깃발이 휘둘러지자, 주근은 활과 화살을 내던지고 차전패를 손에 든 채 말을 몰아 남쪽으로 달아났다. 양지는 말 위에서 허리를 한 번 솟구치고 발을 한 번 차자, 그 말이 쏜살같이 뒤를 쫓아갔다. 양지가 먼저 활시위를 가볍게 헛으로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자, 주근은 뒤통수에서 활시위 울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비틀어 차전패로 막으려 했으나 화살이 없는 헛것이었다. 주근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은 창만 쓸 줄 알지 활은 쏠 줄 모른다. 두 번째 화살도 또 헛으로 당겨 속이려 할 때 내가 호통을 쳐서 멈추게 하면, 내가 이기는 셈이 된다.' 주근의 말이 어느덧 연무장 남쪽 끝에 다다라 곧장 연무청을 향해 돌아오자, 양지의 말도 주근의 말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몸을 돌렸다. 양지는 미리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뽑아 시위에 메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등 한복판을 맞히면 반드시 그 목숨이 상할 것이다. 저자와 나는 원수진 일이 없으니, 내가 그저 치명적이지 않은 곳만 맞히면 그만이다.' 왼손은 태산을 받치듯 묵직하고 오른손은 갓난아이를 안듯 부드러웠으며, 활은 보름달처럼 둥글게 당겨지고 화살은 유성처럼 날아갔다. 말할 사이도 없이 화살 한 대가 곧장 주근의 왼쪽 어깨에 정통으로 박혔다. 주근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몸이 뒤집혀 말에서 떨어졌고, 주인을 잃은 말은 그대로 연무청 뒤편까지 달려가 버렸다. 군졸들이 곧 달려가 주근을 구해내었다. 양 중서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군정사(軍政司)에게 문안(文案)을 올리라 일러, 양지가 주근의 직역을 대신하게 했다.

양지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말에서 내려, 곧장 청 앞으로 가서 은상(恩相)께 절을 올려 감사드리고 그 직역을 맡았다. 시(詩)로 이르되,

유연(幽燕) 땅에서 죄를 지어 배군(配兵)이 되었더니,
그 자리에서 비무를 벌여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었네.
한 화살로 버드나무 잎을 꿰뚫는 솜씨를 능히 발휘하여,
패군(牌軍)의 반쪽 직위나마 영광스레 얻었노라.

그런데 계단 아래 왼쪽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며 외쳤다.

"직위를 받은 것에 감사할 것 없다. 나와 그대 두 사람이 비무를 하자!"

양지가 그 사람을 보니, 키는 칠 척이 넘고, 얼굴은 둥글며 귀가 컸고, 입술은 넓고 입은 네모졌다. 뺨에는 구레나룻이 한 줄기 자라 있어 위풍이 늠름하고 풍채가 당당했다. 그는 곧장 양 중서(梁中書)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춘 뒤 아뢰었다.

"주근은 병이 다 낫지 않아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였기에 잘못하여 양지에게 졌습니다. 소장이 재주는 없으나 양지와 무예를 겨루어보고자 하니, 만약 소장이 양지보다 반 푼이라도 못하다면 주근을 갈음하게 하지 마시고 양지가 소장의 직역을 대신하게 하소서. 그리된다면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양 중서가 살펴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명부(大名府) 유수사(留守司)의 정패군(正牌軍) 삭초(索超)였다. 그는 성격이 급하기가

마치 소금을 불 속에 던진 듯하여, 나라의 체면이 걸린 일에는 한사코 기개를 다투며 앞장서 싸웠기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급선봉(急先鋒)'이라 불렀다. 이성이 이 말을 듣고 장대(將臺)에서 내려와 곧장 청 앞에 이르러 아뢰었다.

"상공(相公), 이 양지는 본래 전사제사(殿司制使)였으니 반드시 좋은 무예를 지녔을 터, 주근과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삭 정패군과 무예를 겨루게 하시면 우열을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중서가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한사코 양지를 발탁하려 해도 여러 장수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차라리 그가 삭초를 이기게 되면 그들도 죽어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고 더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양중서(梁中書)는 즉시 양지를 불러 정청으로 올라오게 한 뒤 물었다. '그대가 소초와 무예를 겨루어 보겠는가?' 양지가 대답했다. '상공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양중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정청 뒤로 가서 무장을 갖추고 갑옷과 병기를 잘 챙기도록 하여라. 갑장고(무기 창고)의 관리들에게 명령해 전투에 쓸 병기를 가져다주게 하고, 내 전마(戰馬)도 끌어다 양지에게 빌려주어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양지는 감사를 표하고는 스스로 가서 채비를 갖추었다.

한편, 이성이 소초에게 일러 말했다. '자네 처지는 다른 이들과는 사정이 다르네. 주근은 자네의 제자인데 이미 (먼저) 졌으니, 자네마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대명부의 모든 군관이 (자네를) 얕잡아볼 것이네. 내게 전장에 익숙한 전마 한 마리와 갑옷 한 벌이 있으니 빌려 줄 테니, 각별히 주의하여 예기(銳氣)가 꺾이지 않도록 하게.' 소초는 감사를 표하고는 스스로 가서 채비를 갖추었다.

양중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하인들이 은으로 된 교의(交椅)를 옮겨 월대 난간 옆에 놓았고, 양중서가 자리에 앉자 좌우 시종들이 두 줄로 늘어서 대기했다. 양산 든 자를 불러 은 호리병 꼭대기에 갈색 비단으로 된 삼첨(三簷) 양산을 펼치게 하여 양중서의 등 뒤에 받쳐 들게 했다. 장대(將臺) 위에서 장령(將令)이 전해 내려오자 곧바로 붉은 깃발이 휘날렸다. 양쪽에서 금과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며 한바탕 크게 북을 울렸다. 교장의 두 진영 안에서는 각기 대포를 한 발씩 쏘아 올렸다. 포성이 울리자 소초는 말을 달려 진영 안으로 들어가 문기(門旗) 아래에 자리잡았고, 양지도 자기 진영에서 말을 달려 군중으로 들어가 문기 뒤편까지 다다랐다. 장대 위에서 다시 황색 깃발이 휘날리고 또 한바탕 북을 울리자, 양군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교장 안은 누가 감히 소리라도 낼까 싶을 정도로 고요했다. 이어 징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깨끗한 백기(白旗)가 올라가니, 양쪽의 모든 관원은 누구 하나 감히 움직이거나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대 위에서 다시 청색 깃발이 휘날렸다. 세 번째로 전투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왼쪽 진영의 문기(門旗) 아래가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난령(鸞鈴) 소리가 울리며 정패군(正牌軍) 소초가 말을 타고 진영 앞으로 달려 나왔다. 그는 말을 멈춰 세우고 무기를 손에 쥐었는데, 과연

영웅호걸의 기개가 넘쳤다. 소초는 머리에 잘 단련된 강철 사자 투구를 쓰고, 머리 뒤로는 됫박만한 붉은 술(紅纓)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몸에는 철엽을 엮어 만든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도금된 짐승 얼굴 모양의 띠(束帶)를 둘렀으며, 앞뒤로 청동 호심경(護心鏡)을 달았다. 그 위에는 진홍색 단화포(緋紅團花袍)를 걸치고 그 위로 초록 융사(綠絨縷) 함대(頷帶) 두 가닥을 늘어뜨렸으며, 아래에는 비스듬한 가죽 기과화(氣跨靴)를 신고, 왼편에 활 한 자루, 오른편에 화살통 하나를 찼다. 손에는 금잠부(金蘸斧)를 가로로 쥐고 있었으며, 타고 있는 말은 이 도감(李都監)의 전투에 익숙한 설백마(雪白馬)였다. 그 말 또한 참으로 훌륭한 명마였다.

시로 이르되,

색은 경신(庚辛, 백색)에 속하여 남산(南山)의 흰 이마 호랑이를 방불케 하고, 털은 고운 가루를 쌓은 듯 북해(北海)의 옥기린(玉麒麟)과 같구나. 진영을 돌파하고 시냇물을 건너며, 전고(戰鼓)를 즐기는 성품은 군자와 같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멀리 달리며, 바람을 향해 우는 데 익숙하니 반드시 용매(龍媒, 천리마)로다. 오상(伍相, 오자서)의 이화마(梨花馬)에 버금가고, 진왕(秦王)의 백옥구(白玉駒)에 비길 만하구나.

왼쪽 진영의 '급선봉(急先鋒)' 소초가 말을 멈춰 세우고 금잠부를 비껴 쥔 채 진영 앞에 버티고 섰다. 오른쪽 진영의 문기(門旗) 아래가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난령 소리가 울리며 양지가 손에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달려 나갔다. 그는 말을 멈춰 세우고 창을 가로로 쥐었는데, 과연 용맹스러운 기개가 넘쳤다. 양지는 머리에 서리가 깔

린 듯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빈철(鑌鐵) 투구를 쓰고 그 위에 푸른 술을 한 줌 꽂았다. 몸에는 갈고리로 매화·느릅나무 잎 무늬를 엮어 만든 갑옷을 입고, 붉은 융사(紅絨)로 짠 늑갑조(勒甲絛)를 둘렀으며 앞뒤로 짐승 얼굴 모양의 엄심(掩心)을 달았다. 그 위에는 색이 고운 흰 비단 꽃무늬 도포(白羅生色花袍)를 입고 자줏빛 융사 비대(飛帶)를 늘어뜨렸으며, 발에는 안감을 댄 황색 가죽 장화를 신었다. 한쪽에는 가죽 손잡이 활(皮靶弓) 한 자루, 다른 한쪽에는 끌촉 화살(鑿子箭) 여러 대를 찼다. 손에는 무쇠 점강(渾鐵點鋼) 창을 곧게 들고 있었고, 그가 탄 말은 양중서의 불덩이처럼 붉은 천리시풍마(火塊赤千里嘶風馬)였다. 그 말 또한 참으로 대적할 자 없는 명마였다. 시로 이르되,

갈기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꼬리는 아침 노을을 흔드네.
온몸엔 연지색 빛이 어지러이 흩뿌려졌고, 두 귀는 붉은 잎처럼 마주 솟았구나.
새벽녘 변방에 다다르니 말발굽은 차가운 별빛을 튀기고,
해 저물녘 모래 제방을 달릴 땐 땅 위를 구르는 불덩이가 되었네.
남쪽 나라의 신비한 말이라 말하지 마라, 진정 수정의 적토마로다.

오른쪽 진영에서는 '청면수' 양지가 손에 든 창을 만지작거리며 탄 말을 멈춰 세우고 진영 앞에 버티고 섰다. 양측의 군사들은 속으로 은밀히 환호성을 질렀으니, 그의 무예가 어떠한지는 아직 알지 못했으나 먼저 그 위풍당당한 기세가 남다름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남쪽 진영에서 기패관이 금을 입힌 명령 깃발을 들고 말을 달려오더니, 크게 외쳤다. "상공의 명을 받드노라! 너희 둘은 각자 마음을 다

해 임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반드시 엄히 벌할 것이요, 만약 승리한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두 사람이 명을 받들고 말을 달려 진영 밖으로 나갔다. 교장(훈련장) 한가운데에 이르러 두 말이 마주치자, 양측의 병기가 일제히 치켜들렸다. 소초는 분노하며 손에 든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몰아 양지와 맞붙었다. 양지 또한 위용을 뽐내며 손에 든 신묘한 창을 만지작거리며 소초를 맞이하러 나아갔다. 두 장수는 교장 한가운데, 장대 앞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평생 무예를 걸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공격과 방어가 번갈아 이어지고, 네 팔이 종횡으로 움직이며 여덟 발의 말굽이 어지럽게 요동쳤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전쟁 깃발은 해를 가릴 듯 빽빽하고, 살기는 하늘을 뒤덮을 듯했다. 한쪽에서는 금빛이 서린 도끼가 머리 위를 향해 곧장 내리꽂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쇠 창이 심장을 꿰뚫을 듯 거침없이 들이닥쳤다. 한 명은 나라를 지탱하는 비사문천이자 탁탑이천왕의 기세요, 또 한 명은 강산을 정돈하고 금궐을 다스리는 천봉대원수의 기세였다. 도끼날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하고, 창끝에서는 서슬 퍼런 빛이 번뜩였다. 한 명은 일곱 나라를 호령하던 원달이 다시 태어난 듯하고, 다른 한 명은 삼국시대의 장비가 세상에 나온 듯했다. 한 명은 거령신이 노하여 큰 도끼를 휘둘러 산기슭을 부수는 듯하며, 또 한 명은 화광이 분노를 품고 금창을 휘둘러 저승 문을 열어젖히는 듯했다. 한쪽은 눈을 부릅뜬 채 무시무시한 기세로 도끼를 비스듬히 내리찍고, 다른 한쪽은 이를 갈며 맹렬한 기세로 창대를 흔들어 대니 그 기세가 가히 압도적이었다. 두 장수 모두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라리니, 어느 누구도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다.

두 사람이 쉰 합 넘게 맞붙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중서는 월대 위에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양옆의 군관들은 연신 환호성을 내질렀다. 진영 안의 군사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속닥거렸다. '우리가 군에 몸담아 여러 해, 여러 차례 전쟁터에 나가 봤지만, 이토록 대단한 호걸들이 싸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 이성과 문달은 장대 위에서 연신 소리 높여 외쳤다. '정말 볼만하구나!' 문달은 혹여나 두 사람 중 한쪽이 다칠까 걱정되어, 급히 기패관을 불러 영자기(令字旗)를 들게 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그때 장대 위에서 갑자기 징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졌다. 양지와 소초는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터라 서로 공을 세우려 도무지 말을 돌려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 기패관이 달려와 외쳤다. '두 호걸은 멈추시오! 상공의 명이오!' 그제야 양지와 소초는 손에 든 병기를 거두고 말을 멈춰 세운 뒤, 각자 본진으로 달려가 깃발 아래에 말을 세우고, 양중서를 바라보며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렸다.

이성과 문달이 장대에서 내려와 월대 아래에 이르러 양중서에게 보고했다. "상공, 저 두 사람의 무예가 막상막하이니 모두 중용하심이 마땅합니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명령을 내려 양지와 삭초를 불러오게 했다. 패기관이 명령을 전하자 두 사람은 청사 앞으로 와 모두 말에서 내렸다. 소교가 두 사람의 병기를 받아 들자, 양지와 삭초는 청사 안으로 들어와 몸을 굽히고 명을 기다렸다. 양중서는 백은(白銀) 두 덩이(錠)와 의복 두 벌(表裏)을 가져오게 하여 두 사람에게 상으로 내렸다. 이어 군정사(軍政司)에게 명하여 두 사람을 모두 관군 제할사(管軍提轄使)로 승격시키고, 즉시 임명 문안을 작성하여 오늘부터 두 사람을 정식으로 임관시키게 하였다. 삭초와 양지는 양중서에게 거듭

감사를 표한 뒤, 상을 받들고 청사를 내려왔다. 두 사람은 창과 도, 활과 화살을 풀어놓고 투구와 갑옷을 벗은 뒤 옷을 갈아입었다. 삭초 역시 무장을 풀고 비단 저고리로 갈아입은 뒤 다시 청사로 올라와 여러 군관에게 인사를 올렸다. 양중서는 삭초와 양지에게도 서로 예를 갖추게 한 뒤, 그들을 반열에 들여 제할(提轄)로 삼았다. 군졸들은 승전고를 울리며 금고기(金鼓旗)를 앞세워 먼저 흩어졌다.

양중서와 크고 작은 군관들은 모두 연무청에서 잔치를 벌였다. 붉은 해가 서쪽으로 저물어 갈 때쯤 잔치가 끝나자, 양중서는 말에 올랐고 모든 관원이 그를 부(府)까지 배웅했다. 말 머리 앞에는 새로 임명된 두 제할이 나란히 섰는데, 두 사람이 좌우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말을 타고 머리에는 모두 붉은 꽃을 꽂은 채 동곽문(東郭門)으로 들어왔다. 길 양옆의 사람들은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를 이끌고 나와 이 광경을 보며 모두 기뻐했다. 양중서가 말 위에서 물었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기뻐하는가?" 그러자 노인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저희는 북경에서 태어나 대명부에서 자랐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두 호한 장군께서 무예를 겨루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연무장에서 저토록 막상막하인 적수들을 보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양중서는 말 위에서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부로 돌아오자 모든 관원은 각자 흩어졌다. 삭초는 한 패의 형제들이 청하여 축하 잔치를 벌이러 갔다. 양지는 새로 와서 아직 안면 있는 이가 없었으므로 양중서의 부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명을 받들었는데,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한담은 이쯤에서 접어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동곽에서 연무가 있은 뒤로 양중서는 양지를 매우 아껴 아침저녁으로 결코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매달 또 한 몫의 봉록(請受)이 더 주어지니, 점차 그와 친분을 맺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삭초 역시 양지의 무예가 매우 고강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복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와, 단오를 맞이하여 유빈절(蕤賓節, 단오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양중서는 채부인과 함께 후당에서 가족 연회를 열어 단양(端陽)을 축하하였다. 그 광경을 보자면 이러하였다.

화분에 심은 푸른 쑥과 병에 꽂은 붉은 석류.
수정 발을 걷어 올리니 새우 수염처럼 가지런하고, 비단 병풍을 펴니 공작이 펼쳐졌네.
창포는 옥을 깎은 듯하고, 미인은 웃으며 자줏빛 술잔을 받드네.
각서(角黍, 종자)는 은처럼 쌓이고, 미녀는 푸른 옥쟁반(青玉案)을 높이 받들었네.
음식은 진귀한 것으로 차려지고, 과일은 제철 새것으로 올라왔네.
종려 부채(葵扇) 바람 속에 한 가락이 울려 맑고 아름다운 운치를 자아내고,
연잎 옷 향기 속에서 온갖 곱고 아리따운 춤사위가 흘러나오네.

그날 양중서는 후당에서 채부인과 함께 가족 연회를 열어 단양(端陽)을 축하했다. 술이 몇 잔 오가고 음식도 두 차례나 차려졌을 무렵, 채부인이 입을 열었다. "상공께서 출신(出身)하신 뒤로 오늘날 한 도

(道)의 통수가 되어 국가의 중책을 맡으셨으니, 이 공명과 부귀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양중서가 대답했다. "세걸(世傑)이 어릴 적부터 글을 읽어 경사(經史)를 자못 익혔으니, 사람이 풀과 나무가 아닌 이상 어찌 태산 같은 장인어른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끌어 주신 그 힘에 감격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채부인이 다시 물었다. "부군께서 저의 아버님 은덕을 잘 아신다면서, 어찌 그분의 생신을 잊으셨습니까?" 양중서가 말했다. "소관(下官)이 어찌 잊겠습니까? 장인어른의 생신은 6월 15일이지요. 이미 사람을 시켜 십만 관(十萬貫)에 달하는 금주보패(金珠寶貝)를 사 모아 경사(京師)로 보내 축수(慶壽)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심부름꾼(幹人)들이 모두 (자금을) 받아 갔습니다. 지금은 십중팔구는 갖추어졌으니, 며칠 내로 채비를 마치는 대로 사람을 보내 떠나게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망설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완상품(玩器)과 금주보패를 사서 사람을 시켜 보냈는데, 길 중간도 못 가 모조리 도적들에게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차례의 재물을 헛되이 잃었고, 지금까지 엄히 도적을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누구를 보내야 좋겠습니까?" 채부인이 말했다. "장막 앞에 군교(軍校)가 많이 있으니, 그중에서 마음 놓고 믿을 만한 심복을 골라 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중서가 대답했다. "아직 사오십 일이 남았으니, 조만간 예물이 다 갖추어지도록 재촉한 뒤에 보낼 사람을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부인께서는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 세걸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가족 연회는 한낮(午牌)부터 이경(二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났는데,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양중서가 예물과 완상품(玩器)을 사 모으고 사람을 골라 상경시켜 채태사(蔡太師)의 생신을 축하하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기로 한다. 한편 산동(山東) 제주(濟州) 운성현(鄆城縣)에 새로 부임한 지현(知縣)에 대해 전하겠다. 그의 성은 시(時)요, 이름은 문빈(文彬)이다. 이 사람은 관직 생활을 청렴하고 정직하게 하였고, 일을 처리함에 청렴하고 공명하였으며, 늘 측은지심을 품고 인자한 마음을 베풀었다. 밭과 땅을 두고 다투는 일에는 옳고 그름을 가린 뒤에 판결을 시행하였고, 한가로이 다투며 싸우는 일에는 경중을 가린 뒤에야 비로소 결단을 내렸다. 한가할 때는 거문고를 타며 손님을 맞이하였고, 바쁠 때는 붓을 휘둘러 판결문을 써 내려갔다. 명색은 현의 재관(宰官)이었으나, 실상은 백성의 부모와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그날 지현 시문빈이 정청(廳)에 올라 공좌(公座)에 앉자, 좌우 양옆으로 공리(公吏)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지현은 즉시 위사(尉司)의 포도관원(捕盜官員)과 두 명의 순포(巡捕) 도두(都頭)를 불러오게 하였다. 본현 위사 휘하에는 두 명의 도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보병도두(步兵都頭)라 불렸고 다른 한 명은 마병도두(馬兵都頭)라 불렸다. 마병도두는 말 탄 궁수(弓手) 스무 명과 사병(士兵) 스무 명을 관할하였고, 보병도두는 창을 쓰는 두목 스무 명과 사병 스무 명을 관할하였다.

이 마병도두의 성은 주, 이름은 동이며, 키는 8척 4~5촌 정도였다. 한 자 다섯 치나 되는 호랑이 수염을 가졌고,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으며 눈은 밝은 별처럼 빛나니, 그 모습이 마치 관운장 같았다. 온 현 사람들이 그를 '미염공'이라 불렀다. 원래 이 지역의 부유한 집안 자제였으나, 의로운 일을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고 베푼 덕분에 강호의 호

걸들과 친분을 맺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무예를 익히게 되었다. 주동의 기개가 어떠한지 시로 이르되,

의로운 담력과 충직한 마음을 지닌 호걸이라,
가슴속에는 무예가 깊이 배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참된 영웅이로다.
활을 당겨 호랑이를 쏘아 맞히고,
칼을 들어 용을 베어 넘기네.

당당한 풍채에 신과 귀신도 두려워하니,
늠름한 모습에 위풍이 넘쳐흐른다.
얼굴은 붉은 대추처럼 붉고,
운장은 다시 세상에 나타났으니,
사람들은 그를 미염공이라 부른다.

이 보병도두의 성은 뇌, 이름은 횡이며, 키는 7척 5촌이었다. 얼굴빛은 검붉은 자줏빛이었고 부채꼴 모양으로 둥글게 난 수염이 있었다. 힘이 남달리 장사여서 두세 장(丈)이나 되는 넓은 골짜기를 훌쩍 뛰어넘으니, 온 현 사람들이 그를 '삽시호(揷翅虎)'라 불렀다. 원래 이 현의 대장장이 출신이었으나, 나중에는 방앗간을 차리고 소를 잡으며 도박판을 벌이기도 했다. 비록 의로움을 중히 여기긴 했으나 마음 씀씀이가 다소 좁고 옹졸한 데가 있었다. 또한 한 몸에 빼어난 무예를 익혔다. 뇌횡의 기개가 어떠한지 보면,

하늘의 강성(罡星)이 세상에 내려오니,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빼어났으니,
도두로 이름난 호걸이 바로 뇌횡이라.
주먹 휘두름은 신의 팔처럼 굳세고,
날아차는 발길에는 번갯불이 인다.

강해(江海)의 영웅들도 그 무용을 칭송하고,
담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는 몸놀림 가뿐하니,
어느 호걸이 감히 맞서 싸우겠는가!
산동의 「삽시호(揷翅虎)」,
온 세상에 그 이름 드높구나.

주동과 뇌횡 두 사람은 도적을 잡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임 지현이 두 사람을 관청으로 불러들였다. 두 사람이 인사를 올리고 명령을 기다리자 지현이 말했다.

"내가 이곳에 부임한 이래로 듣자하니, 본부 제주 관할 아래에 있는 양산박이라는 물가에 도적 떼가 모여들어 약탈을 일삼고 관군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하더군. 또한 각 마을에 도적이 들끓어 소인배들이 많아질까 걱정되기도 하네. 이에 자네 두 사람을 부르니, 수고를 아끼지 말고 본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한 명은 서문으로, 한 명은 동문으로 나가 나누어 순찰을 돌도록 하게. 만약 도적을 발견하면 즉시 소탕하여 관아로 압송하되, 결코 마을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동계촌 산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커다란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자네들 부하들을 시켜 단풍잎을 몇 장 따오게나. 그

래야 자네들이 실제로 그곳까지 순찰을 돌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야. 만약 단풍잎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네들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니,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고 엄벌에 처할 것이네."

두 도두는 명령을 받들고 각자 물러나 자기 부하 병사들의 수를 점검한 뒤, 정해진 방향으로 나누어 순찰을 떠났다.

주동이 사람들을 이끌고 서문으로 나가 순찰을 돌던 상황은 차치하고, 뇌횡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그날 저녁 병사 스무 명을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 마을 주변을 돌며 구석구석 순찰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동계촌 산에 올라가 사람들과 함께 단풍잎을 딴 뒤 마을로 내려왔다. 채 삼이 리(里)도 못 가 영관묘 앞에 다다랐는데, 전각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뇌횡이 말했다.

"이 전각 안에 관리하는 이도 없는데 문이 왜 열려 있지? 혹시 안에 나쁜 놈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일제히 안을 비추며 들어갔더니, 제단 위에는 한 사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다. 날씨가 워낙 더운 데다, 그 사내는 해진 옷가지들을 뭉쳐 베개 삼아 목 아래에 괴고는 제단 위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뇌횡이 이를 보고 말했다.

"참으로 괴이하구나, 괴이해! 지현 사또께서 정말 신통하시군. 동계촌에 정말로 도적이 있었어!"

뇌횡이 크게 호통을 치자 사내가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려 했으나, 병사 스무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그러고는 사내를 끌고 묘 밖으로 나와 보정(保正, 마을의 책임자)의 장가로 압송했다.

그 사내를 압송해 간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동계촌에는 세네 명의 호걸이 모여 있고 운성현에는 십만 관의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어찌 될까. 마침 하늘의 강성(罡星)들이 모여들듯, 인간 세상의 지살(地煞)들도 서로 만나게 되려나 보다.

결국 뇌횡이 붙잡은 그 사내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4회 — 적발귀가 영관전에 취해 누워 있고, 조 천왕이 동계촌에서 의리를 인정하다

赤髮鬼醉臥靈官殿 晁天王認義東溪村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뇌횡이 영관전에 이르니, 한 사내가 제단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뇌횡이 토병들을 시켜 그 사내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영관전 밖으로 끌고 나오게 했다. 날이 밝아 오는 새벽 다섯 시경이었다. 뇌횡이 말했다. "이놈을 일단 조개의 장원으로 끌고 가서 요기라도 좀 하고 나서, 현청으로 압송해 가자." 이에 일행은 모두 조개의 장원을 향해 달려갔다.

알고 보니 동계촌의 보정은 성은 조, 이름은 개였다. 그의 조상은 이고을 본향의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조개는 평생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무척 즐겼다. 그래서 그를 찾아와 의탁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장원에 머물게 해주었다. 만약 떠나려 한다면 은자를

챙겨주어 떠날 채비를 도와주기도 했다. 또한 창을 찌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무예를 매우 좋아했는데, 스스로도 몸이 아주 건장하여 아내를 맞이하지 않은 채 온종일 근골을 단련하며 지냈다.

운성현의 동문 밖에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하나는 동계촌이고 하나는 서계촌으로 커다란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다. 예전에 서계촌에는 귀신이 자주 나타나, 낮에도 사람의 정신을 홀려 시냇물에 빠지게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승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상세히 말해주었다. 그러자 승려가 한 곳을 가리키며 청석을 깎아 보탑을 만든 뒤 그 자리에 세워 두어 시냇가를 진압하라고 일러주었다. 그사이 서계촌의 귀신들은 모두 동계촌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조개가 크게 노했다. 그는 시냇물을 건너가 혼자서 청석 보탑을 가져다가 동계촌에 가져다 놓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를 '탁탑천왕'이라 불렀다. 조개가 그 마을을 독차지하며 세력을 떨치자, 강호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날이 밝아오자 뇌횡은 토병들을 거느리고 그 사내를 압송하여 장원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장원의 하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정에게 보고했다. 이때 조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뇌도두가 왔다는 보고를 듣고는 황급히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하인들이 장원 문을 열자, 토병들은 먼저 그 사내를 문간방에 매달아 놓았다. 뇌횡은 거느리고 온 무리 중 우두머리 격인 열댓 명을 데리고 초당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조개가 일어나 그들을 접대하며 물었다. "도두께서 무슨 공무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뇌횡이 대답했다. "현감 나으리의 명을 받들어, 저와 주동 두 사람이 부하 토병들을 이끌고 마을 곳곳을 돌며 도적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져 잠시 쉬어가고자 귀한 장원에 들렀으니, 부디 보정께서 놀라 잠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개가 말했다.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우선 탕부터 먹게 했다. 조개가 다시 물었다. "우리 마을에서 잡은 좀도둑이라도 있습니까?"

뇌횡이 말했다. "조금 전 영관전에 가보니 한 사내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제가 보니 그놈은 결코 선량한 군자가 아니고 분명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꽁꽁 묶어 바로 현청으로 압송해 가려 했는데, 첫째로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이고, 둘째로는 보정께서도 이 사실을 아셔야 나중에 관가에서 물을 때 보정께서도 답변을 하실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한 장원의 문간방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조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두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도두께서 미리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술과 음식이 담긴 상을 내오자, 조개가 말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뒤뜰 정자 아래로 가서 앉으시지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안쪽의 촛불을 켜게 한 뒤, 도두를 안으로 모셔 술을 한잔 올리게 했다. 조개가 상석에 앉고 뇌횡이 손님석에 앉았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자 하인들이 과일과 술, 채소와 안주를 차려냈다. 하인이 술을 거르며 따르는 동안, 조개는 토병들도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술을 더 사 오게 했다. 하인들은 사람들을 모두 복도 쪽 손님 자리로 안내하여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대접했다.

조개는 뇌횡을 극진히 대접하며 술을 권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다. '우리 마을에 잡힌 좀도둑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내가 직접 가서 누구인지 봐야겠다.' 조개는 뇌횡과 대여섯 잔 정도 술을 주고받은 뒤, 집안의 관리 하나를 불러 말했다. "도두를 모시고 앉아 계시게 하게. 내가 손을 씻고 얼른 돌아오겠네."

관리가 뇌횡을 모시고 앉아 술을 마시는 동안, 조개는 안으로 들어가 등롱을 들고 곧장 문간방으로 내려가 살펴보았다. 토병들은 모두 술을 먹으러 떠나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개가 문을 지키던 하인에게 물었다. "도두가 잡은 도둑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하인이 대답했다. "문간방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조개가 문을 밀어 열고 살펴보니, 사내가 방 안에 높이 매달려 있어 온몸의 검은 살집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아래로는 거뭇거뭇한 털북숭이 다리 두 개가 뻗어 있었으며 맨발이었다. 조개가 등불로 그 사내의 얼굴을 비추어 보니, 얼굴은 자줏빛이 도는 검은색에 넓적했고, 관자놀이 옆에는 주사(朱砂)처럼 붉은 점 한 덩이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검누런 털 한 자락이 자라 있었다.

조개가 물었다. "이보게, 자네는 어디 사람인가? 우리 마을에서는 자네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사내가 말했다. "소인은 먼 곳에서 온 손님입니다. 이곳에 누군가를 찾아왔다가 도둑으로 몰려 잡혀왔으니, 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조개가 물었다. "우리 마을에 누구를 찾아왔단 말인가?"

사내가 대답했다. "이 마을에 있는 한 호걸을 찾아왔습니다."

조개가 다시 물었다. "그 호걸의 이름이 무엇인가?"

사내가 말했다. "조 보정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조개가 물었다. "그를 찾아온 무슨 일인가?"

사내가 말했다. "그분은 천하에 이름난 의로운 호걸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분께 말씀드릴 큰 재물이 있어 찾아온 것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잠시 기다리게. 내가 바로 그 조 보정이니, 내가 자네를 구해줄 것이네. 다만 나를 외삼촌이라고 생각하게나. 잠시 후 뇌도두가 그자를 데리고 나올 때, 자네가 나를 외삼촌이라 부르면 나도 자네를 외조카로 인정하겠네. 그러고는 네댓 살 때 이곳을 떠났다가 이번에 삼촌을 찾아왔기에 서로 몰라봤다고 말하게나."

사내가 말했다. "그렇게 구해주신다면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의로운 분이시여, 부디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시로 이르되,

오래된 사당 속 달콤한 잠 한 자락에 들었다가,
포박된 채 초가집 동쪽에 높이 매달렸네.
수많은 뇌물과 부정은 하늘도 돕지 않았으나,
포위망을 뚫어준 것은 오로지 조개의 기이한 공로였네.

그때 조개는 등롱을 들고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는, 서둘러 뒤뜰 정자로 가서 뇌횡을 만나 말했다. "귀한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뇌횡이 대답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몇 잔의 술을 더 나누고 있는데,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이 비쳐 들어왔다. 뇌횡이 말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둘러 현청으로 가야 정해진 시각에 맞춰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도두께서는 관직에 계신 몸이니 오래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마을에 공무로 오실 일이 있다면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뇌횡이 말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정께서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부디 배웅은 사양하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적어도 장원 입구까지는 배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오자, 토병들은 모두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 각자 창과 몽둥이를 챙겨 들고 있었다. 그들은 문간방으로 가서 그 사내를 매달았던 결박을 풀고는, 다시 두 팔을 등 뒤로 묶어 장원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모습을 본 조개가 말했다. "참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내로군!"

뇌횡이 대답했다. "이놈이 바로 영관전에서 잡은 도둑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외삼촌! 저 좀 살려주세요!"

조개가 짐짓 그를 살펴보는 체하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너 왕소삼 아니냐?"

사내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외삼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뇌횡이 조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찌 보정께서 아는 사람입니까?"

조개가 말했다. "알고 보니 내 외조카 왕소삼이라네. 이놈이 어쩌다 절에서 자고 있었던 건가? 내 누이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다네. 네댓 살 때 누나와 매형을 따라 남경에 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십수 년이 흘렀지. 그러다 이놈이 열네다섯 살쯤에 다시 한 번 들렀는데, 남경의 어떤 객상을 따라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한답시고 다녀간 뒤로는 통 소식이 끊겼다네. 그동안 이놈이 변변치 못한 놈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었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 와 있단 말인가? 나도 사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밑에 주사(朱砂)처럼 붉은 점 한 덩이가 있어서 어렴풋이 알아본 것이라네."

조개가 다시 호통을 쳤다. "소삼아, 어찌 나를 곧장 찾아오지 않고 마을에서 도둑질이나 하려 들었느냐!"

사내가 울부짖었다. "외삼촌,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개가 소리쳤다. "도둑질을 안 했다면 어째서 여기서 잡혔단 말이냐!"

그러고는 토병의 손에 들린 몽둥이를 빼앗아 사내의 머리와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뇌횡과 사람들이 말렸다. "잠시만 때리는 걸 멈추시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외삼촌, 노여움을 푸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열네 다섯 살 때 이곳에 다녀간 뒤로 어느덧 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 길을 가다 술을 한 잔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차마 외삼촌을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잠시 절에서 잠을 자고 깨면 외삼촌을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까닭도 묻지 않고 저를 잡아온 것입니다. 저는 정말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개는 몽둥이를 다시 치켜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짐승 같은 놈! 나를 바로 찾아오지는 못할망정 길바닥에서 그놈의 누런 술이나 처퍼마시고 있었더란 말이냐? 내 집에 너 먹일 것이 없더냐, 사람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뇌횡이 다시 권했다. "보정께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보정의 조카는 정말 도둑질을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덩치 큰 사내가 절에서 수상하게 자고 있기에, 낯선 얼굴이라 의심스러워 일단 이곳으로 잡아온 것뿐입니다. 만약 보정의 조카인 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토병들에게 명하여 사내를 묶은 밧줄을 빨리 풀어 보정의 조카를 놓아주게 했다. 토병들이 즉시 사내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뇌

횡이 말했다. "보정, 노여워 마십시오. 조카분인 줄 알았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정말 결례를 범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도두께서는 잠시 멈추시지요. 우선 저희 장원으로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더 나눕시다."

뇌횡이 사내를 풀어준 뒤, 조개와 함께 다시 초당 안으로 들어왔다. 조개는 은자 십 냥을 꺼내 뇌횡에게 건네며 말했다. "도두께서 액수가 적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부디 웃으며 받아 주십시오."

뇌횡이 사양하며 말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개가 다시 말했다. "만약 받지 않으신다면, 저를 무시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뇌횡이 말했다. "보정께서 이토록 후하게 마음을 써주시니, 우선은 받겠습니다. 조만간 꼭 보답하겠습니다."

조개는 사내에게 뇌횡에게 절하며 고마움을 표하게 했다. 이어 조개는 은자를 조금 더 꺼내 토병들에게 상으로 주고는 그들을 장원 밖으로 배웅했다. 뇌횡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토병들을 데리고 떠났다.

조개는 사내와 함께 뒷채로 가서 옷 몇 벌을 가져와 갈아입히고 머리에 쓸 수건까지 씌워준 뒤, 사내의 성명과 고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유요, 이름은 당이라 합니다. 조상은 동로주 사람입니다. 귀밑에 이 주사 표식이 있어 사람들은 저를 적발귀라 부르는데, 특별히 보정 형님께 부귀를 가져다드리고자 찾아왔습니

다. 어젯밤 술에 취해 절에서 잠든 것이, 뜻밖에 저놈들에게 붙잡혀 묶인 채 끌려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연이 있으면 천 리 밖에서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 보고도 못 만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형님께서는 편히 앉아 계십시오. 유당이 네 번 절하며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를 마친 조개가 물었다. "나에게 부귀를 가져다주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유당이 말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강호를 떠돌며 길 위에서 생활해 온 터라, 의로운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평소 형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는데, 뜻밖에 인연이 닿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산둥이나 하북에서 장사하는 이들 중 형님께 의탁하러 온 이들을 많이 보았기에, 저 유당도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도 없으니, 이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형님께 다 털어놓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여기는 모두 내 심복들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말해 보아라."

유당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북경 대명부의 양중서가 금과 보석, 그리고 갖가지 보물들을 십만 관이나 사들여서, 장인인 채 태사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동경(東京)으로 올려보내려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십만 관에 달하는 금주 보물을 보냈는데, 도중에 누군가에게 탈취당한 뒤로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또 십만 관의 금주 보물을 마련하여, 6월 15일 생신에 맞추어 조만간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이 한 묶음 재물은 모두 부정한 재물이니, 우리가 그것을 취한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방도를 의논해 도중에서 빼앗는다 해도, 천리(天理)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무예가 뛰어나신 참된 사내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재주는 부족하나 나름의 본사는 익혔으니, 서너 명의 장정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일이천 군마대 한복판에 들어가 창 한 자루만 들고 있다 한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 한 가지 부귀를 형님께 바치고 싶은데, 형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개가 말했다. "장하구나! 좀 더 자세히 따져보자꾸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테니, 우선 객실에 가서 좀 쉬거라. 내가 깊이 의논해 본 뒤에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조개가 장원 일꾼에게 일러 유당을 복도 끝 객실로 안내하게 했다. 일꾼이 유당을 방으로 안내한 뒤 제 할 일을 하러 물러갔다.

한편, 유당은 방 안에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조개가 잘 해결해 준 덕분에 이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아, 저 뇌횡이라는 놈이 조개 보정에게 은자 십 냥을 아무 이유 없이 가로채 가더니 나까지 밤새 괴롭히다니! 저놈이 멀리 가지 않았을 테니, 내가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쫓아가서 저놈들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은자도 되찾아 조개에게 돌려주어야겠다. 그러면 내 울화도 풀릴 테니, 참으로 좋은 생각이로다.'

유당은 곧장 방을 나와 무기 거치대에서 박도 하나를 집어 들고는, 장원 문을 나서서 남쪽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갔다. 이때 날이 이미 밝아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북두칠성 막 가로지르니, 동쪽 하늘 희뿌연 빛 도는데.
하늘 끝 새벽빛 겨우 갈라질 제, 바다 끝 잔별은 서서히 지는구나.
닭 울음 세 번에, 고운 여인 분 바르고 연지 찍으며;
말 울음 빈번하니, 길 떠나는 객들은 이름과 이익을 다투네.
몇 줄기 붉은 노을 은하수 가로지르고, 둥근 붉은 해扶桑나무 위로 솟아오르네.

'적발귀' 유당은 박도를 치켜든 채 5, 6리를 달려갔는데, 멀리서 뇌횡이 토병들을 거느리고 느릿느릿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당은 그들에게 따라붙으며 크게 외쳤다.

"이놈, 도두! 거기 서라!"

뇌횡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유당이 박도를 치켜든 채 달려오고 있었다. 뇌횡은 황급히 토병의 손에서 박도 하나를 빼앗아 쥐고는 호통을 쳤다.

"이놈, 네가 여기까지 왜 쫓아오는 것이냐?"

유당이 말했다.

"사리 분별할 줄 안다면 그 은자 십 냥을 내놓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마!"

뇌횡이 대꾸했다.

"그건 네 외삼촌이 나에게 준 것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네 외삼촌 체면을 봐주지 않았더라면 당장 네놈 목숨을 끝장냈을 텐데, 도리어 나에게 은자를 내놓으라 한단 말이냐?"

유당이 말했다.

"나는 도둑도 아닌데 너는 나를 밤새 매달아 두더니, 게다가 내 외삼촌의 은자 십 냥까지 속여 가로채 갔다. 알아서 순순히 돌려준다면 부처의 눈으로 너그러이 봐주려니와,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네놈 눈앞에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뇌횡이 크게 분노하여 유당을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가문을 욕보이고 집안을 망치는 거짓말쟁이 도둑놈, 감히 어디서 무례하게 구느냐!"

유당이 맞받아쳤다.

"백성을 속여 해치는 더러운 잡놈이 감히 나를 욕해!"

뇌횡이 다시 욕했다.

"도둑놈 머리에 도둑놈 낯짝, 도둑놈 뼈다귀까지 가졌구나! 분명 조개에게까지 누를 끼칠 놈이로다. 너 같은 도둑놈 심보, 도둑놈 간장으로는 내가 결코 너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유당이 격분하여 외쳤다.

"좋다, 어디 끝장을 보자!"

유당은 박도를 치켜든 채 뇌횡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뇌횡은 유당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허허 크게 웃으며, 손에 든 박도를 치켜들고 맞서 나갔다. 두 사람은 큰길 위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한 번씩 주고받는 기세가 마치 봉황이 몸을 뒤트는 듯하고, 한 번씩 부딪히고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매가 날개를 펼치는 듯하였다. 한 명은 정석대로 빈틈을 노려 찌르고, 다른 한 명은 노련하게 막아내며 수 싸움을 벌였다. 누구는 정자(丁) 모양으로 발을 딛고 거칠게 파고들며, 누구는 머리를 네 번 돌려가며 맹렬히 맞서 나갔다. 시로 이르되,

비록 능연각의 높은 기상에는 못 미칠지라도, 그 기세만큼은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낼 만하도다.

당시 뇌횡과 유당은 길 위에서 쉰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토병들은 뇌횡이 유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 뇌횡을 에워싸려 했다. 그때 옆쪽 울타리 문이 열리더니, 한 사내가 구리 사슬 두 개를 손에 쥐고 외쳤다.

"두 호걸께서는 그만 싸우시오! 내가 한참을 지켜보았으니, 일단 잠시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사내가 구리 사슬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자, 두 사람은 모두 박도를 거두고 싸움터 밖으로 뛰어 나와 발을 딛고 멈춰 섰다. 그 사내를 살펴보니, 마치 선비 같은 차림새였다. 이마를 덮는 통 모양의 수건을 쓰

고, 검은 테가 둘러진 삼베로 만든 넓은 저고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갈색의 넓은 띠를 매고 있었다. 아래에는 비단 신과 깨끗한 버선을 신었으며, 눈썹이 맑고 눈매가 수려한 데다 얼굴이 하얗고 수염이 길었다. 이 사람은 바로 '지다성' 오용으로, 자는 학구이며 도호는 가량선생이고 고향은 본래 그곳 사람이다. 일찍이 오용의 뛰어난 재주를 찬양하며 임강선이라는 시로 다음과 같이 읊은 바 있다.

만 권의 경전을 읽어 내려갔고, 평생의 기지는 영특하기 그지없네. 육도와 삼략을 깊이 연구하여 정통했으니, 가슴 속에는 장수를 품었고, 배 속에는 정예병을 숨겼도다. 그 책략은 제갈량을 능가할 정도요, 재능은 진평과도 견줄 만하구나. 작은 계책 하나만 펼쳐도 귀신조차 놀라니, 자는 학구라 부르고, 사람들은 '지다성'이라 일컫네.

당시 오용은 구리 사슬을 손에 든 채 유당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쪽은 잠시 멈추시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두와 다투는 것이오?"

유당이 눈을 부릅뜨고 오용을 보며 말했다.

"선비님이 상관할 바 아니오!"

그러자 뇌횡이 끼어들었다.

"선비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놈이 밤중에 영관전 사당에서 벌거숭이로 잠을 자고 있기에 우리가 잡아다가 조개의 장원으로 데려갔소. 알고 보니 조개의 외조카라기에 그 외삼촌 체면을 봐서 풀어주었지. 그런데 조개가 우리에게 술을 대접하고 선물까지 챙겨주었단 말이오. 이

놈은 외삼촌에게도 숨기고는 곧장 여기까지 달려와 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니, 이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아니겠소?"

오용은 속으로 생각했다. '조개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어떤 일이 생기면 나와 상의하곤 했다. 그의 친인척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외조카는 본 적이 없다. 게다가 나이도 맞지 않는 것이 분명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구나. 우선 이 싸움을 말려놓고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겠다.'

오용이 다시 말했다.

"사내여, 너무 고집 피우지 마시오. 그대의 외삼촌은 나와 막역한 사이이고, 이 도두와도 사이가 좋소. 외삼촌이 도두에게 사례를 좀 했다고 해서 그대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덤벼들면 외삼촌 체면만 깎이는 일이오. 내 얼굴을 봐서 일단 참으시오. 내가 직접 그대의 외삼촌과 이야기해 보겠소."

유당이 말했다.

"선비님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건 외삼촌이 자진해서 준 게 아니오! 저놈이 외삼촌의 은자를 속여서 가로챈 것이란 말이오.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뇌횡이 맞받아쳤다.

"보정이 직접 가져가라고 하면 줄지언정, 네놈에게는 절대 안 줄 것이다!"

유당이 외쳤다.

"억울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은자를 가로채 놓고 어찌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냐!"

뇌횡이 소리쳤다.

"네 돈이 아니니 안 주는 것이다, 안 줘!"

유당이 대들었다.

"안 준다고? 내 손에 든 박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용이 다시 타일렀다.

"두 분이 반나절이나 싸웠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 도대체 언제까지 싸울 셈이오?"

유당이 말했다.

"저놈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죽기 살기로 싸워 끝을 볼 뿐이오!"

뇌횡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네놈이 무서울 줄 아느냐! 토병들을 더 불러서 한꺼번에 덤벼든다 해도 호걸이라 할 수 없겠지. 내 당장 너를 쓰러뜨려 주마!"

유당도 격분하여 가슴을 치며 외쳤다.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아!"

그러고는 다시 달려들었다. 뇌횡 역시 손짓 발짓을 하며 거칠게 맞섰다. 두 사람이 다시 격렬하게 맞붙으려 하자, 중간에 끼어든 오용이 말려보았으나 도무지 소용이 없었다. 유당은 박도를 움켜쥐고 파고들 준비를 마쳤고, 뇌횡은 입으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박도를 치켜들고 싸울 기세였다. 그때 토병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보정께서 오신다!"

유당이 몸을 돌려 살펴보니, 조개가 옷을 걸쳐 입고 앞섶이 풀어진 채로 큰길을 따라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조개가 크게 꾸짖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 모습을 본 오용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보정께서 직접 오셔야만 이 소란을 말릴 수 있겠군요."

조개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해서 물었다.

"어찌하여 여기서 박도를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냐?"

뇌횡이 말했다.

"보정의 영생(令甥)께서 박도를 들고 달려와 저에게 은자를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소인이 '너에게는 돌려주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정께 돌려드릴 것이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했더니, 저놈이 소인과 쉰 합 넘게 싸웠는데 마침 교수께서 여기서 말려주셨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이 고약한 놈, 소인은 전혀 몰랐던 일이로구나. 도두께서는 소인의 얼굴을 봐서 일단 돌아가 주십시오. 조만간 제가 직접 댁으로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뇌횡도 덧붙였다.

"소인 또한 저놈이 함부로 구는 줄 알기에 저놈과 똑같이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으나, 도리어 보정께서 멀리까지 나오시게 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흩어졌으니,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갈무리한다.

한편, 오용이 조개에게 말했다.

"보정께서 직접 오시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저 조카라는 자는 보통내기가 아니라 무예가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울타리 너머로 지켜보았는데, 박도(朴刀)를 잘 쓰기로 이름난 뇌 도두조차 그저 겨우 막아내기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몇 합 더 맞붙었다면 뇌횡은 분명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히 뛰어나와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조카라는 자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평소 장원에서는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조개가 대답했다.

"안 그래도 선생님을 저희 장원으로 모셔와 의논드릴 말씀이 있어 사람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보이지 않고, 창걸이(鎗架)에 두었던 박도마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목동이 달려와 어떤 사내가 박도를 들고 남쪽으로 곧장 쫓아갔다고 알려주기에 제가 황급히 뒤따라왔더니, 다행히도 교수(教授)님께서 말려주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장원으로 함께 걸음하시어 한 마디 의논해 주십시오."

오용은 다시 서재로 돌아가 구리 사슬을 서재 안에 걸어두고는, 학당 주인에게 일렀다.

"학생들이 오거든, 선생(=나)이 오늘 일이 있어 잠시 하루 휴가를 준다고 전해 주시오."

이에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문재(文才)는 무재(武才)의 높음에 뒤지지 않으니 구리 사슬로도 박도 싸움을 능히 말리는구나. 오직 의사(義士)와 더불어 호방한 담론 나누길 즐기니 어찌 어린 학동들 곁에 멍하니 앉아 있기를 달가워하랴. 새장 속 뭇 새들을 풀어 내보내고 들판의 개구리 떼처럼 뛰놀도록 허락하노라. 본디 선생은 활동을 좋아하니 학생들은 기뻐하나 학당 주인은 애가 타는구나.

오용은 서재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조개·유당과 함께 조개의 장원으로 향했다. 조개는 곧장 그들을 후당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여 손님과 주인의 자리를 나누어 앉혔다. 오용이 물었다.

"보정,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개가 대답했다.

"강호의 호걸입니다. 성은 유(劉)요, 이름은 당(唐)이며, 동로주(東潞州)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부귀의 거리가 있다 하여 특별히 저를 찾아왔지요. 그런데 어젯밤 영관묘(靈官廟)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뇌횡에게 붙잡혀 우리 장원까지 끌려왔습니다. 제가 그를 외생(外甥, 외조카)이라 둘러댄 덕분에 겨우 몸을 빼낼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북경 대명부(大名府)의 양중서(梁中書)가 십만 관(貫)어치의 금주보패(金珠寶貝)를 거두어 동경(東京)으로 올려 보내, 장인인 채 태사(蔡太師)의 생신을 축하하려 한다 합니다. 조만간 이곳을 지나게 될 터인즉, 이런 불의(不義)의 재물을 빼앗은들 무엇이 거리끼겠습니까!'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찾아온 뜻이 마침 제 꿈과 들어맞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에 북두칠성이 저희 집 지붕 위로 곧장 떨어지더니, 그 두병(斗柄) 위에 따로 작은 별 하나가 더 있어 하얀 빛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이 본가(本家)를 비추니 어찌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교수님을 모셔와 이 일을 어찌 꾸려볼지 의논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유 형님이 그렇듯 쫓겨 달려오시는 모양새를 보고 저도 이미 일고여덟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댁에 장객(莊客)이 적지 않으나 단 한 명도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정님과 유 형님,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뿐인데, 이 일을 어찌 꾸려나가겠습니까? 보정님과 유 형님이 아무리 대단하시다 해도 이 일을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모름지기 일고여덟의 호걸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그보다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꿈에 나타난 별의 수에 응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용이 곧 말했다.

"형님의 이 꿈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북쪽 땅에서 다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려는 것 아닐까요?"

오용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눈썹을 치켜올리며 좋은 계책이 떠오른 듯 말했다.

"있다! 있어!"

조개가 말했다.

"선생께서 이미 마음 두신 호걸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곧 가서 모셔다가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오용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두 손가락을 겹쳐 보이며 이런 말을 꺼냈으니,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동계장(東溪莊)에서는 의(義)로 모인 사내들이 도리어 강도(強人)가 되고, 석갈촌(石碣村)에서는 고기잡이배가 임시로 전함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다음과 같다.

"지휘관이 땅과 하늘을 논하며 꾀를 부리니, 강과 바다를 뒤흔들 인재들을 불러모으는구나."

결국 '지다성' 오용이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5회 — 오학구가 삼완의 충돌을 말하고, 공손승이 칠성취의에 응하다

吳學究說三阮撞籌 公孫勝應七星聚義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오용이 말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기가 충천하고 무예가 출중하여, 어떤 불길 속이라도 함께 뛰어들어 생사를 같이할 만한 인물 세 명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 사람을 얻어야만 이번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조개가 물었다.

"그 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오? 성명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소?"

오용이 대답했다.

"그 세 사람은 친형제 사이로, 제주 양산박 근처의 석갈촌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양산박 근처에서 몰래

장사도 하곤 합니다. 성은 완 씨이며, 첫째는 '입지태세' 완소이, 둘째는 '단명이랑' 완소오, 셋째는 '활염라' 완소칠이라 부릅니다. 이 셋은 친형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곳에서 몇 년간 머물며 그들과 교분을 맺었습니다. 비록 글공부는 못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사귀함에 있어 의리가 참으로 깊고 대장부다운 면모가 있어 저도 그들과 왕래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이 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큰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나도 그 완 씨 삼형제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소. 석갈촌이 여기서 백 리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사람을 보내 의논하러 오라고 청하면 어떻겠소?"

오용이 말했다.

"사람을 보내 청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찌 흔쾌히 오겠습니까? 제가 직접 그곳으로 가서, 제 혓바닥 하나로 그들을 설득해 양산박에 합류하게 해야 합니다."

조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의 생각이 참으로 탁월하오! 언제쯤 출발할 수 있겠소?"

오용이 답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삼경(子時, 밤 11시~새벽 1시)에 바로 출발하면 내일 정오쯤에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게 좋겠소."

당시 조개는 장객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차려 내오게 했다. 오용이 말했다.

"북경에서 동경까지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생신강'이 어느 길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 형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북경으로 가셔서 출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느 길로 오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유당이 말했다.

"제가 오늘 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채태사의 생신은 6월 15일인데, 지금은 겨우 5월 초순이니 아직 마흔에서 쉰 날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서 완 씨 삼형제를 설득해 데려온 뒤에, 그때 유 형께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 말이 맞소. 유 형은 우선 내 장원에 머물며 기다려 주시오."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그날 그들은 한참 동안 술과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삼경(子時, 밤 11시~새벽 1시)이 되자 오용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러고는 은자 몇 냥을 챙겨 몸에 품고 짚신을 신었다. 조개와 유당이 장원 문 앞까지 배웅했고, 오용은 밤을 도와 석갈촌으로 향했다. 길을 달려 정오쯤 되자 일찍이 그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의 풍경은 이러하였다.

푸른 산봉우리들 겹겹이 짙푸르고, 초록빛 뽕나무 숲은 구름처럼 모여 있네.
사방의 흐르는 물은 외딴 마을을 감싸 안고, 성긴 대나무는 작은 길을 따라 뻗어 있네.
초가집 처마는 시냇물 곁에 있고, 고목들은 숲을 이루었구나.
울타리 밖에는 술 파는 깃발 높이 걸려 있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 낚싯배는 한가로이 매여 있네.

오용은 본래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석갈촌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완소이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이르러 살펴보니, 마른 말뚝에는 작은 어선 몇 척이 매여 있고, 성긴 울타리 밖에는 해진 그물이 널려 있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곳에 초가집 십여 채가 모여 있었다. 오용이 큰 소리로 불렀다.

"둘째 형님, 집에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생김새가 어떠하였는가?

움푹 들어간 얼굴에 두 눈썹은 곤두서고, 큰 입에 사방으로 각진 윤곽이 주먹처럼 뻗었구나.

가슴 앞에는 쓸개를 덮을 만한 누런 털이 한 줄기, 등에는 가로로 뻗은 판자 같은 갈비뼈 두 가지가 솟았네.
팔뚝에는 천백 근의 기력이 어려 있고, 두 눈에서는 수만 갈래 차가운 빛이 쏘아져 나오네.
시골의 한 어부라 말하지 말라, 바로 인간 세상의 진짜 태세성(太歲, 별호 '입지태세')이로다.

완소이가 걸어 나왔는데, 머리에는 해진 두건을 쓰고 낡은 옷 한 벌을 걸친 채 맨발이었다. 그는 나온 김에 오용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급히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오셨단 말입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작은 부탁이 있어 특별히 이 아우를 찾아왔네."

완소이가 말했다.

"무슨 일인지 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내가 이곳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네. 지금은 어느 큰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연회를 열려 하여 무게가 십사오 근이

나 나가는 커다란 금잉어 열댓 마리가 필요하다네. 그래서 특별히 자네를 찾아왔네."

완소이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일단 저와 술 세 잔부터 나누시지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내 찾아온 목적도 바로 이 아우와 술 세 잔을 나누려는 것이었네."

완소이가 말했다.

"호수 건너편에 주막이 몇 군데 있으니,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시지요."

오용이 말했다.

"그러면 좋겠네. 가는 길에 오랑(완소오)에게도 안부를 묻고 싶은데,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군."

완소이가 말했다.

"가서 찾아보면 되지요."

두 사람은 선착장으로 향했다. 말뚝에 매여 있던 작은 배 한 척을 풀어 오용을 부축하여 배에 올랐다. 나무뿌리 근처에서 노를 하나 집어

들고 오로지 노를 저어 나아갔다. 배가 멀리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갈 무렵이었다. 노를 젓던 완소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일곱째 형님, 오랑을 보셨습니까?"

오용이 바라보니 갈대숲 사이에서 배 한 척이 흔들거리며 나타났다. 그 사내의 생김새는 어떠하였는가?

울퉁불퉁한 얼굴엔 괴이한 살점이 돋아 있고,
영롱한 눈은 두 눈동자가 툭 불거져 있구나.
뺨가에는 길고 짧은 연황색 수염이 나 있고,
몸에는 검은 점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네.
마치 생철(生鐵)을 두드려 만든 것 같고,
흡사 단단한 구리를 부어 만든 듯하구나.
세상에 태어난 진짜 오도장군(五道將軍)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 부르네.

완소칠은 머리에 햇볕을 가리는 검은 대나무 모자를 쓰고, 바둑판무늬 천으로 된 조끼에 거친 무명 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배를 저으며 물었다.

"둘째 형님, 오랑을 왜 찾으십니까?"

오용이 큰 소리로 불렀다.

"칠랑, 내가 특별히 자네들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완소칠이 말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둘째 형님과 함께 가서 술이나 한잔하세."

완소칠이 말했다.

"저도 선생님과 술 한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으니까요."

두 척의 배가 호수 위를 나란히 따라가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물로 둘러싸인 곳에 다다랐다. 높은 언덕 위에는 초가집 일곱여덟 채가 모여 있었다. 완소이가 소리쳤다.

"어머니, 오랑은 집에 있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다.

"말도 마라. 물고기도 못 잡고, 연일 도박하러 다니느라 가진 돈을 다 날려 먹었단다. 방금 내 머리에 꽂은 비녀까지 가져가서 읍내로 도박하러 나갔다."

완소이가 헛웃음을 치더니 배를 저어 멀어졌다. 뒤따라오던 완소칠이 배 위에서 말했다.

"형님, 어찌 된 일인지 도박만 하면 돈을 잃으니 정말 재수가 없네요! 형님이 못 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빈털터리가 될 지경이라니까요."

오용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계책에 딱 걸려들었구나.'

두 배는 나란히 붙어 석갈촌 마을로 향했다. 반 시진쯤 노를 저어 가니 외나무다리 옆에서 한 사내가 엽전 두 꾸러미를 손에 쥐고 다가와 배를 풀어주었다. 완소이가 외쳤다.

"오랑이 왔다!"

오용이 바라보니, 그 사내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두 손은 마치 쇠몽둥이처럼 단단했고, 두 눈은 구리 방울처럼 부릅떠 있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약간 돌았으나 눈썹 사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능히 뜻밖의 횡액을 일으키고, 잘도 예사 아닌 재앙을 내리네.

주먹을 휘두르면 사자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발길질하는 곳에는 독사도 간담이 떨어지누나. 어디서 역신(行瘟使者)을 찾으랴, 바로 이 사람이 단명이랑(短命二郎)일세.

완소오는 해진 두건을 비스듬히 쓰고 관자놀이 쪽에는 석류꽃 한 송이를 꽂은 채, 낡은 베옷을 걸치고 있었다. 옷 사이로 가슴에 문신으로 새긴 푸르스름한 표범 한 마리가 훤히 드러나 보였다. 바지는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 올렸고, 허리에는 격자무늬가 있는 천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오용이 그를 보고 불렀다.

"오랑, 잘 지냈는가?"

완소오가 대답했다.

"아니, 선생님 아니십니까! 두어 년 만에 뵙는군요. 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이나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소이가 덧붙였다.

"저와 선생님께서 오랑을 찾으러 댁까지 왔는데, 어머니께서 읍내로 도박하러 갔다고 하시기에 여기까지 찾아온 참입니다. 자, 어서 선생님을 모시고 수각 주막에 가서 술이나 세 잔 합시다."

완소오는 서둘러 다리 쪽으로 가서 작은 배를 풀어낸 뒤,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가 노를 잡고 힘차게 저었다. 세 척의 배는 나란히 붙어 한참을 가니, 어느덧 수각 주막 앞에 다다랐다.

그곳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앞으로는 호수에 임하고, 뒤로는 물결의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다. 수십 그루 회나무와 버드나무는 안개처럼 푸르고, 한두 뙈기 연꽃은 붉게 물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정자 위에는 푸른 난간을 두른 창이 열리고, 수각 안에서는 바람에 붉은 발이 흔들거렸다.

악양루에서 세 번 취했다는 일을 말하지 마라, 이곳이 바로 봉래선경(蓬萊仙境)의 손님이 노니는 곳이로다.

세 척의 배는 수각 주막 아래 연꽃이 일렁이는 물가로 나아가 모두 닻을 매었다. 오용을 부축해 뭍으로 올라온 일행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수각 안에서 붉은 기름칠을 한 탁자와 의자를 한 벌 골라 자리를 잡았다.

완소이가 말했다.

"우리 삼 형제가 거칠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선생님, 어서 상석에 앉으시지요."

오용이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네."

완소칠이 거들었다.

"형님은 그저 주인 자리에 앉으시고, 선생님께서는 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 두 형제가 먼저 앉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칠랑은 참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구나."

네 사람이 자리를 잡자 점소이를 불러 술 한 통을 가져오게 했다. 점소이가 큰 술잔 네 개를 펼쳐 놓고 젓가락 네 쌍을 차린 뒤 채소 네 접시를 내왔다. 이어 술 한 통을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완소이가 물었다.

"안주로는 무엇이 있느냐?"

점소이가 대답했다.

"방금 잡은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 꽃떡처럼 마블링이 좋은 살진 고기입니다."

완소이가 말했다.

"큼직하게 열 근만 썰어 오게."

완소오가 말했다.

"선생님,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으니 비웃지 마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오히려 내가 폐를 끼쳐 자네들을 번거롭게 하는구나."

완소이가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고는 점소이에게 어서 술을 따르라고 재촉했다. 점소이가 곧 소고기를 썰어 두 접시로 차려 탁자 위에 올려놓자, 완씨 삼 형제는 오용에게 권하여 오용이 몇 점을 먹고는 더 이상 먹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 형제는 굶주린 늑대와 호랑이처럼 한바탕 먹어 치웠다.

완소오가 궁금한 듯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완소이가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느 큰 부잣집에서 가르침을 주는 학자로 계시는데, 이번에 금빛 잉어 열댓 마리를 구하려 하신다네. 무게가 열네다섯 근은 나가는 놈들로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완소칠이 말했다.

"만약 평소대로라면 서른에서 쉰 마리도 거뜬합니다. 열댓 마리는커녕 더 많이 필요하셔도 저희 형제들이 다 맡아서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열 근 나가는 놈을 구하기도 쉽지 않네요."

완소오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저희가 다섯여섯 근 나가는 놈들로 열 마리 정도는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내게 은자가 넉넉히 있으니 가격을 말해 보게. 다만 작은 놈들은 필요 없으니, 반드시 열네다섯 근은 나가는 놈들로 가져오게나."

완소칠이 말했다.

"선생님,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다섯째 형님이 말씀하신 다섯여섯 근짜리도 당장은 모으기 힘들어서 며칠은 기다려야 합니다. 대신 제 배에 작은 활어 한 통이 있으니, 우선 이것으로 술을 마십시다."

그러더니 완소칠은 배로 가서 작은 물고기 한 통을 가져왔다. 무게는 대략 다섯에서 일곱 근 정도 되었는데, 그는 직접 부엌으로 가서 물고기를 세 접시로 정성껏 요리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완소칠이 말했다.

"선생님, 우선 이것이라도 좀 드십시오."

네 사람은 다시 한바탕 음식을 먹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오용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 주막에서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겠구나. 오늘 밤은 분명 저들 집에서 잠시 묵게 될 터이니,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완소이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내일 다시 의논하시지요."

오용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까지 한 번 오기가 천신만고였는데, 다행히 자네들 형제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구먼. 보아하니 이 술자리 값은 자네들이 도무지 내게 내게 하지 않을 모양일세. 오늘 밤은 이랑(완소이)의 집에서 하룻

밤 신세를 지겠으니, 내게 은자가 좀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 주막에서 술 한 항아리를 사고, 고기도 좀 사고, 마을에서 닭 한 쌍을 구해다가 오늘 밤 다 함께 취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완소이가 말했다.

"어찌 선생님께서 돈을 쓰게 하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알아서 마련할 테니, 대접할 것이 없을까 걱정 마십시오."

오용이 말했다.

"내가 자네들 세 사람을 정식으로 청하는 것이네. 만약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만 물러가겠네."

완소칠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정 그리 말씀하신다면, 우선 그 뜻대로 마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오용이 말했다.

"역시 칠랑은 성품이 곧고 시원시원하구나!"

오용은 은자 한 냥을 꺼내 완소칠에게 건네주고는, 주인에게 술 한 항아리를 사서 큰 항아리에 담게 했다. 그리고 생고기와 익힌 소고기 스무 근과 큰 닭 한 쌍을 샀다.

완소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내 외상 술값까지 한꺼번에 같이 갚으리다."

주인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그거 참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네 사람은 주막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술과 고기를 선실 안에 실었다. 그러고는 밧줄을 풀어 배를 저어 곧장 완소이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해 뭍에 올라 배를 예전대로 말뚝에 묶어 둔 뒤, 술과 고기를 챙겨 들고 네 사람이 함께 뒤편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불을 밝히게 했다. 원래 완씨 삼 형제 중에서 완소이만 처자식이 있었고, 완소오와 완소칠은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몸이었다. 네 사람은 완소이네 집 뒤편 수각(水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완소칠은 닭을 잡고는, 형수(완소이의 아내)와 데려다 기르는 어린 종놈(小猴子)에게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도록 시켰다. 일경(一更, 약 7~9시)쯤 지나자 술과 고기가 모두 탁자 위에 차려졌다.

오용은 삼형제에게 술을 몇 잔 권한 뒤,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이곳은 이렇게 넓은데, 어찌 이만한 큰 물고기가 없는 것이냐?"

완소이가 대답했다.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큰 물고기는 양산박에나 있습니다. 저희 석갈호는 규모가 작아서 이런 대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이곳은 양산박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물길도 하나로 통하는데, 어찌 가서 좀 잡아오지 않는단 말이냐?"

완소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오용이 다시 물었다.

"둘째 형님은 어찌하여 한숨을 쉬시는가?"

완소오가 말을 받았다.

"선생님께서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양산박이 저희 형제들의 밥줄이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오용이 물었다.

"그렇게 넓은 곳에서 설마 관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까지 금지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완소오가 말했다.

"무슨 관가가 감히 물고기 잡는 걸 금합니까! 설령 염라대왕이 온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용이 다시 물었다.

"관가에서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찌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것이냐?"

완소오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내력을 모르시니, 제가 말씀드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내가 좀 들어보자꾸나."

완소칠이 말을 이었다.

"양산박이라는 곳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곳에 새로 나타난 한 무리의 강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꼴을 못 보게 합니다."

오용이 말했다.

"그건 몰랐구나. 지금 그곳에 강도들이 들끓고 있다니, 나는 이곳에서 전혀 듣지 못했다."

완소이가 말했다.

"그 강도 무리의 우두머리는 낙방한 선비로, '백의수사' 왕륜이라 불립니다. 둘째는 '모착천' 두천이고, 셋째는 '운리금강' 송만입니다. 그 밑에는 '한지홀률' 주귀라는 자가 있는데, 지금 이가도구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온갖 소식을 캐고 다닙니다만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대단한 호걸이 하나 새로 왔는데, 동경의 금군 교

두 출신으로 '표자두' 임충이라는 자입니다. 무예가 아주 출중합니다. 이 도적놈들이 오칠백 명 가까이 모여서 집집을 털고 행인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그곳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양산박을 꽉 틀어쥐고 저희 밥줄을 끊어놓았으니,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구나. 어찌하여 관가에서는 그들을 잡으러 오지 않는단 말이냐?"

완소오가 말했다.

"요즘 관가라는 곳들은 여기저기 참견만 해대며 백성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마을에 내려온다 하면, 멀쩡한 백성 집의 돼지, 양, 닭, 거위 같은 것들을 죄다 잡아먹고는, 오히려 자기들 여비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판국에 저 강도 놈들을 어찌 어쩌겠습니까! 도둑을 잡는다는 관리가 감히 마을에 내려오겠습니까? 만약 상급 관원이 사람을 내려보내 붙잡으라고 하면, 다들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기 바쁜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면으로 상대하겠습니까!"

완소이가 덧붙였다.

"비록 제가 큰 물고기는 못 잡을지언정, 관가에 바치는 각종 세금과 뒷돈은 덜어낼 수 있어 다행이지요."

오용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놈들은 아주 신이 났겠구나!"

완소오가 말했다.

"그놈들은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무섭지 않으며, 관가도 무섭지 않습니다. 은금을 무게를 달아 나누고, 온갖 비단옷을 입고 다니며, 술은 항아리째 마시고 고기는 큼직하게 뜯어먹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저희 삼 형제는 재주만 있을 뿐, 어찌 저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오용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마침 계책을 쓰기에 딱 좋구나.'

완소칠이 말했다.

"사람 인생은 한평생이고 풀은 한 철이면 시드는데, 저희는 그저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지만, 저들처럼 단 하루라도 즐겁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저런 놈들을 따라 해서 무엇하겠느냐? 저들이 하는 짓은 곤장 오륙십·칠십 대로 끝날 죄가 아닐세. 공연히 한 몸의 호위(虎威)를 다 내던지는 짓일 뿐이지. 만약 관가에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겠느냐?"

완소이가 말했다.

"요즘 관가라는 곳들은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갈팡질팡하니, 천 가지 만 가지로 하늘에 닿을 큰 죄를 지은 놈들은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잘만 삽니다! 저희 형제들이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혹시라도 저희를 거두어 이끌어 줄 사람만 있다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완소오가 말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삼 형제의 재주가 남에게 뒤처질 것도 없는데, 그저 저희를 알아봐 줄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오용이 물었다.

"설령 너희를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난다 한들, 너희가 기꺼이 가겠느냐?"

완소칠이 말했다.

"만약 저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뛰어들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호강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눈을 활짝 펴고 갈 것입니다."

오용은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세 놈 모두 마음이 움직였구나. 천천히 꾀어 보리라.'

오용은 다시 삼 형제에게 술을 두 순배 더 권하니, 그 정경이 이러하였다.

재주 있는 이가 간사한 무리에게 굽힘을 당하니,
하늘이 악한 별을 세상에 내려보냈구나.
완씨 삼 형제가 어찌하는지 지켜보아라,
생신(生辰) 축하의 의롭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가리라.

오용이 다시 말했다.

"너희 삼 형제가 감히 양산박에 올라가 저 도적 무리를 잡겠느냐?"

완소칠이 말했다.

"도적을 잡아봤자 상금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오히려 강호의 호걸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내 식견이 짧아 하는 말이다만, 만약 너희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 원통하다면 차라리 그곳에 가서 한패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완소이가 말했다.

"선생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형제들도 몇 번이나 입산할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의수사' 왕륜의 수하들 말을 들어보니, 그자가 속이 좁아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동경에서 온 임충이 산에 올랐을 때도 왕륜이 아주 진을 다 뺐다지요. 왕륜 그놈은 사람을 함부로 받아주지 않는 성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그런 형편을 듣고는 다들 마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완소칠이 덧붙였다.

"그자가 만약 이 형님처럼 의기 넘치는 사람이라면 저희 형제들도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완소오가 말했다.

"왕륜이 만약 이분처럼 대인배였다면 저희가 벌써 갔지, 오늘까지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저희 삼 형제라면 그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느냐만, 지금 산동과 하북에는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이 있느냐!"

완소이가 말했다.

"호걸들은 세상에 널렸지만, 저희 형제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운성현 동계촌의 조 보정(保正, 마을 우두머리)을 너희가 혹 아느냐?"

완소오가 말했다.

"혹시 '탁탑천왕'이라 불리는 조개 말씀이십니까?"

오용이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완소칠이 말했다.

"비록 저희와 백 리 남짓한 거리밖에 안 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 이름만 들었을 뿐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의리가 있고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대장부를 어찌 만나지 않겠느냐!"

완소이가 말했다.

"저희 형제들이 딱히 일이 없으면 그곳까지 갈 일이 없으니, 만나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내가 이 몇 해 동안 조 보정의 장원 근처에서 마을 글방이나 가르치며 지내왔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가로챌 만한 큰 부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너희와 상의하러 왔다. 우리가 길목을 가로막고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 어떻겠느냐?"

완소오가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분이 의리가 있고 재물을 아끼지 않는 좋은 분이라면, 저희가 그분의 앞길을 망치려 드는 것은 강호의 호걸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나는 너희 형제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할까 걱정했더니, 알고 보니 정말로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의리를 아끼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만약 정말로 도울 마음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주마. 나는 지금 조 보정의 장원에 머물고 있다. 보정께서 너희 삼 형제의 이름을 이미 들으시고, 특별히 나를 보내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다."

완소이가 말했다.

"저희 삼 형제는 정말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조 보정께서 분명 무언가 비범한 사사로운 거사를 품고 계셔, 저희를 끼워주실 마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특별히 이 형님을 번거롭게 해서 보내신 것이겠지요.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삼 형제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돕지 않을 시, 남은 술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악한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완소오와 완소칠도 자기 목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다.

"이 뜨거운 피는 오직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바치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너희 삼 형제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나쁜 꾀를 써서 너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니라! 지금 조정의 채태사(蔡太師)가 6월 15일 생일을 맞이한다. 그의 사위는 북경 대명부의 양중서인데, 지금 장인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십만 관에 달하는 금과 진주, 보배(金珠寶貝)를 압송하고 있다. 마침 유당이라는 호걸이 이 소식을 전해왔다. 이에 너희와 상의하여 호걸들을 몇 명 모은 뒤, 산골짜기의 한적한 곳에서 이 부귀하지만 부정한 재물을 가로채어, 다 함께 평생 즐겁게 살아보려 한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물고기를 사러 온 척하며 너희 삼 형제를 불러 이 일을 의논하려 한 것이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완소오가 그 말을 듣고는 외쳤다.

"좋소! 좋소!"

그러고는 말했다.

"칠 형님, 내가 형님께 뭐라고 했소!"

완소칠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평생의 소망을 오늘 드디어 이루게 생겼구나! 내 가려운 곳을 아주 정확히 긁어주는구나! 우리 언제 갑니까?"

오용이 말했다.

"세 분은 곧 채비를 하시오. 내일 새벽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에 일제히 조 천왕(조개) 장원으로 갑시다."

완씨 삼 형제는 크게 기뻐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글 읽는 선비라 어찌 재물을 탐하랴마는, 완씨 형제 어부 생활 또한 참으로 한가롭구나! 오직 그 부정한 금과 진주가 길에 나섰기에, 수많은 영웅호걸이 의리로 모여드네.

그날 밤을 꼬박 지내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아침밥을 먹은 뒤 완씨 삼 형제는 집에 단단히 일러두고 오용을 따라나섰다. 네 사람은 석갈촌을 떠나 발걸음을 재촉하며 동계촌을 향해 길을 잡았다. 하루를 꼬박 걸어 멀리서 조가장이 보이자, 멀리 떨어진 푸른 회화나무 아래에서 조개와 유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용이 완씨 삼 형제를 이끌고 회화나무 앞까지 가자,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했다. 조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완씨 삼 형제의 용맹함이 과연 이름값 하는구려. 우선 장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섯 사람은 모두 장원 안으로 들어와 후당에 이르러 손님과 주인으로 나뉘어 자리에 앉았다. 오용이 앞서 했던 이야기를 전하자 조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객(莊客)들에게 돼지와 양을 잡고 태울 종이(燒紙)를 마련하라고 일렀다. 완씨 삼 형제는 조개의 풍채가 늠름하고 말씨가 시원시원한 것을 보고는 세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저희는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바로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셨군요. 오늘 오 교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세 형제는 매우 기뻐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새벽, 후당 앞에는 금전과 종이 말, 향과 꽃, 등불과 초가 차려졌고, 밤새 삶아 둔 돼지와 양, 그리고 태울 종이들도 정성껏 마련되었다. 조개가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자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한 사람씩 나서서 맹세했다.

"양 중서가 북경에서 백성들을 해치고 재물을 가로채더니, 그것을 가지고 동경으로 가서 채 태사의 생신을 축하하려 한다니, 이는 참으로 옳지 못한 재물입니다. 우리 여섯 사람 중에 만약 사사로운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면, 천지가 그를 멸하고 신명이 지켜보고 벌을 내릴 것입니다."

여섯 사람 모두 맹세를 마친 뒤, 종이돈을 태워 올렸다.

여섯 명의 호걸이 후당에서 복을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장객(莊客) 한 사람이 들어와 보고했다.

"문 앞에 어떤 선생이 오셔서 보정님께 공양할 양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조개가 말했다.

"이 녀석아, 눈치가 없구나! 내가 손님들을 대접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그저 쌀 몇 되를 가져다주면 될 것을, 어찌하여 나에게 직접 와서 묻느냐!"

장객이 대답했다.

"소인이 쌀을 좀 가져다주었으나 그분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직 보정님을 뵙기를 원하십니다."

조개가 말했다.

"분명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로구나! 가서 쌀 두세 말 더 가져다주어라. 그리고 보정님께서는 오늘 장원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술을 마시는 중이라 뵐 시간이 없다고 전해라."

장객이 나가서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 말했다.

"그 선생께서 쌀 세 말을 가져다주어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일청도인'이라 칭하며, 돈이나 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보정님을 한 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조개가 말했다.

"이놈아, 네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하니 이 모양 아니냐! 정말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차라도 한 잔 나누자고 전해라."

장객이 말했다.

"소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돈이나 쌀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다. 보정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한 번 뵙고자 온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개가 버럭 화를 냈다.

"너도 참 끈질기게 구는구나, 내 걱정은 하나도 안 해주는 것이냐! 만약 그자가 또 양이 적다고 하면 서너 말 더 가져다주면 될 것을, 어찌 자꾸 나에게 와서 떠드느냐! 내가 손님들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가서 한 번 만나주면 될 것 아니냐! 가서 그자를 돌려보내고 다시는 말 꺼내지 마라!"

장객(莊客)이 물러간 지 채 반 시진도 지나지 않아, 장원 문밖이 떠들썩해지더니 또 다른 장객 한 사람이 날아갈 듯 달려와 보고했다.

"그 선생께서 화가 나셔서 장객 열댓 명을 모조리 때려눕혔습니다!"

조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형제들, 잠시만 앉아 계시오.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소."

조개가 후당에서 나와 장원 문 앞으로 가보니, 그 선생은 키가 여덟 자에 달하고 도사다운 풍채가 당당했으나 생김새는 괴이했다. 그는 지금 장원 문밖 푸른 회화나무 아래에서 장객들을 두들겨 패고 있었다. 조개가 그 선생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두 갈래로 큼직하게 묶어 올린 쌍상투(雙丫髻)를 헝클어진 듯 늘어뜨리고, 몸에는 파산(巴山) 지방의 짧은 갈포(褐布)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여러 색의 비단 띠를 두르고 등에는 소나무 무늬가 새겨진 고대의 청동검(古銅劍)을 메고 있었다. 하얀 살집이 드러난 발에는 귀가 여러 개 달린 삼베 신을 신었고, 손에는 솜 주머니에 든 자라 등껍질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었다. 눈썹은 팔(八)자 모양이요, 한 쌍

의 살구씨 모양 눈을 가졌으며, 입은 각진 모양에 턱과 뺨에는 수염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

그 선생은 한편으로는 때리면서 한편으로는 입으로 "좋은 사람을 몰라보는군"이라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개가 이를 보고 외쳤다.

"선생, 노여움을 푸시오. 당신께서 조보정을 찾아오신 것은 필시 공양을 청하고 시주를 받기 위함일 텐데, 이미 쌀까지 내어 드렸거늘 어찌 이리 화를 내십니까?"

그러자 그 선생이 하하하 크게 웃으며 말했다.

"빈도는 술과 음식, 돈이나 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오. 내 보기에 십만 관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오. 특별히 보정을 찾아온 것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인데, 저 무뢰한 시골뜨기가 무례하게 빈도를 욕하기에 그만 성이 난 것이오."

조개가 물었다.

"혹시 조보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선생이 답했다.

"이름만 들었을 뿐, 직접 만난 적은 없소."

조개가 말했다.

"소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선생이 조개를 바라보고 말했다.

"보정께서는 허물치 마시오. 빈도가 머리 숙여 인사드리오."

조개가 말했다.

"선생,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선 장원으로 드시어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그 선생이 답했다.

"고맙소."

두 사람이 장원으로 들어왔다. 오용은 그 선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유당, 완씨 삼형제와 함께 슬쩍 자리를 피했다.

한편, 조개가 그 선생을 후당으로 모셔 차를 대접하고 나자, 그 선생이 말했다.

"여기는 이야기 나누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구려. 따로 앉을 만한 다른 곳이 있겠소?"

조개는 그 말을 듣고 선생을 다시 작은 누각 안으로 안내하여 손님과 주인이 자리를 정해 앉았다. 조개가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선생의 존성은 어찌 되시며,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선생이 대답했다.

"빈도는 복성으로 공손(公孫)이라 하고, 외자로 승(勝)이라 하오. 도호는 일청 선생이라 하지요. 소도는 계주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창과 봉술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여러 가지 무예를 다 배웠소. 사람들은 흔히 저를 공손승 대랑(公孫勝大郎)이라 부른다오. 또 도술을 한 가지 익혀 바람과 비를 부르고 안개를 타고 구름을 부릴 줄도 알기에, 강호에서는 모두 빈도를 '입운룡(入雲龍)'이라 부른다오. 빈도는 운성현 동계촌 조보정의 큰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직접 뵙지 못했소. 이제 십만 관에 달하는 금과 진주, 보배를 보정께 보내드리고자 가져왔으니, 첫 인사의 예물로 삼고자 하오. 의사께서 받아주시겠소?"

조개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북쪽에서 올라오는 '생신강(生辰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공손승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보정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시오?"

조개가 말했다.

"소인이 그저 짐작해 본 것인데, 혹시 선생의 뜻에 맞지 않으십니까?"

공손승이 말했다.

"이만한 부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으면 지난 뒤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소. 조보정의 마음은 어떠하시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누각 밖에서 들이닥치더니 공손승의 가슴팍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이놈! 대낮에는 왕법이 있고 밤에는 신령이 있는 법인데, 네가 어찌 이런 못된 일을 도모하느냐! 내가 한참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린 공손승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사색이 되었다.

꾀를 다 내기도 전에, 창밖의 사람이 듣고 있구나.
계책을 막 펼쳤는데, 벌써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결국 공손승을 덮쳐 움켜쥔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6회 — 양지가 금은 짐을 호송하고, 오용이 지혜로 생신강을 탈취하다

楊志押送金銀擔 吳用智取生辰綱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공손승은 누각 안에서 조개에게 "이번 북경의 '생신강'은 의롭지 못한 재물이니, 이를 취하는 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서 급히 뛰어 들어오더니 공손승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다. "이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제 막 상의를 시작했을 뿐인데 내가 다 알아버렸단 말이다!" 그 사람은 바로 '지다성' 오용이었다. 조개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어서 들어와 앉으시지요." 두 사람이 서로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자, 오용이 말했다. "강호에서 '입운룡' 공손승 선생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이곳에서 뵙게 되는군요!" 조개가 말했다. "이분이 바로 '지다성' 오용 선생이십니다." 공손승이 말을 이었다. "저 또한 강호에서 '가량선생'의 명성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인연으로 보정장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보정의 주인이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의를 중시하니, 천하의

호걸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이겠지요." 조개가 말했다. "안에 아는 이들이 몇 더 있으니, 모두 후당 깊숙한 곳으로 모셔 들어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유당,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과 모두 인사를 나누었다. 시로 이르되,

재물이 쌓이면 재앙의 뿌리가 되고,
영웅들이 모이는 데는 기약이 없네.
한때의 호걸들이 권력을 위협하니,
하늘의 별빛이 황제의 자리를 흔드네.

사람들이 말했다. "오늘의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니, 보정 형님께서는 반드시 상석에 앉아 주십시오." 조개가 말했다. "소인이 그저 가난한 주인일 뿐인데, 어찌 감히 상석을 차지하겠습니까!" 오용이 말했다. "보정 형님은 연세도 높으시니, 제 생각에는 상석에 앉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개는 하는 수 없이 첫째 자리에 앉았고, 오용이 둘째, 공손승이 셋째, 유당이 넷째, 완소이가 다섯째, 완소오가 여섯째, 완소칠이 일곱째 자리에 앉았다. 이에 의기투합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고, 술잔과 접시를 정돈하고 안주를 새로 차려내니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흥을 돋웠다.

오용이 말했다. "보정 형님께서 북두칠성이 지붕 위로 떨어지는 꿈을 꾸셨다니, 오늘 우리 일곱 사람이 모여 거사를 도모하는 것이 어찌 하늘의 징조와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귀영화는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 형님께 그들이 어느 길로 오는지 알아보러 가시도록 부탁드리려 했는데,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시지요."

공손승이 말했다. "그 일은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빈도가 이미 알아본 바, 그들이 오는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저 황니강 큰길을 따라올 뿐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황니강 동쪽으로 십 리쯤 가면 안락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백일서' 백승이라는 한량 녀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와 의탁한 적이 있어 제가 여비를 보태준 적도 있지요."

오용이 말했다. "북두칠성의 하얀 빛이라니, 혹시 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쓰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유당이 물었다. "이곳 황니강은 거리가 꽤 먼데, 어디에 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용이 대답했다. "바로 그 백승의 집이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또한 백승을 이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개가 물었다. "오 선생, 우리는 부드럽게 취해야 합니까, 아니면 힘으로 뺏어야 합니까?"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미 함정을 짜두었으니, 그들이 오는 형편을 보고 힘으로 할지 지혜로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뜻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이러합니다."

조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발을 구르며 말했다. "정말 멋진 계책이구려! 과연 '지다성'이라 불릴 만하오! 참으로 제갈량보다 낫구려! 정말 좋은 계책이오!"

오용이 말했다.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흔히들 '담장 너머에도 귀가 있고 창밖에도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끼리만 알고 있읍시다."

조개가 이어서 말했다. "완씨 삼 형제는 이만 돌아가 보시고, 정해진 날에 다시 우리 장원으로 모이도록 하시오. 오 선생은 예전처럼 가르치러 가시고, 공손 선생과 유당은 그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오."

그날 술자리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사람들은 각자 객실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새벽 다섯 시경, 사람들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조개가 은자 서른 냥을 꺼내 완씨 삼 형제에게 건네며 말했다. "약소한 성의이니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 주시오." 하지만 완씨 삼 형제가 어찌 선뜻 받겠는가. 오용이 거들었다. "친구 사이의 정인데 어찌 막으려 하십니까." 그제야 완씨 삼 형제는 은자를 받았다. 일행이 함께 장원 밖까지 배웅을 나가자, 오용이 귓속말로 나직이 일렀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정해진 날짜를 어겨서는 안 되오." 완씨 삼 형제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석갈촌으로 돌아갔다. 조개는 공손승과 유당을 장원에 머물게 했고, 오용 학구는 자주 들러 일을 의논하였다. 시로 이르되,

제 것 아닌 것을 취하니 관리가 모두 도둑이요,
저들의 남는 것을 덜어내니 이 도둑질은 의롭도다.
계책이 이미 짜였으니 그저 편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늘,
보물 짐 들고 서둘러 가는 저들을 비웃노라.

이야기는 이와 같다. 한편, 북경 대명부의 양중서는 생신강으로 보낼 경하 선물로 십만 관을 들여 보석과 진주 등을 모두 준비한 뒤, 길을 떠날 날을 정했다. 어느 날 양중서가 후당에 앉아 있는데, 채부인이 다가와 물었다. "서방님, '생신강'은 언제 출발합니까?" 양중서가 대답했다. "선물은 모두 준비되었으니 내일이나 모레쯤 출발할 것이오. 다만 한 가지 일이 있어 망설이고 있소." 채부인이 물었다. "어떤 일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가요?" 양중서가 말했다. "작년에 금과 보석을 사느라 십만 관이나 들여 동경으로 보냈는데,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도적들에게 중간에 탈취당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올해도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보낼 물건이 있는데, 이를 무사히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이오." 그러자 채부인이 계단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늘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써서 명을 내리고 한번 보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실수가 없을 테지요."

양중서가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니, 바로 청면수 양지였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양지를 불러 대청으로 오게 한 뒤 말했다. "내가 자네를 깜빡 잊고 있었군. 자네가 나를 위해 '생신강'을 무사히 보낸다면, 내가 반드시 자네를 끌어주겠네." 양지가 두 손을 모아 깍듯이 절하며 아뢰었다. "나으리의 명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

까! 다만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언제 출발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중서가 말했다. "대명부에서 태평차(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 열 대를 준비하게 하고, 장부상으로는 상금군(도성 수비군) 열 명을 배정해 수레를 호송하게 하게. 수레마다 황색 깃발을 하나씩 꽂고 거기에는 '태사님의 생신을 경하하는 생신강'이라 적도록 하게. 또한 수레마다 군졸 한 명씩을 더 붙여서, 사흘 안에 출발해야 하네." 양지가 말했다. "소인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다른 용맹하고 치밀한 인물을 따로 보내 주십시오." 양중서가 말했다. "내가 자네를 끌어주려고 마음먹었으니, 이번 생신강을 올리는 차자(札子) 안에 따로 서신 한 통을 끼워 넣어, 태사님 앞에서 자네를 거듭 보증하여 자네가 임관 칙명(敕命)을 받고 돌아오도록 해 주겠다는데, 어찌 자꾸 딴소리를 하며 거절하려 하는가?" 양지가 말했다. "나으리, 소인도 작년에 도적들에게 탈취당해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길목에 도적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동경으로 가는 길은 수로가 아니라 육로뿐입니다. 자금산, 이룡산, 도화산, 산개산, 황니강, 백사우, 야운도, 적송림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들은 모두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혼자 가는 나그네조차 감히 홀로 지나가지 못하는 곳인데, 금은보화라는 것을 알면 어찌 약탈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목숨만 헛되이 잃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방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군관들을 더 많이 붙여서 호위하며 가게 하면 되지 않겠나." 양지가 다시 아뢰었다. "나으리께서 오백 명을 보내신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놈들은 강도가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리면 죄다 먼저 도망가 버릴 놈들입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생신강을 보내지 말라는 말인가?" 양지가 다시 아뢰었다. "소인의 말대로만 해주신다면 감히 가겠습

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내가 이미 자네에게 맡겼으니, 자네 말대로 하겠네." 양지가 말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수레를 쓰지 말고, 선물들을 열댓 개의 짐꾸러미로 만들어 그냥 손님 차림의 일반 행상처럼 꾸며야 합니다. 그리고 건장한 상금군 열 명을 뽑아 짐꾼으로 위장시켜 지게에 지우십시오. 저와 함께 갈 사람 한 명만 손님으로 변장시켜, 밤을 도와 조용히 동경으로 가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자네 말이 아주 일리가 있군. 내가 서신을 올려 자네가 임명 고명(誥命)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톡톡히 보증해 주겠네." 양지가 말했다. "나으리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날 양지는 즉시 짐을 멜 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군사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양지를 대청 앞으로 불러 대기시키자 양중서가 밖으로 나와 물었다. "양지, 언제 출발할 텐가?" 양지가 아뢰었다. "나으리께 아룁니다, 내일 아침이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곧 영장(領狀)을 받겠습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부인께서도 짐 한 꾸러미의 예물을 마련하셨는데, 태사부의 친정 가족분들(寶眷)께 따로 보내드릴 것이니, 그것도 자네가 챙겨야 하네. 자네가 길을 잘 모를까 염려되어, 특별히 부인의 유공(奶公)인 사도관과 우후(虞候, 무관 직책) 두 명을 붙여 자네와 함께 가게 할 것이네." 양지가 말했다. "나으리, 양지는 갈 수 없습니다." 양중서가 말했다. "선물은 이미 다 꾸며 놓았는데, 어찌하여 또 못 간다는 말인가?" 양지가 아뢰었다. "이 열 짐의 예물은 모두 소인의 책임에 달려 있고, 일행 모두 양지의 지휘를 따르기로 되어 있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머물든 쉬든 모두 양지의 조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 사도관과 우후들을 함께 보내신다면, 그들은 부인 휘하의 사람들이요 태사부의 유공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저와 의견이

어긋나 다투기라도 한다면, 양지가 어찌 감히 그들과 맞서겠습니까? 만약 이 일로 큰 실수가 생긴다면, 양지가 그 사이의 사정을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양중서가 말했다. "그건 쉬운 일이지. 그 세 사람에게 모두 자네의 지휘를 따르라고 일러두면 되지 않겠나." 양지가 대답했다. "만약 그렇게 분부하여 주신다면, 소인은 기꺼이 영장을 받들겠습니다. 혹여라도 실수가 생긴다면 엄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양중서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자네를 끌어주려 한 보람이 있군. 정말 식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즉시 노련한 사도관과 우후 두 명을 불러 대청에서 명령을 내렸다. "양지 제할(提轄)이 자청하여 영장(領狀)을 받들어 '생신강', 곧 열한 짐의 금은보화를 호송하여 동경 태사부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니, 이 모든 책임이 그에게 달려 있다. 너희 세 사람은 그와 동행하며, 가는 길에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움직이는 것, 머물거나 쉬는 것 모두 그의 말에 따라야 하며, 결코 그와 다투어서는 안 된다. 부인께서 맡기신 일은 너희 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되, 매사에 조심하여 일찍 다녀오도록 하여 실수가 없게 하라." 노 사도관이 일일이 모두 응답했다.

그날 양지가 명령을 받았고, 다음 날 새벽 다섯 경(오경, 오전 5시경)이 되자 양지는 관아 대청 앞에 모든 짐을 늘어놓았다. 사도관과 두 명의 우후는 보물 꾸러미 하나를 포함해 총 열한 개의 짐을 챙겼고, 건장한 상금군 열한 명을 뽑아 모두 짐꾼 차림으로 꾸몄다. 양지는 삿갓을 쓰고 푸른 비단 저고리를 입은 채, 허리띠를 매고 삼베 신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었다. 사도관도 손님 차림을 했고, 두 명의 우후는 그를 따르는 수행원처럼 꾸몄다. 일행 모두 박도를 하나씩 들고 등나무 채찍도 몇 개씩 챙겼다. 양중서는 이들에게 차

부(札付)와 서정(書呈)을 건네주었다. 일행은 배불리 먹은 뒤 대청에서 양중서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다. 군사들이 짐을 메고 길을 떠났다. 양지가 사도관, 두 명의 우후와 함께 호송하는 이 일행은 모두 열다섯 명이었다. 그들은 양중서의 저택을 떠나 북경 성문을 나서서, 큰길을 따라 동경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는 마침 5월 중순이라 날씨는 맑았으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예전에 오칠군왕이 지은 시에 여덟 구절이 있으니 이러하다.

옥병풍 사방에는 붉은 난간 둘러 있고 물고기 떼는 부평초 사이에서 노니네 여덟 자 흰 새우 수염 같은 대자리 깔고 머리 밑에는 붉은 마노 하나 괴었구나 여섯 마리 용도 더위가 무서워 감히 가지 못하고 바닷물은 끓어올라 봉래섬까지 달구는데 공자는 부채 바람이 약하다 투덜대고 길 가는 나그네는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고생하네

이 여덟 구절의 시는 한여름 무더운 달을 노래한 것이다. 정자나 물가 누각에서 오이를 물에 띄우고 자두를 물에 가라앉혀 두었다가 먹고, 얼음을 갈고 눈처럼 시원한 연근을 가다듬어 더위를 식히는 귀공자나 왕손들도 오히려 덥다고 탓하곤 한다. 하물며 이름 없는 나그네가 쥐꼬리만 한 이익을 쫓아, 칼이나 족쇄에 묶인 죄인도 아니면서 삼복더위 속에 길 위를 헤매야 하는 처지는 오죽하겠는가. 오늘 양지의 일행은 6월 15일의 생신강을 무사히 운송해야 하기에, 오직 길 위에서 고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북경을 떠난 지 닷새나 엿새가 지나자, 그들은 매일 오경(새벽 3시~5시 사이)에 일어나 이른 아침의 서늘한 기운을 틈타 길을 재촉했고, 한낮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쉬어가기를 반복했다.

닷새나 엿새가 더 지나자 민가는 점차 드물어지고 길 가는 사람도 적어졌으며, 가는 곳마다 산길이었다. 양지는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사이)에 일어나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사이)가 되면 쉬기로 했다. 열한 명의 상금군은 짐이 하나같이 무거워 가벼운 것이 없었다. 날씨가 더워지면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기에, 숲이 보이기만 하면 모두 쉬어가려 했다. 그러자 양지가 재촉하며 길을 가라고 다그쳤다. 만약 멈춰 서기라도 하면, 가볍게는 욕설을 퍼붓고 심하면 등나무 채찍으로 매질을 하며 억지로 떠밀었다. 두 명의 우후는 그저 보따리와 짐 몇 개를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으나, 그들 역시 숨이 차서 더는 걷지 못할 지경이었다. 양지가 나무랐다. "이놈들이 정말 눈치도 없구나! 이 일의 책임은 다 내게 있는데,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짐꾼들을 몰아붙이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꾸물거리며 시간을 끌다니. 이 길은 놀러 온 곳이 아니다!" 우후가 말했다. "저희가 천천히 가려는 게 아니라, 정말 더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뒤처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른 아침 서늘할 때를 틈타 잘 왔지만, 지금은 왜 하필 한창 더울 때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양지가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난번에는 길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딱 곤혹스러운 구간이라 그런 것이다. 낮 동안 서둘러 지나가지 않으면, 누가 새벽이나 밤중에 이 길을 가겠느냐?" 두 우후는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자식은 대뜸 사람을 욕하는 데만 정신이 있구나.'

양지는 박도를 챙겨 들고 등나무 채찍까지 손에 쥔 채, 직접 짐을 든 이들을 몰아붙이며 길을 재촉했다. 두 우후는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앉아 노도관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가 나타나자 일러바치듯 말했다.

"양가 놈 말입니다, 고작 우리 나으리의 밑에 있는 제할(군관 직책) 주제에 아주 대장 노릇을 하려 듭니다!" 도관이 말했다. "나으리께서 직접 그와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네. 요 이틀간 지켜보니 참을 수가 없긴 하지만, 우선은 참아보세." 두 우후가 말했다. "나으리께서 그냥 예의상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관님께서 직접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노도관이 다시 말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세."

그날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사이)가 되었을 무렵, 마침내 객점을 하나 찾아 그곳에서 쉬기로 했다. 열 명의 상금군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노도관을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운 나쁘게 군건(군사)이 되어 이런 고생을 하러 나온 건 알겠습니다만, 이 불볕더위에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다니요. 게다가 요 이틀간 서늘한 아침 시간을 이용해 다니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툭하면 등나무 채찍으로 매질을 해대니, 우리도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귀한 몸인데 어찌 이리 고생을 시킵니까!"

노도관이 말했다. "너무 원망하지 말게. 동경에 도착하면 내가 따로 상을 내리겠네."

군사들이 대꾸했다. "도관님께서 평소 저희를 대하시는 모습만 같아도 결코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룻밤이 지났다.

다음 날 날이 채 밝기도 전, 사람들이 일어나 서늘한 기운을 틈타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양지가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어디를 가느냐! 잠이나 더 자거라, 무슨 상관이냐!"

군사들이 항변했다.

"서늘할 때 가지 않으면 낮에 더울 때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매질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양지가 크게 꾸짖었다.

"이놈들이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그러고는 등나무 채찍을 들어 매질을 하려 드니, 군사들은 울화통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을 청했다. 그날은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사이)가 되어서야 겨우 불을 지펴 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양지는 가는 내내 군사들을 몰아붙이며 채찍질을 해댔고, 서늘한 곳에서 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열한 명의 상금군은 입을 달싹거리며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고, 두 우후는 노도관 앞에서 끊임없이 그를 헐뜯으며 일러바쳤다. 노도관은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와 같다. 이렇게 길을 떠난 지 열나흘이나 보름쯤 지나자, 열네 명의 일행 중 그 누구도 양지를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날도 객점에서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사이)가 되어서야 겨우 불을 지펴 아침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때는 마침 유월 초나흘 무렵이라,

정오가 되기도 전임에도 붉은 해가 하늘 한가운데를 비추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다. 옛사람이 남긴 여덟 구절의 시가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축융신이 남쪽에서 내려와 화룡을 채찍질하니, 불타는 깃발처럼 하늘이 붉게 타오르네. 정오의 태양은 멈출 줄을 모르고, 온 세상이 마치 붉은 화로 속에 있는 듯하구나. 오악의 푸른 줄기는 구름마저 사라지고, 양후의 바다 밑 시름 어린 파도도 말라버렸네. 도대체 언제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이 천하의 더위를 말끔히 쓸어 가려나.

그날 지나온 길은 모두 산세가 험하고 구불구불한 좁은 길이었다. 남쪽 산과 북쪽 고개를 넘으며 열한 명의 군사를 감시하며 걷기를 스무리 남짓 지났을 때였다. 군사들이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가고 싶어 하자, 양지가 등나무 채찍을 들고 달려와 호통을 쳤다.

"빨리 가라! 그래야 일찍 쉴 것 아니냐!"

군사들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그 더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상황은 이러했다.

뜨거운 열기 사람을 찌르고, 소란스러운 먼지 얼굴에 덮치네.
만 리 세상은 찜통 같고, 둥근 태양은 하늘에 걸린 화산 같다.
사방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마저 멎어 나무는 타며 시냇물은 갈라지니;
천 개의 산은 불길에 휩싸이고, 바위는 부서지며 돌가루가 날리네.
공중의 새들은 목숨을 다할 듯, 숲속 깊은 곳으로 쓰러져 들어가고;

물속의 물고기와 용은 비늘이 벗겨져, 진흙 구덩이 속으로 파고드네.
돌로 만든 호랑이조차 헐떡이게 하니, 쇠로 만든 사람도 수염에 땀이 흐르네.

그 무렵 양지가 일행을 재촉하며 산속 외진 길을 가는데,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라 바위들이 달궈지는 바람에 발이 아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군사들이 불평했다.

"날씨가 이토록 더운데, 이러다 햇볕에 사람 잡겠소!"

양지가 군사들에게 호통을 쳤다.

"빨리 가라! 저 앞 언덕만 넘어가면 그때 생각하겠다!"

길을 재촉하여 나아가니 저 멀리 흙 언덕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 언덕을 바라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정상에는 만 그루 푸른 나무, 뿌리 밑에는 한 무더기 황사.
우뚝 솟은 모습은 마치 늙은 용의 형상 같고, 험준함은 오직 거센 비바람 소리로만 들리네.
산기슭 띠풀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땅 위에 칼과 창이 가득한 듯하고,
널린 돌무더기는 호랑이와 표범이 두 줄로 누워 잠든 듯하구나.
서천의 촉나라 길이 험하다 말하지 마라, 이곳이 바로 태행산임을 알아야 하리.

그때 일행 열다섯 명은 언덕 위로 달려 올라가 짐을 내려놓았다. 열네 명의 군사는 모두 소나무 그늘 아래로 가서 쓰러지듯 누워 버렸다. 양지가 말했다.

"고생스럽구나!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여기서 쉬고 있는 게냐? 당장 일어나라! 어서 가야지!"

군사들이 대들었다.

"차라리 우리를 일곱 여덟 토막으로 토막 내십시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양지는 등나무 채찍을 집어 들고 머리고 얼굴이고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쪽 놈을 때려 일으키면 저쪽 놈이 다시 쓰러질 지경이었으니, 양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두 명의 우후(虞候, 군관 직책)와 노도관(老都管, 관리)도 숨을 헐떡이며 언덕 위 소나무 아래로 기어 올라와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양지가 군사들을 때리는 것을 본 노도관이 말했다.

"제할(提轄, 군관 직책)님, 정말 더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니, 저들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양지가 대답했다.

"도관님, 이곳이 바로 강도들이 출몰하는 황니강이라는 곳임을 모르십니까? 평화로운 시기에도 대낮에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곳인데, 하물며 이런 날씨에 누가 감히 이곳에 발을 멈추겠습니까!"

두 우후는 양지의 말을 듣고는 말했다.

"그 말씀을 벌써 몇 번이나 하시는 겁니까? 사람 겁주려고 작정하셨군요!"

노도관이 거들었다.

"일단 저들을 잠시 쉬게 해 주고, 정오를 좀 지나서 다시 출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지가 말했다.

"도관님도 사정을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도 칠팔 리 동안은 민가 하나 없는 곳인데,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더위를 식히겠단 말입니까!"

노도관이 말했다.

"나는 잠시 앉았다 가겠으니, 당신이 가서 저들이 먼저 가도록 재촉하시오."

양지는 등나무 채찍을 들고 호통을 쳤다.

"한 놈이라도 안 움직이면 곤장 스무 대를 치겠다!"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제할님, 저희가 짊어진 짐이 백 근이 넘는데, 맨손으로 걷는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군요! 유수상

공(留守相公)께서 친히 감독하러 오신다 해도 저희에게 한마디는 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발 좀 남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군사들은 오로지 말대꾸하기에만 바빴다. 양지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이 나를 분통 터져 죽게 만드는구나! 그냥 패버리는 게 상책이다!"

양지는 등나무 채찍을 휘둘러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러자 노도관이 외쳤다.

"양 제할님, 멈추시오! 내 말을 좀 들어 보시오. 내가 동경 태사부(太師府)에서 보양(奶公, 어린 주인을 길러 주는 남성 보살피미) 노릇을 할 때, 문하의 관군들이 수천수만 명이나 되었지만 모두 나를 보면 굽실거리며 공손히 인사를 올렸소. 내가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본디 죽음을 당했어도 모자랄 군인일 뿐인데, 상공께서 가련히 여겨 겨우 겨자씨만 한 관직인 제할로 끌어올려 주셨거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할 일이오? 내가 상공 댁 도관임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 마을의 한낱 노인이라 해도 마땅히 권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오. 그저 때리기만 하면 저들을 어찌 대하겠다는 거요?"

양지가 말했다.

"도관님은 도시에서 자라 상공 댁에서만 사셨으니, 길 위의 천신만고를 어찌 아시겠습니까."

노도관이 대꾸했다.

"나도 사천(四川)과 양광(兩廣, 광동·광서)을 다녀 봤지만, 당신처럼 으스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양지가 말했다.

"지금은 태평한 시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관이 말했다.

"그 말은 정말 입을 도려내고 혀를 잘라야 할 소리요. 요즘 천하가 그렇게나 태평하지 않단 말이오?"

양지가 다시 대꾸하려던 찰나, 맞은편 소나무 숲 사이로 어떤 그림자 하나가 머리를 쑥 내밀고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 보였다. 양지가 외쳤다.

"내가 뭐라 하더냐! 봐라, 저것이 바로 수상한 놈이 아니냐!"

양지는 등나무 채찍을 내팽개치고 박도를 챙겨 들고는 소나무 숲으로 달려 들어가 호통을 쳤다.

"이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어디라고 내 짐(行貨, 운반 중인 화물)을 엿보고 있느냐!"

시가 있어 이르기를,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을 불러들이고,
도둑 이야기를 하면 도둑을 불러들이니,

결국은 모두 한 식구이면서도,
마주 보고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양지가 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소나무 숲속에 강주거(江州車, 외바퀴 손수레) 일곱 대가 한 줄로 나란히 놓여 있고, 일곱 명의 사내들이 옷을 다 벗어던진 채 벌거숭이로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그중 관자놀이께에 큼지막한 주사빛 점이 박힌 사내 하나가 박도를 들고 양지 쪽으로 다가왔다. 일곱 명의 사내는 일제히 "아이고!" 하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양지가 호통을 쳤다.

"네놈들은 누구냐?"

일곱 명이 되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양지가 다시 물었다.

"네놈들, 혹시 수상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자 일곱 명이 말했다.

"거꾸로 물으시는구려.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장사꾼일 뿐인데, 무슨 돈이 있어 당신에게 줄 수 있겠소?"

양지가 대꾸했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장사꾼이라면, 나라고 큰 자본이 있겠느냐!"

일곱 명이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양지가 말했다.

"그보다 너희는 어디서 온 놈들이냐?"

일곱 명이 대답했다.

"우리 일곱 형제는 호주(濠州) 사람으로, 대추를 팔러 동경(東京)으로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 황니강에는 도적들이 자주 나타나 행상인을 턴다고 하기에, 길을 가면서도 '우리 일곱 사람한테는 대추밖에 없으니 별다른 재물은 없다'라고 서로 다독이며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언덕에 올라오니 더위를 견딜 수 없어, 저녁 서늘해질 때까지 이 숲에서 잠시 쉬어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언덕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혹시 도적이 아닐까 겁이 나서 이 아우를 내보내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양지가 말했다.

"그러셨군. 같은 길손이었구려. 방금 너희가 몰래 살피는 것을 보고 수상한 자들인 줄 알고 와 본 것이다."

일곱 명이 말했다.

"손님, 대추나 몇 알 잡수시고 가시오."

양지가 대답했다.

"되었네."

양지는 박도를 챙겨 들고 다시 짐을 멘 쪽으로 돌아갔다.

도관이 말했다.

"도적이 있다니, 그럼 우리는 그만 가봅시다."

양지가 말했다.

"나는 도적인 줄로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추나 파는 나그네들이었구나."

도관이 대꾸했다.

"아까 당신이 한 말대로라면, 저놈들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양지가 말했다.

"시비 걸 것 없다.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지. 너희는 좀 쉬다가 날이 좀 선선해지면 출발하거라."

군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양지도 박도를 땅에 꽂아두고는, 옆에 있는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더위를 식혔다.

밥을 반 그릇도 채 먹기 전이었다. 멀리서 한 사내가 짐통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보였다.

"이글거리는 뙤약볕은 불길처럼 뜨겁고, 들판의 곡식은 반쯤 말라 비틀어졌네. 농부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 귀한 집 자제들은 부채질하며 노니는구나."

사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언덕을 올라오더니, 소나무 숲속에 짐통을 내려놓고 땅에 앉아 더위를 식혔다. 군사들이 이를 보고 그 사내에게 물었다.

"그 통 안에 든 게 무엇인가?"

사내가 대답했다.

"백주(白酒)입니다."

군사들이 물었다.

"어디로 가져가는 길인가?"

사내가 말했다.

"마을에 가져가서 팔려고 합니다."

군사들이 다시 물었다.

"한 통에 얼마인가?"

사내가 대답했다.

"다섯 관(貫)입니다."

군사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우리가 덥고 목도 마른데, 차라리 좀 사서 마시며 더위를 식히는 게 어떻겠나?"

군사들이 한창 돈을 모으고 있을 때였다. 양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호통을 쳤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군사들이 대답했다.

"술 한 사발 사서 마시려는 겁니다."

양지가 박도 자루를 돌려 잡고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들이 내(酒家) 허락도 없이 함부로 술을 사 마시려 들다니, 간도 크구나!"

군사들이 반발하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또 왜 이리 들볶으십니까! 우리끼리 돈을 모아 술을 사 마시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사람을 때립니까!"

양지가 소리쳤다.

"이 시골 무지렁이 같은 놈들아, 네놈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저 입에 처넣을 것만 밝히는구나! 길 위의 일이 얼마나 험한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호걸이 몽한약(蒙汗藥)에 취해 쓰러졌는지 아느냐!"

그러자 술을 지고 온 사내가 양지를 보며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께서 참으로 사정을 모르시는구려! 다행히 내가 당신에게 팔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무슨 그런 김빠지는 소리를 하시오!"

소나무 숲가에서 한창 소란을 피우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맞은편 소나무 숲에서 대추를 팔던 무리가 박도를 하나씩 들고 나타나더니,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요?"라며 물었다.

그러자 술을 지고 온 사내가 말했다.

"나는 이 술을 지고 언덕 너머 마을에 팔러 가는 길인데, 날이 더워 여기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술을 사 마시겠다고 떼를 쓰면서도, 내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 저 손님이라는 자가 내 술에 몽한약이라도 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그 일곱 명의 손님이 말했다.

"우리는 그저 나쁜 놈들이 나타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런 일이었구려. 말 한마디 한들 어떠하겠소. 우리는 마침 목이 말라 술을 찾던 참이었으니, 저들이 의심한다 해도 그냥 술 한 통을 우리에게 파시오."

그러자 술을 지고 온 사내가 말했다.

"안 팝니다! 안 판다고요!"

일곱 명의 손님이 다시 말했다.

"이 무식한 놈이 참으로 앞뒤를 모르는군. 우리가 당신을 욕한 것도 아닌데 말이오. 어차피 마을에 가서 팔 거라면 우리에게도 좀 팔아주면 될 것을,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시오? 당신이 차라도 대접하는 셈 치고 팔아준다면, 우리의 갈증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소?"

술을 지고 온 사내가 대답했다.

"한 통을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저 사람들 말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술을 담을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일곱 명이 말했다.

"이 양반이 너무 까다롭구려! 말 한마디 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에게는 여기 술을 담을 바가지가 있소."

그러자 손님 중 두 명이 수레 앞으로 가서 바가지 두 개를 가져오더니, 다른 한 명은 대추를 한 움큼 집어 들었다. 일곱 명은 술통 곁에 서서 뚜껑을 열고는, 차례로 돌아가며 술을 떠 마시고 대추를 입에 넣었다. 순식간에 술 한 통이 바닥이 났다.

일곱 명의 손님이 말했다.

"그럼 술값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술을 지고 온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값을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한 통에 5관(貫), 한 짐에 10관입니다."

일곱 명의 손님이 말했다.

"좋소, 5관이라면 5관 그대로 줄 테니 우리에게 한 바가지만 덤으로 더 마시게 해 주시오."

사내가 대답했다.

"덤은 안 됩니다. 이미 정해진 가격이오."

그러자 손님 중 한 명이 돈을 건네주었고, 다른 한 명은 술통 뚜껑을 열어 술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곧장 마시기 시작했다. 사내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자, 술을 든 손님은 바가지에 술을 절반쯤 담은 채 소나무 숲 쪽을 향해 달아나 버렸고, 사내는 그 뒤를 쫓아갔다.

그때 이쪽에서는 또 다른 손님 한 명이 소나무 숲에서 바가지를 손에 들고 나오더니, 술통에 다가와 술을 한 바가지 떠냈다. 사내가 이를 보고 달려들어 잽싸게 그 바가지를 가로채더니, 술통 안에 그대로 부어 버리고는 뚜껑을 닫아 버렸다. 그러고는 바가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이 손님이라는 양반이 참으로 점잖지 못하시구려! 체면 깨나 있는 분이 어찌 이리도 시끄럽게 트집을 잡는단 말이오!"

맞은편의 군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술이 마시고 싶어 근질근질해졌다. 모두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 한 명이 노도관(老都管)을 향해 말했다.

"어르신, 저희 대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 대추 파는 손님네도 한 통을 사서 마셨으니, 저희도 그냥 이 한 통을 사서 목이나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더위에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 언덕 위에는 물 구할 곳도 없으니, 어르신께서 편의를 좀 봐 주십시오."

노도관은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는 곧장 양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대추 파는 손님들도 벌써 한 통을 사서 마셨다네. 이제 한 통밖에 남지 않았으니, 더위라도 식히게 저들에게 조금 사 마시게 해 주게. 언덕 위라 도무지 물을 구할 데도 없지 않은가."

양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멀리서 보니 저자들(대추 손님들)이 모두 저 술장수의 술을 사 마셨고, 저 술통에서도 내 눈앞에서 반 바가지를 떠 마시는 것을 보았으니 멀쩡한 술일 것이다. 저놈들을 반나절이나 매질하며 부려 왔으니, 한 그릇 사 마시게 해 줘도 되겠지.'

양지가 말했다.

"이왕 도관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놈들이 좀 사 마시게 하고 곧장 출발합시다."

군사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돈 5관을 모아 술을 사 마시려 달려들었다. 그러자 술을 파는 사내가 외쳤다.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이 술에는 몽한약(蒙汗藥)이 들어있단 말이오!"

군사들이 머쓱한 웃음을 띠며 달랬다.

"형씨, 그런 말씀까지 하실 거야 뭐 있소!"

사내가 다시 소리쳤다.

"안 판다고 했소! 더는 귀찮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대추를 팔던 손님이 나서서 권했다.

"이 빌어먹을 양반아, 저들도 농담으로 말을 잘못 한 거고 당신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구먼! 당신이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우리까지 덩달아 몇 마디 들었지 않소. 저 사람들과는 무관한 일이니, 그냥 좀 팔아서 저들도 마시게 해 주시오."

사내가 대꾸했다.

"공연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해서 뭐 하겠소?"

대추 손님은 술을 파는 사내를 옆으로 밀쳐버리고는, 군사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술통을 직접 들어다 주었다. 군사들은 술통 뚜껑을 열고는 마땅히 떠낼 도구가 없자, 조심스레 손님에게 바가지를 좀 빌려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손님들이 말했다.

"이 대추 몇 알을 안주 삼아 같이 드시오."

군사들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어찌 이러십니까, 황송합니다."

손님이 대답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다 같은 길손끼리 대추 백 알 가지고 뭘 따지겠소."

군사들은 감사를 표하며 먼저 두 바가지를 듬뿍 떠 마셨다. 그러고는 노도관에게 한 바가지를, 양 제할(楊提轄)에게 한 바가지를 권했으나, 양지는 마시려 하지 않았다. 노도관이 먼저 한 바가지를 마시고, 두 명의 우후(虞候)가 각각 한 바가지를 마셨다. 그러자 군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술을 마셔대니, 술통의 술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양지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 원래 마시려던 마음도 없었거니와 날씨가 워낙 더운 데다 목이 타는 듯 괴로워 결국 술을 집어 들어 반쯤 마시고는 대추 몇 알을 나누어 먹었다.

그러자 술을 파는 사내가 말했다.

"저 손님이 술 한 바가지를 그냥 가져갔으니 술이 좀 줄었구려. 대신 당신들에게는 반 관(貫)을 깎아 주겠소."

군사들이 얼른 돈을 모아 그에게 건넸다. 사내는 돈을 챙기고는 빈 술통을 짊어진 채, 다시 산가를 부르며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대추를 팔던 일곱 명의 손님은 소나무 옆에 서서, 열다섯 명의 일행을 가리키며 외쳤다.

"쓰러져라! 쓰러져라!"

그러자 열다섯 명의 일행은 머리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일곱 명의 손님은 소나무 숲 사이에서 강주(江州) 외바퀴 손수레 일곱 대를 밀고 나왔다. 그들은 수레 위에 실려 있던 대추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금과 보석이 든 열한 짐을 모두 수레 안에 실어 꼼꼼히 덮어 가렸다. 그러고는 "수고들 하셨소!" 한마디 외치고는 곧장 황니강 언덕 아래로 수레를 밀고 내려갔다.

시로 이르되,

피와 살을 뜯어 생일 잔치를 축하하니,
백성의 삶은 죽음과 다름없이 내팽개쳤구나.
도둑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예부터 당연한 일이며,
부정한 마음을 품었으니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법이다.

양지는 입으로 신세 한탄만 내뱉을 뿐,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열다섯 명의 일행은 저 일곱 명이

금과 보물을 몽땅 가져가는 것을 눈을 뜨고도 보고만 있을 뿐, 몸을 일으키지도, 움직이지도,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내가 여기서 묻겠는데, 이 일곱 사람이 대체 누구였겠는가? 다름 아닌 조개(晁蓋), 오용(吳用), 공손승(公孫勝), 유당(劉唐), 그리고 완씨 삼형제(三阮) — 바로 이 일곱 사람이었다. 아까 술을 메고 왔던 사내는 바로 '백일서(白日鼠)' 백승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약을 썼느냐 하면, 언덕에 짊어지고 올라올 때 두 통 모두 멀쩡한 좋은 술이었다. 일곱 사람은 먼저 한 통을 비웠다. 그러고 나서 유당이 술통 뚜껑을 열고는 바가지로 술을 반쯤 떠서 마셨는데, 일부러 상대방이 보게끔 하여 그들이 완전히 안심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 뒤 오용이 소나무 숲으로 가서 약을 꺼내 와 바가지 안에 털어 넣은 다음, 마치 술을 한 바가지 덤으로 마시러 오는 척하며 다가와 바가지로 술통의 술을 떠냈고, 그 순간 약이 술 속에 다 섞여 들어갔다. 오용이 짐짓 반 바가지를 떠서 마시려는 척하자, 백승이 그것을 잽싸게 빼앗아 술통 안에 도로 부어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그 계책이었다. 이 모든 계획은 오용이 주도한 것이니, 이를 두고 '지혜로 생신강(生辰綱)을 탈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양지는 마신 술이 적어 정신이 빨리 들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여전히 발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나머지 열네 명의 일행을 살펴보니, 다들 입가에 침을 흘린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리 귀신처럼 영악한 놈이라 해도, 발 씻은 물을 먹게 되면 끝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다.

양지가 분노와 답답함에 차서 말했다. "네놈들이 생신강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어떻게 돌아가서 양중서(梁中書)를 뵐 수 있겠는가? 이 영장(領狀, 물품 인수 증명서)을 반납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찢어버리겠다. 이제 나는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라가 있어도 의탁할 곳이 없으니,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차라리 이 언덕에서 죽을 자리나 찾는 것이 낫겠다." 그러고는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성큼성큼 걸어 황니강 아래를 향해 몸을 던지려 하였다. 바로 이를 두고 이르기를,

삼월의 비가 떨어지는 꽃을 끝장내고, 구월 가을 서리가 푸른 버드나무를 꺾어 시들게 하는구나.

결국 양지가 황니강 언덕에서 죽을 자리를 찾으려 하였으니, 그 목숨이 어찌 되었는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내리라.

제17회 — 화화상 노지심이 홀로 이룡산을 치고, 청면수가 두 번이나 보주사를 탈취하다

花和尚單打二龍山 青面獸雙奪寶珠寺

이야기는 이러하다. 양지는 황니강에서 생신강을 탈취당한 뒤, 양중서에게 돌아간들 무슨 면목으로 그를 뵙겠는가 싶어 황니강 아래로 몸을 던져 자결하려 했다. 그런데 막상 언덕 아래로 뛰어내리려던 찰나, 문득 정신이 번쩍 들며 발을 멈추었다. 양지는 생각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셔서 당당한 체격에 늠름한 기상을 갖추고, 어려서부터 열여덟 가지 무예를 다 익혔는데, 설마 이대로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지. 차라리 오늘 죽을 자리를 찾느니, 나중에 저들이 잡히게 되면 그때 가서 따져보는 게 낫겠다.'

양지가 뒤를 돌아보니, 일행 열네 명은 그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양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 일어나 몸부림조차 치지 못하고 있었다. 양지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이놈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결국 나까지 연루되지 않았느냐!"

양지는 나무뿌리 옆에서 박도를 집어 들고 요도를 허리에 찼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물건은 없었다. 양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그대로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그 일행 열네 명은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하나둘씩 기어 일어나 연발 화살이 쏟아지듯 끊임없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노도관이 말했다.

"너희가 양 제할의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나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일행이 말했다.

"나으리,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일단 대책을 의논해 보시지요."

노도관이 물었다.

"너희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단 말이냐?"

일행이 대답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부터 이르기를 '불이 몸에 붙으면 각자 가서 끄고, 벌이 품속에 들어오면 즉시 옷을 벗어 털어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양 제할이 여기 남아 있다면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겠지만, 지금

그는 스스로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 양 중서 상공을 뵙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씌우면 됩니다. '양 제할이 오는 길 내내 우리를 모욕하고 매질하여 도저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강도들과 한패가 되어 몽한약(蒙汗藥)으로 우리를 마취시킨 뒤, 손발을 묶고 금보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도관이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날이 밝는 대로 우선 이곳 관아에 가서 먼저 고발하자. 우후(虞候, 군관 직책) 두 명은 남겨 관아의 지시를 받으며 도적을 잡도록 하고, 우리 나머지 일행은 밤을 도와 즉시 북경(北京, 대명부)으로 돌아가 본관(양 중서)께 보고하자. 공문을 꾸며 태사께까지 이 사실이 전달되게 하면, 제주부에 명을 내려 이 강도 무리를 추적해 잡아낼 것이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노도관은 일행을 데리고 제주부의 담당 관리에게 가서 곧바로 고발을 마쳤다.

한편, 양지는 박도를 든 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황니강을 떠나 남쪽으로 반나절을 가고, 다시 밤새도록 길을 재촉했다. 그러다 숲속에서 잠시 쉬면서 생각에 잠겼다.

'여비는 다 떨어졌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 없으니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점점 날이 밝아오자, 양지는 서둘러 서늘한 새벽 공기를 틈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렇게 20여 리를 더 걸어가니, 마침 다음과 같았다.

푸른 얼굴에 독기를 품고 웅장함을 뽐내더니,
금구슬 열한 바구니를 거저 가져갔구나.
오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급히 가는지,
매질을 당할 처지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네.

당시 양지는 몹시 지친 상태로 걷다가 어느 주막 앞에 다다랐다. 양지가 말했다.

"술이라도 좀 마시지 않으면 이 고단함을 어떻게 견뎌낸단 말인가?"

그는 곧장 주막 안으로 들어가 상나무 탁자와 의자가 있는 자리에 앉으며, 곁에 박도를 기대어 놓았다. 그때 부엌 근처에 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 물었다.

"손님, 불을 좀 지펴 드릴까요?"

양지가 대답했다.

"우선 술 두 각(角, 200문)만 가져다주시오. 그리고 밥을 지을 쌀을 좀 빌려주고 고기도 좀 볶아 주시오. 다 먹고 잠시 뒤에 돈을 갚겠소."

그러자 여인은 우선 젊은 사내 하나를 불러와 양지 앞에 술을 거르도록 시키고, 자신은 밥을 지으며 고기를 볶아 양지에게 대접했다. 양

지는 음식을 다 먹자 박도를 챙겨 들고 주막 문을 나서려 했다. 그러자 여인이 소리쳤다.

"술값이며 고기값, 밥값까지 아직 한 푼도 안 냈잖소!"

양지가 말했다.

"돌아와서 갚을 테니, 우선 외상으로 좀 해 주시오."

그 말을 남기고 양지는 그대로 길을 떠났다.

술을 거르던 젊은 사내가 급히 달려 나와 양지를 붙잡았으나, 양지가 주먹을 휘둘러 단번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여인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러댔다. 양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가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 어디를 가느냐!"

양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사내가 상체를 드러낸 채 몽둥이를 끌며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양지가 말했다.

"재수 없게 왜 하필 나를 찾아온단 말인가!"

양지는 발을 멈추고 버티고 섰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술을 거르던 사내가 갈퀴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고, 그 뒤로 장부 서넛이 몽둥이를 하나씩 든 채 날쌔게 달려오고 있었다. 양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 하나를 해치우면 나머지는 감히 쫓아오지 못하겠지.'

양지는 손에 든 박도를 꼿꼿이 세워 그 사내와 맞섰다. 사내 역시 손에 든 몽둥이를 휘두르며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서른 합 가까이 격렬하게 맞붙었으나, 사내는 양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저 양지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며 이리저리 피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뒤따라오던 젊은 사내와 장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려 하자, 그 사내가 갑자기 원 밖으로 훌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모두 멈춰라! 거기 박도를 든 장한은, 그대의 성명부터 밝혀라!"

양지가 가슴을 탕탕 치며 말했다.

"나는 이름도 바꾸지 않고 성도 바꾸지 않는다. 바로 '청면수' 양지다!"

사내가 물었다.

"혹시 동경의 제사 양지 어른이 아니십니까?"

양지가 물었다.

"그대는 내가 양 제사라는 것을 어찌 아는가?"

사내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려놓고 정중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소인이 눈이 멀어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은 본래 개봉부 사람으로, 팔십만 금군 도교두 임충의 제자입니다. 성은 조요, 이름은 정이라 하며, 집안 대대로 백정 출신입니다. 소인이 가축을 잡는 솜씨가 좋아 고기를 뼈째 발라내고 가죽을 벗기는 일에 능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조도귀'라 부릅니다. 이곳의 어떤 부자로부터 오천 관의 돈을 받아 이곳 산동까지 손님으로 오게 되었으나, 뜻밖에 밑천을 다 잃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농가에 데릴사위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부엌에 있던 여인은 제 아내이고, 갈퀴를 들고 있는 자는 제 처남입니다. 방금 제사님과 겨루어 보니, 제사님의 수단이 제 스승님인 임 교두와 같으신 것을 보고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양지가 말했다.

"과연 그대가 임 교두의 제자였군. 그대의 스승님은 고 태위의 모함을 받아 산적 떼가 되어 양산박으로 가셨네."

조정이 말했다.

"소인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사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 잠시 쉬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양지는 조정과 함께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조정은 양지를 안쪽 자리에 앉히고, 아내와 처남을 불러 양지에게 절을 올리게 한 뒤, 술

과 음식을 정성껏 차려 대접했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조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제사님께서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양지는 자신이 제사로서 화석강을 지키지 못해 탈취당한 일과, 최근 양 중서의 '생신강'마저 잃어버린 일을 처음부터 상세히 털어놓았다. 조정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하시다면, 우선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천천히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요."

양지가 대답했다.

"그대의 호의는 참으로 고맙네만, 관가에서 추격해 올까 두려워 오래 머물 수가 없네."

조정이 다시 물었다.

"제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양지가 말했다.

"나는 양산박으로 가서 자네 스승인 임 교두를 찾아갈 생각이라네. 예전에 그곳을 지나다가 마침 산을 내려오던 그분과 마주쳐 겨루게 되었지. 왕륜이 우리 둘의 솜씨가 비슷한 것을 보고는 양쪽 모두 산채에 머물며 서로를 알게 하려 했네. 덕분에 자네 스승인 임충을 알게 되었지. 왕륜은 처음에 나를 간곡히 붙잡아 산적이 되라고 권했지만, 나는

차마 그러지 못했네. 게다가 지금은 얼굴에 '금인(죄인의 얼굴에 새기는 문신)'까지 더해진 처지라, 이제 와서 그분을 찾아가려니 참으로 기운이 빠지는구먼.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네."

조정이 말했다.

"제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왕륜이라는 자가 마음보가 좁고 편협하여 남을 잘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스승님인 임 교두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도 그자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셨다지요. 차라리 이곳에서 멀지 않은 청주 땅에 이룡산이라 불리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는 보주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산세가 참 좋아 그 절을 포근히 감싸 안고 있으며 오직 외길 하나로만 통합니다. 지금 그 절의 주지는 이미 속세로 돌아와 머리까지 길렀고, 나머지 승려들도 다 세속의 삶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은 사오백 명의 무리가 집을 털고 재물을 빼앗으며 살아간다는데, 그 우두머리를 '금안호' 등룡이라 부릅니다. 제사님께서 만약 산적이 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가서 합류하십시오. 그곳이라면 충분히 몸을 의탁하며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양지가 말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을 빼앗아 내 몸을 의탁하고 살 길을 찾는 게 어떻겠나?"

양지는 그날 밤 조정의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여비를 좀 빌리고 박도(朴刀, 날이 넓은 칼)를 챙겨 조정과 작별한 뒤,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룡산으로 향했다. 하루 동안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는데, 멀리 높은 산 하나가 보였다. 양지가 말했다.

"숲속에서 하룻밤 쉬어 가고, 내일 산에 올라가야겠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웬 덩치 크고 살집이 있는 승려 하나가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알몸으로 앉아 있었는데, 등에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소나무 뿌리 곁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그 승려는 양지를 보자마자 나무 뿌리 옆에 선장(禪杖, 승려가 짚는 지팡이)을 쥐고 벌떡 일어나며 크게 외쳤다.

"이놈, 어디서 온 놈이냐!"

시로 이르되,

보물 짐이 헛되이 텅 비어 버렸는데, 도리어 보주사(寶珠寺)에 가서 빚을 받아내려 하네.
절 안의 강도들 무리에 가담하려거든, 먼저 절 밖의 스님부터 끌어내야 하리.

양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관서 지방의 승려로구나. 고향 사람일지도 모르니 먼저 말을 걸어보자.'

양지가 소리쳐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온 승려시오?"

그러나 그 승려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손에 든 선장을 휘두르며 무작정 공격해 왔다. 양지가 말했다.

"이 대머리 놈이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내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양지는 손에 든 박도를 곧게 세우고 그 승려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숲속에서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한 번은 들이치고 한 번은 물러나며 서로 맞붙어 싸웠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두 마리 용이 보물을 다투듯 싸우고, 한 쌍의 호랑이가 먹이를 놓고 다투는 듯하구나. 선장은 호랑이 꼬리와 용의 힘줄처럼 휘둘러지고, 박도는 용의 수염과 호랑이 발톱처럼 날아다닌다. 우당탕 쾅쾅,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하며, 진운(陣雲) 사이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친다. 사납고도 당당하게,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 듯하니, 살기 속에서 금빛 광채가 번뜩인다. 두 마리 용이 보물을 다투는 기세에, 키 크고 힘세며 서릿발 같은 칼날을 잡은 주처(周處)조차 눈빛을 잃고, 한 쌍의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는 기세에, 담대하고 거칠며 눈처럼 흰 칼날을 휘두르던 변장(卞莊)조차 혼백이 달아난다. 두 마리 용이 보물을 다투며 눈을 부라리니, 그 꼬리짓에 수모(水母) 전각의 누대마저 흔들리고, 한 쌍의 호랑이가 먹이를 다투며 들짐승처럼 내달리니, 그 소리에 산신령의 머리털까지 곤두선다.

당시 양지와 그 승려는 사오십 합(40~50합)가량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때 승려가 일부러 빈틈을 보이며 땅을 박차고 원 밖으로 뛰어 나가더니, 크게 외쳤다.

"잠시 쉬자!"

두 사람 모두 싸움을 멈추었다. 양지는 속으로 감탄하며 생각했다.

'대체 어디서 온 승려길래 저리 실력이 대단하단 말인가! 수단이 정말 높구나! 내가 겨우 버티고 있을 정도라니!'

그러자 승려가 소리쳤다.

"이봐, 푸른 얼굴의 사내야! 너는 대체 누구냐?"

양지가 대답했다.

"나는 동경의 제사(制使) 양지가 바로 그 사람이다."

승려가 말했다.

"네가 동경에서 칼을 팔다가 무뢰배 우이(牛二)를 때려죽인 그놈 아니냐?"

양지가 되물었다.

"내 얼굴에 새겨진 금인(金印)을 못 보았느냐?"

승려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양지가 물었다.

"실례지만 사형께서는 뉘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찌 제가 칼을 팔던 일을 아십니까?"

승려가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안부 노종경략상공(老种經略相公) 휘하의 군관, 노 제할(魯提轄)이 바로 나다. 예전에 주먹 세 번을 휘둘러 '진관서(鎭關西)'를 때려죽인 뒤, 오대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지. 사람들이 내 등에 새겨진 꽃문신(花繡)을 보고는 나를 '화화상(花和尚)' 노지심이라 부르더구나."

양지가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같은 고향 분이셨군요! 강호에서 사형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사형께서 대상국사에서 머물고 계셨다던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노지심이 대답했다.

"말하자면 길고도 복잡하다. 내가 대상국사의 채소밭을 관리하고 있을 때, '표자두' 임충을 만났는데 고 태위가 그를 해치려 하더구나. 나는 차마 못 보고 지나칠 수 없어 그를 창주까지 직접 데려다주어 목숨을 구해 주었지. 그런데 호송하던 관리 놈 두 명이 돌아가서 고구 그놈에게 이렇게 고하는 게 아니겠느냐? '마침 야저림에서 임충을 해치려

했는데, 대상국사의 노지심이 구해버리는 바람에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이다. 그 빌어먹을 놈이 나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절의 장로에게 나를 머물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사람까지 보내 나를 잡으려 들더구나. 다행히 건달 무리들이 소식을 전해준 덕분에 그놈의 손아귀를 겨우 피할 수 있었지. 나는 채소밭의 관아 건물을 한바탕 불태워 버리고 강호로 도망쳤다. 동쪽으로 가도 갈 곳이 없고 서쪽으로 가도 갈 곳이 없더구나. 그러다 맹주 십자파를 지나는데, 하마터면 주막 여인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몽한약을 먹여 잠재워 버렸거든. 다행히 그 남편이 일찍 돌아와 내 몰골을 보고는, 내 선장과 계도를 보고 깜짝 놀라 얼른 해독제를 가져와 나를 깨워 주었다. 내 이름을 묻더니 며칠간 머물게 해주며 의형제를 맺었지. 그 부부는 강호에서 이름난 호걸들인데, 남편은 '채원자' 장청이라 부르고 아내는 '모야차' 손이낭이라 하는데 의리가 아주 대단하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알아보니, 이곳 이룡산 보주사가 몸을 의탁하기 좋겠다기에 특별히 등룡밑으로 들어가려 찾아왔다. 그런데 그놈이 나를 산에 받아주질 않는구나! 나랑 맞붙어 싸워도 내 상대가 안 되면서, 산 아래 세 곳의 관문만 꽉 틀어쥐고는 요지부동이다. 다른 길도 없으니, 아무리 욕을 해대도 내려와서 싸우지는 않아, 갈 곳 없는 내 속만 타들어 가던 차에 이렇게 형님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양지는 크게 기뻐했다. 두 사람은 숲속에서 강호의 예법대로 정중히 맞절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양지는 칼을 팔다 우이를 때려죽인 일과 '생신강'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았다. 이어 조정이 이곳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며 말했다.

"저놈이 관문을 꽉 틀어쥐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마냥 기다린들 어떻게 내려오게 하겠소? 차라리 조정의 집에 가서 상의해 봅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숲을 떠나 조정의 주막으로 향했다. 양지는 노지심을 데리고 가서 조정과 인사를 나누게 했다. 조정은 황급히 술상을 차려 대접하며 이룡산을 치는 일을 함께 상의했다.

조정이 말했다.

"만약 저놈들이 관문을 꽉 틀어쥐고 있다면, 두 분뿐만 아니라 군사 만 명을 데려온다 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지혜를 써서 빼앗아야 합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그 빌어먹을 놈이 처음 마주쳤을 때는 관문 밖에서 맞붙었지. 나를 받아주지 않기에 맞붙어 싸웠더니, 내 발길질 한 방에 그놈의 아랫배를 차서 벌렁 자빠뜨려 놓았지. 내가 그놈의 목숨을 끊으려던 찰나, 산채에 있던 놈들이 몰려와 그놈을 구해서 산 위로 올라가 버리더니 저렇게 관문을 꽉 막아버린 게야. 아무리 욕을 해대도 내려와서 싸우지는 않으니 말이다."

양지가 말했다.

"이왕 좋은 곳이라면, 우리 둘이 어떻게든 마음을 써서 쳐부수어야지요!"

노지심이 대답했다.

"제대로 된 방도 없이 무작정 올라가 봤자 저놈을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다!"

조정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두 분의 뜻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지가 말했다.

"좋은 계책이 있다면 어서 말해 보시오."

조정이 말했다.

"제사님께서는 지금 같은 차림을 하지 마시고, 이 근처 마을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스님께서 들고 계신 선장(禪杖)과 계도(戒刀)는 제가 맡아 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 처남에게 일꾼(火家=하인·머슴) 여섯 명을 딸려 산 아래까지 가게 하여, 스님을 밧줄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잡아당기면 곧 풀리는 활결(活結頭, 생매듭)로 제가 직접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산 아래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근처 마을에서 주막을 하는 집안인데, 이 스님이 우리 가게에 와서 술을 잔뜩 마시고는 돈을 내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람을 불러 당신네 산채를 치겠다고 협박을 하기에, 그놈이 취한 틈을 타서 이렇게 묶어 와 대왕님께 바치는 것입니

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도 분명 우리를 산 위로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일단 산채 안으로 들어가서 등룡과 마주쳤을 때, 활결 매듭을 잡아당겨 풀고 제가 선장을 스님께 건네드리면 됩니다. 그때 두 호걸께서 한꺼번에 달려드시면, 그놈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놈만 처단해 버리면, 그 아래 졸개들도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책이 어떻습니까?"

노지심과 양지가 동시에 외쳤다.

"훌륭하도다! 정말 훌륭해!"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젖먹이 호랑이를 용이라 불러 본들 헛된 일이건만, 이룡산은 이제 두 마리 용이 똬리 트는 것을 허락하는구나. 사람이 충의(忠義)를 만나면 정이 절로 흡족해지고, 일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면 계책은 더욱 완벽해지는 법이라.

그날 밤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먹고, 길에서 먹을 마른 양식을 좀 준비해 두었다. 이튿날 새벽 오경(五更, 새벽 3~5시경)에 일어나 모두 배불리 먹었다. 노지심의 짐 꾸러미는 모두 조정의 집에 맡겨 두었다. 그날 양지와 노지심, 조정은 처남과 대여섯에서 일고여덟 명쯤 되는 마을 농가(莊家=촌의 농민) 사람들을 데리고 이룡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정오가 지나 숲속에 이르자, 옷을 갈아입고 노지심을 잡아당기면 풀리는 활결(活結頭) 매듭의 밧줄로 묶은 뒤 농가 사람 두 명에게 밧줄 끝을 단단히 붙잡게 했다. 양지는 햇볕을 가리는 삿갓을 쓰고 낡은 베옷을 입은 채, 손에는 박도를 거꾸로 들었다. 조정은 노지심의 선장(禪

杖)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앞뒤에서 호위했다. 산 아래에 도착해 보니, 관문에는 강한 쇠뇌와 단단한 활(強弩硬弓), 그리고 석회 항아리와 투석용 돌(灰瓶炮石) 등이 두루 배치되어 있었다.

산채의 졸개들이 관문에서 묶여 오는 스님을 보자마자, 날아갈 듯이 산 위로 달려가 보고했다. 잠시 후, 두 명의 소두목이 관문으로 내려와 물었다.

"너희는 어디 사람이며, 여기까지 무엇 하러 왔느냐? 그 스님은 어디서 잡아 온 것이냐?"

조정이 대답했다.

"저희는 이 산 아래 근처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뚱뚱한 스님이 수시로 저희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곤 했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는 돈을 내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양산박에 사람들을 수천수만 명 불러다가 이 이룡산을 치고, 너희 근처 마을까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술을 더 대접해 놈을 완전히 취하게 만든 뒤, 밧줄로 꽁꽁 묶어 대왕님께 바치러 온 것입니다. 마을에 화근이 생기지 않도록 효성스럽게 대처하려는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두 소두목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말했다.

"좋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두 소두목은 곧장 산 위로 올라가 뚱뚱한 스님을 잡아 왔다고 등룡에게 보고했다. 등룡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어서 산 위로 데려오너라! 저놈의 간을 꺼내 안주로 삼아, 내 가슴 속의 원한을 풀어버리겠다!"

명령을 받은 졸개들이 관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양지와 조정은 노지심을 꽉 붙잡은 채 산 위로 끌고 올라갔다. 세 곳의 관문을 지나는데, 그 지형이 참으로 험준했다. 양쪽 산줄기가 휘감아 내려와 보주사를 포근히 감싸 안은 형세였다. 산봉우리는 웅장하게 솟아 있고, 그 사이로 오직 하나의 길만이 관문을 향해 나 있었다. 세 겹의 관문 위에는 굴러떨어뜨리는 통나무와 포석, 강력한 노와 활이 배치되어 있었고, 단단한 대나무 창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세 곳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하여 보주사 앞에 이르니, 세 채의 전각 앞은 마치 거울처럼 평탄한 땅이었고, 그 주변은 모두 나무 울타리로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사찰 앞 산문 아래에는 일곱여덟 명의 졸개가 서 있었는데, 묶여 오는 노지심을 보자 모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대머리 중놈아, 대왕님께 해를 끼쳤으니 오늘 네놈은 끝장이다! 천천히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노지심은 그저 아무 말이 없었다. 법당 앞까지 끌려가 보니, 전각 안의 불상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호랑이 가죽을 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많은 졸개가 창과 몽둥이를 든 채 양옆에 늘어서 있었다.

잠시 후, 졸개 둘이 등룡을 부축해 나와 의자에 앉혔다. 조정과 양지는 노지심을 꽉 붙잡은 채 계단 아래로 데려갔다. 등룡이 말했다.

"이 대머리 중놈아, 엊그제 나를 덮쳐서 아랫배를 다치게 하더니 아직도 멍이 가시지 않았구나. 오늘이야말로 네놈을 다시 만나는 날이다!"

노지심은 괴이한 두 눈을 부릅뜨며 크게 외쳤다.

"이 새 같은 놈아, 도망가지 마라!"

두 장객(조정이 데려온 농가 일꾼)이 밧줄 끝을 잡아채 단숨에 매듭을 풀어 노지심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노지심은 조정의 손에서 바로 선장(禪杖)을 건네받아 구름처럼 휘둘러 돌렸다. 양지는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던지고 손에 든 박도를 치켜들었다. 조정 또한 몽둥이를 휘둘렀다. 장객들이 일제히 달려들며 힘껏 앞으로 들이닥쳤다. 등룡이 급히 몸부림치려 했으나, 이미 노지심이 휘두른 선장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머리통이 두 쪽으로 쪼개지며 앉아 있던 의자까지 함께 박살이 났다. 그사이 양지는 휘하 졸개 네댓 명을 박도로 찔러 쓰러뜨렸다. 조정이 외쳤다.

"모두 항복하라!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쓸어 없애 처단하겠다!"

사찰 앞뒤에 있던 오륙백 명의 졸개와 몇몇 소두목들은 겁에 질려 멍하니 있다가, 결국 모두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곧이어 등룡 일당의 시신을 메어 뒷산으로 가져가 불태우게 했다. 한편으로는 창고를 점검하고 방들을 정리하며, 사찰 뒤편에 남은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살폈

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준비해 먹을 채비를 했다. 노지심과 양지는 산채의 주인이 되어 술을 차리고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졸개들은 모두 항복해 따랐고, 여전히 소두목을 두어 관리하게 했다.

조정은 두 호걸과 작별하고 산채 일꾼들을 거느린 채 집으로 돌아갔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시로 이르되,

오래된 절은 웅장하고 기이하여 푸른 산속에 숨어 있는데,
도적의 소굴이 되어 가짜 자비로 사람을 속이네.
하늘이 내린 힘을 가진 노지심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칼을 갈며 주지 스님 노릇을 하네.

또 양지의 일까지 아울러 읊은 시 한 수가 있으니, 이러하다:

지혜와 능력이 깊은 자(양지)가 지심(노지심)을 도우니,
녹림(綠林)의 호걸이 총림(叢林, 사찰)의 주인이 되네.
용을 항복시키고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참된 동지이니,
짐승 같은 얼굴 속에 부처의 마음 품었음을 누가 알리오.

노지심과 양지가 이룡산에 자리를 잡은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편 '생신강'을 호송하던 노도관과 몇 명의 상금군 부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북경(北京, 대명부)으로 돌아갔다. 양중서의 저택에 도착하자 곧장 대청 앞에 이르러 일제히 엎드려 죄를 빌었다.

양중서가 말했다. "길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너희들 덕분이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양 제할(楊提轄)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부하들이 아뢰었다. "말도 마십시오! 그자는 은혜도 모르는 대담한 도둑놈입니다! 이곳을 떠나 닷새 이레쯤 지나 황니강에 이르렀을 때, 날이 몹시 더워 모두 숲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양지가 일곱 명의 도적과 안팎으로 짜고서, 그자들은 대추를 파는 객상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양지가 그자들과 한 패가 되기로 약속하고는, 먼저 일곱 대의 강주(江州) 수레를 황니강 위 소나무 숲에 대놓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내를 시켜 술 한 짐을 메고 언덕 위로 올라와 내려놓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술을 사서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자가 몽한약(蒙汗藥, 사람을 잠재우는 약)을 타서 저희 모두를 쓰러뜨리고는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사이 양지와 그 일곱 도적은 '생신강'의 재보와 행장을 모조리 수레에 싣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본관(本管)인 제주부에 가서 정고(呈告)해 두고, 우후(虞候) 두 명을 그곳에 남겨 관아에서 명을 받아 도둑을 잡도록 대기시켰으며, 저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은상(恩相, 양중서)께 이 사실을 아뢰러 온 것입니다."

양중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꾸짖었다. "이 배군(配軍, 유배된 죄수병) 놈 같으니라고! 너는 죄를 지은 죄수일 뿐인데, 내가 온 힘을 다해 너를 끌어올려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 주었거늘, 어찌 이토록 인의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짓을 한단 말이냐! 만약 내가 그놈을 잡기만 한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말을 마친 양중서는 즉시 서리를 불러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람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주부로 보내 사건을 알리게 했다. 또한 집안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써서, 사람을 통해 그 밤에 바로 동경으로 보내 태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했다.

사람을 보내 제주부에 공문을 전달한 일은 차치하고, 한편 동경(東京)으로 보낸 사람이 태사부에 이르러 태사를 뵙고 서찰을 올린 일을 말하자. 채태사(蔡京)가 서찰을 읽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 도둑놈들이 참으로 간이 크구나! 지난해에는 내 사위가 보내온 예물을 강탈해 가고도 지금까지 잡지 못했는데, 올해 또 이토록 무례한 짓을 저지르니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즉시 공문 한 장을 작성·압인하여, 태사부의 부간(府幹) 한 사람에게 직접 지니고 가게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주부로 달려가 부윤(府尹, 제주부의 장관)에게 떨어뜨려, 즉시 이 도둑떼를 잡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엄히 일렀다.

한편, 제주부윤은 북경 대명부 유수사 양중서로부터 온 공문(札付)을 받은 뒤로 매일같이 사건을 논의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한창 근심과 답답함에 빠져 있을 때, 문지기가 달려와 보고했다. "동경 태사부(太師府)에서 부간(府幹, 태사부의 사무 담당관)이 지금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급한 공문을 가지고 상공을 뵙고자 합니다." 부윤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분명 '생신강' 사건 때문이로구나!" 그는 황급히 청사에 올라가 부간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는 말했다. "이 일은 하관(下官)이 이미 양부(梁府, 양중서 댁) 우후(虞候)가 올린 소장

(狀子)을 받아, 집포(緝捕)하는 자들을 보내 도적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종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유수사(留守司)에서 또 사람을 보내 공문이 이르렀고, 다시 위사(尉司)와 집포관찰(緝捕觀察)에게 명하여 기한 안에 잡지 못하면 매를 치는 조건으로 추격·체포하게 하였으나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동정(動靜)이 있으면 하관이 직접 상부(相府, 태사부)로 가서 회보하겠습니다." 그러자 부간이 말했다. "소인은 태사부의 심복입니다. 이번에 태사의 균지(鈞旨)를 받들어 특별히 이곳으로 와 이 일당을 잡으려 합니다. 떠나기 전 태사께서 친히 분부하시기를, 소인이 본부에 이르면 그저 주아(州衙) 안에 묵으면서, 상공께서 이 대추 장수 일곱 명과 술 팔던 한 사람, 그리고 도망친 군관 양지(楊志) 등 도적의 정범(正身)을 잡으시는 것을 즉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열흘 안에 잡아 준비를 마치고 사람을 보내 동경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열흘 안에 이 공무를 끝내지 못하면, 아마 먼저 상공을 청해 사문도(沙門島)로 한 번 다녀오시게 할 것입니다. 소인도 태사부로 돌아가기 어렵고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상공께서 믿기지 않으시거든, 태사부에서 보낸 균첩(鈞帖)을 보십시오."

부윤이 공문을 다 읽고는 크게 놀라 즉시 집포(緝捕)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예!" 하고 대답하며 발(簾) 앞에 서자, 태수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아뢰었다. "소인은 삼도집포사신(三都緝捕使臣) 하도(何濤)라 합니다." 태수가 말했다. "엊그제 황니강에서 강탈당한 '생신강' 사건이 네가 맡은 일이냐?" 하도가 대답했다. "상공께 아룁니다. 하도는 이 공무를 맡은 뒤로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관(本管) 휘하의 눈 밝고 손 빠른 공인(公人)

들을 황니강에 오가며 추적·체포하도록 보냈고, 여러 차례 매로 책망했음에도 지금까지 종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도가 관부(官府) 일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실로 부득이한 까닭입니다." 부윤이 호통을 쳤다. "허튼소리 마라! '위가 다급하지 않으면 아래가 게을러진다'고 하지 않더냐. 나는 진사(進士) 출신으로 이 한 군(郡)의 제후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거쳐 왔다! 그런데 오늘 동경 태사부에서 간판(幹辦)을 보내 태사의 태지(台旨)를 가지고 와 이르기를, 열흘 안에 반드시 도적들의 정범(正身)을 잡아 준비를 마치고 동경으로 압송하라 하였다. 만약 또 기한을 어긴다면 나는 파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사문도(沙門島)로 한 번 다녀오게 될 것이다. 너는 집포사신이라는 놈이 마음을 쓰지 않아 화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만들었구나! 우선 네놈을 멀리 떨어진 험악한 군주(軍州), 기러기조차 날아 닿지 못할 곳으로 첩배(迭配, 유배)하겠다!" 그러고는 즉시 자자장(文筆匠,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장인)을 불러 하도의 얼굴에 '첩배(迭配) ○○주(州)'라는 글자를 새기게 했다. 어느 주(州)인지 그 자리만 비워둔 채 그는 엄히 명령했다. "하도야, 만약 네가 도적을 잡지 못한다면 중죄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하니,

얼굴에 글자 새기는 처사가 너무도 부당하니
제 한 몸 평안 챙기느라 남에게 재앙을 입히누나
천한 (제) 얼굴에는 어찌 꾀를 부리지 않으랴
본심 또한 응당 찬찬히 헤아려 보아야 하리

한편, 하도는 태지(台旨)를 받들고 청사 앞을 내려와 사신방(使臣房)으로 가서 여러 공인(公人)들을 불러 모두 기밀방(機密房)으로 모

이게 하여 공무를 의논했다. 공인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마치 화살이 기러기 부리를 꿰뚫고 갈고리가 물고기 아가미에 걸린 듯 모두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도가 말했다. "너희들은 평소엔 모두 이 방에서 돈을 벌어 쓰더니, 이제 이렇게 다그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니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구나. 너희들도 내 얼굴에 새겨진 글자가 가엽지 않으냐?" 공인들이 말했다. "관찰(觀察)께 아룁니다. 소인들도 사람이지 초목이 아닌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번 객상(客商) 차림의 무리는 분명 다른 주(州) 외부(外府)의 깊은 산이나 광야에서 온 강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한순간에 재보를 빼앗고는 산채로 들어가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텐데 어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안다 해도 그저 멀리서 한 번 바라볼 뿐이겠지요." 하도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번민이 절반쯤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또 절반의 번민이 더해졌다. 사신방을 떠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말을 끌어다 뒷마구간(後槽)에 매어 두었다. 홀로 앉아 답답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바로 이러하니,

두 눈썹은 잔뜩 찌푸려 굳어 있고,
뱃속은 만 가마니의 근심으로 가득 찼네.
그물에서 빠져나간 물고기를 어디서 찾으며,
항아리 속 자라를 누구에게 구하려 하는가?

그때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렇게 얼굴이 흙빛이에요?"

하도가 대답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엊그제 태수께서 황니강에서 일어난 도적 놈들 때문에 나에게 공문을 내리셨어. 양중서와 장인 되시는 채 태사님의 생신을 위해 준비한 금은보화 열한 짐을 강도들이 탈취해 갔는데,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명령을 받은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잡지 못했네. 그런데 오늘 기한을 연장하러 갔더니, 뜻밖에도 태사 저택에서 부관을 보내 당장 그 도적 놈들을 잡아 동경으로 압송하라고 난리인 게 아니겠나? 태수께서 도적의 소식을 묻기에 내가 '아직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부윤께서 내 얼굴에 '유배되어…주로 감'이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버리셨다네. 갈 곳 이름만 비워두었을 뿐이지, 앞으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를 지경이야!"

아내가 말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생 하청이 형을 찾아왔다. 하도가 말했다. "네가 여긴 왜 왔느냐? 도박하러 가지 않고 어째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도의 아내는 눈치가 빨라 얼른 손짓하며 말했다. "아우님, 일단 부엌으로 들어오게나. 할 말이 있네."

하청은 곧바로 형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형수는 술과 고기, 채소를 차려 내고 술도 몇 잔 따라주며 하청을 대접했다. 하청이 형수에게 물었다. "형님이 사람을 너무 괴롭히십니다! 저도 형님의 친동생인데, 형님이 아무리 대단한 삼도집포사(三都緝捕使臣)가

되셨다 한들 저와 함께 술 한잔 나누는 게 무슨 욕이 된다고 이리 모른 척하십니까!"

형수가 대답했다. "아우님, 자네는 모르는 모양인데, 자네 형님은 지금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네!"

하청이 말했다. "형님이 매일 큰돈과 큰 물건을 만지시는데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돈과 쌀은 차고 넘치는데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십니까?"

형수가 말했다. "자네는 모르는 모양이군. 저 황니강에서 엊그제 대추 장수 일행이 채 태사님을 축하하기 위해 양중서가 준비한 '생신강'을 탈취해 갔네. 이제 제주부윤께서 태사님의 엄명을 받들어, 열흘 안에 반드시 도적 놈들을 잡아 동경으로 압송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 만약 그때까지 도적을 잡지 못하면, 멀리 악명 높은 군현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고 하네. 자네 형님 얼굴에 부윤께서 '유배되어...주로 감'이라는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버린 걸 못 보았나? 아직 갈 곳 이름만 비워두었을 뿐이지, 조만간 도적을 못 잡으면 정말 큰 고생을 하게 될 걸세! 그런 형님이 어찌 마음 편히 자네와 술을 마시겠나? 그래서 내가 겨우 술과 음식을 차려 내온 것이니, 형님이 답답해하는 것을 자네가 나무라지 말게나."

하청이 말했다. "저도 사람들이 '도적들이 생신강을 탈취해 갔다'고 쑥덕대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대체 그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형수가 대답했다. "황니강이라고만 들었네." 하청이 다시 물었다. "대체 어떤 자들이 탈취한 것입니까?" 형수가 말했다. "아

우님, 술에 취한 것도 아니면서 방금 말하지 않았나. 일곱 명의 대추 장수 일행이 탈취해 갔다고 말일세." 하청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런 일이었군요. 대추 장수 일행이라는 걸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 답답해하십니까? 어찌 영민한 사람을 보내 잡지 않으십니까?" 형수가 말했다. "자네 말이야 쉽게 하지. 도무지 잡을 길이 없으니 문제 아닌가." 하청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도리어 형수님께서 걱정하시는군요. 형님께서는 평소 자주 어울리던 술과 고기 좋아하는 형제들은 챙기시면서, 정작 친동생인 저와는 평소에 눈길도 안 주시더니, 오늘 이렇게 일이 생기니 잡을 길이 없다 하십니까? 만약 동생인 저에게 알려 몇 관(貫)의 돈이라도 벌게 해 주신다면, 이런 좀도둑 무리쯤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형수가 말했다. "아우님, 혹시 무슨 단서라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청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동생이 와서 살릴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하청이 일어나 가려 하자, 형수가 술 두 잔을 더 권하며 그를 붙잡았다.

그 부인이 그 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황급히 남편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하도는 곧장 동생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였다. 하도가 웃는 낯으로 말했다. "아우님, 자네가 이 도적의 행방을 안다면 어찌 나를 구해주지 않는가?" 하청이 말했다. "제가 무슨 내력을 알겠습니까? 그저 형수님과 농담이나 했을 뿐입니다. 동생이 어찌 형님을 구하겠습니까?" 하도가 말했다. "좋은 아우야, 사람을 형편 따라 가리지 말고, 그저 내가 평소에 잘해 준 것만 생각하고 한가할 때 못 해 준 것은 잊어주게. 이 목숨 하나 살려주게!" 하청이 말했다. "형님, 형님 휘하에는 눈 밝고 손 빠른 공인들이 이삼백 명이나 있는데, 어찌 그들에게 형님을 위해 큰 힘을 내게 하지 않으십니까? 저 동생 하나가 어떻

게 형님을 구하겠습니까!" 하도가 말했다. "아우님, 그자들 얘기는 그만하게. 자네 말투에 무언가 단서가 있는 듯하니, 그 (정보를) 남에게 넘겨 남이 호한(好漢) 노릇 하게 하지 말고, 우선 그놈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 주게.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답하겠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나!" 하청이 말했다. "행방이라니요, 동생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도가 말했다. "나를 약 올리지 말게.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의 정을 봐서라도 말해주게." 하청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정말 다급한 지경에 이르거든 동생이 직접 와서 힘을 써 이 좀도둑 무리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형수가 거들었다. "아우님, 그저 형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형제간의 정이 아닌가. 지금 태사부에서 균첩(鈞帖)을 내려보내 당장 이 일당을 잡으라 하니, 하늘만 한 큰 일인데 자네는 어찌 그저 좀도둑이라 하는가!" 하청이 말했다. "형수님, 아시겠지만 제가 도박 때문에 형님께 야단을 적잖이 들었어도, 때리고 욕하실 때조차 형님과 다툰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 술과 음식이 있을 땐 다른 사람들하고만 즐기시더니, 오늘은 동생인 저도 쓸 데가 있군요."

하도는 동생의 말에 무언가 내력이 있음을 보고 황급히 은(銀) 열 냥짜리 한 덩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아우님, 우선 이 은정(銀錠)을 받아두게. 나중에 도적을 잡으면 금은과 단필(緞匹) 등의 상사(賞賜)는 내가 한 손에 다 떠맡겠네." 하청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야말로 '급할 때만 부처님 발을 붙들고, 한가할 때는 향 한 자루 사르지 않는' 격이군요. 제가 만약 형님의 은을 받는다면, 그것은 동생이 형님을 협박해 갈취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 그 은은 도로 거두어 두시고, 그걸로 저를 옭아매려 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정 그러시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 부부께서 제게 좋은 말로 부탁하시니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이지, 은을 꺼내 저를 위협하지는 마십시오." 하도가 말했다. "은량(銀兩)이야 관청에서 신상(信賞)으로 내리는 것이니, 어찌 삼사백, 오백 관(貫) 정도가 없겠나? 아우님, 제발 사양 말게. 다시 묻겠네. 그 도적 일당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단서라도 있는가?" 하청이 자기 허벅지를 탁 치며 말했다. "그 도적놈들, 제가 이미 이 편대(便袋, 작은 주머니) 안에 다 잡아 두었습니다." 하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우야, 그 도적들이 어찌 네 편대 안에 있다는 말이냐?" 하청이 말했다. "형님, 제 말은 따지지 마십시오. 모두 여기(=제 머릿속)에 다 있을 뿐입니다. 형님께서는 그 은을 도로 거두시고, 그걸로 저를 옭아매려 하지 마시고, 그저 평소의 인정(人情)만 지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형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청은 서두르지 않고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그들의 정체를 일러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운성현에서는 의로운 영웅이 나타나고, 양산박에는 하늘을 떠받칠 호걸들이 모여들었다. 결국 하청이 하도에게 말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8회 — 미염공이 날개 달린 호랑이를 지혜로 제압하고, 송공명이 몰래 조천왕을 놓아주다

美髯公智穩插翅虎 宋公明私放晁天王

당시 하관찰(하도)이 동생 하청에게 말했다. "이 은덩이는 관청에서 상으로 내리는 것이니 내가 너를 속여서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뒤에 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아우야, 그놈들이 어찌하여 네 주머니 속에 적혀 있는지 말해 보아라."

그러자 하청이 품 안의 초문대(招文袋, 문서 주머니)에서 작은 절본(摺本) 책자 하나를 꺼내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도둑놈들이 모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도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거기에 적게 되었는지 말해 보아라."

하청이 대답했다. "형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어 노자 한 푼 없었습니다. 마침 같이 도박하

던 자가 저를 북문 밖 십오 리 떨어진 안락촌의 왕가 객점으로 데려가 자잘한 도박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이 마을에서 객점을 여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위에 감합인신(勘合印信, 대조용 관인)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객상이 와서 묵으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명은 무엇인지, 무슨 장사를 하는지'를 일일이 물어 장부에 적고, 관청에서 점검할 때를 위해 매달 한 번씩 이정(里正)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점원(小二哥)이 글을 몰라 보름 동안 저에게 대신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이 6월 3일이었는데, 대추 장사꾼 일곱 명이 강주거(江州車, 외바퀴 수레) 일곱 대를 끌고 와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우두머리격인 손님 한 명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운성현 동계촌의 조보정(晁保正, 조개)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하면, 예전에 어떤 도박꾼을 따라 그를 찾아간 적이 있어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부에 적으며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 갈래 수염에 희고 깨끗한 얼굴의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하더군요. '우리 성은 이씨요, 호주(濠州)에서 와서 대추를 가지고 동경(東京)에 팔러 가는 길이오.'라고 말입니다. 적기는 적었지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점주가 저를 데리고 마을로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한 사내가 통 두 개를 메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그를 부르며 '백 대랑, 어디 가시오?' 하자, 그 사내가 '식초 한 짐을 메고 마

을 부잣집에 팔러 가는 길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주가 저에게 '이 사람은 백일서(白日鼠) 백승이라 하는데, 도박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저 속으로만 새겨두었지요.

그 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황니강에서 대추 장사꾼 무리가 몽한약(蒙汗藥)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생신강(生辰綱)」을 강탈해 갔다'고요. 그것이 조보정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습니까! 이제 백승만 잡았으니 한 번 심문해 보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본 책자가 바로 제가 적었던 사본입니다."

하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동생 하청을 데리고 제주부 관아로 가서 태수를 알현했다. 태수가 물었다. “그 공무에 대해 좀 알아낸 것이 있느냐?”

하도가 대답했다. “대략 소식이 좀 있습니다.”

태수는 그들을 후당(後堂, 안채)으로 불러 들여 내막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자 하청이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상세히 보고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관원 여덟 명을 차출하여 하도, 하청과 함께 밤을 도와 안락촌으로 향했다. 객점 주인을 길잡이로 삼아 곧장 백승의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마침 삼경(三更) 무렵이었다. 주인장을 시켜 (백승을 속여) 문을 열게 하고 불을 켜게 하니, 백승이 침상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승의 아내에게 물으니 열병이 나서 땀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백승을 침상에서 끌어내려 보니 얼굴색이 붉었다 희었다 하기에, 즉시 포승줄로 묶으며 꾸짖었다. "황니강에서 큰일을 잘도 저질렀구나!"

그러나 백승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아내를 묶고 추궁해도 역시 자백하지 않았다. 관원들이 집 안을 돌며 장물을 찾다가 침상 밑에 이르러 땅바닥이 고르지 않은 것을 보고는 파헤쳐 보니, 삼 척이 채 못 되는 깊이였다. 관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백승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고, 사람들은 땅속에서 금은 한 꾸러미를 꺼내었다. 곧이어 백승의 머리와 얼굴을 (보자기로) 싸매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아내를 끌고 장물을 짊어진 채 모두 밤을 도와 제주성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오경(五更) 날 밝을 무렵, 백승을 관아 청전(廳前)으로 압송하여 포승줄로 단단히 묶었다. 사건의 주모자와 음모를 캐물었으나 백승은 잡아떼며 조보정 등 일곱 명의 일을 죽어도 자백하려 하지 않았다. 서너 차례 연달아 매질하니 살이 터지고 선혈이 솟구쳤다. 그러자 부윤이 호통을 쳤다. "고발당한 주범(=너)이 장물까지 다 드러났고, 잡아야 할 자가 운성현 동계촌의 조보정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네 이놈이 어찌 발뺌하려 드느냐! 어서 나머지 여섯 명이 누구인지 말하면 더는 때리지 않겠다."

백승은 한참을 더 버텼으나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자백했다. "우두머리는 조보정입니다. 그가 직접 여섯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백승을 끌어들여 함께 술을 메게 했을 뿐, 사실 그 여섯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부윤이 말했다. "그건 어렵지 않다. 조보정만 잡으면 나머지 여섯 명의 행방도 드러날 것이다."

그러고는 먼저 이십 근짜리 사가(死枷, 사형수에게 씌우는 무거운 칼) 하나를 백승에게 씌우고, 그 아내도 쇠사슬로 묶어 여자 감옥에 가두었다.

즉시 공문 한 장을 발부하여 하도에게 직접 눈썰미 좋고 손이 빠른 관원 스무 명을 거느리고 운성현으로 가게 했다. 운성현 관아에 공문을 내려 본현의 소관으로 삼아, 조보정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섯 명의 정범(正賊)을 즉시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원래 「생신강」을 호송하던 우후(虞候, 송대 하급 무관) 두 명을 데려가 (얼굴을 식별하는) 증인으로 삼아 사람을 잡게 했다. 하관찰은 이 일행을 거느리고 떠나면서, 소문이 새어 나가 (범인이) 도망칠까 염려되어 일을 크게 떠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운성현에 도착했다. 먼저 일행인 관원들과 두 명의 우후를 객점에 숨겨 두고, 한두 명만 데리고 공문을 접수하러 곧장 운성현 관아 앞으로 향했다. 마침 사패(巳牌) 무렵으로, 지현이 조아(早衙, 아침 정사)를 끝낸 뒤라 관아 앞은 고요했다. 하도는 관아 맞은편에 있는 찻집으로 가서 앉아 차를 마시며 때를 기다렸다.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차박사(茶博士, 찻집 점원)에게 물었다. "오늘따라 관아 앞이 어찌 이리 조용하오?"

차박사가 대답했다. "지현 상공께서 조아를 막 마치신 터라, 관원들이나 고소하러 온 사람들도 모두 밥을 먹으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도가 다시 물었다. "오늘 관아에서 당직(直日)을 서는 압사는 누구요?"

차박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당직인 압사가 마침 저기 오고 있습니다."

하도가 살펴보니 관아에서 한 아전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했느냐 하면, 다음과 같았다.

눈은 단봉(丹鳳, 붉은 봉황)처럼 길쭉하고 눈썹은 누에가 누워 있는 듯했다. 귓불에는 구슬을 매단 듯 윤기가 흘렀고, 두 눈은 칠을 한 듯 검고 형형하게 빛났다. 입술은 각이 져 반듯하고 입매 또한 정갈했으며, 수염은 뺨 위로 가볍고 산뜻하게 돋아 있었다. 이마는 넓고 정수리는 평평했으며, 피부와 살집은 천창(天倉, 복을 담는 창고)이 가득 찬 듯 풍만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호랑이 같은 기상이 서려 있었고, 움직일 때는 마치 늑대 같은 형세였다. 나이는 서른 즈음이었으나 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도량이 있었고, 키는 여섯 자에 달하며 온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기개는 드높고 품성은 수려하여, 그 필력과 기세는 소상국(蕭相國)을 압도할 만했고, 그 명성은 맹상군(孟嘗君)에 뒤지지 않았다.

그 압사의 성은 송, 이름은 강, 자는 공명이라 한다. 항렬로는 셋째이며, 조상은 운성현 송가촌 사람이다. 얼굴이 검고 몸집이 작아 사람들은 그를 '흑송강'이라 불렀다. 또한 집에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고 의리를 지키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사람들은 모두 그를 '효의흑

삼랑'이라 칭송했다. 위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아래로는 '철선자'라 불리는 동생 송청이 있어 아버지 송태공과 함께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답을 돌보고 살았다.

이 송강은 운성현에서 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문서 다루는 일에 정통하고 아전의 업무에도 능숙했으며, 더불어 창과 봉을 익히는 데 힘써 여러 무예를 두루 섭렵했다. 평소 강호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여, 지위가 높든 낮든 그를 찾아와 의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들을 장원의 객사에 머물게 하며 온종일 정성껏 대접해도 전혀 싫증을 내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하면 가진 것을 다 털어 힘껏 도와주니, 그 재물을 쓰는 기세가 마치 흙을 뿌리는 듯했다. 사람들이 돈이나 물건을 구하러 와도 결코 거절하지 않았으며,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아하여 매번 곤란한 일을 풀어주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제하곤 했다. 또한 수시로 관을 짜거나 약을 나누어 주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급한 이에게는 도움을 주며 궁핍한 이에게는 힘을 보태주었다. 이로 인해 산동과 하북 땅에서 이름이 드높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급시우'라 불렀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만물을 구할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송강의 훌륭한 면모를 찬양하는 〈임강선〉 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꽃 마을의 서기로 일어난 이여,
영혼은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네.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의로움을 베풀었으니,

부모님께 효도하며 정성을 다했고
선비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드높았네.

약한 이를 돕고 기우는 이를 붙드는 마음은 강개하고,
드높은 명성은 물에 비친 달처럼 두루 맑구나.
때맞춰 내리는 단비라 사방에서 칭송하니,
산동에서는 호보의(呼保義)라 부르고,
호걸 송공명(宋公明)이라 일컫네.

그때 송강이 시종(伴當) 한 명을 데리고 현청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하관찰이 길에서 그를 맞이하며 외쳤다. "압사님, 여기 잠시 앉아 차 한잔하시지요."

송강은 그가 관원 차림을 한 것을 보고 황급히 답례하며 물었다. "존형(尊兄)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도가 말했다. "우선 압사님을 찻집 안으로 모시고 차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지요."

송공명이 "삼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두 사람이 찻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자, 시종은 문 앞에 나가 기다리게 했다.

송강이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존형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도가 대답했다. "소인이 바로 제주부의 집포사신(緝捕使臣) 하관찰(=하도)이올시다. 감히 압사님의 존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천한 눈으로 관찰님을 알아뵙지 못했으니 송구합니다. 소리(小吏)는 성은 송, 이름은 강이라 합니다."

그러자 하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명성을 들어 왔으나 인연이 없어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송강이 말했다. "황송합니다. 관찰님께서는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도가 말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상석을 차지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관찰님은 상사 관아에서 오신 분이시고, 또 멀리서 오신 손님이 아니십니까."

두 사람이 한참을 서로 사양하다가, 송강이 주인 자리에 앉고 하도가 객석에 앉았다. 송강이 차박사를 불러 차 두 잔을 가져오게 하니 머지않아 차가 나왔고,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송강이 물었다. "관찰님께서 저희 현까지 오신 것을 보니, 상사에 무슨 공무가 있으십니까?"

하도가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귀현에 (잡아야 할) 중요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혹시 도적과 관련된 공사(公事) 아닙니까?"

하도가 말했다. "여기 실봉(實封, 봉인된 정식) 공문이 있으니, 압사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송강이 말했다. "관찰님께서는 상사가 도적을 잡으라고 보내신 분이신데, 소리(小吏)가 어찌 감히 태만히 굴겠습니까? 다만 어떤 급박한 도적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가 말했다. "압사께서 이 사건을 맡으실 분이니 말씀드려도 무방하겠지요. 저희 부 관할인 황니강에서 도적 무리, 모두 여덟 명이 몽한약(蒙汗藥)으로 북경 대명부의 양중서(梁中書)가 채 태사(蔡太師)께 보내던 「생신강」의 호송 군졸 열다섯 명을 쓰러뜨리고, 진주보배 열한 짐을 강탈해 갔습니다. 시가로 십만 관(十萬貫)에 달하는 정장(正贓)입니다. 이제 종범(從賊) 한 명 백승을 잡았는데, 그가 지목한 일곱 명의 정범(正賊)이 모두 귀현에 있다고 합니다. 태사부에서는 특별히 간판(幹辦, 사무 담당 관리) 한 사람을 보내, 본부에서 이 공무 처리를 즉각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압사께서 일찌감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강이 말했다. "태사부의 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관찰님께서 직접 공문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시는데 어찌 감히 잡아 보내지 않겠습니까? 다만 백승이 지목한 그 일곱 명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가 말했다. "압사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귀현 동계촌의 조보정이 우두머리입니다. 그 외에 따르는 도적(從賊)이 여섯 명 더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으니, 부디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조개는 내 심복 형제다. 그가 지금 천인공노할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구해주지 않고 관군이 그를 잡아간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조개 그놈은 워낙 간사하고 완고한 놈이라, 우리 현의 위아래 사람들 중 그를 탓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큰 사고를 쳤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하도가 말했다. "압사께서 부디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항아리 속 자라를 잡듯' 손만 뻗으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실봉 공문은 관찰님께서 직접 관아에 가셔서 본관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관께서 살펴보신 뒤에야 비로소 명령을 내려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인이 어찌 감히 사사로이 공문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공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니, 남에게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 됩니다."

하도가 말했다. "압사님의 식견이 참으로 명철하십니다. 부디 안내해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본관께서 아침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지쳐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관찰님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등청하실 때 소인이 와서 모시겠습니다."

하도가 말했다. "압사께서 부디 꼭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강이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잠시 저희 집에 들러 집안일을 좀 정리하고 바로 올 테니, 관찰님께서는 여기서 잠시만 앉아 기다려 주십시오."

하도가 말했다. "압사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온 뒤, 다박사(茶博士, 찻집 점원)에게 분부했다. "그 손님께서 차를 더 드시겠다면, 제가 나중에 찻값을 함께 내겠습니다."

찻집을 나온 송강은 날아갈 듯한 기세로 자신의 거처로 달려갔다. 그는 먼저 부하에게 일러, 직사(直司, 관아의 하급 관리)를 차방 문 앞으로 불러 대기시키라고 했다. "만약 지현이 등청하시면, 차방으로 가서 그 관리에게 '압사께서 곧 가실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잘 달래서 말해두어라."

그러고는 마구간에서 말에 안장과 굴레를 채우고 뒷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채찍을 챙겨 들고 황급히 말에 올라탄 송강은 천천히 현청을 벗어났다. 동문을 나서자마자 채찍을 두어 번 휘두르니, 말이 다다닥 소리를 내며 동계촌을 향해 달렸고, 반 시진도 채 되지 않아 조개의 장원에 도착했다. 장원 하인들이 이를 보고 장원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니, 시로 이르되 다음과 같다.

의로운 이는 불의한 재물을 가볍게 여기니
하늘의 법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리라
백성을 수탈하는 관청은 도적보다 더하니
마땅히 벗 된 이가 도적을 풀어 보내야 하리라

한편, 조개는 마침 오용, 공손승, 유당과 함께 후원 포도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완씨 삼형제는 이미 재물을 챙겨 석갈촌으로 돌아간 뒤였다. 조개는 장원 하인이 송강 압사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보고하자 물었다.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인이 대답했다. "혼자서 말을 타고 번개같이 달려오더니, 어서 보정을 뵙겠다고 합니다." 조개가 말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로구나." 하며 황급히 나가 맞이했다. 송강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조개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조개가 물었다. "압사, 어찌 이리 급하게 달려왔는가?"

송강이 말했다.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형님의 심복 형제로서 목숨을 걸고 형님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황니강 사건이 터졌습니다! 백승이 이미 제주 감옥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형님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이름을 다 불었습니다. 제주부에서 하도라는 집포사(緝捕使, 범인을 잡아들이는 관리)를 보내 수하들을 거느리고 태사부의 명령서와 본주의 공문을 받들어, 형님이 우두머리인 일곱 명을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딱 마주쳤기에, 지현은 잠들어 있고 하 관찰은 현청 맞은편 찻집에서 기다리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을 타고 달려와 형님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삼십육계 중에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 했습니다. 지금 빨리 떠나지 않으면 어쩌시렵니까? 제가 돌아가서 관찰이 직접 관아에 공문을 제출하게 하면, 지현이 깨어나는 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사람을 보내 잡으러 올 것입니다.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조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우의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송강이 말했다. "형님, 다른 말씀 마시고 그저 도망칠 채비만 서두르십시오. 뒤탈이 생기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일곱 명이라 했나? 그중 셋은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인데, 이미 재물을 챙겨 석갈촌으로 돌아갔네. 나머지 세 명은 여기 있으니, 아우가 이들을 한번 만나보게나."

송강이 후원으로 가자 조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세 사람이네. 한 명은 오학구(吳學究)요, 한 명은 계주에서 온 공손승이고, 한 명은 동로주 사람인 유당이라네." 송강은 가볍게 예를 갖춘 뒤 몸을 돌려 떠나며 당부했다. "형님, 몸조심하십시오. 서둘러 떠나셔야 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송강은 장원 앞으로 나와 말에 올라탄 뒤, 채찍을 두어 번 휘두르며 번개같이 현청을 향해 달려갔다. 이때 어떤 학자가 이 일을 두고 시 한 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보정은 어찌하여 도적 떼를 길러냈는가, 압사는 도적을 놓아주니 죄를 피하기 어렵네. 법을 지키는 청렴한 명성이 중함을 알아야지, 정(情)에 통하고 의기(義氣)가 높다며 내세우지 마라. 참새는 본디 새매가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하거늘, 고양이가 쥐와 짝한다면 어찌 고양이라 하겠는가. 헛되이 도필(刀筆)을 잡고 문리(文吏)라 칭하니, 그 옛날 한나라 재상 소하(蕭何)를 말하기 부끄럽구나.

한편, 조개는 오용, 공손승, 유당 세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들, 방금 만나러 온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오용이 물었다. "어찌 그리 황급

히 떠나버린 것입니까? 대체 누구였습니까?" 조개가 말했다. "자네들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저 사람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것이네!" 세 사람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설마 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까?" 조개가 말했다. "이 아우가 정말 큰일을 해냈네. 피를 토할 만큼 중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말이야. 알고 보니 백승이 이미 제주 감옥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우리 일곱 명의 이름을 다 불었다더군. 본주에서 하 관찰이라는 집포사(緝捕使, 범인을 잡아들이는 관리)를 보내 수하들을 거느리고 태사부의 명령서를 받들어, 운성현에 우리 일곱 명을 당장 잡으라고 명을 내렸단다. 천만다행으로 저 아우가 관리를 찻집에서 기다리게 붙들어 두었기에, 우선 말을 타고 달려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게야. 이제 저 아우가 돌아가 공문을 올리면, 머지않아 밤을 새워서라도 사람을 보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오용이 말했다. "저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물에 걸린 꼴이 되었을 겁니다. 이 은인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개가 말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현의 압사인 '호보의' 송강이라네." 오용이 말했다. "송 압사의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소생은 아직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비록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도 인연이 닿지 않아 뵙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공손승과 유당도 함께 말했다. "혹시 강호에 떠도는 '급시우' 송공명(宋公明)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라네. 나와는 마음을 다해 사귀는 의형제 사이지. 오 선생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겠지만, 천하에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라네. 이런 아우와 의형제를 맺었으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조개가 오용에게 물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한데, 이를 어찌 해결하면 좋겠는가?" 오학구가 말했다. "형님, 더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삼십육계' 중에서도 '주위상계(走爲上計)', 즉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방금 송 압사도 우리더러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오용이 말했다.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었습니다. 우선 짐을 대여섯 짐 정도 챙겨서 곧장 석갈촌의 완씨 삼형제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즉시 사람 한 명을 보내 그 형제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게 합시다." 조개가 말했다. "완씨 삼형제는 어부 집안인데, 우리 같은 인원이 어떻게 다 머물 수 있겠나?" 오용이 말했다. "형님, 참으로 생각이 짧으십니다! 석갈촌을 지나 한 걸음만 더 가면 바로 양산박입니다. 지금 그곳은 세력이 아주 왕성하여, 관군들도 도적을 잡으러 갈 때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 추격이 너무 거세지면, 아예 그곳에 들어가 일원이 되면 될 일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것 참 좋은 계책이긴 하다만, 그들이 우리를 받아줄지 모르겠구나." 오용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금은보화가 많으니, 그것을 좀 갖다 바치면 금방 받아줄 것입니다."

시로 이르되,

도리에 어긋난 세상엔 도적이 넘쳐나고,
영웅은 나아가기도 물러나기도 참으로 어렵구나.
그저 선비가 산채에 머물고 있으니,
도적을 사는 것이 마치 관리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네.

그때 조개가 말했다. "이미 이렇게 뜻을 모았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네. 오 선생, 자네가 유당과 함께 장객 몇 명을 데리고 먼저 가서 완씨 형제네 집에 짐을 내려놓고 안착시킨 뒤, 다시 길로 나와 우리를 마중 나오게 하게나. 나와 공손 선생은 여기서 짐을 챙겨 곧 뒤따라가겠네." 오용과 유당은 '생신강'을 탈취해 얻은 금과 보석들을 대여섯 짐으로 꾸린 뒤, 장객 대여섯 명에게 술과 음식을 넉넉히 먹였다. 오용은 소매에 놋쇠 사슬을 챙기고 유당은 박도를 들었으며, 장객들이 대여섯 짐의 짐을 감시하며 총 열댓 명의 무리가 되어 석갈촌으로 향했다. 그사이 조개와 공손승은 장원에서 짐을 정리했다. 가기 싫어하는 장객들에게는 돈과 물건을 챙겨주어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나게 했고, 가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장원에서 재물을 한데 모아 짐을 꾸렸다.

시로 이르되,

재물은 독사임을 꼭 믿어야 하니,
재물이 모이는 곳은 곧 망하는 집이라.
의로운 선비라 불리는 이도 지키기 어려운데,
탐욕스러운 관리는 하늘의 살핌을 모르고 제멋대로 뽐내는구나.

한편, 송강은 말을 달려 머무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하 관찰이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송강이 말했다. "관찰 어른,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마을의 한 친척이 거처로 찾아와 집안일을 좀 이야기하느라 그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도가 말했다. "압사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으로 안내해 주시오." 송강이 말했다. "관찰 어른, 현청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관아에 도착하니, 마침 지현 시문빈이 대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송강은 공문을 정중히 받들어 하 관찰을 서안(책상) 앞까지 안내한 뒤, 좌우 사람들에게 회피패(상급자를 만날 때 옆의 관원들이 물러나게 하는 패)를 걸라고 일렀다. 송강이 앞으로 나아가 보고했다. "제주부의 공문을 받들고 왔습니다. 도적에 관한 긴급한 공무라, 특별히 집포사신 하 관찰을 보내 서류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지현이 공문을 받아 펼쳐 대청에서 읽어 내려가더니, 깜짝 놀라며 송강에게 말했다. "이것은 태사부에서 급히 일을 처리하고 즉시 답을 달라고 보낸 건이 아닌가. 이 도적 놈들은 당장 사람을 보내 잡아야겠군." 송강이 말했다. "낮에 움직이면 소문이 날까 두려우니, 밤에 사람을 보내 잡아야 합니다. 조개를 잡기만 하면 나머지 여섯 명의 행방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 지현이 말했다. "동계촌의 조개라는 자는 호걸로 이름이 높다던데, 그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시 지현은 즉시 위사(군관)와 두 명의 도두를 불렀는데, 한 명은 성이 주이고 이름은 동이며, 다른 한 명은 성이 뇌이고 이름은 횡이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곧바로 주동과 뇌횡 두 사람이 후당으로 들어와 지현의 명령을 받들었다. 이들은 현위와 함께 말을 타고 곧장 위사에게 가서 마병, 보병, 궁수와 토병(지역 민병) 백여 명을 소집했다. 그리고 하 관찰, 두 명의 우후(군관 직책)와 함께 도적을 잡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날 밤, 모두 포박용 밧줄과 무기를 챙겼다. 현위는 말을 타고, 두 도두 역시 각자 말을 탄 채 허리에는 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었으며, 궁수와 보병들이 앞뒤로 에워싸며 동문으로 나섰다. 이들은 말을 달려 동계촌의 조개

집으로 향했다. 동계촌에 도착하니 이미 일경(밤 7시~9시 사이) 무렵이었고, 일행은 모두 관음암에 모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주동이 말했다.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조개의 장원입니다. 조개의 집에는 앞뒤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앞문으로 들이닥치면 그는 뒷문으로 도망칠 것이고, 한꺼번에 뒷문으로 들이닥치면 앞문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조개라는 자가 보통내기가 아닌 데다, 나머지 여섯 명도 분명 선량한 군자들은 아닐 테니, 그놈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장원객들까지 가세하면 우리가 어찌 대적하겠습니까? 차라리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의 계책을 써서, 그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수선해졌을 때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저와 뇌 도두가 두 길로 나눕시다. 제가 도두님과 인원을 절반씩 나누어 모두 걸어서 먼저 뒷문에 매복하겠습니다. 신호로 휘파람 소리가 울리면, 도두님 일행은 앞문으로 거침없이 들이닥쳐 보이는 족족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잡아들이십시오."

뇌횡이 말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 도두님은 현위 나리께서 앞문으로 들이닥치실 때, 제가 뒷길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동이 말했다. "아우님,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소리네. 조개의 장원에는 세 갈래의 퇴로가 있다는 걸 나는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네. 내가 그곳에 가면 횃불 없이도 길을 다 훤히 꿰뚫고 있을 것이네. 자네는 그놈들이 어디로 드나드는지도 모르는데, 만약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 아닌가."

현위가 말했다. "주 도두의 말이 옳으니, 자네가 인원의 절반을 데리고 가게."

주동이 말했다. "서른 명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주동은 궁수 열 명과 토병 스무 명을 거느리고 먼저 길을 나섰다. 현위가 다시 말에 오르자, 뇌횡은 마병과 보병을 앞뒤로 배치하여 현위를 호위하게 했다. 토병들은 모두 말 앞에 서서 스무서른 개의 횃불을 밝게 비추며, 쇠창, 박도, 유객주(사람을 붙잡는 갈고리), 구렴도(갈고리 낫) 등을 손에 들고 일제히 조개의 장원을 향해 달려갔다.

장원에 도착하니 앞길이 반 리(약 200m) 넘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조개의 장원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이는데, 중당(집 안마당)에서부터 불이 시작되어 검은 연기가 땅 위로 자욱하게 깔리고 붉은 불꽃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채 열 걸음도 더 가지 않아 앞뒤 문과 사방팔방에서 서른에서 마흔 개쯤 되는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불길이 세차게 일렁였다. 뇌횡이 앞장서서 박도를 치켜들고, 뒤따르던 토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장원의 문을 단번에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불빛이 대낮처럼 밝게 비치는데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어서 소리 질러라! 앞쪽에서 사람을 잡아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알고 보니 주동은 조개를 놓아줄 생각이었기에, 일부러 뇌횡을 속여 앞문으로 들이닥치게 한 것이었다. 뇌횡 역시 조개를 구할 마음이 있어 앞서 뒷문을 차단하려 했으나, 주동의 말에 속아 결국 앞문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주동은 이처럼 일부러 소란을 피워 성동격서의 계책을 쓰며 조개를 서둘러 도망치게 하려 했다.

그사이 주동이 장원 뒤편에 도착했을 때, 조개는 아직 채 채비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장원객들이 이를 보고 조개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개는 장원객들에게 사방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뒤, 공손승과 함께 열댓 명의 장원객을 데리고 함성을 지르며 박도를 치켜들고 뒷문으로 돌진하며 크게 외쳤다. "나를 막아서는 자는 죽고, 피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동이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보정님, 도망치지 마십시오! 주동이 여기서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개는 그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공손승과 함께 목숨을 걸고 길을 뚫고 나갈 뿐이었다. 주동은 슬쩍 몸을 움직여 길을 터주어 조개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조개는 공손승에게 장원객들을 데리고 먼저 가라고 시킨 뒤, 자신은 홀로 뒤를 지키며 따라 나섰다.

주동이 보병과 궁수를 시켜 뒷문으로 들이닥치게 하며 "앞쪽에서 도적을 잡아라!"라고 외치자, 이 소리를 들은 뇌횡이 몸을 돌려 장원 밖으로 뛰어나가며 마병과 궁수들에게 각자 흩어져 도적을 쫓으라고 명령했다. 뇌횡은 불빛 아래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사람을 찾았다. 그사이 주동은 토병들을 떼어놓고 홀로 칼을 치켜든 채 조개를 뒤쫓았다. 조개는 도망치면서도 입으로 말했다. "주 도두님, 어찌하여 저를 쫓아오시는 겁니까?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동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했다. "보정님, 제 진심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제가 뇌횡이 눈치 없이 굴며 인정을 모를까 봐 걱정되어, 일부러 그를 속여 앞문으로 들이닥치게 한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나오면 길을 터주려

고 한 것이니, 방금 제가 길을 열어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직 양산박에 가야만 몸을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훗날 반드시 갚겠습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도둑을 잡으려다 도둑과 통하니 관청의 비리는 도둑의 재물과 다를 바 없구나 관청이 도둑질을 한다 해도 의심치 마라 하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니

주동이 조개를 뒤쫓고 있는데, 등 뒤에서 뇌횡이 "도망치는 놈을 놓치지 마라!"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동이 조개에게 말했다. "보정님, 당황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리십시오. 제가 알아서 저 놈을 돌려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외쳤다. "도적 세 놈이 동쪽 오솔길로 도망쳤다! 뇌 도두, 어서 쫓아가시오!" 뇌횡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 오솔길로 달려갔으며, 토병들도 무리를 지어 뒤따라갔다. 주동은 조개와 계속 말을 나누면서도 그를 뒤쫓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망자를 호위하여 보내는 것과도 같았다.

점점 어둠 속으로 조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주동은 일부러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뒤따라오던 토병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며 급히 일으켜 세웠다. 주동이 말했다. "어둠 속이라 길이 보이지 않아 들판으로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삐끗했소." 현위가 말했다. "주범을 놓쳤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

오!" 주동이 대답했다. "제가 잡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이 너무 어두워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토병들은 쓸 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서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위가 다시 토병들에게 쫓아가라고 명령하자, 토병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두 도두님도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토병들은 겉으로만 한바탕 쫓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오며 말했다. "어둠 속이라 도대체 어느 길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뇌횡도 한참을 쫓다가 돌아오며 속으로 생각했다. '주동과 조개가 사이가 좋으니 분명 그를 놓아주었을 것이다. 나만 괜히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지. 나도 놓아줄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가버렸으니, 인심을 잃은 것이 아쉽구나. 조개라는 사람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지.' 뇌횡이 돌아와 말했다.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저 도적 놈들이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현위와 두 도두가 장원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경(새벽 1시~3시 사이)이었다. 하관찰은 사람들이 밤새 뿔뿔이 흩어져 쫓아다녔음에도 도적을 단 한 명도 잡지 못한 것을 보고는 괴로워하며 말했다. "이 꼴로 어떻게 제주부의 부윤님을 뵙겠느냐!" 현위는 그저 인근 마을 사람 몇 명을 잡아다가 운성현으로 압송해 올 뿐이었다.

이때 지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즉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도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인근 마을 사람들 몇 명만 붙잡았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다. 지현은 붙잡아 온 마을 사람들을 관청 마당에 모아놓고 심문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저희가 비록 조보정의 이웃에 살고는 있으나, 먼 곳은 3, 2리나 떨어진 논밭이고 가까운 곳도 마을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그 장원에는 창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쓰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저들이 이런 일을 벌일 줄 어찌 알았겠습

니까?" 지현은 이들을 하나하나 심문하며 반드시 도적들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말했다. "그놈들의 정체를 알고 싶으시다면, 장원 일꾼들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현이 말했다. "그 집 일꾼들도 모두 도망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자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가기를 거부하고 아직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사람을 보내, 이웃 마을 사람을 길잡이로 삼아 동계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두 시진(약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장원 일꾼 두 명을 잡아 왔다. 관청 마당에서 심문하자, 그 일꾼들은 처음에는 발뺌하며 버티다가 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백했다. "처음에는 여섯 명이서 모의했는데, 저는 그중 한 명만 확실히 압니다. 우리 마을에서 글을 가르치는 오 학구라는 선생이고, 또 공손승이라는 전진교 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유 씨인 검은 얼굴의 덩치 큰 사내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저는 모르지만 오 학구가 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성씨가 완 씨인데 석갈촌에 살고, 어부이며 형제가 셋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현은 즉시 자백 문서를 작성하여 두 일꾼을 하관찰에게 넘겨주고,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했다. 송강은 그 잡혀 온 이웃들을 두루 잘 보살펴, 보증을 세워 집으로 돌려보내 대기하게 했다.

한편, 하도 일행은 장원 일꾼 두 명을 압송하여 밤을 도와 제주성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부윤(府尹)이 대청에 올라 업무를 보던 참이었다. 하도가 사람들을 청 앞으로 인도하여 조개가 장원을 불태우고 도망친

일을 보고하고, 일꾼들의 자백 내용도 다시 한번 낱낱이 전했다. 부윤이 말했다. "이미 그렇게 말이 나왔다면, 다시 백승을 끌어내라!" 그러고는 물었다. "그 완 씨 성을 가진 세 놈은 도대체 어디에 사느냐?" 백승은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어 결국 자백했다. "완 씨 성을 가진 세 놈은, 하나는 '입지태세(立地太歲)' 완소이(阮小二), 하나는 '단명이랑(短命二郎)' 완소오(阮小五), 또 하나는 '활염라(活閻羅)' 완소칠(阮小七)인데, 모두 석갈호촌(石碣湖村)에 살고 있습니다." 지부(知府)가 다시 물었다. "또 나머지 세 놈은 성이 무엇이냐?" 백승이 아뢰었다. "한 사람은 '지다성(智多星)' 오용(吳用), 한 사람은 '입운룡(入雲龍)' 공손승(公孫勝), 또 한 사람은 '적발귀(赤髮鬼)' 유당(劉唐)입니다." 지부가 듣고 말했다. "행방이 드러났으니, 백승은 본래대로 가두어 옥에 그대로 두어라." 그러고는 곧바로 하관찰(何觀察)을 불러 석갈촌으로 보내 이 도적들을 잡아 오도록 했다.

하도가 석갈촌으로 가서 도적들을 잡으려 하니, 마치 '천강'과 '지살'의 기운을 가진 호걸들이 운명적인 만남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곧 수호의 산과 성에 천하를 호령할 인재들이 모여들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과연 하관찰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보내 석갈촌의 도적들을 잡으려 할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9회 — 임충이 수채에 큰 불을 지르고, 조개가 양산의 작은 포구를 빼앗다

林沖水寨大併火 晁蓋梁山小奪泊

이야기는 이러하다. 하 관찰사는 지부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기밀방으로 달려가 관리들과 의논했다. 관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석결촌 일대는 호수가 넓고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양산박과도 딱 붙어 있습니다. 온통 망망대해 같은 물줄기와 갈대밭뿐인 늪지대입니다. 대규모 관군과 배, 그리고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그곳에 가서 도적을 잡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하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이 맞소."

그는 곧장 관청으로 가서 부윤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석결촌의 호수는 양산박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깊은 물길과 갈대밭이 우거진 늪지대입니다. 평소에도 도적들이 사람들을 약탈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또 다른 강도 무리까지 가세했으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곳에 가서 도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윤이 대답했다.

"정 그렇다면, 일 잘하는 포도 순검(捕盜巡檢) 한 명을 더 붙여주겠네. 그에게 관병 오백 명을 거느리고 자네와 함께 가서 도적을 소탕하도록 하게."

하 관찰사는 명령을 받들고 다시 기밀방으로 돌아와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오백여 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각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준비하게 했다. 다음 날, 포도 순검은 제주부의 공문(帖文)을 지참하고 하 관찰사와 함께 오백 명의 군사 및 관리들을 거느린 채 일제히 석결촌을 향해 달려갔다.

한편, 조개와 공손승은 장원을 불태운 뒤 십여 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석결촌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길에서 무기를 든 완씨 삼형제를 우연히 마주쳤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집까지 도착했다. 일곱 사람은 모두 완소오의 집에 모였다. 그사이 완소이는 이미 노인과 아이들을 호수 안으로 옮겨둔 상태였다. 일곱 사람은 양산박으로 가서 합류할 일을 의논했다.

오용이 말했다.

"지금 이가도구에 '한지홀률' 주귀라는 자가 주점을 운영하며 사방의 호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산박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에게 몸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은 뒤, 그에게 줄 선물들을 챙겨서 그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행이 양산박으로 떠날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어부 몇 명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관군 병력이 마을로 무섭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개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저놈들이 쫓아오니, 우리는 도망치지 말자!"

완소이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저놈들 태반은 물속으로 처박아 죽이고, 남은 놈들도 모조리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공손승이 거들었다.

"당황하지 마시오! 이 빈도의 솜씨를 한번 보시오!"

조개가 유당에게 지시했다.

"유당 아우, 자네는 학구 선생과 함께 재물과 노약자들을 어서 배에 실어 이가도구 왼쪽 근처로 먼저 가 있게. 우리는 상황을 좀 살펴본 뒤에 곧 뒤따라가겠네."

완소이는 노를 젓는 배 두 척을 골라 어머니와 노약자들, 그리고 집안의 재물을 모두 배에 실었다. 오용과 유당이 각각 배 한 척씩을 맡아 타고, 일곱여덟 명의 일행이 노를 저어 먼저 이가도구로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완소오와 완소칠에게는 작은 배를 몰아 적을 맞이하라고 일렀다. 두 사람은 각각 배를 저어 나갔다.

한편, 하도와 포도순검(도적을 잡는 관리)이 관군을 거느리고 석결촌에 점점 가까워졌다. 강가 나루터에 배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빼앗아 버린 뒤, 물을 잘 다루는 병사들을 배에 태워 먼저 진격하게 했다. 강 위에서는 배를 탄 병사들이, 강가에서는 말을 탄 병사들이 서로 호응하며 수륙 양면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완소이의 집에 도착하여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으나, 그곳은 이미 텅 빈 집이었고 안에는 투박한 살림살이 몇 가지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하도가 말했다.

"근처 어부들의 집을 몇 군데 잡아오너라."

잡아다가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는 자가 있었다.

"그의 두 형제인 완소오와 완소칠은 모두 호수 안에서 살고 있어, 배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도가 순검과 의논하며 말했다.

"이 호수는 물길이 갈라진 곳도 많고 길도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물웅덩이와 둑이 많아 깊이를 알 수 없으니, 만약 병사들을 여기저기 흩

어지게 했다가는 도적놈들의 간계에 빠질까 두렵구나. 말들은 모두 이 마을에 지키게 하고, 한꺼번에 배를 타고 들어가자."

그리하여 포도순검과 하관찰을 비롯하여 공인들이 모두 배에 올라탔다.

그때 빼앗은 배는 백여 척에 그치지 않았는데, 삿대로 미는 배도 있고 노로 젓는 배도 있어, 모든 배가 일제히 완소오의 어촌 마을을 향해 나아갔다. 물 위로 오륙 리쯤 나아갔을 때, 갈대숲 사이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배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노래 가사가 이렇게 들려왔다.

"평생 고기 잡으며 요아와(蓼兒洼)에서 사노라, 푸른 모종도 심지 않고 삼 씨도 심지 않네. 혹리와 탐관오리를 모조리 죽여 없애고, 충심으로 조관가(趙官家, 송 황실)께 보답하리라."

하관찰과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멀리서 한 사람이 작은 배를 저으며 홀로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저자가 바로 완소오입니다."

하도가 손짓을 하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 각자 무기를 치켜들고 맞서 나갔다. 그때 완소오가 크게 웃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 같은 관리 놈들이 어찌 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 감히 이 몸을 상대로 무엇을 하려느냐! 이건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 짓이다!"

하도의 뒤에는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화살을 메우고 활시위를 가득 당겨 일제히 쏘아 올렸다. 완소오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자작나무 노를 붙잡고 공중제비를 돌며 물속으로 잽싸게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그가 있던 곳까지 쫓아갔으나, 이미 빈 배뿐이었다.

두 갈래 물길도 채 가지 못해, 갈대꽃이 일렁이는 사이에서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배를 넓게 벌려 진형을 갖추니, 앞쪽에서 두 사람이 배 한 척을 저어 오는 것이 보였다. 배 앞머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머리에는 푸른 대나무 삿갓을 쓰고 몸에는 초록색 도롱이를 걸친 채 손에는 필관창(붓통처럼 생긴 창)을 만지작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몸은 석결촌에서 태어나, 본래부터 사람을 죽일 천성이로다. 먼저 순검 하도의 목을 베어, 서울로 가져가 조씨 임금(趙王君, 송 황제)께 바치리라."

하관찰과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모두가 일제히 살펴보니, 앞쪽의 사람은 창을 만지작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뒤의 사람은 노를 젓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저자가 바로 완소칠입니다."

하도가 호통을 쳤다.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라! 저 도적놈을 먼저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완소칠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꾸했다.

"이 고약한 놈들 같으니!"

그러고는 창끝으로 물을 살짝 치더니, 배를 휙 돌려 작은 포구 안으로 잽싸게 빠져나갔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뒤쫓았으나, 완소칠과 노 젓는 이는 마치 날아가는 듯이 노를 저으며 휘파람을 불고는 작은 물길 사이로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다.

관군들이 이리저리 쫓아다녔으나, 물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고 하도가 말했다.

"잠시 멈춰라! 일단 배를 대고 모두 기슭에 붙여라."

뭍으로 올라가 살펴보니, 눈앞에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갈대밭뿐이었고 마땅히 걸어갈 만한 육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도는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었으나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그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저희가 비록 이곳에 살고는 있으나, 이 안에 갈래 길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하도는 곧 작은 배 두 척을 내어주며, 배마다 공인 두세 명씩을 태워 앞길을 정찰하게 했다. 두 시진(약 네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도가 말했다.

"이놈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는 다시 공인 다섯 명을 더 보내 배 두 척에 태워 정찰을 보냈다. 이 공인들도 배 두 척을 몰고 한 시진 남짓 나아갔으나,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도가 말했다.

"이놈들은 모두 오랫동안 공인 노릇을 해온 데다 눈치도 빠르고 영리한 자들인데, 어찌 이리도 일머리가 없단 말인가? 어째서 배 한 척도 돌아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냐? 데려온 관군들 또한 모두 영문을 모르고 헤맬 줄은 생각도 못했구나!"

날이 어느덧 저물어갔다. 하도는 생각했다.

'이곳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직접 한번 가봐야겠다.'

그는 빠르고 민첩한 작은 배 한 척을 골라, 노련한 공인 몇 명을 뽑았다. 그리고 각자 무기를 챙기게 하고 자작나무 노 다섯여섯 개로 노질하게 한 뒤, 하도 자신은 직접 배 앞머리에 앉아 갈대가 우거진 포구 안을 향해 배를 몰아 나아갔다.

그 무렵은 이미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배를 저어 나간 지 오륙 리쯤 되었을 때, 곁에 있는 기슭에서 한 사내가 괭이를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하도가 물었다.

"이보게, 자네는 누구인가?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그 사내가 대답했다.

"이 마을에 사는 농사꾼입니다. 여기는 '단두구'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제 더 이상 길도 없습니다."

하도가 다시 물었다.

"혹시 배 두 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가?"

사내가 되물었다.

"완소오를 잡으러 온 것 아닙니까?"

하도가 놀라 물었다.

"자네가 완소오를 잡으러 온 줄을 어찌 아는가?"

사내가 말했다.

"저 앞 검은 숲에서 한창 싸우고 있더군요."

하도가 물었다.

"여기서 거기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사내가 대답했다.

"저 앞만 바라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도는 곧 배를 모두 불러 모아 앞으로 나아가 접선하게 했다. 그러고는 아전 두 명에게 쇠갈퀴를 들려 기슭으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괭이를 들고 있던 사내가 괭이를 휘둘러, 올라갔던 아전 두 명을 각각 한 차례씩 내리치더니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물속으로 처박아 버렸다.

하도가 이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몸을 일으켜 기슭으로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배가 멀리 밀려나갔다. 그사이 물밑에서 누군가 쑥 솟아오르더니 하도의 두 다리를 홱 잡아채는 바람에, 하도는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고꾸라졌다. 배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치려 했으나, 괭이를 든 사내가 배 위로 뛰어올라 괭이로 차례차례 내리치니, 머리통이 깨져 뇌수가 튀어나올 정도였다. 물밑에서 나타난 이가 하도를 물 밖으로 끌어올린 뒤, 그의 어깨띠를 풀어 몸을 꽁꽁 묶었다. 물밑에서 나타난 이는 바로 완소칠이었고, 기슭에서 괭이를 들고 있던 사내는 완소이였다.

완소이와 완소칠 형제는 하도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 어르신 삼형제는 본래부터 사람 죽이고 불 지르는 일만 좋아해 왔다. 너 같은 놈 따위가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네놈이 어찌 그리 간이 부어서 일부러 관군을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하도가 대답했다.

"호걸님! 소인은 그저 윗분의 명을 받들었을 뿐,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대담하게 호걸님들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집에 여든 살 된 노모가 계시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완씨 형제가 말했다.

"이놈을 꽁꽁 묶어서 粽子(종자, 떡 모양처럼 묶은 것)로 만들어 배 밑창에 던져 버리자."

그들은 시신들을 모두 물속으로 던져 버렸다. 그러더니 저마다 휘파람을 한 번 불자, 갈대 숲 사이에서 어부 네다섯 명이 쑥 나타나 배 위로 올라탔다. 완소이와 완소칠은 각각 배 한 척씩을 몰고 그곳을 떠났다.

한편, 도적을 잡으러 나온 순검이 관군들을 거느리고 배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 관찰사께서 아전들은 일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며 직접 길을 찾아 나서셨는데, 나간 지 꽤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시는구나."

그 무렵은 마침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이라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배 위에서 더위를 식히며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괴상한 바람이 한차례 몰아치더니,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모래 날리고 돌 튀며, 물결 소용돌이쳐 하늘이 흔들리네.
검은 구름 겹겹이 쌓여 오더니, 우르릉 쾅쾅 급한 비 몰아치네.
연잎은 뒤집히고, 물결 위엔 초록 우산들이 어지러이 겹쳐 있네.
갈대꽃은 흔들리고, 호수 위엔 하얀 깃발들이 어지러이 흩날리네.
곤륜산 꼭대기 나무를 꺾어놓고, 동해의 용왕님을 깨우는구나.

그 괴상한 바람이 뒤에서부터 휘몰아치니,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며 깜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다.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배를 묶어둔 밧줄마저 모두 끊어져 버렸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후욱후욱'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거슬러 살펴보니, 갈대꽃이 피어 있는 물가 쪽에서 한 줄기 불길이 쏘아져 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끝장이구나!"라며 탄식했다.

커다란 배와 작은 배를 합쳐 마흔에서 쉰 척은 되어 보이는 배들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정신없이 흔들리는데, 그 불길은 벌써 눈앞까지 들이닥쳤다. 알고 보니 그것들은 작은 배 두 척을 나란히 붙여 만든 화선(火船)들이었다. 배 위에는 갈대와 땔나무를 가득 쌓아 올려 타오르고 있었는데, 순풍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마흔에서 쉰 척이나 되는 관군들의 배가 좁은 물길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데다, 물길마저 좁아 피할 곳이 없었다. 그중 제일 큰 배들도 십여 척이나 있었으나, 화선들이 밀고 들어와 대형 함대 사이를 파고들며 불을 지르는 통에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물밑에서는 사람들이 배를 밀어 불길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큰 배 위에서 관군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다급히 기슭으로 뛰어내려 달아났으나, 사방이 온통 갈대가 무성한 늪지라 걸어 나갈 길조차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슭의 갈대들까지 바람에 서걱거리며 불이 붙기 시작했다. 도적을 잡으러 나온 관군들은 앞뒤로 퇴로가 막혀 버렸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불길은 맹렬하니, 관군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흙탕 속으로 몸을 던져 버둥거릴 뿐이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작고 빠른 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배 뒷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었고, 배 앞부분에는 한 도사(道士)가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번쩍이는 보검 한 자루를 쥐고 입으로는 이렇게 외쳤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관군들은 모두 진흙탕 속에서 한데 뒤엉켜 허둥대고 있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갈대가 무성한 동쪽 기슭에서 두 사람이 어부 네다섯 명을 거느리고, 손에 번쩍이는 칼과 창을 든 채 다가왔다. 서쪽 기슭에서도 또 다른 두 사람이 어부 네다섯 명을 데리고, 역시 손에 번쩍이는 비어구(飛魚鉤, 작살 갈고리)를 든 채 다가왔다. 동쪽과 서쪽 양쪽 기슭에서 네 명의 호걸과 그 일행이 일제히 움직이며 차례차례 찔러댔다. 순식간에 수많은 관군이 진흙탕 속에서 창칼에 찔려 죽어 나갔다.

동쪽 기슭의 두 사람은 조개와 완소오였고, 서쪽 기슭의 두 사람은 완소이와 완소칠이었으며, 배 위에 앉아 있던 그 도사(道士)는 바로 바람을 부리는 공손승이었다. 다섯 호걸은 십여 명의 어부를 거느리고 몰려들어, 관군들을 갈대밭 사이에서 모조리 찔러 죽였다. 오직 하관찰

한 명만이 살아남았는데, 마치 粽子(쫑즈, 속을 채워 묶은 음식)처럼 돌돌 말린 채 배 안에 버려져 있었다.

완소이가 그를 끌고 육지로 올라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 너는 제주에서 백성을 해치기만 하는 어리석은 벌레 같은 놈이로구나! 본래는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 했으나, 네놈을 살려 보내는 것은 제주부의 그 도적 같은 관리에게 전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석결촌의 완씨 삼웅(三雄)과 동계촌의 '천왕 조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말이다! 내가 네 성안으로 가서 양식을 빌리지 않을 것이니, 그놈도 우리 마을로 죽으러 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 우리가 정색하고 본다면, 네가 고작 작은 주윤(州尹, 주를 다스리는 관리)이라 해도, 채 태사가 사람을 보내 우리를 잡으려 한다 해도 상관없다. 설령 채경이 직접 온다 해도 나는 그놈의 몸에 구멍을 스무서른 개는 뚫어버릴 것이다! 너를 살려 보내니 다시는 오지 마라! 네놈의 그 빌어먹을 관리에게도 전하여 죽음을 자초하지 말라고 해라! 이곳은 큰길이 없으니 내 아우가 너를 길목까지 데려다주마."

그때 완소칠이 작은 배에 하도를 태우고 큰길 입구까지 데려다주며 외쳤다.

"이 길로 쭉 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놈들은 다 죽였는데, 너만 이렇게 멀쩡히 보내주면 네놈의 그 주윤이라는 도적 같은 놈이 우리를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 귀 두 쪽을 떼어 증거로 삼게 하겠다!"

완소칠은 곁에 있던 날카로운 칼을 뽑아 하관찰의 귀 두 쪽을 잘라 냈으니,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그는 칼을 도로 꽂고 어깨띠를 풀어준 뒤 하도를 육지에 내려놓았다.

시로 이르되,

관군은 모조리 단두구(斷頭溝)에 처박혔는데 하도만 살려 보내자니 그대로 끝낼 수 없구나. 귀만은 남겨두어 말을 전해 듣게 하노니 나귀 귀로써 나귀 머리를 대신하도다.

하도는 목숨을 건졌으나, 스스로 길을 찾아 제주부로 돌아갔다.

한편, 조개와 공손승, 그리고 완씨 삼형제는 십여 명의 어부와 함께 다섯에서 일곱 척의 작은 배를 띄워 석결촌 호수를 떠나 곧장 이가도구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오용과 유당의 배를 찾아내어 모두 한데 합쳤다. 오용이 관군을 물리친 일을 묻자, 조개가 그간의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오용과 일행은 크게 기뻐했다. 배 정비를 모두 마친 뒤, 그들은 일제히 '한지홀률' 주귀의 주점으로 향했다.

주귀는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산채에 들어오겠다고 하니 황급히 맞이했다. 오용이 그간의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자 주귀는 크게 기뻐했다. 주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사시킨 뒤 대청에 앉히고, 급히 점원을 불러 분례주(分例酒, 산채에서 정해진 양의 술)를 준비하게 하여 손님들을 대접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가죽 활 하나를 꺼내 소리가 나는 화살을 먹이더니, 항구 맞은편 갈대밭을 향해 쏘았다. 화살이 떨어진 곳에서 곧 조무래기 하나가 배 한 척을 저어 나타났다. 주귀는 서둘러 편지를 한 통 써서, 새로 들어온 호걸들의 성명과 인원수를 상세히 적어 조

무래기에게 건네며 산채에 보고하라고 일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양을 잡아 호걸들을 대접했다.

밤을 지낸 다음 날 아침, 주귀는 큰 배 한 척을 불러 호걸들을 태웠다. 그리고 조개 일행이 타고 온 배들까지 모두 합쳐 일제히 산채를 향해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물목에 이르렀는데, 언덕 위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다. 조개가 살펴보니, 조무래기 일고여덟 명이 哨船(초선, 정찰용 작은 배) 네 척을 저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주귀를 보자 인사를 올린 뒤, 평소처럼 먼저 길을 안내하며 나아갔다.

한편, 일행이 금사탄(金沙灘)에 도착하여 상륙하자, 노약자가 탄 작은 배들과 어부들은 그곳에 남겨 기다리게 했다. 그러자 수십 명의 졸개가 산에서 내려와 관문까지 그들을 안내했다. 왕륜은 두령들을 거느리고 나와 관문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조개 일행은 황급히 예를 갖추었다. 왕륜이 답례하며 말했다. "보잘것없는 왕륜이라 합니다. '조천왕(晁天王)'의 대명(大名)이 우레가 귀를 가득 채우듯 들려온 지 오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초라한 산채를 찾아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조개가 말했다. "이 조개는 사서(書史)도 읽지 못한 사람이라 매우 거칠고 무식합니다. 오늘은 졸렬함을 감추어야 할 처지라, 두령의 휘하에서 일개 졸병이 되어도 달게 여길 것이니,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왕륜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선 보잘것없는 산채로 드시지요. 다시 의논해 봅시다."

일행의 수행원들은 모두 두 두령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대채(大寨)의 취의청(聚義廳)에 이르자, 왕륜은 거듭 사양하며 조개 일행에게 윗자리로 오르라고 권했다. 조개 등 일곱 사람은 오른쪽에 일렬로 섰고, 왕륜과 다른 두령들은 왼쪽에 일렬로 섰다. 서로 예를 다 마친 뒤, 손님과 주인으로 나뉘어 마주 앉았다. 왕륜이 계단 아래의 소두목들을 불러 인사(聲喏)를 시키자, 한편에서는 산채의 북과 풍악이 울려 퍼졌다. 먼저 소두목을 시켜 산 아래로 내려가 함께 온 수행원들을 대접하게 했으며, 그들은 관문 아래에 따로 마련된 객관(客館)에서 묵도록 했다.

시(詩)로 이르되, 무리는 분명 한 떼를 이루었으나 서로 머무르게 하려면 정의(情誼)가 친밀해야 하리. 어찌하여 저들을 한낱 손님으로만 대접하는가, 다만 제 몸이 주인 노릇 못 할까 두려워서라네.

한편, 산채에서는 황소 두 마리와 양 열 마리, 돼지 다섯 마리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떠들썩하게 연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령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조개가 가슴 속에 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왕륜과 다른 이들에게 털어놓았다.

왕륜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동안 깜짝 놀라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어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그저 건성으로 잔치에 응할 뿐이었다. 저녁 잔치가 끝나자 두령들은 조개 일행을 관문 근처의 객관으로 배웅하였고, 그곳에는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정성껏 모셨다.

조개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오용 등 여섯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토록 하늘을 뒤덮을 만한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하겠는가? 왕 두령께서 이토록 우리를 아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갈 곳을 잃었을 것이니,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갚으리라!"

오용은 그저 냉소를 지을 뿐이었다. 조개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냉소만 짓고 계시오? 무슨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오."

오용이 말했다. "형님은 성격이 곧으시니, 왕륜이 정말 우리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형님께서는 그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의 안색과 거동, 그 기세를 살펴보십시오."

조개가 물었다. "그의 안색이 어떠하단 말이오?"

오용이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못 보셨습니까? 아침 자리에서 왕륜이 형님께 말을 건넬 때만 해도 도리어 정이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형님께서 관병과 포도순검(捕盜巡檢)을 많이 죽이고 하도(何濤)를 놓아주었으며, '완씨 삼웅(阮氏三雄)' 같은 호걸들이 있다는 말씀을 꺼내시자, 그의 안색이 약간 변했습니다. 입으로는 응답하고 거동도 예법을 갖추었으나, 마음속은 영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면, 아침에 이미 좌석부터 정해두었을 것입니다. 두천과 송만은 본래 거친 사람들이라 손님 대접하는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오직 임충 그 사람만이 본래 동경(東京) 금군(禁軍)의 교두 출신으로, 큰 고을 사람이라 여러 사정을 잘 알기에, 부득이 네 번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아침에 임충이 왕륜이 형님께 응대

하는 모양새를 지켜보면서 스스로도 불평의 기운을 품어 자꾸만 왕륜을 흘겨보며 속으로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리어 우리를 돌아보아 주는 마음(顧盼之心)이 있으나, 다만 어찌할 수 없을 뿐입니다. 소생이 짤막한 말 한마디만 던지면, 저들의 산채가 절로 분열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모두 선생의 묘책과 좋은 계책에 의지하여 몸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오."

그날 밤, 일곱 사람은 편히 쉬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임 교두께서 찾아오셨습니다"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오용이 즉시 조개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니, 제 계책에 걸려들었군요." 일곱 사람은 황급히 일어나 마중을 나가 임충을 객관 안으로 모셨다. 오용이 앞으로 나서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다. "어젯밤 두터운 은혜를 입었사온데, 도리어 이렇게 폐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제가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잘 받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한 처지이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오 학구(吳學究)가 말했다. "저희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초목(草木)과 같지는 않으니, 두령께서 잘못 아껴주시는 마음과 돌아봐 주시는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함이 적지 않습니다."

조개가 거듭 사양하며 임충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권했으나, 임충이 어찌 그러겠는가. 그는 오히려 조개를 윗자리로 모시고 자신은 아랫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오용 등 여섯 사람도 한 줄로 늘어앉았다. 조개가 말했다. "교두의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소."

임충이 대답했다. "소인은 예전에 동경(東京)에 있을 때 친구들과 예의로써 사귀어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렇게 존안을 뵙게 되었으나 평생의 소망을 다 이루지는 못하기에, 특별히 직접 찾아와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개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터운 호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용이 이끌며 물었다. "소생은 예전부터 두령께서 도성에 계실 때 매우 호걸이셨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고구와 사이가 틀어져 이토록 함정에 빠지게 되셨는지요? 나중에 창주에서도 군대의 초료창(군수 물자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 그의 계책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누가 두령을 이곳으로 추천했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고구라는 도적놈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일을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입니다. 도저히 그 원수를 다 갚을 길이 없군요! 이곳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은 모두 시진 대관인께서 추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오용이 물었다. "시 대관인이라 하심은, 강호에서 '소선풍'이라 불리는 시진 대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충이 대답했다. "바로 그분입니다."

조개가 말했다. "시 대관인께서 의리가 있고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사방의 호걸들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주 황제의 직계 자손이라던데, 어찌하면 그분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겠습니까?"

오용이 다시 임충에게 말했다. "시 대관인처럼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명성이 천하에 떨친 분께서, 교두의 무예가 출중하지 않다면 어찌 이곳으로 천거하셨겠습니까? 오용이 과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보자면 왕륜이 이 첫 번째 두령 자리를 양보하여 두령께서 앉으셔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천하의 공론(公論)이며, 그래야 시 대관인의 서신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임충이 말했다. "선생의 높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인이 큰 죄를 지어 시 대관인께 의탁하였는데, 그분이 임충을 거두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께 누가 될까 불편하여 스스로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갈 데도 머물 데도 없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자리(位次)가 낮아서가 아니라, 다만 왕륜의 심사(心術)가 일정치 않고 말도 미덥지 못하여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용이 물었다. "왕 두령은 사람을 대함에 한결같이 화기애애하다 들었는데, 어찌 마음씨가 이토록 좁단 말입니까?"

임충이 대답했다. "오늘 우리 산채에 천운(天幸)으로 여러 호걸이 찾아와 서로 도와주시니, 비단 위에 꽃을 더한 듯하고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입니다. 그런데 저 자는 오직 어진 이를 시샘하고 능한 이를 시기하는 마음만 품어, 호걸들의 세력에 압도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형님께서 관병을 죽인 이야기를 듣고는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을 기색을 품기에, 호걸 여러분을 관문 아래로 모셔 묵게 한 것입니다."

오용이 말했다. "왕 두령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가 내쫓기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임충이 말했다. "호걸 여러분, 부디 서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임충에게 따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떠나려는 마음을 품으실까 두려워 일찌감치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오늘 그자가 어떻게 대하는지 봅시다. 만약 그자의 말이 이치에 닿고 어제와 같지 않다면 모든 일을 그만두겠으나, 만일 그자가 오늘 반 마디라도 어긋난 말을 한다면, 모든 일은 임충의 몸에 맡겨 주십시오."

조개가 말했다. "두령께서 이토록 아껴주시니, 우리 형제들 모두 그 두터운 은혜에 감복합니다."

오용이 이어 말했다. "우리 형제들의 낯을 보아 도리어 두령으로 하여금 옛 형제들과 얼굴을 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진다면 받아들이시되,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소생 등은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선생께서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영민한 자는 영민한 자를 아끼고, 호한(好漢)은 호한을 아낀다(惺惺惜惺惺, 好漢惜好漢)'고 했습니다. 저따위 발칙한 놈, 더러운 짐승 같은 자를 헤아려 본들 끝내 무엇에 쓰겠습니까! 호걸 여러분께서는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임충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사람들이 밖까지 배웅을 나가자, 임충은 홀로 산 위로 올라갔다. 이를 두고 이르되,

어찌 이곳에서는 사람을 머무르게 하지 않는가,
따로 사람을 머무르게 할 곳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사람을 머무르게 해야 할 자가 도리어 사람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니,
제 몸이 괴로워 머무르게 하기 어렵다 한들 내가 손님을 머무르게 하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산채의 잔심부름꾼이 찾아와 청하며 말했다. "오늘 산채의 두령께서 모든 호걸님을 산 남쪽 수채정(水寨亭, 물가에 있는 정자)으로 연회에 초대하셨습니다."

조개가 대답했다. "두령님께 전해라, 곧 가겠다고."

잔심부름꾼은 물러갔다.

조개가 오용에게 물었다. "선생, 이번 모임은 어떻게 될 것 같소?"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이번 모임은 마땅히 산채의 주인을 가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임 교두는 분명 왕륜을 죽일 작정일 터입니다. 만약 임 교두가 마음을 내지 않더라도, 저의 이 놀라운 말솜씨로 그가 왕륜을 죽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겠습니다.

형님께서는 곁에 암기를 숨겨 두셨다가, 제가 손으로 수염을 비비는 것을 신호로 삼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조개와 일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진패(辰牌, 진시 곧 오전 7~9시를 알리는 시패)가 지난 뒤로 서너 차례나 사람이 와서 재촉하며 청했다. 조개와 여러 두령은 저마다 무기를 챙겨 몸에 감추고 의관을 단정히 차린 뒤 자리에 가려고 나섰다. 송만이 직접 말을 타고 다시 와서 청하더니, 졸개들이 산 가마(山轎) 일곱 채를 메고 오자 일곱 사람이 각자 가마에 올라타 곧장 남산 수채(水寨)로 향하였다. 산 남쪽에 이르러 보니 경물(景物)이 참으로 비범했다. 산채 뒤편 수정자(水亭子) 앞에서 가마를 내리자 왕륜, 두천, 임충, 주귀가 모두 나와 맞이하고는 일행을 수정자(水亭子)로 청하여 주인과 손님으로 나누어 자리 잡게 했다. 수정 일대의 경치를 둘러보니, 이러했다:

사방의 물줄기 높이 솟구치고, 둘레를 감싼 꽃들은 붉은 난간을 누르네.
눈길 닿는 곳마다 향기로운 바람, 만 송이 연꽃은 푸른 물 위에 펼쳐지고;
눈에 들어오는 싱그러운 빛깔, 천 가지 연잎은 향기로운 못을 에워싸네.
화려한 처마 밖에는 버들 그림자 어둑하고, 창 앞에는 소나무 소리 가늘게 들리네.

강산의 빼어난 기운이 정자와 누각에 가득하니, 영웅들이 한데 모여 모임을 갖는구나.

그 자리에서 왕륜과 네 명의 두령인 두천, 송만, 임충, 주귀는 왼쪽 상석에 앉았고, 조개와 여섯 명의 호걸인 오용, 공손승, 유당, 완씨 삼형제는 오른쪽 손님석에 앉았다. 계단 아래에서는 졸개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술이 몇 차례 돌고 음식도 두 차례나 나오자, 조개와 왕륜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리로 모이는 일을 꺼내기만 하면, 왕륜은 곧바로 딴청을 피우며 말을 돌려버렸다. 오용이 임충을 살펴보니, 임충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왕륜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렇게 술자리가 어느덧 오후까지 이어지자, 왕륜이 고개를 돌려 졸개에게 무엇인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서너 명의 사람이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커다란 쟁반을 받쳐 들고 나타났다. 그 위에는 은괴 다섯 덩이가 놓여 있었다. 왕륜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며 조개에게 말했다. "여러 호걸께서 이곳에 의리를 모으러 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송구한 것은, 저희 산채가 작은 웅덩이 같은 곳이라 어찌 진정한 용들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약소하지만 성의를 표하오니 부디 너그럽게 받아 주십시오. 번거로우시더라도 일단 큰 산채로 가서 말을 쉬게 하시면, 제가 사람을 보내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저희는 이곳 양산박이 인재를 널리 받아들인다는 말을 익히 듣고 곧장 찾아와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서로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스스로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귀한 은자를 주시니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유하다고 자만하는 것은 아니나, 쓸 만한 여윳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다시 가져가시고, 저희는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왕륜이 말했다. "어찌 그리 사양하십니까? 저희 산채가 여러분 같은 호걸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식량도 적고 방도 부족하여, 혹여 나중에 여러분께 실례를 범하게 될까 두렵고 체면을 깎는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차마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충이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부릅뜨더니, 의자에 앉은 채로 크게 꾸짖었다. "지난번 내가 산에 올라올 때도 식량이 적고 방이 부족하다며 핑계를 대더니, 오늘 조개 형님과 여러 호걸이 이 산채에 왔는데 또 그런 말을 내뱉다니, 이게 대체 무슨 도리요?"

오용이 얼른 나서며 말했다. "두령님,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저희가 찾아온 것이 잘못되어 산채의 정분을 망친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왕 두령께서 예의를 갖춰 저희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며 여비까지 챙겨 주셨지, 결코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화를 풀고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말은 맑게 하면서 행실은 탁한 자로구나! 나는 오늘 절대로 저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왕륜이 호통을 쳤다. "이 짐승 같은 놈 좀 보게! 술에 취한 것도 아니면서 도리어 말로 나를 상하게 하니, 이는 위아래의 분별을 거꾸로 뒤집는 짓이 아니냐!"

임충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네까짓 게 낙방한 가난한 선비 주제에, 가슴 속에 학문도 없으면서 어떻게 산채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오용이 급히 조개에게 말했다. "조개 형님, 우리가 산에 들어와 합류하려 한 것이 도리어 두령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마련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조개 등 일곱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를 내려가려 했다. 왕륜이 붙잡으며 말했다. "부디 술자리를 마저 마치고 가십시오."

그때 임충이 탁자를 발로 한 번 걷어차 옆으로 밀쳐버리더니, 벌떡 일어나 옷자락 속에서 번뜩이는 칼 한 자루를 뽑아 들고는 손에 꽉 움켜쥐었다. 오용이 손으로 수염을 한 번 쓸어내리자(미리 정한 신호였다), 조개와 유당이 정자로 올라와 짐짓 왕륜을 가로막는 척하며 외쳤다. "동지끼리 싸우지 마시오!"

오용은 한 손으로 임충을 붙드는 척하며 말했다. "두령님,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공손승도 짐짓 말리는 척하며 말했다. "우리 때문에 대의를 망치지 마시오."

완소이는 두천을 붙들어 제압하고, 완소오는 송만을 붙들어 제압하고, 완소칠은 주귀를 붙들어 제압하니, 졸개들은 겁에 질려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임충이 왕륜을 붙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신은 시골뜨기 가난한 선비 주제에, 두천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니오? 시진 대관인이

당신을 그토록 도와주고 여비까지 대주며 교분을 맺어 주었고, 또 나까지 추천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미적거리며 받지 않으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 여러 호걸이 일부러 모여들었더니, 또 이들을 산에서 내려보내려 하다니! 이 양산박이 당신 혼자의 것이란 말이오? 당신처럼 어진 이를 시기하고 능력 있는 이를 질투하는 도적놈을, 죽이지 않으면 어디에 쓰겠는가! 당신은 큰 도량도 큰 재능도 없으니, 결코 이 산채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소!"

두천과 송만, 주귀는 본래 앞으로 나서서 말리려 했으나, 다른 이들이 꽉 붙잡고 버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움직일 수 있었겠는가? 왕륜은 그 와중에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했으나, 조개와 유당 두 사람이 앞을 가로막았다. 왕륜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입을 열어 외쳤다. "내 심복들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 비록 곁에 믿을 만한 심복들이 몇 있었으나, 그들은 도우러 나오려다가도 임충의 맹렬한 기세에 눌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임충은 즉시 왕륜을 붙잡고 한바탕 더 욕설을 퍼붓더니, 가슴팍을 칼로 단번에 찔러 정자 위에 퍽 하고 쓰러뜨렸다.

가련하게도 왕륜은 오랫동안 산채의 주인이었으나, 오늘 임충의 손에 죽고 말았으니, 참으로 옛사람의 말대로 "도량이 크면 복도 크고, 꾀가 깊으면 화도 깊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구나.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홀로 양산박을 차지한 그 뜻 부끄러울 만하고 현자를 시기하고 선비에게 거만하니 너그럽고 부드러움이 적도다. 오직 산채 주인 자리만을 제 것으로 여겨 도리어 뭇 영웅들을 원수로 대하는구나. 술자리 즐거울

때 살기를 내뿜으니 잔과 접시 부딪치는 곳에서 사람 머리가 떨어지네. 속마음이 좁고 편협하니 참으로 한탄스럽도다, 현자를 머물게 하지 않으니 그 목숨 또한 머물지 못하리라.

조개는 왕륜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일행 모두가 저마다 칼을 뽑아 들었다. 임충은 재빨리 왕륜의 머리를 베어 손에 치켜들었다. 그 서슬 퍼런 모습에 겁에 질린 두천, 송만, 주귀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저희도 형님을 따라 채찍을 잡고 등자를 받들며 모시겠습니다!" 조개 일행은 황급히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오용은 피가 낭자한 가운데서 두목의 수석 의자를 끌어다 임충을 앉히며 외쳤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왕륜의 사례를 따를 것이오! 오늘 임 교두를 이 산채의 주인으로 모시겠소."

그러자 임충이 크게 소리쳤다. "선생, 잘못 보셨소이다! 저는 오늘 오직 여러 호걸의 의기를 중히 여겨 이 불인(不仁)한 도적을 처단했을 뿐, 결코 이 자리를 노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 형님께서 이 첫째 자리를 저 임충에게 양보하려 하시니, 어찌 천하 영웅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습니까? 만약 굳이 강요하신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저에게 드릴 말씀이 한마디 있는데,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했다. "두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임충이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이건만, 그 말이 결국 다음과 같은 일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단금정(斷金亭) 위에서는 수많은 단금(斷金)의 동

지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취의청(聚義廳) 앞에서는 여러 차례 의리를 모으는 모임을 열게 될 것이었다. 바로 이러하다.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할 이가 곧 나타날 것이요, 의리를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을 사내들이 곧 모여들리라.

도대체 임충이 오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풀어내리라.

제20회 — 양산박 의사 존조채, 운성현에서 달밤에 유당을 쫓다

梁山泊義士尊晁蓋 鄆城縣月夜走劉唐

이야기는 이러하다. 임충은 왕륜을 죽인 뒤,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겨누며 말했다.

"내 임충이 비록 금군(禁軍)에 있다가 이곳으로 유배되어 왔으나, 오늘 여러 호걸이 이곳에 모이는 자리에서, 왕륜이 마음보가 좁고 어진 이를 시기·질투하여 핑계를 대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찌하리오? 그래서 이놈을 죽인 것이지, 내가 이 자리를 탐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흉금과 담기로 어찌 감히 관군을 막아 싸우고 임금 곁의 원흉과 수악(首惡)을 제거하지 못하겠는가? 여기 조개 형님이 계시니, 의를 행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시며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추셨다. 지금 천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내 오늘 의기를 중히 여겨 그를 산채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두령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자 조개가 말했다.

"안 되네. 예부터 '강한 병사도 주인을 누를 수는 없는 법'이라 했거늘, 이 조개로 말하자면 기껏해야 멀리서 갓 온 사람일 뿐인데, 어찌 감히 곧장 윗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임충은 손을 뻗어 조개를 교의(交椅)로 밀어 앉히며 외쳤다.

"오늘 일은 이미 결말이 났으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왕륜을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거듭거듭 권하여 마침내 조개를 자리에 앉혔다. 임충이 사람들에게 호통을 쳐 정자 앞에 모인 이들이 모두 절을 올리게 했다. 한편으로는 부하들을 시켜 대채(大寨, 본진)에 잔칫상을 차리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왕륜의 시체를 옮기게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산 앞뒤로 보내 수많은 소두목을 모두 대채로 불러 모아 의(義)를 함께 모으게 하였다.

임충 일행은 조개를 가마와 말에 태워 모두 대채로 들어왔다. 취의청(聚義廳)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이들이 모두 청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조 천왕(晁天王)'을 부축하여 정중앙의 첫 번째 교의에 앉히고, 가운데에는 향로를 피워 향을 피웠다.

임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부족한 저 임충은 그저 거칠고 무딘 필부일 뿐이며, 창과 봉술이나 좀 다룰 줄 알 뿐 학식도 재능도 없고 지혜나 술수도 없습니다. 오늘 산채에 천행으로 여러 호걸이 모였으니, 대의가 분명해진 만큼 예전처럼 어물쩍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학구(學究)' 선생이 계시니, 부디 군사(軍師)가 되어 병권을 잡고 장수들을 부리며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용이 대답했다.

"저 오모(吳某)는 시골의 학구일 뿐이며, 가슴에는 세상을 다스릴 경륜의 재주도 없습니다. 그저 손자와 오자(孫吳)의 병법이나 조금 읽었을 뿐 작은 공조차 세운 적이 없는데, 어찌 감히 윗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오용은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임충이 다시 말했다.

"공손 선생께서는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자 조개가 말했다.

"그건 안 되네.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때라면, 나 조개가 물러나야 하네."

임충이 말했다.

"조개 형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공손 선생은 강호에 명성이 높고 병법을 부리는 데 능하시며, 귀신도 예측하지 못할 기묘한 책략과 바람·비를 부르는 법을 가지고 계신데 그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공손승이 말했다.

"비록 작은 법술은 있으나 세상을 구제할 재주는 없으니, 어찌 감히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역시 두령께서 앉으십시오."

임충이 말했다.

"이번에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 선생의 묘법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솥의 세 발(鼎足)과 같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 선생께서는 사양하지 마십시오."

공손승은 결국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임충이 다시 자리를 양보하려 하자, 조개와 오용, 공손승이 모두 거절했다. 세 사람이 일제히 말했다.

"방금 두령께서 솥의 세 발에 비유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감히 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니, 만약 두령께서 다시 사람을 앉히려 하신다면 저희 조개 일행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임충을 붙들어 앉히는 바람에, 임충은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자리에 앉았다. 조개가 말했다.

"이번에는 송(宋)·두(杜) 두 두령을 모셔와 앉힙시다."

두천과 송만은 왕륜이 죽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재주가 미천하여 저분들에게 견줄 수 없으니, 차라리 인정을 베푸는 편이 낫겠다.' 그들은 간곡히 청하여 유당을 다섯 번째 자리에 앉혔고, 완소이가 여섯 번째, 완소오가 일곱 번째, 완소칠이 여덟 번째, 두천이 아홉 번째, 송만이 열 번째, 주귀가 열한 번째 자리에 앉았다.

이로써 양산박에는 열한 명의 호걸이 자리를 잡았다. 산 앞뒤로 모인 칠팔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대청 앞으로 와서 절을 올리고 양옆으로 나뉘어 섰다. 조개가 말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오늘 임 교두가 나를 산채의 주인으로 세우고, 오 학구가 군사가 되었으며, 공손 선생이 병권을 함께 맡아 임 교두 등과 함께 산채를 관리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각자 예전의 직책에 따라 산 앞뒤의 사무를 맡고, 산채의 울타리와 여울을 지키며 실수가 없도록 하라. 모두 힘을 다해 마음을 합쳐 대의를 함께 모으자."

이어 양쪽의 방들을 정리하고 두 집안의 노약자들을 안착시킨 뒤, 약탈해 온 '생신강(生辰綱, 조정의 귀한 공물)'인 금과 보석들, 그리고 각자 자기 장원에서 가져온 금은보화를 꺼내어 대청에서 모든 소두목과 수많은 부하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 자리에서 소를 잡고 말을 도축하여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며, 새로이 의형제를 맺은 것을 축하하였다. 두령들은 밤중이 되어서야 술을 마시다 흩어졌다. 이튿날에도 또 잔치를 베풀어 며칠 동안 연회를 이어갔다.

조개와 오용 등 여러 두령은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다. 창고를 정돈하고 산채의 울타리를 수리하며, 창, 칼, 활, 화살, 갑옷, 투구 같은

군기를 제작하여 적군인 관군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또한 크고 작은 배들을 배치하고, 육지 병사와 수군들이 배에 올라 전투하는 법을 익히게 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로써 양산박의 열한 두령이 의형제를 맺으니, 참으로 그 우정은 팔다리처럼 친밀하고 의리는 뼈와 살처럼 끈끈하였다. 시로 이르되.

옛사람의 우정은 황금도 끊을 만큼 굳건하니,
마음이 함께라면 의리 또한 깊어지네.
수호전(水滸傳) 속 충의로운 이들을 보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세한(歲寒)의 절개 지켜내네.

이로써 임충은 조개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너그럽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의리를 중시하여 각 집안의 노약자들을 산채에 잘 안착시키는 것을 보고, 문득 동경(東京)에 있는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의 생사를 알 수 없어 마음에 걸렸다. 이에 임충은 속마음을 조목조목 조개에게 털어놓았다.

"소인이 산에 올라온 뒤로 아내를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었으나, 왕륜의 마음이 일정치 않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 동경에 떠돌고 있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현제(賢弟)가 이미 동경에 부인을 두고 있으니, 어찌 가서 데려와 함께 살지 않겠는가? 어서 편지를 써서 사람을 산 아래로 보내게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임충은 즉시 편지를 한 통 써서 자기 곁에 있던 심복 부하 둘에게 들려 산 아래로 보냈다. 두 달이 채 안 되어 부하들이 산채로 돌아와 보고했다.

"동경 성안의 전수부(殿帥府) 앞 장 교두의 집까지 찾아가 보니, 부인은 고 태위의 강압적인 혼담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죽어 이미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장 교두 또한 근심하다가 보름 전쯤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녀 금아(錦兒)뿐인데, 이미 데릴사위를 들여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하니, 사실임을 확인하고 두령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임충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으나, 이로써 마음속의 걱정은 깨끗이 털어버렸다. 조개 일행도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했다. 그 후 산채에서는 별다른 일 없이 매일같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관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두령들이 대청에 모여 사무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 부하가 산으로 올라와 보고했다.

"제주부에서 파견된 군관이 천 명가량의 군사를 거느리고, 크고 작은 배 사오백 척을 타고 현재 석갈촌 호당(湖蕩, 호수와 늪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급히 보고하러 왔습니다."

조개가 크게 놀라며 군사 오용에게 청하여 의논했다.

"관군이 곧 들이닥칠 터인데, 어떻게 적을 맞이해야 하겠는가?"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부터 이르기를,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고, 병사가 오면 장수가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완씨 삼형제를 불러 귓속말로 이렇게 일렀다.

"……이러이러하게 하시오."

이어 임충과 유당을 불러 계책을 전하며 말했다.

"그대들 두 사람은 즉시…… 이렇게 하시오."

다시 두천과 송만까지 불러 명령을 내렸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서쪽으로는 항우의 삼천 진영을 맞이하니, 오늘 그대들이 첫 공을 세울 것이로다.

한편, 제주부윤(濟州府尹)이 단련사(團練使) 황안과 본부의 포도관(捕盜官) 한 명을 파견하여 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현지의 배들을 모두 징발하게 했다. 이들은 석갈촌 호탕(湖蕩)에서 배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양산박을 치러 나아갔다.

한편, 단련사 황안은 인마(人馬)를 거느리고 배에 올라,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내지르며 금사탄(金沙灘)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배가 점점 물가에 가까워지자, 수면 위로 윙윙거리며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황안이 말했다. "저 소리는 화각(畫角, 뿔나팔) 소리가 아니냐? 어서 배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저 노화탕(蘆花蕩, 갈대꽃 핀 늪) 만(灣)에 정박시켜라."

살펴보니, 멀리 수면 위로 배 세 척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를 자세히 보니 한 척에 사람이 다섯 명씩이었다. 네 명은 쌍노(雙櫓)를 젓고 있었고, 배 앞머리에는 진홍색 두건을 머리에 두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모두 똑같이 붉은 비단에 수놓은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유객주(留客住, 적선을 끌어당기는 갈고리 달린 창)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세 척의 배에 탄 사람들의 차림새가 모두 똑같았다.

그중 아는 자가 있어 황안에게 말했다. "저 배 세 척에 탄 세 사람은 각각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입니다!"

황안이 외쳤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 저 세 놈을 잡아라!"

양쪽의 사오십 척에 달하는 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다. 그러자 그 세 척의 배는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일제히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 단련은 손에 든 창을 꼬나 쥐고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오로지 저 도적놈들을 잡는 데만 힘써라!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세 척의 배가 앞서 달아나자, 뒤따르던 관군의 배에서는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자 완씨 삼형제는 선창 안에서 청호피(靑狐皮, 푸른 여우 가죽) 한 장씩을 꺼내 들어 화살을 막아냈다. 뒤따라오던 관군의 배는 그저 앞만 보고 쫓아갔다.

채 두세 리도 따라가지 못했을 때, 황안의 뒤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날 듯이 노를 저어 와 보고했다. "쫓지 마십시오! 저희 쪽에서 돌격해 들어갔던 배들이 저놈들에게 당해 모두 물속에 처박혔고, 배마저 다 빼앗겼습니다!"

황안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놈들에게 당한 것이냐!"

작은 배에 탄 자가 대답했다. "저희가 배를 몰고 가는데, 멀리서 배 두 척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마다 다섯 명씩 타고 있더군요. 저희가 힘을 합쳐 쫓아가려 했으나, 서너 리도 못 가서 사방의 좁은 물길에서 작은 배 일고여덟 척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 배들에서 쏘아대는 쇠뇌 화살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급히 배를 돌리려 좁은 항구로 들어서니, 기슭에 이삼십 명쯤 되는 자들이 양쪽에서 큰 대껍질 밧줄을 끌어당겨 수면을 가로질러 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 밧줄을 살피려는데, 이번에는 기슭에서 회병(灰甁, 석회 가루를 담은 폭탄)과 돌멩이가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관군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건져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간신히 빠져나와 육지로 올라와 살펴보니, 기슭에 있던 인마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말들도 모두 빼앗긴 뒤였습니다. 말을 지키던 군사들은 모두 물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화탕

(蘆花蕩) 근처에서 이 작은 배를 찾아내어 곧장 단련사님께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황안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즉시 백기를 흔들어 모든 배에 추격을 멈추고 일단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배들이 겨우 뱃머리를 돌려 움직이려는데, 뒤에서 아까 그 세 척의 배가 다시 십여 척의 배를 이끌고 나타났다. 배마다 고작 서너 명씩만 타고 붉은 깃발을 흔들며 휘파람을 불어대는데, 그 기세가 날아오는 듯했다.

황안이 배를 펼쳐 적을 맞이하려던 찰나, 갈대숲 사이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다. 황안이 살펴보니 사방이 온통 붉은 깃발로 가득 차 있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뒤따라오던 배 위에서 누군가 외쳤다. "황안! 머리를 두고 돌아가라!"

황안이 힘껏 노를 저어 갈대 기슭을 벗어나려 했으나, 양쪽 좁은 물길에서 사오십 척의 작은 배들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배 위에서는 쇠뇌 화살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황안이 화살비 속을 뚫고 길을 찾으려 했을 때 남은 배는 겨우 서너 척뿐이었다. 황안이 빠른 배 위로 뛰어올라 뒤를 돌아보니, 뒤따르던 군사들은 하나같이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배째 끌려간 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살해당했다.

황안이 작은 쾌속선을 몰아 가던 중, 노화탕(蘆花蕩) 가의 배 한 척 위에 유당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유당은 갈고리(撓鉤)를 던져 황안의 배를 낚아채더니 단숨에 뛰어 건너와 한 팔로 허리를 움켜쥐며 호통쳤다. "버둥대지 마라!" 물에 익숙한 다른 군사들은 물속에서 화살에 맞

아 죽었고, 감히 물에 뛰어들지 못한 자들은 배 안에서 모두 생포되었다.

황안은 유당에게 끌려 기슭으로 올라갔다. 멀리서 조개와 공손승이 산기슭에서 말을 타고 칼을 든 채, 오륙십 명의 부하와 이삼십 필의 말을 거느리고 지원하러 오고 있었다. 일행은 일이백 명을 사로잡았고, 빼앗은 배는 모두 산 남쪽 수채(水寨)에 거두어 두었다.

크고 작은 두령들이 일제히 산채로 모였다. 조개가 말에서 내려 취의청(聚義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두령들은 각자 군장과 무기를 풀고 빙 둘러앉았다. 황안을 잡아 장군 기둥에 묶어 두고, 금은과 비단을 가져다 졸개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점검해 보니 빼앗은 좋은 말이 육백여 필이었으니, 이는 임충의 공로였다. 동쪽 항구의 공은 두천과 송만의 것이었고, 서쪽 항구의 공은 완씨 삼웅(三雄)의 것이었다. 황안을 사로잡은 것은 유당의 공이었다.

두령들은 크게 기뻐하며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산채에서 잔치를 벌였다. 직접 빚은 좋은 술과 양산박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연근과 물고기가 상에 올랐다. 산 남쪽 나무에는 복숭아, 살구, 매실, 자두, 비파, 산대추, 감, 밤 같은 제철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고, 직접 기른 닭과 돼지, 거위, 오리 같은 온갖 먹거리도 풍성하니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었다. 두령들은 그저 승리를 축하하며 잔치를 즐길 뿐이었다. 갓 산채에 도착하자마자 이토록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왕륜이 제멋대로 뽐낸 것이 가히 우스우니,
용렬한 재주로 어찌 큰 임무를 감당하랴!
한바탕 화병(火併, 내홍의 살육)으로 새 주인에게 돌아가니,
양산의 사업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부하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산 아래에서 주두령께서 사람을 보내 산채로 오라 하십니다." 조개가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냐?" 부하가 대답했다. "주두령께서 듣기로 상인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함께 이동 중인데, 오늘 밤 반드시 육로로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 하여 미리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마침 쓸 금은보화가 부족한데, 누가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다녀오겠느냐?" 그러자 완씨 삼형제가 말했다. "저희 형제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조개가 당부했다. "좋은 아우들아, 매사에 조심하고 서둘러 다녀오너라."

완씨 삼형제는 즉시 대청을 내려가 옷을 갈아입고 허리칼을 찼다. 박도와 갈고리, 쇠창을 챙기고 백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채 대청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두령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산을 내려가 금사탄에 있는 주귀의 주막으로 배를 몰아 갔다. 조개는 완씨 삼형제가 감당하기 어려울까 걱정되어, 유당에게 백여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 그들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다시 당부했다. "오직 금은보화와 재물만 잘 챙기고, 상인들의 목숨은 절대로 해치지 마라." 유당이 물러갔다.

조개는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두천과 송만에게 오십여 명을 이끌고 내려가 지원하라고 했다. 조개는 오용, 공손승, 임충과 함께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때 부하가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주두령 덕분에 금은보화가 든 수레 스무 여 대와 나귀 및 노새 마흔에서 쉰 마리를 얻었습니다!" 조개가 다시 물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없느냐?" 부하가 대답했다. "상인들이 우리 기세가 너무 맹렬한 것을 보고는 수레와 짐승, 짐을 모두 내버려 둔 채 목숨을 구하려 도망쳤기에,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제 막 산채에 자리를 잡았으니,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은괴 하나를 꺼내 부하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어 술과 안주를 준비시켜 금사탄으로 바로 내려보냈다. 금사탄에 가보니 두령들이 수레를 모두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었고, 배를 띄워 짐승과 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두령들은 매우 기뻐했다. 술잔을 비운 뒤, 조개는 사람을 시켜 주귀를 산 위로 모셔와 함께 잔치를 벌이게 했다.

조개와 두령들은 모두 산채의 취의청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부하들이 많은 재물을 짊어지고 대청으로 들어왔고,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 비단과 옷가지들은 한쪽에 쌓고, 곡물과 물품들은 다른 쪽에 쌓았으며, 금은보화는 정면에 쌓아 두었다. 두령들은 탈취한 엄청난 재물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조개는 창고를 맡은 소두목에게 명령하여, 재물의 절반은 창고에 넣어 두고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하게 했다. 이 절반을 다시 둘로 나누었는데, 한쪽은 대청에 모인 열한 명의 두령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나머지 한쪽은 산 위아래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새로 잡은 군사들은 얼굴에 문신을 새겨 표시를 한 뒤, 건장한 자들은 각 산채로 보내 말을 먹이거나 나무

를 하게 했고, 몸이 약한 자들은 곳곳에서 수레를 지키거나 풀을 베게 했다. 황안은 후채의 감옥에 갇혔다.

조개가 말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산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저 재난을 피하고자 왕륜의 휘하로 들어가 작은 두목이라도 되어보길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임 교두(임충) 동생이 나를 존경하여 추대해 준 덕분에 뜻밖에도 두 번의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첫째는 관군을 이겨 많은 사람과 말, 배를 얻고 황안을 잡은 것이요, 둘째는 이토록 많은 금은보화를 얻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형제들의 재능 덕분이 아니겠느냐?" 두령들이 대답했다. "모두 형님 덕분에 얻은 복입니다. 형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조개가 다시 오용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 일곱 명의 목숨은 모두 송 압사와 주 도두 두 사람 덕분에 건진 것이나 다름없네. 옛말에 '은혜를 알고도 갚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와 안락이 어디서 왔겠는가? 조만간 금은보화를 좀 챙겨서, 사람을 시켜 운성현에 한번 다녀오게 함세. 이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네. 그리고 백승이 제주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반드시 그를 구출해 내야 하네."

오용이 말했다. "형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생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송 압사는 인의가 넘치는 분이라 우리가 보답하려 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는 일은 빠뜨릴 수 없으니, 조만간 산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형제 중 한 명을 보내 직접 다녀오게 하면 됩니다. 백승의 일은 낯선 사람을 보내 돈을 써서 미리 손을 써 두게 한 뒤, 그를 잘 돌보아 탈출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면 될 일입니다. 우선 우리는 식량을 비축하고 배를 만들며, 무기를 제작하고 산채의 울타리와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짓고 옷과 갑옷을 정비하며, 창과 칼, 활과 화살을 만들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관군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군사의 기묘한 계책에 맡기겠네."

오용은 즉시 여러 두령을 불러 일을 나누어 맡겼으니, 일은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양산박은 조개가 산에 들어온 뒤로 갈수록 더욱 번창하였다.

한편, 제주부 태수는 황안의 휘하에서 도망쳐 돌아온 군인들로부터 양산박이 관군을 죽이고 황안을 생포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 들었다. 또한 양산박의 호걸들이 워낙 영웅호걸이라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어 잡기가 어렵고, 게다가 물길도 분별하기 힘들고 항구와 지류가 어지러이 얽혀 있어 그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 부윤은 이를 듣고 그저 괴로워하며 태사부의 간판(幹辦)에게 하소연했다.

"하도(何濤)가 먼저 많은 인마를 잃고 혼자 목숨만 건져 돌아왔는데, 이미 귀가 두 개나 잘린 채로 집에 돌아가 요양 중이라 지금까지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난 오백 명 중 돌아온 자가 단 한 명도 없으니, 그래서 다시 단련사(團練使) 황안과 본부의 포도관(捕盜官)을 보내 군병을 거느리고 추격해 잡게 했으나 그들마저 모두 패해 잃고 말았습니다. 황안은 이미 산채로 산 채로 끌려갔고, 죽은 관군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도 승리할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태수는 속으로 근심이 가득하여 도무지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승국(承局)이 달려와 보고했다. "동문 접관정(接官亭)에 새 관리가 도착하셨다는 급보입니다." 태수는 황급히 말을 타고 동문 밖 접관정으로 나갔다. 먼지가 일어나는 곳을 보니 새 관리가 이미 정자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부윤은 정자로 올라가 인사를 마쳤다. 그 새 관리는 중서성(中書省)에서 내려온 교체 문서를 꺼내 부윤에게 건넸다. 태수는 문서를 본 뒤 곧 새 관리와 함께 주아(州衙)로 들어가 패인(牌印)과 모든 부고(府庫)의 전량(錢糧) 등을 인계했다. 그러고는 즉시 잔치를 베풀어 새 관리를 대접했다. 전임 태수는 양산박 도적들의 세력이 막강한 것과 관군을 죽인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새 관리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속으로 생각했다.

'채 태사께서 이런 일을 맡겨 나를 추켜올려 주셨건만, 하필이면 이런 곳, 이 따위 부(府)란 말인가……. 게다가 강병맹장도 없으니 저 강도 무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저놈들이 성안으로 양식을 빌리러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꼬…….'

전임 태수는 이튿날 의복과 짐을 챙겨 동경(東京)으로 돌아가 죄를 받으러 갔으니, 이는 더 말할 것이 없다. 한편, 새로 부임한 종(宗) 부윤은 임지에 도착한 뒤, 제주를 지키러 새로 옮겨 온 군관 한 사람을 불러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 풀을 모으고 양식을 비축하고, 용맹한 민부와 지략 있는 현사(賢士)들을 모아 양산박 호걸들을 잡을 준비를 의논했다. 한편으로는 중서성에 상신(上申)하여 인근 주·군에 명령을 전달해 힘을 합쳐 토벌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소속 주

현에 공문을 내려 토벌 사실을 알리고 속현(屬縣)에게는 각자의 경내를 굳게 지키도록 명령했다. 이 일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한편, 본주의 공목(孔目, 관청의 서류를 담당하는 관리)은 사람을 시켜 공문을 하나 작성하게 한 뒤, 관할인 운성현으로 내려보내 본 지역을 잘 지키며 양산박 도적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했다. 운성현 지현은 공문을 확인한 뒤, 송강에게 이를 문안(文案, 공식 문서)으로 만들어 각 마을에 내려보내어 모두가 경비에 힘쓰도록 지시했다.

송강은 공문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개 일행이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큰 죄를 짓게 될 줄이야. 생신강을 탈취하고, 관리들을 죽였으며, 하 관찰사를 다치게 하고, 수많은 관군을 해친 데다 황안까지 생포해 산채로 끌고 갔으니 말이다. 이 정도 죄라면 구족을 멸할 만한 중죄다. 비록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법도에 비추어 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찌한단 말인가?'

송강은 마음속이 답답하여 괴로웠다. 그는 곧바로 첩서후사(貼書後司, 서류를 맡아보는 하급 관리) 장문원에게 이 문서를 정식 문안으로 작성하여 각 향과 보(保, 마을 단위의 행정 구역)로 내려보내라고 분부했다. 장문원이 문서를 정리하는 동안, 송강은 한가로이 걸음을 옮겨 현청 밖으로 나갔다.

송강이 채 스무 걸음, 서른 걸음도 떼기 전에 뒤에서 누군가 "압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송강이 뒤를 돌아보니 중매쟁이 왕파

(王婆)가 한 노파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말했다. "인연이 닿으셨네요. 좋은 일을 하실 압사님께서 마침 오시는군요!" 송강이 몸을 돌려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있소?" 왕파가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함께 온 염파(閻婆)를 가리키며 송강에게 말했다. "압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집은 동경(東京)에서 흘러온 사람들로 이 고장 토박이가 아닙니다. 친가족 세 식구로, 가장은 염공(閻公)이고 그에게는 파석(婆惜)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염공이란 분이 평소 노래를 아주 잘하시던 분이라, 어릴 때부터 딸 파석에게도 온갖 잡가(雜歌)와 재주를 가르쳤지요. 이제 겨우 열여덟 살인데 얼굴도 제법 곱습니다. 세 식구가 산동의 어느 관인에게 의탁하러 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이곳 운성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풍류와 잔치를 즐기지 않으니 도무지 먹고살 길이 없어, 현청 뒤편 외진 골목에 잠시 거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제, 가장인 염공이 돌림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 염파에게는 장례 치를 돈 한 푼이 없어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자 저에게 중매를 부탁해 왔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이런 시절에 어디 그렇게 딱 맞는 자리가 있겠소?'라고요. 게다가 돈 빌릴 곳도 없어 막막하던 차에, 마침 압사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시기에 저와 이 염파가 부랴부랴 따라온 것입니다. 부디 압사님께서 가엾이 여기시어 관 한 구만 마련해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셨구려. 두 분 모두 나를 따라오시오. 골목 어귀 주막으로 가서 붓과 먹을 빌려 글을 한 장 써 드릴 테니, 그것을 가지고 현 동쪽 진삼랑(陳三郎)의 집에 가서 관 한 구를 가져가시오." 송강이 다시 물었다. "장례 치를 비용은 있소?" 염파가 대답했다. "압사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관조차 없는데 어디서 비용을 구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내가 다시 은 열 냥을 줄 테니, 장례 비용으로 쓰시오." 염파가 말했다. "이는 다시 낳아주신 부

모요 새로 길러주신 어버이와 같으니, 나귀나 말이 되어서라도 압사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러고는 곧은 한 정(錠)을 꺼내 염파에게 건네고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한편 이 노파(염파)는 송강이 써 준 글을 가지고 곧장 현 동쪽 거리 진삼랑의 집으로 가서 관 한 구를 받아 와 집에서 장례를 무사히 치렀는데, 그래도 닷새엿 냥의 은이 남았으니 모녀 두 사람이 그것을 살림 밑천으로 삼아 지냈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어느 날, 염파(閻婆)가 송강에게 사례하러 그의 거처를 찾아갔다가 그 안에 부녀자의 모습이라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자, 돌아와 옆집 왕파에게 물었다. "송 압사님의 거처에는 부녀자가 한 명도 없던데, 혹시 부인이 따로 계신가요?" 왕파가 대답했다. "송 압사님 댁은 송가촌에 있다고만 들었지, 부인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소. 이 현에서 압사 노릇을 하시면서 그저 객으로 머물고 계실 뿐이지. 평소 관(棺)을 베풀고 약을 나누어 주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기를 매우 즐기시니, 아마 아직 부인이 없으신 모양이오." 염파가 말했다. "제 딸은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며 온갖 풍류와 재담을 다 알아서, 어릴 때 동경(東京)에 있을 때는 기방(行院)들을 드나들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기방이 없었답니다. 몇몇 윗자리 행수(行首)들이 저에게 양녀로 들이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청해 왔지만, 저희 부부가 늙어 봉양해 줄 사람이 없을까 봐 양녀로 보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꼬여 도리어 그 아이를 고생시키게 되었네요. 엊그제 송 압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거처에 부인이 없는 것을 보고는, 혹시 압사님께서 사람을 들이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파석(婆惜)을 그분께 보내드리고 싶어, 자네에게 송 압사님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

다. 지난번 자네가 다리를 놓아 주신 덕분에 송 압사님의 구제를 입었는데 보답할 길이 없으니, 친척처럼 왕래라도 하고 싶어서요."

왕파는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송강을 찾아가 이 일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송강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어찌 그 노파의 '촬합산(撮合山, 짝짓는 명수)' 같은 입심을 당해 내겠는가. 결국 송강도 승낙하고 말았다. 송강은 현 서쪽 골목 안에 다락집 한 채를 얻어 가재도구를 갖춘 뒤, 염파와 파석 모녀 두 사람을 그곳에 거처하게 했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염파석(閻婆惜)을 머리 가득 주취(珠翠)로 단장하고 온몸에 능라(綾羅)를 두른 모습으로 꾸며 놓았다. 바로 다음과 같으니—

꽃 같은 자태 하늘하늘, 옥 같은 바탕 곱고도 곱구나.
쪽진 머리는 한 조각 검은 구름이 비낀 듯, 두 눈썹은 반쯤 굽은 초승달을 그린 듯.
자그마한 금련(金蓮, 전족)에 상비(湘妃)의 비단치마가 살짝 드러나 정취가 넘치고,
옥순(玉筍) 같은 가느다란 손가락은 비취색 소매에 반쯤 가려져 그 정이 끝이 없네.
별 같은 두 눈동자는 옻을 찍어 놓은 듯하고, 부드러운 가슴은 갓 베어 낸 기름 같구나.
금옥(金屋)의 미인이 어원(御苑)을 떠나와, 예주궁(蕊珠宮)의 선녀가 속세로 내려온 듯하구나.

송강이 또 며칠 더 지나자, 그 노파(염파)에게도 머리 장식과 옷가지가 어지간히 갖추어졌고, 정말이지 염포석을 풍족한 의식주 속에서 길러 주는 셈이 되었다.

처음에는 송강이 밤마다 염포석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발길이 점점 뜸해졌다. 어찌 된 일인가? 알고 보니 송강은 호한(好漢)이라 창과 봉을 익히는 것만 좋아할 뿐, 여색에는 그리 큰 욕심이 없었다. 게다가 염포석은 물오른 듯한 젊은 여인인 데다 이제 겨우 열여덟, 열아홉으로 한창 꽃다운 나이였기에, 송강은 그 여인의 마음에 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송강이 그만 후사(後司)의 첩서리(貼書) 장문원(張文遠)을 데리고 염포석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 이 장문원은 송강과 같은 청사(同房)에서 일하는 압사로, 사람들이 '소장삼(小張三)'이라 부르는 자였다. 그는 눈매가 수려하고 이가 희고 입술이 붉어 인물이 훤했다. 평소 기루와 유흥가(三瓦兩舍)를 떠돌며 풍류를 즐겨 멋스러운 기운이 몸에 배었고, 거문고와 피리 등 악기에도 못 하는 것이 없었다.

염포석은 본래 술과 색에 익숙한 기녀 출신이었기에 장삼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려 그에게 눈독을 들였다. 장삼 역시 염포석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눈짓으로 화답했다. 송강이 일어나 손을 씻으러 간 사이, 염포석은 도리어 말로 장삼을 슬쩍 떠보며 농을 걸었다. 옛말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물이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장삼 또한 주색을 밝히는 한량

이었으니 어찌 이런 이치를 모르겠는가. 그는 염포석이 눈짓을 보내며 짙은 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단단히 새겨 두었다.

그 후로 송강이 없을 때면 장삼은 송강을 찾는다는 핑계로 염포석의 집을 드나들었다. 염포석은 그를 붙잡아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가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장삼과 정을 통한 뒤로는 둘 사이가 한 덩어리 불처럼 뜨거워졌다. 게다가 장삼은 본래 이런 일에 능숙한 자였다. 옛 사람의 말에 "첫째, (여자를) 데려가지 말고, 둘째, (사내를 여자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 말라"는 경계가 있음을 어찌 못 들었으랴. 송강이 천 번 만 번 잘못한 것이 바로 이 장삼을 자기 집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것이고, 그 때문에 염포석이 그에게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이다. 예부터 "풍류는 차로 맺어지고, 술은 색의 중매인이라"고 했는데, 딱 이 조목에 들어맞은 셈이었다.

염포석은 소장삼과 정을 통한 뒤로 송강에게는 반 푼어치의 정도 두지 않았다. 송강이 찾아와도 그저 말로 그를 상하게 할 뿐, 조금도 살갑게 굴지 않았다. 그러나 송강은 호한이라 여색에 연연하지 않았기에 보름이나 열흘에 한 번꼴로 겨우 들를 뿐이었다. 장삼과 염포석은 풀로 붙인 듯 옻칠한 듯 들러붙어 밤에 만나 새벽에 헤어지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고 그 소문이 송강의 귀에도 슬며시 들어갔다.

송강은 반신반의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부모님이 정해 주신 정실처도 아닌데, 그 여자가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굳이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발길을 끊으면 그만이지.' 그리하여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예 발길을 끊었다. 염파(閻婆)가 사람을 보내 몇 번이고 청했지

만, 송강은 그저 일이 있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바로 이를 두고 시(詩)에서 이르되,

꽃다운 처녀는 마음이 흐르는 물 따라 (다른 이에게) 흘러가려 하나,
의로운 사내는 떨어진 꽃에 마음을 두지 않네.
어미는 재물을 탐하고 딸은 잘난 사내를 좋아하니,
한가지 똑같은 떨이 물건이 두 집안의 차(茶)를 받았구나.

이야기는 또 다른 곳으로 흐른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송강이 현청에서 나와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하얀 범양 모직 모자를 쓰고 검푸른 비단 저고리를 입었으며, 바지에는 무릎 보호대를 덧대고 삼베 짚신을 신고 있었다. 허리에는 단도를 차고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멘 채,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현청 쪽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송강은 사내의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찻집 밖으로 나가 그를 뒤따랐다. 서른 걸음쯤 따라갔을 때, 사내가 뒤를 돌아 송강을 보았으나 송강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송강은 사내를 보니 어딘가 낯이 익어 '혹시 예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내 역시 송강을 한참 바라보더니 낯이 익은 듯 발걸음을 멈추고 송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차마 먼저 묻지는 못했다. 송강은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저러나? 어찌하여 나만 빤히 쳐다보는 거지?' 하고 의아해했으나, 그 역시 먼저 묻지는 않았다.

그러다 사내가 길가에 있는 이발소로 들어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저 앞에 있는 압사는 누구십니까?" 이발사가 대답했다. "저분은 송 압사라네."

사내는 박도를 든 채 송강 앞으로 다가와 크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압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낯이 좀 익은 것 같구려." 사내가 말했다.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송강은 사내를 따라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사내가 말했다. "이 주막이라면 이야기를 나누기에 딱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으로 올라가 한적한 방을 골라 자리를 잡았다. 사내는 박도(朴刀)를 옆에 세워두고 보따리를 풀어 탁자 밑에 던져 놓더니, 곧장 몸을 던지듯 절을 올렸다. 송강이 황급히 답례하며 물었다. "실례지만, 귀하의 존성(尊姓)이 어찌 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사내가 말했다. "대은인(大恩人)께서 어찌 이 아우를 잊으셨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형장(兄長)은 누구시오? 정말 낯이 익은데 제가 그만 잊어버렸나 봅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이 아우는 바로 조 보정(晁保正)의 장원(莊園)에서 일찍이 어른의 존안을 뵙고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를 입었던 '적발귀(赤髮鬼)' 유당(劉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송강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아우님, 자네 정말 간이 크군! 다행히 관원(做公的)들이 보지 못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이 벌어질 뻔했네!" 유당이 말했다. "큰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일부러 보답하러 왔습니다." 송강이 물었다. "조 보정 형제들은

요사이 어찌 지내는가? 아우님, 누가 자네를 보냈는가?" 유당이 답했다. "조 두령 형님께서 대은인께 거듭거듭 절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양산박의 주(主) 도두령(都頭領, 총두령)이 되셨습니다. 오학구(吳學究)는 군사(軍師)가 되었고, 공손승은 함께 병권을 맡고 있습니다. 임충이 홀로 자기 힘으로 (조 두령을) 떠받쳐 화병(火併, 내부 결판)을 일으켜 왕륜을 죽였습니다. 산채에는 본래 두천(杜遷), 송만(宋萬), 주귀(朱貴)가 있었고, 우리 형제 일곱 명을 합쳐 모두 열한 명의 두령이 있습니다. 지금 산채에는 칠팔백 명이 모여 있고 양식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형님의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특별히 이 유당을 시켜 서신 한 통과 황금 백 냥을 가져와 송 압사님과 주(동)·뇌(횡) 두 도두(都頭)께 사례하라 하셨습니다."

유당은 보따리를 풀어 서신을 꺼내 송강에게 건넸다. 송강은 서신을 다 읽고는 도포의 앞자락을 걷어 올려 초문대(招文袋, 공문서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를 열자 유당이 금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송강은 그 서한과 함께 금 한 가닥만을 집어 싸서 초문대 안에 넣고는 옷자락을 내리며 말했다. "아우님, 이 금은 도로 보따리에 싸 두게."

그러고는 곧 술 따르는 사람(量酒)을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하고, 큰 덩어리로 자른 고기 한 접시와 채소, 과일 등을 차려 유당에게 대접하게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 무렵, 유당이 술을 다 마시고 탁자 위의 금괴 보따리를 풀어 다시 꺼내려 하자, 송강이 황급히 가로막으며 말했다. "아우님, 내 말을 들어 보게. 자네들 일곱 형제가 산채에 막 들어갔으니 한창 금은이 쓰일 데가 많을 걸세. 송강의 집에는 그럭저럭 살림이 있으니 이 금은 그저 자네들 산채에 두게. 내가 노자가 부족해지면

그때 아우 송청(宋淸)을 보내어 받아 오게 하면 되네. 오늘 송강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한 가닥은 받았네. 주동(朱仝) 그 사람도 집안 살림이 좀 있으니 그에게는 줄 필요가 없네 — 내가 따로 사정을 잘 일러두겠네. 뇌횡(雷橫) 그 사람은 게다가 내가 보정께 (소식을) 알려 준 사실조차 모르고 있네. 더구나 그자는 도박을 좋아하니, 혹여 금을 들고 나가 도박판에 써 버리기라도 하면 일이 터질지 모르네. 안전하지 못하니 금은 절대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네. 아우님, 내가 자네를 집으로 모셔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행여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장난이 아닌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세. 오늘 밤 달빛이 분명 밝을 것이니, 자네는 곧장 산채로 돌아가고 여기에 더 지체하지 말게. 송강이 거듭거듭 두령들께 안부를 전하니, 직접 찾아가 축하드리지 못함을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청한다고 전해 주게." 유당이 말했다. "형님의 큰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 특별히 이 아우를 시켜 약소한 인정(人情)을 압사님께 보내어 효순(孝順)의 마음을 표하려 하신 것입니다. 보정 형님께서 이제 두령이 되시고 학구(學究) 군사(軍師)의 호령(號令)이 예전과는 비할 바가 아닌데, 이 아우가 어찌 그대로 가져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산채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호령이 그토록 엄격하다면 내가 답장 한 통을 써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유당이 간곡히 받아 달라 청했으나 송강은 끝내 받으려 하지 않았다. 송강은 곧 종이 한 폭을 가져와 주막의 붓과 벼루를 빌려 자세한 답장을 써서 유당의 보따리 속에 넣게 하였다. 유당은 성격이 곧은 사람이라 송강이 이토록 사양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 여겨, 금괴를 본래대로 다시 싸 두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유당이 말했다. "형님께서 답장을 써 주셨으니, 이 아우는 밤을 도와 곧바로 떠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더 머무르라 붙들지 못하니, 마음으로만 서로 알아주세." 유당이 다시 네 번 절을 올렸다. 송강은 술 따르는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 손님께서 백은(白銀) 한 냥을 여기 놓고 가시니, 내일 내가 직접 와서 계산하겠네." 유당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 박도를 챙겨 송강을 따라 (주막을) 내려왔다. 주막을 나와 골목 어귀에 이르니 날은 어둑어둑하고, 마침 팔월 중추(中秋) 무렵이라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송강은 유당의 손을 잡고 당부했다. "아우님, 부디 몸 조심하고 다시는 오지 말게. 이곳은 관원(做公的)이 많아 함부로 다닐 곳이 못 되네. 멀리 배웅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작별하세." 유당은 밝은 달빛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서쪽 길로 향해 밤새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한편, 송강은 유당과 작별하고 천천히 거처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다행히 관원(做公的)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이 벌어질 뻔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조개(晁蓋)가 도리어 산에 들어가 도적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여 놓다니.'

채 두 모퉁이도 돌지 못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압사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이틀이나 뵙지 못했네요."

송강이 뒤를 돌아보니 바로 염파(閻婆, 염포석의 어미)였다. 이 한 번의 일로 말미암아, 송강의 작은 담(膽)이 큰 담으로 뒤집히고,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

결국 송강이 염파를 어찌 처치하게 될 것인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보기로 하자.

제21회 — 건파가 취하여 당우아를 때리고, 송강이 노하여 염파석을 죽이다

虔婆醉打唐牛兒 宋江怒殺閻婆惜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유당과 작별하고 달빛을 받으며 거리를 거닐어 여유롭게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을 가다 염파를 만났다. 염파가 급히 달려와 외쳤다.

"압사님, 그동안 사람을 보내 청했는데 귀하신 몸이라 뵙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 딸년이 말버릇이 좀 나빠 압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도, 부디 이 늙은이의 체면을 봐서 너그러이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엄히 꾸짖어 압사님께 사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운 좋게 압사님을 뵈었으니, 저희 집에 잠시 들러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오늘 현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염파가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제 딸이 집에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으니, 압사님께서 대충 얼굴만 비추고 가시면 됩니다. 어찌 그리도 모질게 구십니까!"

송강이 다시 말했다.

"정말 바빠서 그렇습니다. 내일은 꼭 가겠습니다."

염파가 말했다.

"아닙니다, 꼭 오늘 밤에 가셔야 합니다."

염파는 송강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말을 이었다.

"누가 압사님 마음을 흐려놓은 것입니까? 저 모녀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 압사님께 달렸습니다. 남들이 떠드는 헛소문이나 시비는 듣지도 마시고, 압사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제 딸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모두 이 늙은이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부디 한 번만 들러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밀린 업무가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염파가 말했다.

"압사님께서 공무를 조금 미루신다 한들, 현령 나리께서 압사님을 문책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집에 가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강은 성격이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이 노파가 계속 매달리며 늘어지자 결국 항복하고 말했다.

"알았으니 손 좀 놓으시오. 가겠소."

염파가 말했다.

"압사님, 너무 빨리 가시면 이 늙은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정말이지 못 말리겠군!"

두 사람이 함께 문 앞에 이르니, 바로 이러하였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꽃이 사람을 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리는 것이라.
차라리 오늘 후회할 줄을 알았다면,
어찌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가.

송강이 발걸음을 멈추자, 염파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압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설마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건 아니시겠지요?"

송강이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자, 노파는 잽싸게 움직였다. 예부터 이르기를 '영악한 노파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는가'라고 하더니, 송강이 떠날까 봐 겁이 났던 모양이다. 염파는 송강의 곁에 바짝 붙어 앉으며 외쳤다.

"얘야,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장삼이 여기 와 있단다!"

한편, 염파석은 침상에 누워 외로운 등불 하나를 마주한 채, 마땅히 할 일도 없이 그 어린 장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네가 사랑하는 장삼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염파석은 그게 정말 장삼인 줄로만 알고 황급히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욕을 했다.

"이 단명할 놈, 사람을 이리도 애타게 기다리게 하다니! 이 몸이 먼저 따귀를 두 대 갈겨줘야겠다!"

그녀는 날쌔게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가 격자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하지만 대청에 켜진 유리 등불이 밝게 비춘 곳에는 송강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염파석은 다시 몸을 돌려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아까와 같이 침상에 몸을 던졌다.

염파는 딸의 발소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들었다. 노파가 다시 외쳤다.

"얘야, 네 장삼이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다시 가버린단 말이냐?"

그러자 침상에 있던 염파석이 대답했다.

"이 방까지 오는 게 뭐 그리 멀다고 그이가 못 오겠어요? 눈먼 것도 아닐 텐데 어찌 스스로 올라오지 않고, 내가 마중 나가기만 기다린답니까? 쓸데없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염파가 말했다.

"이 천한 것이 정말 압사님이 오신 걸 못 본 모양이구나. 속이 터지는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압사님께서 네 말버릇을 듣고 기분이 상하실 게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압사님, 제가 위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송강은 염파석이 내뱉은 말들을 듣고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하지만 염파가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여섯 개의 서까래가 있는 커다란 누각이었다. 앞쪽 방에는 봄맞이용 평상과 탁자, 의자가 놓여 있었고, 뒤쪽 방은 침실로 꾸며져 있었는데, 안쪽에는 세 면에 꽃무늬가 새겨진 침상이 놓여 있었다. 침상 양옆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었고 그 위로는 붉은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침상 머리맡에는 수건을 걸어둔 옷걸이가 있었고, 옆에는 세숫대야가 놓여 있었다. 금칠을 한 탁자 위에는 주석 등잔대가 놓여

있었으며, 옆쪽에는 나무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정면 벽에는 미인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침상 맞은편에는 일자형 의자 네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송강이 누각 위로 올라오자 염파는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송강은 나무 의자에 앉아 침상 쪽을 향했다. 염파는 침상 위에 누워 있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압사께서 여기 오셨다. 얘야, 네가 성질을 부리며 말로 상처를 주니, 압사께서 발길을 끊으시고 한가할 때나 집에서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냐. 내가 어렵게 모셔 왔는데, 일어나서 말 한마디라도 붙이지 않고 도대체 왜 이리 고집을 피우는 게냐!"

그러자 염파석이 손을 내저으며 염파에게 대들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다고요? 그분이 발길을 끊으신 건데, 저보고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송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염파는 의자 하나를 송강 곁으로 밀어다 놓은 뒤, 딸을 송강 쪽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어서 장삼과 좀 앉아 있거라. 말 한마디 안 붙여도 좋으니 너무 짜증 내지는 말고. 두 사람 못 본 지도 꽤 되었으니, 다정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보렴."

하지만 염파석은 순순히 다가올 리 없었고, 오히려 송강의 맞은편에 가서 앉아 버렸다. 송강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염파는 딸을

쳐다보려 했으나 딸이 고개를 돌려버리자 자신도 외면했다. 염파가 다시 말했다.

"술도 없고 안주도 없는데 무슨 대접을 하겠느냐? 여기 좋은 술 한 병이 있으니, 과일이라도 좀 사 와서 압사께 대접하며 말이라도 붙여라. 얘야, 너도 압사 곁에 앉아서 같이 계시렴. 부끄러워 말고. 내가 금방 다녀오마."

송강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파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으니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저 노파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나도 바로 따라 나가야겠다.'

그런데 염파는 송강이 떠나려 한다는 눈치를 채고는, 방을 나가면서 문에 달려 있는 빗장 고리를 걸어 잠가 버렸다. 송강은 속으로 탄식하며 생각했다.

'저 노파가 나보다 한발 앞서 수를 썼구나.'

한편, 염파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먼저 부엌에서 등불을 켰다. 아궁이 안에는 이미 물이 끓고 있는 솥이 있어, 거기에 땔감을 좀 더 넣고는 은 조각을 챙겨 골목 어귀로 나갔다. 그리고 제철 과일과 싱싱한 생선, 어린 닭, 기름진 젓갈 같은 것들을 사 왔다. 집으로 돌아온 염파는 그것들을 모두 그릇에 담았다. 술을 대야에 붓고는 반 되 정도를 떠서 솥에 넣고 따뜻하게 데운 뒤 술병에 옮겨 담았다. 채소 안주 여러 접시와 술잔 세 개, 젓가락 세 쌍을 쟁반에 받쳐 들고 누각 위로 올라가 춘대(春臺)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옮겨와 탁자 위에 차려

놓았다. 송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염파가 딸을 쳐다볼 때도 염파석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염파가 말했다.

"얘야, 일어나서 술 한 잔 올려라."

그러자 염파석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두 분이서 그냥 드세요. 난 귀찮아요!"

염파가 달랬다.

"얘야, 네 성질머리를 부모가 어릴 때부터 받아주며 키웠으니 남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염파석이 대들었다.

"술 한 잔 안 올린다고 세상이 무너져요? 설마 칼이라도 날아와서 내 목을 치기라도 하겠냐고요!"

염파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또 내 잘못이 되었구나. 압사께서는 풍류를 아는 분이라 너 같은 애랑 상대하지 않으신다. 술을 안 올리겠다면 관두고, 일단 고개라도 돌려서 술 한 잔은 마시렴."

하지만 염파석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염파는 직접 송강에게 술을 권했고, 송강은 마지못해 한 잔을 마셨다. 염파가 웃으며 말했다.

"압사, 노파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밀린 이야기는 내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압사가 여기 계신 걸 보고, 겁도 없이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더라도 절대 듣지 마시고 그저 술이나 즐기십시오."

염파는 술 세 잔을 탁자 위에 따라 놓으며 덧붙였다.

"얘야,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얼른 와서 술 한 잔 마시렴."

염파석이 짜증을 냈다.

"왜 자꾸 나한테만 난리예요! 난 배불러서 못 먹어요."

염파가 다시 말했다.

"얘야, 너도 네 장삼과 함께 술 한 잔 마시며 같이 앉아 있거라."

염파석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 마음은 온통 장삼에게 가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상대하고 싶겠어!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들지 않으면 분명 또 나를 귀찮게 할 거야.'

염파석은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술잔을 들어 반 잔 정도를 마셨다. 염파가 웃으며 말했다.

"얘야, 너무 짜증 내지 말고 기분 좋게 두 잔 정도 마시고 자거라. 압사께서도 술을 몇 잔 넉넉히 드시지요."

송강은 염파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연달아 서너 잔을 마셨다. 염파도 연거푸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다시 술을 데우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염파는 딸이 술을 마시지 않자 마음이 불편했으나, 이내 딸이 마음을 돌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밤 저 사람을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그 원망스러운 마음도 다 잊을 텐데. 한동안 더 저 사람과 얽혀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의논해 보자꾸나."

염파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 앞에서 큰 잔으로 술을 세 잔이나 시원하게 들이켰다. 몸이 슬슬 알딸딸해지자 한 사발을 더 따라 마시고는, 그릇으로 반 넘게 술을 데워 주전자에 옮겨 담고는 누각 위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송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고, 딸 역시 얼굴을 돌린 채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염파가 하하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은 흙으로 빚은 인형도 아닌데, 왜 둘 다 아무 말이 없느냐? 압사, 당신도 사내대장부답지 않게 너무 점잖게만 계시지 말고, 좀 부드럽게 농담이라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워 보시지요."

송강은 딱히 대꾸할 마땅한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다. 염파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게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평소처럼 내가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고 함께 놀아 주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난 이제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술을 많이 마신 염파는 입을 쉬지 않고 놀리며 장 씨네 길고 이 씨네 짧다는 둥, 잡다한 이야기와 온갖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시로 이르되,

(시 생략)

단골 정부(情夫)가 문밖으로 나가지 않게만 하면,
감언이설로 그 넋을 흘리게 할 수 있다네.
얼마나 많은 영리한 이들이 그 함정에 빠졌던가,
죽은 뒤에는 마땅히 그 혀뿌리를 뽑혀야 하리라.

한편, 운성현(鄆城縣)에는 술지게미에 절인 음식을 팔던 당이거(唐二哥)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명은 당우아(唐牛兒)였다. 그는 늘 거리에서 한가하게 빌붙어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평소 송강이 그를 자주 도와주곤 했다. 무슨 송사거리라도 있어 송강에게 일러바치러 가면 푼돈이라도 챙길 수 있었기에, 송강이 그를 부를 때면 죽기 살기로 달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당우아는 도박에서 돈을 다 잃고 앞길이 막막해지자 현청 앞으로 송강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송강이 평소 머물던 곳에 가보니 보이지 않았다. 이웃들이 물었다.

"당이거, 그렇게 바쁘게 누구를 찾으시오?"

당우아가 대답했다.

"내가 다급해서 단골 어른을 찾는데, 도무지 보이질 않네요."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그 단골 어른이 누군데 그러시오?"

당우아가 말했다.

"바로 우리 현의 송 압사(押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방금 염파(閻婆)와 함께 저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소."

당우아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 염파석이란 도둑년은 장삼과 둘이서 불붙은 듯 뜨겁게 지내면서 송 압사 한 사람한테만 쏙 빼놓고 숨기고 있죠. 송 압사도 어느 정도 소문을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집에 가지 않으셨는데 — 오늘 밤은 분명 저 늙은 할망구가 거짓 정으로 끌고 갔을 게 뻔합니다. 마침 돈도 없고 다급한 참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든 몇 관(貫)이라도 뜯어내 술이나 두어 사발 얻어 마셔야겠습니다."

그는 곧장 염파의 집 앞으로 달려갔다. 안에는 등불이 환히 켜져 있고 문도 닫혀 있지 않았다. 사다리 계단 근처에 다다르니 위층에서 염

파가 하하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우아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위층으로 올라가 판자벽 틈으로 안을 훔쳐보니, 송강과 염파석은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염파는 모서리 탁자 옆에 앉아 일흔셋이니 여든넷이니 입을 쉬지 않고 잡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당우아가 슬며시 안으로 들어와 염파와 송강, 염파석을 향해 세 번 읍(揖)하고는 옆에 섰다. 송강은 속으로 '저놈이 제때 잘 나타났구나' 생각하며 입을 아래쪽으로 쭉 내밀어 신호를 보냈다. 눈치 빠른 당우아는 즉시 알아차리고 송강을 보며 말을 건넸다.

"소인이 여기저기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술을 드시며 즐기고 계셨군요. 참으로 마음 편하게 잘 드시는구려!"

송강이 물었다.

"혹시 관청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느냐?"

당우아가 대답했다.

"압사, 어찌 그걸 잊으셨습니까? 바로 아침에 있었던 그 공무 말입니다. 현령 사또(知縣相公)께서 대청에서 크게 화를 내시며, 네다섯 차례나 관아 사람들을 압사 머무시는 곳에 보내 찾게 했는데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으니 사또께서 잔뜩 짜증을 부리고 계십니다. 압사께서는 어서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구나."

송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염파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압사, 그런 수작은 부리지 마시오! 이 당우아 녀석이 핑계 대고 들어와 거든다는 걸 다 아는데, 당신 같은 약삭빠른 도둑이 이 늙은이를 속이려 들다니! 이거야말로 '노반(魯班) 앞에서 큰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오. 이 시각이면 현령 사또도 벌써 관아로 돌아가 부인과 술 드시며 즐기고 계실 텐데, 무슨 일이 그리 급해 화를 내신단 말이오? 당신의 그런 수작은 도깨비(魍魎)나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늙은이 앞에서는 어림도 없으니 그런 소리 마시오!"

당우아가 즉시 대답했다.

“정말로 현령 사또께서 급히 기다리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염파가 소리쳤다.

"네 어미에게나 개소리해라! 내 두 눈은 유리 호리병처럼 환해서 다 보인다. 방금 압사가 입을 내밀어 너에게 신호를 보내고 거들라고 시키는 걸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너는 압사를 우리 집에 머물게 거들기는커녕 도리어 빼내가려 드는구나! 옛말에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도리(情理)에 어긋나는 짓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노파는 벌떡 일어나더니 당우아의 멱살을 한 손에 움켜쥐고는, 비틀거리는 그를 방에서 곧장 계단 아래까지 떠밀어 내려갔다. 당우아가 소리쳤다.

"왜 저를 떠미시는 겁니까?"

염파가 호통을 쳤다.

"남의 장사와 옷밥(衣飯)을 끊는 것은 부모와 처자식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큰소리 한 번 더 쳐 봐라, 이 도둑 거지놈을 매질해 주마!"

당우아가 비집고 들어오며 말했다.

"때려 보시든가!"

염파는 술기운에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펼치고는 당우아의 얼굴을 향해 연달아 두 차례 손바닥을 후려쳤다. 당우아는 그 기세에 그대로 주렴(簾子) 밖으로 굴러 나가고 말았다. 염파는 곧장 주렴을 떼어내 문 뒤로 던져 두고, 두 짝 대문을 쾅 닫고 빗장까지 걸어 잠근 채 입을 쉬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두 차례 손바닥 세례를 얻어맞은 당우아는 문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쳤다.

"이 늙어빠진 도둑년아, 두고 보아라! 내가 송 압사의 체면을 봐서 참아 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네 집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다. 짝숫날에 안 갚으면 홀숫날에 갚아 줄 테니, 언젠가 반드시 손봐 주마! 내가 너를 끝장내지 않으면 내 성이 당씨가 아니다!"

당우아는 가슴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는 떠나갔다.

염파는 다시 누각 위로 올라가 송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압사께서는 저런 거지 같은 놈을 왜 상대하십니까? 저놈은 그저 술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시비나 거는 놈일 뿐입니다. 저런 길거리의 흉악한 도둑놈이 감히 남의 집 문턱을 넘어와 사람을 괴롭히다니요!”

송강은 워낙 성품이 곧고 정직한 사람이라, 염파가 정곡을 찌르며 쏟아내는 말에 반박도 못 하고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염파가 말을 이었다.

“압사,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도 이 정도 예우는 갖추겠습니다. 제 딸아이와 압사께서 이 술잔을 비우시지요. 제 생각에 압사께서는 오랫동안 못 보셨으니 분명 피곤하실 테니, 이만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염파는 송강에게 술을 몇 잔 더 권한 뒤, 술상과 그릇을 정리해 들고 계단을 내려가 부엌으로 향했다.

송강은 누각에 앉아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노파의 딸이 장삼과 무슨 사이라는 말이 반은 믿기면서도 반은 의심스럽구나. 내 눈으로 직접 본 일도 아니니까. 차라리 일어나 가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졸렬하다 할 것이고, 게다가 밤도

깊었으니 우선 잠을 청하며 이 여자가 오늘 밤 나와의 정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두고 봐야겠다.'

그때 염파가 다시 누각 위로 올라와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두 분 다 일찍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러자 염파석이 대답했다.

"엄마가 상관할 바 아니니, 가서 주무세요."

염파는 웃으며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압사, 편히 쉬십시오. 오늘 밤 즐거이 보내시고, 내일은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염파는 내려가서 부엌을 정리하고 손발을 씻은 뒤,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송강은 의자에 앉아 염파석이 전처럼 먼저 다가와 몸을 기대며 말동무를 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럭저럭 시간을 때울 작정이었다. 하지만 염파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오로지 장삼 생각뿐인데, 저자가 와서 훼방을 놓으니 그야말로 눈엣가시구나. 저자는 도리어 내가 전처럼 다가가 어리광 부려 주기를 바라는 모양이지만, 난 이제 그럴 마음이 없다. 배를 저어 기슭에 댄다는 말은 들었어도, 기슭이 배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차라리 저자가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독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원래 색정(色)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마음을 두고 그대를 그리워한다면, 칼과 물과 불이 가로막아도 그 마음을 막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마음이 없다면, 그대가 금은보화 더미 위에 앉아 있다 한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미인이 마음을 두면 시골뜨기 사내도 잘나 보이고, 미인의 마음이 무심하면 한량(浪子)도 촌스러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송 공명(宋公明)은 용맹하고 의로운 대장부였으나, 여색을 다루는 수단만큼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염파석은 장삼이 자잘한 정성으로 무엇이든 다 맞춰 주고, 가볍게 사랑하고 깊이 아껴주며, 교태를 부려 정을 받아주는 통에 그 마음이 온통 어지러워졌으니, 어찌 송강을 그리워하려 들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등불 아래 마주 앉아 있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 속으로만 망설이며 고민할 뿐이니, 마치 흙으로 빚은 토우(土偶)가 마르기를 기다려 사당에 들여놓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꼼짝없이 적막하기만 했다. 어느덧 밤은 깊어 창가로 달빛이 떠올랐다.

시로 이르되,

은하수는 밝게 빛나고, 시계 소리는 아득히 멀구나.
창을 뚫고 비끼는 달빛은 차가운 빛을 뿌리고, 문틈으로 스며든 서늘한 바람은 밤의 기운을 실어 오네.
망루의 금북 소리, 첫경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경을 재촉하고,
별채의 차가운 다듬질 소리, 천 번을 두드려 끝나려 하면 다시 천 번을

두드려 일어나네.
처마 끝 흔들리는 풍경 소리, 나그네의 외로운 마음을 깨뜨리고,
은빛 누각 위 반짝이는 등불은, 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여인을 비추네.
탐욕스러운 기생의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의로운 영웅의 기개는 무지개처럼 드높구나.

송강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 여인을 힐끗 쳐다보며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대략 이경(二更, 밤 9~11시)쯤 되었는데, 그 여인은 옷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침상에 올라가 수놓은 베개를 짚고는 몸을 돌려 벽 쪽을 향해 누워 잠을 청했다. 송강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천한 것이 나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저리 잠만 자다니. 오늘 저 노파의 끝없는 잔소리에 시달려, 권하는 술 몇 잔을 마지못해 마셨더니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밤이 이토록 깊었으니 그냥 잠을 자는 수밖에 없겠구나.' 송강은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허리에서 난대(鸞帶)를 풀었는데 그 위에는 옷고름을 푸는 작은 칼과 조문낭(招文袋)이 달려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침상 난간에 걸어두었다. 이어 비단 신과 양말까지 벗어 던지고는 침상 위로 올라가 그 여인의 발치 쪽에 누웠다.

한참 뒤, 발치에서 염파석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강은 속이 답답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예부터 말하기를, '즐거울 때는 밤이 짧다 한탄하고, 외로울 때는 밤이 길다 원망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느덧 시간은 삼경(三更), 곧 한밤중에 접어들어 술기운도 깨어났다. 오경(五更, 새벽 3~5시)까지 겨우 견디고 나서야 송강은 몸을 일으

켜 통에 담긴 찬물로 세수를 했다. 그러고는 겉옷을 챙겨 입고 수건을 머리에 쓴 뒤, 입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 무례한 천한 것 같으니라고!" 염파석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송강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몸을 돌려 대꾸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는군요." 송강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염파가 발소리를 듣고 침상에서 말했다. "압사님, 그냥 좀 더 주무세요. 날이 밝으면 움직이시고요. 왜 이 새벽에 까닭도 없이 일어나십니까?" 송강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열려 했다. 염파가 다시 말했다. "압사님, 나가실 때 문 좀 꼭 닫아주세요." 송강은 문을 나서며 문을 닫았다. 화를 풀 곳이 없어 곧장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던 차였다. 관아 앞을 지나는데 등불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탕약을 파는 왕공(王公)이 새벽 장사에 맞추어 관아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었다.

그 노인이 송강이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말했다. "압사님, 어찌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밤새 술에 취해 있다가 그만 북소리를 잘못 듣고 말았소." 왕공이 말했다. "압사님, 분명 숙취가 심하실 테니 우선 술을 깨게 하는 이진탕(二陳湯, 기를 내리고 소화를 돕는 약) 한 잔을 드시지요." 송강이 말했다. "그러면 좋겠소." 그러고는 의자에 앉았다. 노인은 정성스럽게 이진탕 한 잔을 진하게 달여 송강에게 건넸다. 송강이 약을 마시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저 노인이 평소 내게 약을 줄 때마다 돈을 달라는 소리 한 번 없었지. 예전에 내가 관 하나를 해 주겠노라 약속하고도 아직 주지 못했구나. 마침 어제 조개가 보내온 금이 있으니, 그중 한 덩이를 조문낭에 넣어 두었는데, 이것을 노인에게 관값으로 주어 기쁘게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송강이 곧 말했다. "왕 노인, 내가 예전에 관 하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까지 지키지 못했소. 마침 오늘 내게 금이 좀 있으니 이것을 드릴 테니, 가서 진삼랑(陳三郎) 집에 관을 하나 사서 집에 두시오. 나중에 노인이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실 때 내가 다시 장례 비용을 넉넉히 보태겠소." 왕공이 말했다. "은인께서 늘 이 늙은이를 살펴주시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장례 물품까지 챙겨주시니, 이 못난 놈은 이번 생에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다음 생에 나귀나 말이 되어서라도 압사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러고는 겉옷 앞자락을 들춰 조문낭을 꺼내려다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아차, 큰일 났구나! 어젯밤 그 천한 것의 침상 머리 난간 위에 그대로 두고 왔구나. 순간 화가 치밀어 급히 나오느라 허리에 매는 것을 깜빡 잊었어. 금 몇 냥이야 대수랴마는, 문제는 조개가 보내온 서신이 이 금을 싸고 있다는 점이로다. 본래는 주루에서 유당 앞에서 (그 자리에서) 태워 버리려 했으나, 그렇게 하면 그가 돌아가 (내가) 자기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오해해) 말할까 봐 그러지 못했네. 그래서 내 거처로 가져와 태우려는데 염파가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고, 어젯밤 등불 아래서 태우려니 그 천한 것의 눈에 띌까 봐 그러지 못했네. 그런데 오늘 아침 급히 나오느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저 여편네가 평소 곡본(曲本, 가곡·희곡책) 같은 걸 좀 보아 글자를 좀 아는 듯하니, 만약 저것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겠어!" 송강이 일어나며 말했다. "어르신,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금이 조문낭 안에 들어 있는데 급히 나오느라 집에 두고 온 것이오. 내가 가서 가져오리다." 왕공이 말했다. "가실 것 없습니다. 내일 천천히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어르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챙겨야 할 물건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것을 같이 가져오려는 것이오." 송강은 허둥지둥 염파의 집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이러하였다.

영웅이 일을 도모하려던 참이었는데
하늘이 상자 속 재물을 잃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원한 맺힌 인연임을 알았건만
은혜를 갚으려던 일이 화근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한편, 염파석은 송강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몸을 일으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인간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주 난리였네. 그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고는 내가 화를 풀어주고 비위를 맞춰주기라도 바란 모양이지. 흥, 내가 당신을 믿을 줄 알아? 나는 장삼이랑 잘 지내니까 당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아예 오질 말지 그랬어!" 입으로는 투덜대면서도 그녀는 한편으로 잠자리를 펴면서, 겉저고리를 벗고 아래 치마를 풀어 내린 다음, 가슴팍을 풀어 헤치고 속적삼까지 벗었다. 침상 앞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어, 침상 머리 난간에 보라색 비단 난대(鸞帶)가 늘어져 있는 것이 선명히 보였다. 염파석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 흑삼(黑三, 송강의 별호) 녀석, 어찌나 허둥대더니 난대를 여기 두고 갔구나. 내가 챙겨 두었다가 장삼에게 매어줘야겠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자 조문낭과 칼이 딸려 나왔는데, 낭이 꽤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손을 떼고 탁자 위로 낭을 털어내자, 그 안에서 금덩이와 서신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여편네가 그것을 집어 들어 보니, 등불 아래서 황금빛이 번쩍이는 금덩이 한 덩어리였다. 염파석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나랑 장삼이 먹을 것을 사라고 주시는구나. 요 며칠 장삼이 살이 빠진 것 같던데, 나도 마침 뭘 좀 사서 기운을 차리게 해줘야겠어." 그녀는 금덩이를 내려놓고 종이로 된 서신을 펼쳐 등불 아래서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조개의 이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 있었다. 염파석이 말했다. "세상에! '두레박이 우물에 빠졌

다'더니, '우물이 두레박에 빠진' 격이네. 나랑 장삼이 오붓하게 부부 노릇 좀 하려는데, 하필 당신 같은 놈이 끼어들었더니, 오늘 아주 제대로 내 손에 걸려들었구나. 알고 보니 양산박 도둑놈들과 내통하면서 금 백 냥이나 받아먹었어? 걱정 마라, 내가 천천히 아주 골탕을 먹여줄 테니까." 그녀는 서신을 다시 금덩이와 함께 싸서 조문낭 안에 도로 꽂아 넣으며 말했다. "네가 오성신(五聖, 민간에서 모시는 다섯 신령)을 시켜 이것을 빼앗아 가게 한들 두렵지 않다!" 그녀가 위층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염파가 물었다. "누구시오?" 송강이 대답했다. "저요." 염파가 말했다. "제가 시간이 이르다고 말렸는데도 압사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가시더니, 정말로 일찍이라 다시 돌아오셨군요. 그러니 다시 누이와 한숨 더 자고 날이 밝으면 움직이시지요." 송강은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 여편네는 송강이 돌아온 소리를 듣자마자 황급히 비단 난대와 칼, 그리고 조문낭을 한데 뭉쳐 이불 속에 감추고는, 침상 안쪽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인 채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다. 송강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곧장 침상 머리 난간으로 가서 물건을 찾았으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송강은 마음속으로 당황하여 어젯밤의 화를 억지로 참으며 여편네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내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조문낭을 돌려주시오." 염파석은 자는 척하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송강이 다시 흔들며 말했다. "성내지 마시오. 내 내일 다시 와서 사과할 테니." 염파석이 말했다. "이 늙은이가 자고 있는데 대체 누가 나를 깨우는 거야?" 송강이 말했다. "나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모른 척하는 거요?" 염파석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흑삼,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송강이 말했

다. "내 조문낭을 돌려달라고 했소." 염파석이 말했다. "언제 내 손에 넘겨주었길래 이제 와서 달라고 난리야?" 송강이 말했다. "당신 발치 쪽 작은 난간 위에 두고 잊었소. 여기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일도 없으니 분명 당신이 가져간 게 분명하오." 염파석이 말했다. "퉤! 꿈 깨시지!" 송강이 말했다. "어젯밤엔 내가 잘못했소. 내일 다시 와서 사과할 테니, 장난치지 말고 그냥 돌려주기나 하시오." 염파석이 말했다. "누가 장난을 친다는 거야? 난 받은 적 없어!" 송강이 말했다. "아까는 옷도 안 벗고 자더니, 지금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지 않소. 분명 일어나 이불을 펴면서 가져간 게 틀림없소."

염파석은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래, 내가 가져갔다! 하지만 돌려주지는 않을 거야! 관가 사람을 부려서 나를 도둑으로 잡아다 처결해 보든가!" 송강이 말했다.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모함한 적은 없잖소." 염파석이 말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겠지!"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초조해져서 말했다. "나는 당신 모녀를 나쁘게 대한 적이 없으니, 제발 돌려주시오! 나도 할 일이 있단 말이오." 염파석이 말했다. "평소에도 나랑 장삼이 사이만 시기하더니, 그이가 당신만 못한 점이 좀 있다 한들 사형(한칼)당할 죄인은 아니야. 당신처럼 강도놈들과 내통하는 짓보다는 훨씬 낫지!" 송강이 말했다. "이보시오, 누님,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시오. 이웃들이 듣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겠소."

염파석이 말했다.

"남들이 들을까 봐 걱정된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 서신은 내가 꽉 쥐고 있을 거야. 만약 당신을 용서해주길 바란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돼!"

송강이 말했다.

"세 가지는커녕 서른 가지라도 다 들어주겠소."

염파석이 말했다.

"그게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송강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실행하겠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염파석이 말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서들을 돌려줄 것. 그리고 내가 장삼에게 재가하더라도 다시는 이 일로 다투지 않겠다는 문서도 한 장 써서 내놓을 것!"

송강이 말했다.

"그건 들어주겠소."

염파석이 말했다.

"두 번째, 내 머리에 쓴 것, 몸에 입은 것, 집안에서 쓰는 것들이 비록 다 당신이 해준 것이라 해도, 문서 한 장을 써서 나중에 당신이 다시는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할 것!"

송강이 말했다.

"그것도 들어주겠소."

염파석이 다시 말했다.

"당신이 세 번째 조건은 못 들어줄 것 같군."

송강이 말했다.

"이미 두 가지는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세 번째는 못 들어준다는 말이오?"

염파석이 말했다.

"양산박의 조개가 당신에게 보낸 금 백 냥 말이야. 그걸 어서 나에게 내놓으면, 이번에 일어난 이 지긋지긋한 송사를 없던 일로 해주고 당신의 조문낭에 든 고소장도 돌려주겠어!"

송강이 말했다.

"앞의 두 가지는 다 들어줄 수 있소. 하지만 그 금 백 냥은 정말로 나에게 보내온 것이 맞소.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서 예전에도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했단 말이오. 만약 정말로 금이 있다면, 내 두 손으로 당신에게 직접 갖다 주겠소."

염파석이 말했다.

"말은 잘하는군! 옛말에 '관리는 돈을 보면 파리가 피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금을 보냈는데, 당신이 그걸 거절했다니? 그건 순 헛소리야!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겠어?'라고 했고, '염라대왕 앞에서도 놓치는 귀신은 없다'고 했어. 누구를 속이려 들어! 그냥 이 금 백 냥을 나에게 주면 그만인 것을! 혹시라도 도둑질한 물건일까 봐 겁난다면, 어서 녹여서 가져오란 말이야."

송강이 말했다.

"나도 정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은 하지 않소. 믿기지 않는다면 사흘의 시간을 주시오.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금 백 냥을 만들어 줄 테니, 그때 내 조문낭을 돌려주시오."

염파석이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 정말 영악하군. 나를 어린애 취급하며 농락하다니! 그럼 내가 먼저 당신의 조문낭과 이 서신을 돌려줄 테니, 사흘 뒤에 금을 내놓으라고 하겠어. 이건 마치 '관이 나오니 곡하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격'이네. 나는 여기서 물건과 돈을 맞바꾸고 싶으니, 어서 내놓고 서로 계산을 끝내자고."

송강이 말했다.

"정말로 그런 금은 없단 말이오."

염파석이 말했다.

"내일 관가에 가서도 똑같이 금이 없다고 떠들어 보시지!"

송강은 '관가'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당신, 정말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요!"

그 여인이 말했다.

"그렇게 모질게 나온다면, 당장 돌려주고 말겠어!"

송강이 말했다.

"정말로 안 돌려주겠다는 말이오!"

염파석이 대꾸했다.

"안 돌려줘! 백 번을 사정해도 안 돌려줄 테니까! 정 돌려받고 싶으면 운성현 관가에 가서 돌려달라고 해!"

송강이 염파석이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려 했다. 여인은 몸 근처에 그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 팔로 가슴팍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송강이 이불을 젖히자, 난대(鸞帶, 화려한 띠)가 여인의 가슴 아래로 흘러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송강이 말했다.

"아니, 여기에 있었군!"

송강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두 손을 뻗어 물건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염파석이 순순히 놓아줄 리 없었다. 송강이 침상 옆에서 죽기 살기로 잡아당겨도, 염파석은 죽어도 놓지 않으려 버텼다. 송강이 온 힘을 다해 한 번을 확 잡아당기자, 옷을 눌러두는 데 쓰던 칼 한 자루가 자리 밑에서 딸려 나왔고, 송강은 재빨리 그 칼을 손에 쥐었다.

염파석은 송강이 칼을 손에 쥐는 것을 보자마자 "흑삼랑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 외침이 들리는 순간, 송강의 머릿속에 (살의의) 생각이 솟구쳤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울화가 분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염파석이 두 번째 비명을 지르려 할 때, 송강은 왼손으로 여인을 꽉 눌러 제압하고 오른손에 든 칼을 휘둘러 염파석의 목을 그대로 한 번에 그어버렸다.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여인이 여전히 신음하자, 송강은 그녀가 죽지 않을까 두려워 다시 한 번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 머리가 덜렁덜렁 잘려 베개 위로 떨어졌다. 시로 이르되,

손길 닿는 곳마다 젊은 생명 잃고, 칼날 떨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여인 목숨 잃네.
일곱 넋은 아득히 저 멀리 저승전에 이르렀고,
세 영혼은 망연히 죽은 이들의 성으로 돌아가네.
별 같은 눈은 굳게 감긴 채 시신은 자리 위에 곧게 누워 있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붉은 피가 베갯머리로 흘러내리네.

본래 아름다움은 한때의 꿈일 뿐인데, 오늘 이 고운 얼굴을 어찌 그리 워하랴.

송강은 순간 울화가 치밀어 올라 염파석을 죽이고는, 조문낭을 집어들어 그 안의 서신을 꺼내 흐릿한 등불 아래에서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난대를 다시 묶고는 누각 아래로 내려왔다. 아래층에서 자고 있던 염파는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별다른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딸이 "흑삼랑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는,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누각 위로 뛰어 올라오다 송강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염파가 물었다.

"당신들 둘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요?"

송강이 말했다.

"댁의 딸년이 너무 무례하게 굴기에 내가 죽여버렸소!"

염파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압사님께서 눈매가 사납고 술버릇이 나빠 사람을 죽이려 한다니,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송강이 말했다.

"믿기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보시오. 내가 정말로 죽였으니까."

염파가 말했다.

"못 믿겠소."

염파가 방문을 밀치고 들어가 보니, 피바다 속에 시신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염파가 탄식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송강이 말했다.

"나는 대장부요! 평생 도망치지 않을 테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염파가 말했다.

"이 천한 것이 정말 못됐군요. 압사님께서 잘못 죽이신 건 아니지만, 이제 나를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어쩌란 말이오."

송강이 말했다.

"그건 걱정할 것 없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더는 근심하지 마시오. 내 재산이 넉넉하니 당신이 배불리 먹고 입고 남은 반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소."

염파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압사님. 그런데 내 딸이 침상에서 죽었으니 어찌 처리를 한단 말이오?"

송강이 말했다.

"그건 쉬운 일이오. 내가 진삼랑(陳三郎)의 집에 가서 관 한 구를 사다 주겠소. 오작인(仵作行人)들이 와서 입관할 때 내가 알아서 지시할 테니, 은자 열 냥을 더 주어 일을 마무리해 주리다."

염파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압사님, 날이 밝기 전에 어서 관을 구해다 시신을 담아주십시오. 이웃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러도록 하겠소. 종이와 붓을 가져오시오. 내가 전표를 써 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사 오시오."

염파가 말했다.

"전표 따위는 소용없습니다. 압사님께서 직접 가셔야 그쪽에서도 일찍 보내올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려."

두 사람은 누각을 내려왔다. 염파는 방에 들어가 열쇠를 챙겨 나온 뒤, 문을 잠그고 열쇠를 품에 넣었다. 송강과 염파는 함께 관아로 향했다. 이때는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 어스름한 상태였는데, 관아 문은 막

열리고 있었다. 염파가 관아 앞 왼쪽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송강을 덥석 붙잡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살인범이 있다!"

깜짝 놀란 송강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급히 염파의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다.

"제발 소리 지르지 마시오!"

하지만 입을 막는다고 막아질 리 없었다. 관아 앞에 있던 포교 몇 명이 소리를 듣고 몰려왔는데, 자세히 보니 송강임을 알아보고는 염파를 말렸다.

"할멈, 입 좀 다물시오! 압사님은 결코 그럴 분이 아니니,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게 이야기해야지 왜 이러시오?"

염파가 말했다.

"이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어서 잡아 관아로 데려가십시오!"

본래 송강은 성품이 좋아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기에, 운성현 사람치고 그를 미워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포교들도 송강을 잡아 가려 하지 않았고, 염파의 말을 믿지도 않았다. 시로 이르되,

착한 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가 가엾게 여기고,
간악한 자는 재앙이 없어도 모두 의아해하며 미워한다.

평소에 스스로를 잘 살피며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으니,
위급한 순간에야 정과 의리가 비로소 의지할 만한 것이 된다.

그곳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마침 당우아가 깨끗이 씻은 술지게미 절임 생강(糟薑) 한 쟁반을 받쳐 들고 관아 앞으로 장사하러 가던 길에, 염파가 송강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란을 피우는 광경을 목격했다. 당우아는 염파가 송강을 덥석 붙잡고 있는 것을 보자, 어젯밤 쌓였던 울화가 치밀어 올라 쟁반을 약장수 왕씨 영감의 걸상 위에 내려놓고는 잽싸게 달려들며 호통을 쳤다.

"이 늙은 좀도둑 같은 노파야, 무슨 일로 압사님을 붙잡고 있느냐?"

염파가 말했다.

"당이(唐二)야, 끼어들어 사람을 빼앗아 가지 마라. 그랬다간 네가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당우아는 크게 노하여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염파의 손을 거칠게 떼어 풀어낸 뒤,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다섯 손가락을 쫙 펴서 염파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으로 한 대 후려치니, 별이 번쩍 보일 정도였다. 염파는 정신이 아득해져 그제야 손을 놓았다. 송강은 그 틈을 타 소란스러운 인파 사이로 곧장 도망쳐 갔다.

염파는 곧장 당우아를 덥석 붙잡으며 소리쳤다.

"송 압사가 내 딸을 죽였는데, 네놈이 그를 빼앗아 가버렸구나!"

당우아가 당황하며 말했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소!"

염파가 다시 외쳤다.

"여러분, 부디 이 살인범을 좀 잡아 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에게까지 누가 미칠 것이오!"

포교들은 송강의 체면을 생각해서 차마 손을 쓰지 못했지만, 당우아를 붙잡을 때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들어 한 명은 염파를 붙잡고, 서너 명은 당우아를 붙잡아 가로 끌고 거꾸로 잡아당기며 곧장 운성현(鄆城縣) 관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참으로 화와 복은 따로 들어오는 문이 없으니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요, 삼베옷을 걸치고 불을 끄러 가니 불꽃이 옮겨붙어 제 몸을 태우는 격이었다. 결국 당우아가 염파에게 붙잡히고 말았으니, 그가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2회 — 염파가 운성현을 발칵 뒤집고, 주동이 의리로 송공명을 풀어주다

閻婆大鬧鄆城縣 朱仝義釋宋公明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포졸들이 당우아를 붙잡아 현청으로 끌고 왔다. 지현은 살인 사건이 터졌다는 소리에 황급히 나와 청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포졸들이 당우아를 둘러싸 청 앞에 세우니, 지현이 살펴보니 한 노파는 왼편에 무릎을 꿇고 있고 한 사내는 오른편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현이 물었다. "무슨 살인 사건이냐?"

노파가 고했다. "제 성은 염 씨입니다. 파석이라는 딸이 있는데, 송 압사에게 전(典)으로 넘겨 외실(첩)로 살게 했습니다. 어젯밤 제 딸이 송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당우아가 불쑥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퍼붓고 나갔으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송강이 나갔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더니 제 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강을 붙들어 현청 앞까지 끌고 왔는데, 이 당

우아라는 자가 송강을 빼앗아 도망치게 했습니다. 사또, 부디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지현이 꾸짖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범인을 빼앗아 도망치게 한 것이냐?"

당우아가 대답했다. "소인은 앞뒤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어젯밤 송강에게 술 한 잔 얻어먹으러 갔다가 염 씨 노파에게 떠밀려 쫓겨났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술지게미에 절인 생강을 팔러 나왔다가 염 씨 노파가 송 압사를 붙들어 현청 앞에 끌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소인이 그것을 보고 괜히 끼어들어 말리려 했더니 송강이 그 틈에 달아나 버린 것이지, 그가 딸을 죽였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현이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송강은 성실하고 군자 같은 사람인데, 어찌 함부로 사람을 죽였겠느냐? 이 인명 사건은 분명 네놈과 관련이 있을 터이니, 좌우의 공인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고는 즉시 청에 대기하던 공리(아전)들을 불러 모았다.

이때 압사 장문원이 다가왔다. 그는 염 씨 노파가 송강이 자기 딸을 죽였다고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 그 죽은 딸이 바로 자신의 정인(情婦)임을 알게 되었다. 장문원은 즉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적고 염 씨 노파를 대신해 고발장을 작성하여 정식 사건으로 접수했다. 그러고는 즉시 현지의 검험관(仵作)과 행인(검험 보조관), 그리고 방상(坊廂)·이정(里正)과 인근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염 씨 노파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문을 열고 시신을 꺼내 검험을 시작했는데, 시신 곁에는 범행에 쓰인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날 다시금 꼼꼼히 검사해 보니,

시신은 분명 살아생전 목 부위를 칼에 베여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검시를 모두 마치자 시신을 관에 넣어 사찰에 맡겨두고, 관계자들을 모두 데리고 현청으로 돌아왔다.

지현은 사실 송강과 사이가 매우 좋아 그를 구해줄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당우아를 붙잡아 놓고 몇 번이고 거듭 추궁하며 압박을 가했다. 당우아가 대답했다. "소인은 정말 앞뒤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지현이 말했다. "네 이놈, 네가 어찌 어젯밤 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느냐? 분명 네가 상관한 것이 있을 터다!"

당우아가 다시 고했다. "그저 잠시 술 한 잔 얻어먹으러 불쑥 찾아갔을 뿐입니다……."

지현이 꾸짖었다. "헛소리 마라! 이놈을 쳐라!"

그러자 양옆에 서 있던 늑대나 호랑이처럼 사나운 포졸들이 당우아를 밧줄로 꽁꽁 묶어 넘어뜨리더니, 서른 대에서 쉰 대가량 매질을 퍼부었다. 하지만 당우아는 매를 맞으면서도 앞뒤 말이 똑같았다. 지현은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로지 송강을 구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를 계속해서 심문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죄인을 가두기 위해 칼(枷)을 가져오게 하여 당우아의 목에 씌운 뒤 옥에 가두었다.

압사 장문원이 관아로 올라와 보고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남은 칼은 송강이 평소 입던 옷에 차고 다니던 칼입니다. 반드시 송강을 잡아다가 대조하며 심문해야 그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현은 장문원이 대여섯 번이나 거듭 보고하며 몰아붙이자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결국 송강이 머물던 곳으로 사람을 보내 잡아 오게 했으나, 송강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다. 다만 이웃집 사람 몇 명을 불러다 물어보니, "범인 송강은 도망쳤으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장문원이 다시 보고했다. "범인 송강은 도망쳤으나, 그의 아버지 송태공과 동생 송청은 지금 송가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아로 압송해 와서 기한을 정해 송강을 체포해 오라고 다그치면, 송강을 관아로 잡아 와 심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현은 본래 이 일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모든 책임을 당우아에게 돌려 대충 넘긴 뒤, 나중에 천천히 송강을 구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장문원이 사건의 문안(文案)을 직접 주관하며 완강히 주장하는 데다, 염씨까지 부추겨 관아에 올려보내 끊임없이 고발을 해대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지현은 도저히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공문을 작성한 뒤 포졸 두세 명을 보내 송가장으로 가서 송태공과 동생 송청을 압송해 오도록 명령했다.

포졸들은 공문을 받아 들고 송가촌에 있는 송태공의 집으로 향했다. 송태공이 마중을 나와 초당(草廳) 안으로 자리를 잡고 앉자, 포졸들이 공문을 꺼내 송태공에게 보여주었다.

송태공이 말했다. "여러분, 앉으시오. 이 노인이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이 땅을 지켜온 집안입니다. 그런데 불효자 송강은 어릴 때부터 어른을 거역하고 제 분수에 맞

는 생업에는 뜻을 두지 않은 채, 기어코 아전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타일러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본 현의 관장에게 이놈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고발하여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이제 송강은 제 호적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놈은 제멋대로 현청에 살고 있고, 저는 아들 송청과 함께 이 황량한 마을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놈과는 물 한 모금, 쌀 한 톨 나누는 사이도 아니며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놈이 사고를 쳐서 저에게까지 해가 올까 두려워 미리 전임 관장에게 고발하여 증명서를 받아두었으니, 여기 이 문서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포졸들은 모두 송강과 친분이 있었기에, 이것이 송강을 구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방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굳이 괜한 원한을 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다. "태공께서 이미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니,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그 내용을 베껴 적어 관아에 보고하겠습니다."

송태공은 즉시 닭과 거위 등을 잡아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포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고는 은 열 몇 냥을 내어주고 증명 공문을 꺼내어 포졸들이 베껴 적게 했다. 포졸들은 송태공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현청으로 돌아가 지현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송태공께서 3년 전에 송강을 호적에서 파내고 증명서까지 받아 두셨습니다. 여기 베껴 쓴 사본이 있으니, 송강의 부친·아우를 잡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강을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었던 지현이 말했다. "이미 증명 공문이 있고 그에게는 다른 친족도 없으니, 그저 상금 천 관(貫)을 내걸고 각처에 공문을 보내 광역 수배(海捕)로 잡아 오도록 하라."

장삼이 다시 염씨를 부추겨 관아로 올라가게 했다. 염씨는 머리를 산발한 채 관아로 달려와 울부짖으며 말했다. "송강은 분명 송청이 집에 숨겨두고 관아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또께서는 어찌하여 이 늙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송강을 잡아가지 않으십니까?"

지현이 호통을 쳤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3년 전에 불효를 저질렀다고 관가에 고발하여 호적에서 파냈고, 지금 증명 공문도 남아 있는데 어찌 그의 아버지와 형제를 잡아들여 송강의 행방을 추궁할 수 있겠느냐?"

염씨가 다시 말했다. "사또, 그놈이 '효의흑삼랑(孝義黑三郎)'이라 불리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 증명서는 가짜입니다. 오로지 사또께서 결단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현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전임 관장이 인장을 찍어준 공문이 어찌 가짜란 말이냐?"

염씨는 청 아래에서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며, 목이 메는 소리로 울며 사또에게 고했다. "사람 목숨은 하늘처럼 큰 일인데, 만약 사또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주(州)로 올라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러자 장삼이 다시 청으로 올라와 염씨를 대신해 보고했다. "사또께서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면, 이 염씨가 상급 관청으로 가서 고발할 텐데 그 일이 꽤나 골치 아파질 것입니다. 혹여 위에서 이 사건을

다시 끌어내 심문할 때, 우리 아전들이 답변하기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현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문 한 장을 작성한 뒤, 주동(朱仝)과 뇌횡(雷橫) 두 도두(都頭)를 불러 즉시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송가촌의 송 대호(大戶) 장원으로 가서, 범인 송강을 수색하여 잡아 오너라."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관심 없는 일은 다 남에게 맡겨두는 법인데 길 가는 이가 무슨 까닭에 꽃 꺾인 것을 원망하랴? 꽃 같던 파석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탓에 어여쁜 정인(俏冤家)이 흉악한 원수(惡冤家)가 되었구나.

주동과 뇌횡 두 도두는 공문을 받아 들고 토병(군관의 지휘를 받는 병사) 마흔여 명을 소집하여 곧장 송가장으로 달려갔다. 송태공은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마중을 나왔다. 주동과 뇌횡이 말했다. "태공, 저희를 탓하지 마십시오. 윗선의 명령이라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인 압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송태공이 말했다. "두 분 도두님, 제 불효자 송강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놈입니다. 전임 관리에게 이미 고발하여 호적에서 파냈고, 여기 그 증명서도 있습니다. 송강은 이미 3년도 더 전에 제 호적에서 나가 따로 살고 있으며, 이 장원으로 돌아온 적도 없습니다."

주동이 말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저희는 공문을 들고 찾아와 사람을 잡으라는 명을 받았으니, 장원에 없다는 말씀만 믿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수색해 본 뒤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토병 서른~마흔 명을 시켜 장원 주위를 에워싸게 했다. 주동이 말했다. "내가 앞문을 지킬 테니, 뇌 도두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 수색하시오."

뇌횡이 안으로 들어가 장원의 앞뒤를 샅샅이 뒤지고 나오더니 주동에게 말했다. "정말로 장원 안에는 없습니다."

주동이 말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뇌 도두, 당신은 형제들과 함께 문을 지키시오. 내가 직접 자세히 한번 더 수색해 보겠습니다."

송태공이 말했다. "이 노인은 법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장원에 숨겨두겠습니까?"

주동이 말했다. "이것은 사람 목숨이 달린 공무이니, 저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송태공이 말했다. "도두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껏 수색하십시오."

주동이 말했다. "뇌 도두, 당신은 송태공을 여기서 감시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오."

주동은 혼자 장원 안으로 들어가 박도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불당 안으로 들어가 제단 옆에 놓인 공양상

을 한쪽으로 치운 뒤,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판자 밑으로 밧줄 끝이 보이기에 그것을 한 번 잡아당기자, 땡그랑하는 방울 소리와 함께 송강이 땅속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 송강은 주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동이 말했다. "공명 형님, 제가 오늘 형님을 잡으러 온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평소 형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며 무슨 일이든 숨김없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술자리에서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 집 불상 밑에는 땅속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삼세불을 모셔두고 불당 바닥에는 판자를 덮어 제단을 차려두었네. 혹여 급한 일이 생기면 이곳으로 와서 몸을 피하게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령께서 저와 뇌횡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사또께서도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나, 장삼과 저 노파가 관아에서 떠들며 사또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주청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결국 저 둘을 보내 형님의 장원을 수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뇌횡이 고지식하여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형님을 발견하고도 적당히 둘러대지 못하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횡을 장원 앞에 붙들어 두고, 제가 직접 형님을 찾아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곳이 비록 숨기에 좋으나 영원히 몸을 의탁할 곳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이곳을 알아내어 수색해 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저도 바로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이토록 세심하게 살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분명 포박당해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주동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형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송강이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몸을 피할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창주 횡해군의 '소선풍' 시진의 장원이고, 둘째는 청주 청풍채의 '소이광' 화영의 거처이며, 셋째는 백호산 공 태공의 장원입니다. 그곳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모두성' 공명이고 차남은 '독화성' 공량이라 하여 현청에 자주 얼굴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을 두고 고민하며 어디로 갈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이 말했다. "형님께서는 서둘러 결정하여 즉시 떠나셔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출발하십시오. 지체하다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송강이 말했다. "관아의 일은 모두 형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으로 쓸 금과 비단은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주동이 말했다. "그 일은 걱정 마십시오.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께서는 오로지 갈 길만 잘 준비하십시오."

송강은 주동에게 감사를 표한 뒤, 다시 땅속 구멍으로 들어갔다.

주동은 다시 바닥 판자를 덮고 공양상을 그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가 박도를 챙겨 들고 나오며 말했다. "정말로 장원 안에는 없습니다."

주동이 소리쳤다. "뇌 도두, 차라리 송태공을 잡아가는 건 어떻겠소?"

뇌횡은 송태공을 잡아 가겠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주동 저 사람은 송강과 가장 친한 사이인데, 어찌하여 송강이 아닌 송태공을 잡아 가겠다고 하는 거지? …… 분명 반대로 말하는 것이로구나. 만약 저 사람이 다시 말을 꺼내면, 내가 생색을 내며 도와주면 되겠어.'

주동과 뇌횡은 토병(군사)들을 모두 불러 초당으로 올라왔다. 송태공은 황급히 술과 음식을 차려 사람들을 대접했다. 주동이 말했다. "술과 음식은 차릴 필요 없습니다. 대신 태공께서 사랑(四郎)과 함께 현청으로 한 번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뇌횡이 물었다. "아드님은 어찌 보이지 않습니까?"

송태공이 대답했다. "이 늙은이가 그 아이를 가까운 마을로 농기구를 좀 마련하라고 보냈더니 장원에는 없구려. 그 송강 놈으로 말하자면, 이 늙은이가 이미 3년 전에 그 불효 자식을 관에 고하여 호적에서 파내었으니, 여기 그 증거인 집빙공문(執憑公文)이 하나 있소."

주동이 말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 둘은 지현 어른의 명을 받들어 태공과 그 아들 두 사람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직접 현청에 가서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뇌횡이 말했다. "주 도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송 압사가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분명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니, 곧장 사형에 처할 일은 아닐 것이오. 게다가 태공께서 이미 집빙공문을 가지고 계시

고, 인장이 찍힌 관청의 문서가 가짜도 아닌데 말이오. 우리가 송 압사와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정을 생각해서, 일단은 그 공문만 베껴 가서 보고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동은 속으로 '내가 일부러 반대로 말해야 저 사람이 의심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아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굳이 악역을 자처할 이유가 없겠군요."

송태공은 "두 도두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곧바로 술과 음식을 차려 사람들을 대접했다. 또한 은자 20냥을 꺼내 두 도두에게 주려 했으나, 주동과 뇌횡이 완강히 거절하자 그것을 가져다가 토병 4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집빙공문 한 장을 베껴 챙긴 뒤 송태공과 작별하고 송가촌을 떠났다. 주동과 뇌횡 두 도두는 일행을 이끌고 현청으로 돌아갔다.

현청의 지현은 마침 등청(陞廳)하여 공무를 보고 있던 차에, 주동과 뇌횡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두 사람이 보고했다. "장원 앞뒤와 사방의 마을을 두 번이나 샅샅이 뒤졌으나, 정말로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송태공은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계시니 움직이지 못하고 조석으로 임종을 기다리는 형편이며, 송청은 지난달에 이미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우선 집빙공문만 베껴 왔습니다."

지현이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한편으로는 본부에 보고를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포문서(海捕文書, 광역 체포령)를 한 장 발부하라." 이 일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현청에는 송강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모두 송강을 대신해 장삼에게 가서 사정을 잘 말해주었다. 장삼 역시 사람들의 체면을 거스를 수 없었고, 게다가 딸 파석도 이미 죽었으며 평소 송강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기에 결국 그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주동은 스스로 돈과 물품을 좀 챙겨서 염씨 노파에게 주며, 주(州)로 가서 고소하지 말라고 달랬다. 노파도 돈을 좀 받게 되자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주동은 적지 않은 은자를 사람을 시켜 주(州)로 올려 보내, 서류가 반려되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써두었다.

또한 지현이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1,000관(貫)의 상금을 내걸고 해포문서를 발부해 돌렸으며, 다만 당우아(唐牛兒)에게 '흉악범을 고의로 놓아주어 도주하게 한 죄(故縱兇身在逃)'를 물어 척장(脊杖, 등에 치는 곤장) 20대를 치고 자자(刺字)하여 500리 밖으로 자배(刺配)시켰다. 이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한 몸이 낭패에 빠진 것은 기녀(연화, 煙花=염파석) 때문이니,
땅속 토굴에 몸을 숨겨도 잡힐 뻔하였네.
이별에 임해 잘 피하라 신신당부하니,
수염 난 호걸(염공, 髯公=주동)은 진실로 옛 임협 주가(朱家)에게 부끄럽지 않도다.

한편, 송강은 본래 농사를 짓는 집안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원래 송나라 때는 관직을 얻기는 쉬웠으나 관리로 살아남기는 가장 어려웠다. 관직을 얻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조정에 간신들이 득세하여 아첨하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혈연관계가 아니면 쓰지 않았고,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관리가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압사(아전)로 일하다 죄를 지으면, 가벼운 벌로는 멀리 떨어진 험한 군현으로 유배를 보내고, 무거운 벌로는 가산을 몰수하여 목숨을 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강은 미리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또한 부모님께 누를 끼쳐 부모님이 불효를 꾸짖으며 호적에서 파내고, 관청에서 공문을 발급하여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흔했다. 비록 호적에서는 파내더라도 물건들은 방 안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송나라 때는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하여 대처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

한편, 송강은 은신처에서 나와 아버지와 아우와 상의했다. "이번에 주동이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분명 관아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와 아우는 일단 몸을 피해 도망가려 합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만약 너그러운 사면령이 내려진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람을 시켜 몰래 금은보화를 주동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관아에 손을 써서 일을 처리하고, 염씨 노파에게도 약간의 돈을 주어 상부에 고발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달래게 하십시오."

그러자 송태공이 말했다. "그 일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아우 송청과 함께 길 위에서 조심하거라. 만약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편지를 한 통 보내주려무나."

그날 밤, 형제 둘은 짐 꾸러미를 단단히 묶어두었다가 사경(四更, 새벽 1~3시) 무렵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송강은 하얀 범양 전립(范陽氈笠, 모전 갓)을 쓰고, 흰 비단 저고리에 매화색 종선조(縱線條, 세로 줄무늬 끈)를 맸으며, 아래에는 발목에 행전(纏腳綁)을 감아 받치고 그 위에 귀가 여러 개 달린 마혜(多耳麻鞋, 삼으로 엮은 신)를 신었다. 송청은 짐꾼(반당, 伴當) 차림으로 짐을 짊어지고 초당 앞으로 나와 아버지 송태공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다. 세 사람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송태공이 당부했다. "너희 둘은 갈 길이 만 리나 되니, 부디 마음 고생하지 말거라." 송강과 송청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꾼들에게 집을 잘 지키고, 아침저녁으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음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일렀다. 형제 둘은 각자 허리에 요도(腰刀) 한 자루씩을 차고, 손에는 박도(朴刀)를 하나씩 든 채 그대로 송가촌을 떠났다.

형제 둘은 길을 잡아 떠나는데, 마침 계절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시로 이르되,

연꽃 줄기마다 시들어 가고,
오동나무 잎마다 떨어지네.
귀뚜라미는 마른 풀 속에서 울고,

기러기는 평평한 모래밭에 내려앉았네.
가랑비는 단풍 숲을 적시고,
서리는 짙어 날씨는 차가운데.
길을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면,
어찌 이 가을의 맛을 알겠는가.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 형제 두 사람은 길을 떠나 며칠 동안 여정을 이어가다가, 길 위에서 송강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가 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느냐?" 그러자 송청이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강호 사람들이 창주(滄州) 횡해군(橫海郡)의 시 대관인(柴大官人)을 두고 말하기를, 그분은 대주(大周, 후주) 황제의 직계 후손이라고 합니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에게 찾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로운 일을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풀고, 오로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며 유배 가는 사람들까지 구제하니, 마치 현세에 살아있는 맹상군(孟嘗君)과 같다고들 합니다. 우리 형제는 그분에게 가기로 합시다." 송강이 말했다.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그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구나." 형제는 뜻을 모아 곧장 창주로 향하는 길을 잡았다. 가는 길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여러 부(府)와 주(州)를 거쳐 지나야 했다.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머물다 보면, 두 가지 일은 피하기 어려웠으니, 하나는 더러운 그릇(나완, 癩碗)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죽은 이가 누웠던 듯한 침상(사인상, 死人床)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딴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자. 송강 형제 두 사람은 여러 날 걸은 끝에 창주 경계에 이르렀다. 송강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시 대관인의 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명을 알아낸 송강은 곧장 장원 앞으로 향하여 장객(莊客, 하인)에게 물었다. "시 대관인께서 장원에 계시는가?" 장객이 대답했다. "대관인께서는 동쪽 장원에서 소작미(租米)를 거두고 계셔서 지금 장원에는 안 계십니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여기서 동쪽 장원까지는 얼마나 가야 하는가?" 장객이 말했다. "사십여 리는 가야 합니다." 송강이 물었다. "어느 길로 빠져 가야 하는가?" 장객이 조심스레 물었다. "감히 두 관인(官人)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나는 운성현(鄆城縣)의 송강이라고 하네." 그러자 장객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설마 '급시우(及時雨)' 송 압사님이십니까?" 송강이 그렇다고 답하자 장객이 말했다. "대관인께서 평소 그 대명(大名)을 자주 말씀하시며,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송 압사님이시라면 소인이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장객은 서둘러 송강과 송청을 데리고 곧장 동쪽 장원으로 향했다. 세 시진(時辰, 약 6시간)이 채 되지 않아 어느덧 동쪽 장원에 도착했다. 송강이 보니, 참으로 번듯하고 아주 정갈하게 잘 꾸며진 장원이었다. 시로 이르되,

앞에는 넓은 항구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높은 봉우리가 받치고 있네. 수천 그루 회나무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서너 곳 대청에선 손님을 맞이하네. 집 모퉁이를 돌면 소와 양이 땅에 가득하고, 타작마당에는 거위와 오리가 떼를 지어 노니네. 음식과 술이 호화로워 저 맹상군(孟嘗君)의 식객들을 능가하고, 전원(田園)을 관리함은 저 정정(程鄭)의 가동(家僮)들로도 셀 것이 못 되네. 참으로 집에 양식이 남아 닭

과 개까지 배불리 먹고, 부역(差役)이 없어 자손들까지 한가로운 집이로다.

장원 하인이 말했다. "두 어른께서는 우선 이 정자에 앉아 잠시 쉬고 계십시오. 소인이 가서 대관인께 알려 모셔 오겠습니다." 송강이 "그러게나"라고 답했다. 송강과 송청은 산 정자에 있는 정자에 칼을 기대어 세워두고, 허리춤의 칼을 풀고 짐 보따리도 내려놓은 채 정자에 앉아 쉬었다. 하인이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원의 가운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시진 대관인이 서너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 나와 정자에 있는 송강과 마주했다.

시진은 송강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정말로 시진이 형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해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어떤 바람이 불어 이곳까지 오시게 하니, 평생 품어온 갈망을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또 다행입니다!" 송강 역시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답했다. "송강은 미천하고 어리석은 하급 관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찾아와 의지하려 합니다." 시진이 송강을 부축해 일으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말했다. "어젯밤에는 등불의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에는 까치들이 지저귀더군요. 뜻밖에도 귀한 형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송강은 시진이 자신을 이토록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아우 송청을 불러 함께 인사하게 했다. 시진은 수행원들에게 명하여 송 압사(押司)의 짐을 챙겨 후당 서쪽 헌(軒) 아래 휴식처에 두게 했다. 이어 시진은 송강의 손을 잡고 안쪽 정청(正廳)으로 들어가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시진이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형님께서 운성현에서 직무를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어

찌 이리 시간이 나셔서 이 거친 시골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대관인님의 큰 이름은 오래전부터 천둥소리가 귀에 쏟아지듯 들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귀한 서신(華翰)을 받았으나, 천한 직무에 매여 틈이 없어 뵙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오늘 송강이 재주가 부족하여 빠져나갈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형제 둘이서 몸을 의지할 곳을 생각하다가,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나누어 베푸시는 대관인님이 떠올라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시진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설령 십악대죄(十惡大罪)를 저질렀다 해도, 일단 이 누추한 장원에 오셨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시진이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도적을 잡는 관군이 와도 감히 우리 장원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송강은 곧이어 염파석(閻婆惜)을 죽인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털어놓았다. 시진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설령 조정의 명관(命官)을 죽이고 부고(府庫)의 재물을 빼앗았다 해도, 저 시진은 이 장원에 숨겨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시진은 송강 형제에게 목욕을 권했다. 그리고 곧바로 옷 두 벌과 건책(巾幘), 비단 신, 깨끗한 버선을 가져와 송강 형제가 목욕 후 갈아입을 옷으로 내주었다. 두 사람이 목욕을 마치고 새 옷을 갖춰 입자, 장원 하인이 송강 형제의 헌 옷을 가져다 휴식처에 두었다. 시진은 송강을 후당 깊숙한 곳으로 모셔 이미 차려놓은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시진은 송강을 정면에 앉게 하고 자신은 마주 앉았으며, 송청은 형인 송강이 윗자리에 있으니 옆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곁에서 모시던 십여 명의 장원 하인들과 몇 명의 관리들이 번갈아 가며 술잔을 채우고 정성껏 술을 권했다.

시진은 송강 형제에게 마음을 편히 먹고 술을 몇 잔 더 마시라며 거듭 권했고, 송강은 연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세 사람은 가슴속에 품어온, 서로를 그리워하던 마음을 하나둘 털어놓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촛불을 켜자, 송강이 말했다. "술은 여기까지만 마십시다." 하지만 시진이 어찌 그냥 보내려 하겠는가. 술자리는 초경(初更, 저녁 7시경)을 훌쩍 넘겨서야 겨우 끝이 났다. 송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으러 갔다.

시진은 장원 하인 한 명을 불러 등불을 들게 하고, 송강을 동쪽 복도 끝에 있는 변소로 안내하게 했다. 송강은 "잠시 술잔을 좀 피해야겠다"하고는, 일부러 크게 돌아 앞쪽 복도를 따라 빠져나왔다. 느릿느릿 걷다 보니 어느덧 동쪽 복도 앞쪽에 이르렀다. 송강은 이미 술기운이 여덟 할이나 올라 발걸음이 비틀거렸으나,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다. 그런데 복도 아래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학질(瘧疾)을 앓고 있는 탓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 부삽(火鍬) 한 자루에 숯불을 담아 그것에 몸을 쬐고 있었다. 송강은 고개를 든 채 앞만 보고 걷다가 그만 그 부삽 자루를 밟고 말았고, 그 바람에 부삽 안의 숯불이 모두 사내의 얼굴 위로 튀어올랐다. 사내는 깜짝 놀라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 사내는 울화가 치밀어 올라 송강의 가슴팍을 움켜쥐고는 크게 소리쳤다. "네놈은 대체 누구냐? 감히 어디서 나타나 나를 골탕 먹이려 들어!" 송강 역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한참을 실랑이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데, 등불을 들고 있던 장원 하인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분은 주인 어른께서 가장 귀하게 대접하시는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사내가 말했다.

"손님이라니, 손님이라니!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손님이었고, 그때는 대접도 후하게 받았지. 그런데 이제는 하인 놈의 험담에 귀를 기울여 나를 이토록 홀대하다니, 참으로 '사람 좋은 일은 천 일을 못 가고, 꽃의 붉은 빛은 백 일을 못 간다'는 말이 딱 맞구나!" 사내가 송강을 때리려 들자, 하인은 등불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말렸으나 좀처럼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때 등불 두세 개가 날아오듯 다가오더니, 시진 대관인이 직접 달려와 말했다. "내가 압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곳에서 소란이 벌어진 것이오?"

장원 하인은 부삽 사건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시진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이 대단한(奢遮) 압사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사내가 대답했다. "대단하다니, 대단하다니요! 그자가 운성현(鄆城縣)의 송 압사보다 조금이라도 못하지는 않으리란 말씀입니까!" 시진이 크게 웃으며 물었다. "여보게, 자네 송 압사를 아는가?" 사내가 말했다. "직접 뵌 적은 없으나, 강호에서 그가 '급시우(及時雨)' 송공명(宋公明)이라는 말은 익히 들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며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고, 위태롭고 곤궁한 이를 도와주는, 천하에 이름난 호걸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진이 다시 물었다. "그가 천하에 이름난 호걸이라는 것을 어찌 아는가?" 사내가 대답했다. "방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바로 참된 대장부이시며, 머리와 꼬리가 분명하고 시종(始終)이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병만 나으면 바로 그분을 찾아가 의지하려 합니다." 시진이 물었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가?" 사내가 말했다. "당연히 만나뵙고 싶지요!" 시진이 말했다. "여보게, 멀게는 십만 팔천 리 길이고 가깝게는 바로 눈앞에 있네." 시진이 송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급시우' 송공명이시네." 사내가 말했

다. "정말로 그분이 맞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그렇소, 내가 바로 송강이오." 사내는 송강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님을 뵙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어찌 이리 과한 사랑을 베푸시오?" 사내가 말했다. "방금 전에는 정말 무례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눈이 있어도 태산(泰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도무지 일어날 줄 몰랐다. 송강이 급히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귀하의 성함이 어찌 되시오?"

시진이 그 사내를 가리키며 그의 성과 이름, 그리고 자(字)가 무엇인지 일러주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산속의 맹호도 (그를) 보면 혼백이 흩어지고, 숲속의 강도(强人)도 (그와) 마주치면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그야말로 그 이름이 밝혀지면 별과 달이 빛을 잃고, 그 정체가 드러나면 강산의 물줄기마저 거꾸로 흐를 만하리라. 과연 시 대관인이 말한 그 사내가 누구인지는, 다음 회를 들어보시라.

제23회 — 횡해군에 머무는 시진,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는 무송

橫海郡柴進留賓 景陽岡武松打虎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술 한 잔을 피하려고 손을 씻으러 갔다가 복도로 나오면서 그만 화로 자루를 발로 건드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 사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벌떡 일어나 송강을 때리려 했다. 이때 시진이 급히 달려 나와 "송 압사(押司, 아전)님!" 하고 그를 불렀는데, 이 때문에 송강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사내는 상대가 송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저히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는 "제가 눈이 멀어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형님을 무례하게 대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빌었다. 송강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귀하는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시진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청하현 사람으로, 성은 무요 이름은 송이라 합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곳에 머문 지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강호에서 무 이랑(武二郎)의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뜻밖에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고 또 다행입니다!"

시진이 말했다. "우연히 호걸끼리 한자리에 모였으니 참으로 얻기 힘든 기회입니다. 자, 어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무송의 손을 잡고 함께 후당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송청을 불러 무송과 인사하게 했다. 시진이 무송에게 앉으라고 권하자, 송강은 서둘러 무송을 상석에 함께 앉게 했다. 하지만 무송이 어찌 상석에 앉으려 하겠는가. 한참을 사양한 끝에 무송은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시진은 다시 요리와 술을 차려 오게 하여 세 사람이 마음껏 술을 마시도록 권했다. 송강이 등불 아래서 무송을 살펴보니, 과연 대단한 호걸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니,

몸집은 늠름하고 모습은 당당하구나.
눈빛은 차가운 별처럼 빛나고, 눈썹은 먹을 칠한 듯 짙구나.
가슴은 넓고 웅장하여 만 명의 적도 당해낼 위풍이 있고,
말소리는 드높아 천 길 구름을 뚫을 기개가 넘치네.
마음은 웅장하고 담력은 커서 마치 구름 끝에서 내려오며 하늘을 뒤흔드는 사자와 같고,
뼈와 근육은 강건하여 마치 자리 위로 다가오며 땅을 뒤흔드는 비휴(貔貅)와 같구나.
흡사 하늘에서 내려온 항마주(降魔主)요, 참으로 인간 세상의 태세신(太歲神)이로다.

송강은 등불 아래서 무송의 풍채를 살펴보니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다. 송강이 무송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무송이 대답했다. "제가 청하현에 있을 때, 술에 취해 그곳 기밀(機密)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주먹을 한 번 휘둘렀더니 그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군요. 저는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재난을 피하고자 곧장 이곳으로 달려와 대관인(大官人)께 의탁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그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더군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형님을 찾아뵈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학질(瘧疾)에 걸리는 바람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기가 들어 으슬으슬 떨리던 차에, 복도에서 불을 쬐다가 형님께서 부삽 자루를 밟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그 놀람에 식은땀을 한바탕 흘리고 나니 병이 다 나은 듯합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날 밤은 삼경(밤 11시~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송강은 무송을 서쪽 행랑채에 머물게 했다. 이튿날 일어나자 시진은 자리를 마련하고 양과 돼지를 잡아 송강을 정성껏 대접하니,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송강은 무송에게 옷을 해 입으라고 은자를 내주려 했다. 시진이 이를 알고는, 어찌 송강이 돈을 쓰게 두겠느냐며 손수 비단과 명주가 가득 담긴 상자를 꺼내 왔다. 시진의 집에는 원래 재봉사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세 사람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지어 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말이오, 시진은 어찌하여 무송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가? 사실 무송이 처음 시진을 찾아와 의탁했을 때는 시진도 여느 손님과 다름없이 그를 정성껏 대접했었다. 하지만 그 후 장원에 머무는 동안, 무송이 술에 취해 성미를 부릴 때면 장원 일꾼들이 미처 다 돌보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었는데, 그때마다 무송은 주먹을 휘둘러 그들을 때리곤 했다. 이 때문에 장원의 일꾼 중 무송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무송을 싫어하여 시진 앞에 가서는 무송의 잘못을 사사건건 고해바쳤다. 시진은 비록 무송을 쫓아내지는 않았으나, 예전만큼 살갑게 대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다 송강이 매일 무송을 데리고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려 주자, 무송의 예전 병(학질)도 더 이상 도지지 않게 되었다.

무송은 송강과 함께 열흘 남짓 머물렀으나, 고향 생각이 간절해져 청하현에 있는 형을 보러 가기로 했다. 시진과 송강은 그를 며칠 더 머물게 하려 했다. 무송이 말했다. "형님과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서, 이번 기회에 직접 찾아뵈려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정녕 가야겠다면 억지로 붙잡지는 않겠네. 혹시 시간이 나면 다시 들러서 함께 어울리세." 무송은 송강에게 감사를 표했다. 시진은 금과 은을 꺼내 무송에게 건넸고, 무송은 "대관인(大官人)께 너무 큰 폐를 끼칩니다"라며 사양하듯 말했다. 무송은 봇짐을 묶고 몽둥이를 챙겨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시진은 떠나는 길에 먹을 술과 음식까지 챙겨주었다. 무송은 새로 지은 붉은 명주 저고리를 입고, 하얀 범양 모직 모자를 쓴 채, 등에 봇짐을 메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작별 인사를 나누며 길을 떠났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잠시만 기다리게."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은자를 좀 챙겨 들고 장원 문 앞까지 달려 나와 말했다. "내가 형제

를 배웅하겠네." 송강과 그의 아우 송청이 함께 무송을 배웅했다. 무송이 시진 대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자, 송강도 말했다. "대관인, 잠시 이별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세 사람은 시진의 동쪽 장원을 떠나 5~7리쯤 길을 나아갔다. 무송이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형님, 이제 너무 멀리 왔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시 대관인께서도 분명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송강이 말했다. "몇 걸음만 더 배웅하는 게 뭐 어떻겠나." 길을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3~2리 정도를 더 지나갔다. 무송이 송강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너무 멀리까지 배웅하지 마십시오. 예부터 '임 보내는 천 리 길도 결국은 이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송강이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몇 걸음만 더 같이 가세. 저 관도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술이나 세 잔 나누고 헤어지세."

세 사람은 주막에 도착했다. 송강은 상석에 앉았고, 무송은 몽둥이에 몸을 기댄 채 아래쪽 자리에 앉았으며, 송청은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은 주모를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하고, 안주와 과일, 채소 등을 주문하여 상 위에 가득 차려 놓았다. 세 사람이 술을 몇 잔 나누다 보니 어느덧 붉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무송이 말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형님께서 저 무이(武二)를 가련히 여겨 받아주신다면, 여기서 무이가 네 번 절하며 형님을 의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송강이 크게 기뻐했다. 무송이 머리를 조아려 네 번 절하자, 송강은 송청에게 시켜 은 열 냥짜리 한 덩이를 꺼내 무송에게 건네주었다. 무송이 어찌 그것을 그냥 받겠는가. 무송이 말했다. "형님, 여행 중에 쓰실 비용으로 가져가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아우님, 너무 마음 쓰지 말

게. 만약 계속 거절한다면 나는 자네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네." 무송은 하는 수 없이 절을 하며 은자를 받아 봇짐 안에 넣었다. 송강은 은 조각을 꺼내 술값을 치렀다. 무송은 몽둥이를 챙겨 들었고, 세 사람은 주막을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무송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송강과 송청은 주막 문 앞에 서서 무송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야 몸을 돌려 돌아왔다. 5리쯤 갔을까, 시 대관인이 말을 타고 오는데 뒤에는 빈 말 두 필을 끌고 마중을 나오고 있었다. 송강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함께 말을 타고 장원으로 돌아왔다. 장원에 도착해 말에서 내린 뒤에는 후당으로 안내하여 술을 대접했다. 송강 형제 두 사람은 이 때부터 시 대관인의 장원에 머물게 되었다.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무송은 송강과 헤어진 뒤 그날 밤 객주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먹은 뒤에는 방값을 치르고 봇짐을 단단히 챙겼다.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길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강호에서 이름 높은 "급시우" 송공명을 듣기만 했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이토록 좋은 형님을 만났으니 참으로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로다!'

무송은 길을 따라 며칠을 걸어 양곡현 땅에 들어섰다. 현청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마침 정오 무렵이라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오던 차에, 저 앞에 주막 하나가 보였다. 주막 문 앞에는 깃발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세 잔 마시면 고개를 넘지 못한다"라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송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며 몽둥이를 옆에 기대어 놓고 외쳤다. "주인장, 어서 술 좀 가져오시오!"

주인이 세 개의 사발과 젓가락 한 쌍, 그리고 따끈한 안주 한 접시를 무송의 앞에 차려놓고는, 술을 사발 가득 한 잔 가득 따랐다. 무송은 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고는 외쳤다. "이 술, 아주 기운이 넘치는구려! 주인장, 배를 채울 만한 것도 좀 가져오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삶은 소고기밖에 없소."

무송이 말했다. "좋소, 두세 근쯤 썰어 오시오. 술과 함께 먹게."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삶은 소고기 두 근을 썰어 큰 접시에 담아 무송의 앞에 내놓고는, 곧바로 술을 한 사발 더 따라주었다. 무송은 고기를 먹으며 말했다. "좋은 술이로다!" 그러고는 다시 한 사발을 더 따르게 했다.

그렇게 딱 세 사발을 마셨을 때, 주인은 더 이상 술을 따르러 오지 않았다. 무송이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주인장, 어찌하여 술을 더 따르지 않는 거요?"

주인이 말했다. "손님, 고기가 더 필요하시면 더 가져다드리겠소."

무송이 말했다. "술도 더 달리오. 고기도 좀 더 썰어 오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고기는 더 썰어다 드리겠지만, 술은 더 드릴 수 없소."

무송이 말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요!" 그는 주인에게 다시 물었다. "어째서 나에게 술을 더 팔지 않겠다는 것이오?"

주인이 말했다. "손님, 우리 집 문 앞의 깃발을 보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세 잔 마시면 고개를 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소."

무송이 물었다. "어째서 '세 잔 마시면 고개를 넘지 못한다'라고 붙여 놓은 것이오?"

주인이 말했다. "우리 집 술이 비록 시골 술이긴 해도, 묵은 술에 견줄 만한 맛이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세 사발만 마셔도 금세 취해버려서 앞의 산고개를 넘지 못한다오. 그래서 '세 사발 마시면 고개를 넘지 못한다'라고 부르는 것이오. 지나가는 손님들도 이곳에 오면 그저 세 사발만 마시고 더는 청하지 않는다오."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랬구려. 그런데 나는 벌써 세 사발이나 마셨는데 어찌 취하지 않은단 말이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술은 이름이 '투병향(透瓶香, 병을 뚫고 향이 새어 나온다)'이라 하고, '출문도(出門倒, 문을 나서자마자 쓰러진다)'라고도 부르오. 처음 입에 댈 때는 진하고 맛이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곧 쓰러지고 만다오."

무송이 말했다. "헛소리 마시오! 설마하니 내가 술값을 떼먹기야 하겠소? 어서 세 사발을 더 따라 오시오!"

주인이 보니 무송이 전혀 끄떡없기에, 다시 세 사발을 따라주었다. 무송은 마시며 말했다. "정말 좋은 술이로다! 주인장, 내가 한 사발 마실 때마다 한 사발 값을 낼 테니, 그저 계속 따라주기나 하시오."

주인이 말했다. "손님, 자꾸 마시려고만 하지 마시오. 이 술은 정말로 사람을 취해 쓰러뜨려서, 약으로도 못 고친다오."

무송이 대꾸했다. "헛소리 집어치우시오! 설령 그 안에 몽한약(蒙汗藥)을 탔다 한들 내게는 코가 있소."

주인은 무송의 기세를 막지 못해 연달아 세 사발을 더 따라주었다. 무송이 말했다. "고기도 두 근쯤 더 가져오시오."

주인은 다시 삶은 소고기 두 근을 썰어 내오고, 술도 세 사발을 더 따라주었다. 무송은 술맛이 좋아 계속해서 마셨다. 그는 몸에서 은 부스러기를 꺼내며 외쳤다. "주인장, 이 은을 보시오. 술값과 고깃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겠소?"

주인이 보고는 말했다. "넉넉하고도 남소. 도리어 거슬러 드릴 돈이 있겠소."

무송이 말했다. "거슬러 줄 필요 없으니, 그저 술이나 계속 따르시오."

주인이 말했다. "손님, 술을 더 드시려면 아직 다섯여섯 사발이 남아 있소만, 다 못 드실 것 같소."

무송이 말했다. "다섯여섯 사발이 있더라도 남김없이 다 따라 오시오."

주인이 말했다. "이 키 큰 양반, 만약 취해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가 어찌 부축할 수 있겠소?"

무송이 대답했다. "부축을 받아야 하는 자라면 호한이라 할 수 없지."

주인이 선뜻 술을 더 따르려 하지 않자, 무송이 발끈하며 말했다. "내가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 성질 건드리지 마시오. 그랬다간 네 집 안을 가루로 만들고 이 망할 가게를 통째로 뒤엎어 버릴 테니까!"

주인이 말했다. "이 사람이 취했으니 건드리지 말자." 그러고는 다시 술 여섯 사발을 따라 무송에게 주었다.

무송은 앞뒤로 모두 열다섯 사발을 마시고는, 몽둥이를 집어 들고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전혀 취하지 않았소!"

그는 문 앞으로 걸어 나가며 웃으며 말했다. "'세 사발 마시면 고개를 넘지 못한다'더니, 그게 다 헛소리잖소!" 그러고는 몽둥이를 손에 쥐고 길을 떠났다.

주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외쳤다. "손님, 어디로 가시는 거요!"

무송이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부르는 거요? 내가 술값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불러대나?"

주인이 외쳤다. "좋은 뜻으로 부르는 것이오! 일단 우리 가게로 돌아와서 관청에서 붙인 방을 좀 보시오."

무송이 물었다. "무슨 방문 말이오?"

주인이 말했다. "지금 저 앞 경양강 고개에 눈매가 날카롭고 이마가 하얀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소. 밤만 되면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데, 벌써 장정 서른 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갔다오. 관가에서 지금 사냥꾼들을 동원해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소. 고개 입구에는 방이 많이 붙어 있는데, 오가는 손님들은 반드시 여럿이 떼를 지어 사시, 오시, 미시(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고개를 넘으라고 되어 있소. 나머지 인시, 묘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그 외의 시간대)에는 고개를 넘는 것이 금지되어 있소. 게다가 혼자 온 손님은 반드시 동료를 만나 무리를 이룬 뒤에 넘어가야 한다오. 지금은 마침 미시 끝에서 신시 초쯤 되는 시간인데, 당신은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가려 하니 제 목숨을 버리려는 꼴이오. 차라리 여기서 쉬었다가, 내일 사람 서른 명쯤 모이면 다 같이 고개를 넘는 게 어떻겠소?"

무송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청하현 사람이라 이 경양강 고개는 적어도 한 스무 번은 넘게 다녔소. 그런데 언제부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이오? 쓸데없는 소리로 나를 겁주지 마시오. 설령 정말 호랑이가 있다 해도 나는 겁나지 않소!"

주인이 말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당신을 구하려는 것이오. 못 믿겠다면 들어와서 관청의 방을 직접 보시오."

무송이 대꾸했다. "헛소리 마시오! 진짜 호랑이가 있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단 말이오! 나를 집에 머물게 하려는 게, 혹시 밤중에 내 재물을 뺏고 목숨을 해치려는 속셈 아니오? 호랑이 타령하며 나를 겁주는 모양인데!"

주인이 말했다. "이것 좀 보시오! 나는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악한 의도로 몰아세우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려! 정 못 믿겠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시로 이르되,

앞서 달리는 수천 대의 수레가 넘어져도, 뒤따라오는 수레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진다.

분명히 평탄한 길을 가리켜 말해주는데도, 충고를 악한 말로 여기는구나. 주막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송은 몽둥이를 들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경양강 고개를 넘어갔다. 4~5리쯤 더 가니 고개 아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그 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하얗게 드러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두 줄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송도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았기에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근 경양강 고개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고 있으니, 지나가는 상인들은 사시(巳時, 오전 9~11시),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 미시(未時, 오후 1~3시) 세 시간대에 맞춰 여럿이 무리를 지어 고개를 넘으라. 제 몸을 돌보지 못해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무송은 그 글을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주막 주인이 손님들을 겁주어서 자기네 집에 머물게 하려고 속임수를 쓰는구나. 내가 저런 것 따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무송은 몽둥이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곧장 고개를 향해 올라갔다.

그때는 이미 신패시(申牌時, 오후 3~5시) 무렵이라, 붉은 해가 나른하게 산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무송은 술기운을 빌려 거침없이 고개를 올라갔다. 반 리(里)도 채 못 가니 퇴락한 산신묘 하나가 나타났다. 사당 앞으로 다가가 보니, 사당 문에 인장이 찍힌 방문(榜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무송이 발길을 멈추고 읽어 내려가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양곡현에서 알린다.

경양강 언덕에 새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있다. 지금 각 마을의 이정(里正)과 사냥꾼들에게 곤장형(杖刑)을 걸고 기한을 정해 잡아들이라 명하였으나 아직 잡지 못하였다. 만약 길을 지나는 상인 등이 있거든, 사(巳)·오(午)·미(未) 세 시진(오전 9시~오후 3시) 동안에 짝을 지어 고개를 넘도록 하라. 그 외의 시간과 혼자 다니는 손님은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고개를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따르도록 하라.

무송은 방문을 읽고 나서야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몸을 돌려 다시 주막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생각했다. '지금 돌아가면 분명 비웃음을 살 것이다. 겁쟁이라고 손가락질받으면 도저

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겠지.' 잠시 고민하던 무송이 외쳤다. "무서울 게 뭐 있어! 일단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보면 그만이지!"

무송은 길을 재촉하며 술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털모자를 등에 짊어지고 몽둥이를 옆구리에 찔러 넣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언덕을 올라갔다. 뒤를 돌아보니 해는 어느덧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마침 10월이라 해는 짧고 밤은 길어 금방 어둑해질 형편이었다. 무송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체 어떤 호랑이가 있길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산에 올라오지도 못한다는 말인가?"

무송이 계속 걷다 보니 술기운이 확 올라오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팍을 풀어헤친 채, 비틀거리며 숲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다 매끄럽고 커다란 청석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몽둥이를 기대어 놓았다. 무송이 몸을 뉘어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한바탕 몰아쳤다. 옛사람이 이 바람을 두고 지은 시 네 구절이 있다.

형체도 그림자도 없이 사람의 품에 스며드니,
사계절 내내 불어와 만물을 피워낸다.
나무에 다가가 노란 잎을 앗아가고,
산속으로 들어가 흰 구름을 밀어낸다.

본래 세상 이치에 구름이 일면 용이 따르고, 바람이 일면 호랑이가 따른다고 했다. 그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곳에서, 숲 너머로부터

땅을 울리는 커다란 소리가 들리더니 눈매가 날카롭고 이마가 하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무송은 그 모습을 보고 "아차!" 하고 비명을 지르며 청석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즉시 몽둥이를 손에 쥐고 청석 옆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 호랑이는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였다. 앞발 두 개로 땅을 꾹꾹 누르더니, 몸을 날려 공중에서 무송을 향해 덮쳐 내려왔다. 무송은 그 기세에 눌려 깜짝 놀라는 바람에 술기운이 싹 달아나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무송은 호랑이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몸을 휙 날려 호랑이의 뒤편으로 피했다. 호랑이는 뒤쪽에 있는 사람을 보기가 가장 어렵기에, 앞발을 땅에 짚고 허리를 한 번 치켜올려 무송을 들어 메치려 했다. 무송은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다. 호랑이가 치켜올려도 무송을 잡지 못하자, 놈은 한바탕 포효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공중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듯하여 산등성이까지 뒤흔들렸고, 쇠몽둥이 같은 호랑이 꼬리를 곧추세워 한 번 후려쳤다. 무송은 또다시 옆으로 몸을 피했다. 본래 이 호랑이가 사람을 잡는 데는 한 번 덮치고(撲), 한 번 치켜올리고(掀), 한 번 꼬리로 후려치는(剪) 세 가지 수법뿐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통하지 않으면 놈의 기세가 먼저 절반은 꺾이는 법이다. 호랑이는 다시 꼬리를 휘둘러도 무송을 잡지 못하자, 한 번 더 포효하며 몸을 빙 돌려 되돌아왔다. 무송은 호랑이가 다시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몽둥이를 치켜들더니, 평생의 힘을 다해 공중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그러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얼굴로 우수수 떨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급하게 휘두른 탓에 호랑이를 맞히지 못하고 마른 나무를 내리친

것이었다. 몽둥이는 두 토막으로 부러졌고, 무송의 손에는 절반만 남게 되었다.

호랑이는 포효하며 성질을 내더니, 다시 몸을 돌려 무송을 향해 덮쳐 내려왔다. 무송은 다시 한번 훌쩍 뛰어올라 열 걸음가량 뒤로 물러났다. 그 사이 호랑이는 앞발 두 개를 무송의 바로 앞까지 뻗었다. 무송은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양손으로 호랑이의 목덜미 가죽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눌러 찍어 내렸다.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으나, 무송이 온 힘을 다해 꽉 붙들고 있으니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았다. 무송은 한쪽 발로 호랑이의 얼굴과 눈을 향해 정신없이 걷어찼다. 호랑이가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발밑의 황토가 파헤쳐지며 구덩이가 생길 정도였다. 무송은 호랑이의 입을 그 황토 구덩이 속으로 꾹 눌러 버렸다. 호랑이는 무송의 기세에 눌려 기운이 쏙 빠져버렸다. 무송은 왼손으로 호랑이의 목덜미 가죽을 단단히 움켜쥔 채, 오른손을 몰래 빼내어 쇠망치 같은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평생의 힘을 다해 호랑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쉰 번, 예순 번, 일흔 번을 넘게 몰아치자, 호랑이의 눈과 입, 코와 귀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무송은 평소의 신통한 위력과 가슴 속의 무예를 쏟아부어, 순식간에 호랑이를 짓이겨 놓으니 마치 가죽 주머니 하나가 뭉쳐진 것 같았다.

한 편의 고풍스러운 시가 있어, 경양강에서 무송이 호랑이를 잡은 장면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경양강 언덕에는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만 리에 걸친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네.

숲 너머로 붉은 노을이 걸려 눈에 띄고, 차가운 안개는 몰려와 창공을 뒤덮네.

갑자기 천둥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지더니, 산허리에서 맹수 중의 왕이 튀어나왔다.

고개를 쳐들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날뛰니, 사슴과 노루 같은 짐승들은 모두 겁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다.

청하현의 장사는 아직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산등성이 위에 홀로 앉아 있다가 황급히 호랑이를 맞닥뜨리게 되었네.

위아래로 사람을 찾아 헤매던 호랑이가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한 번 치켜올리고 한 번 덮치니 그 모습이 얼마나 흉포하던가!

호랑이가 사람을 덮치려 달려드니 산이 무너지는 듯했고, 사람이 호랑이를 맞서니 거대한 바위가 기울어지는 듯했다.

앞발이 내리꽂힐 때면 마치 대포가 떨어지는 듯했고, 발톱과 이빨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진흙 구덩이가 생겨났다.

주먹과 발끝이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몰아치니, 양손은 피로 물들어 붉게 번뜩였다.

비릿한 피바람이 소나무 숲을 가득 채우고, 흩어진 털과 수염은 산 아래로 흩어져 떨어졌다.

가까이서 보면 천근의 무게를 실은 듯한 기세가 넘쳐나고, 멀리서 보면 여덟 방향으로 뻗치는 위풍당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몸은 들풀 위에 가로누워 화려한 줄무늬는 빛을 잃었고, 두 눈은 꽉 감겨 있어 그 어떤 빛도 번뜩이지 않았다.

그 순간 경양강 산길에 있던 그 맹호는, 무송이 순식간에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는 바람에 꼼짝도 못한 채 입으로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무송이 손을 떼고 나서 소나무 곁으로 가 부러진 몽둥이를 찾아 손에 쥐더니, 혹시라도 호랑이가 죽지 않았을까 싶어 다시 한 번 내리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결국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 무송은 다시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이 죽은 호랑이를 이 자리에서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가야 하나……?"

피 웅덩이 속에 손을 넣어 들어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온 힘을 다 쏟아부은 탓에 손과 발에 힘이 쭉 빠져 흐물흐물해졌기 때문이었다. 무송은 근처 청석에 앉아 잠시 쉬며 생각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만약 또 다른 호랑이가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어찌 싸운단 말인가? 우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기운을 차린 뒤, 내일 아침에 다시 처리하자.' 무송은 바위 근처에서 모자를 찾아 쓴 뒤, 덤불이 우거진 숲을 돌아 한 걸음 한 걸음 산 아래로 내려갔다.

반 리도 채 못 가서 마른 풀숲 사이로 커다란 짐승 두 마리가 쑥 하고 튀어나왔다. 무송이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이번엔 정말 끝장이구나!" 그런데 그 짐승 두 마리가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닌가. 무송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

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몸에 꼭 끼게 입은 두 사람이었다. 그 두 사람은 손에 각각 다섯 갈래로 갈라진 작살창을 들고 있다가 무송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 대체 [영웅의] 심장이라도 먹었소? 표범의 간이라도? 사자의 다리라도? 간담이 온 몸을 감쌀 정도구려! 어찌 무기도 없이 이 어둑한 밤중에 혼자서 산 고개를 넘어오시오! 당신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구려!" 무송이 물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시오?" 한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 근처 사냥꾼들이오." 무송이 다시 물었다. "산에 무엇을 하러 올라왔소?" 두 사냥꾼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구려! 지금 경양강 산길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나 밤마다 사람을 해치고 있소. 우리 사냥꾼들 중에서도 벌써 일고여덟 명이나 죽었고, 지나가던 나그네들은 셀 수도 없이 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단 말이오. 그래서 본현 지현께서 이 고을 이정(里正)과 우리 사냥꾼들에게 호랑이를 잡으라고 명하셨소. 하지만 그 짐승의 기세가 사나워 가까이 가기조차 무서우니 누가 감히 나서겠소? 우리는 그놈 때문에 기한을 못 지킨 죄로 한정봉(限棒)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오. 그래도 잡지는 못했소. 오늘 밤은 또 우리 둘이 사냥에 나설 차례라, 마을 사람 열댓 명과 함께 위아래에 와궁(窩弓, 덫 활)과 약전(藥箭, 독화살)을 설치해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소. 여기 매복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산 고개에서 성큼성큼 내려오니 우리 둘이 깜짝 놀란 것이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호랑이를 보긴 보았소?" 무송이 말했다. "나는 청하현 사람으로 성은 무 씨요, 둘째 아들이오. 방금 산길 덤불 옆에서 마침 그 호랑이를 만나, 내 주먹과 발길질 한바탕에 때려죽였소." 두 사냥꾼은 멍하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지?" 무송이 대답했다. "믿기지 않는다면 내 몸에 묻은 피를 보시오." 사냥꾼들이 물었다. "어떻게 잡았단

말이오?" 무송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솜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냥꾼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근처에 있던 마을 장정 열 명을 모두 불러 모았다. 보니 그 열 명은 모두 강철 작살(鋼叉), 답노(踏弩, 발로 밟아 쏘는 쇠뇌), 칼, 창을 들고 곧바로 모여들었다. 무송이 물었다. "이 사람들은 왜 당신들과 함께 산에 올라오지 않았소?" 사냥꾼이 답했다. "그 짐승이 워낙 무서운데 이 사람들이 어찌 감히 올라오겠소?" 열댓 명의 사람들이 무송 앞에 모였다. 두 사냥꾼이 무송이 호랑이를 잡아 죽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으나,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무송이 말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함께 가서 보여주겠소." 사람들은 각자 화도(火刀)와 부싯돌을 가지고 있었기에, 곧바로 불을 피워 대여섯 개의 횃불을 밝혔다. 사람들이 무송을 따라 다시 산 고개로 올라가 보니, 호랑이가 한 덩이로 죽어 있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먼저 한 사람을 보내 본현 이정(里正)과 이 일을 관장하는 상호(上戶, 마을 유력 호주)에게 알리게 했다. 그사이 마을 장정 대여섯 명은 호랑이를 묶어 산 아래로 메고 내려갔다.

산 아래에 도착하니 이미 칠팔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먼저 죽은 호랑이를 앞세워 메고, 무송은 두교(兜轎, 작은 가마)에 태워 곧장 그 고장의 한 상호(上戶, 마을 유력자) 집으로 향했다. 그 집 주인과 이정이 모두 장원 앞까지 나와 일행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초청(草廳, 띠로 지붕을 인 대청) 위로 옮겨 놓았다. 그사이 이 고을의 상호들과 사냥꾼 스무 명에서 서른 명이 모두 몰려와 무송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장사, 존성대명이 어찌 되시오? 고향은 어디시오?" 무송이 대답했다. "소인은 이웃 고을

인 청하현 사람으로, 성은 무요, 이름은 송이며 둘째 아들이오. 창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젯밤 산 고개 저편 주막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산을 넘다가 마침 이 짐승을 만났소." 무송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경위와 주먹질·발길질의 수법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상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참으로 영웅호걸이시구려!" 사냥꾼들은 먼저 야미(野味, 사냥한 짐승 고기)를 내와 무송에게 술잔을 권했다. 무송은 호랑이와 싸우느라 기운이 다 빠져 잠을 청하려 했다. 집주인은 곧 장객(莊客)들에게 객실을 정돈하게 하고 무송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날이 밝자 상호는 먼저 사람을 보내 현에 보고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호상(虎床, 호랑이를 눕혀 운반할 틀)을 단단히 마련하여 현으로 호송할 채비를 갖추었다. 날이 밝아 무송이 일어나 세수를 마치자, 많은 상호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술 한 짐을 짊어진 채 대청 앞으로 모여들어 무송을 기다렸다. 무송이 옷을 입고 건책(巾幘, 두건)을 정돈한 뒤 앞으로 나가 사람들과 마주했다. 상호들이 술잔을 들고 말했다. "이 짐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사냥꾼들까지 끌어들여 한정봉(限棒)을 몇 차례나 맞게 했지요. 오늘 다행히 장사께서 오셔서 이 큰 해악을 없애 주셨으니, 첫째로는 고을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고, 둘째로는 길 가는 나그네들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실로 장사의 베푸심 덕분입니다!" 무송이 사례하며 말했다. "제 능력이 아니라, 모두 어르신들의 덕택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축하를 건넸다. 아침 술자리를 마친 뒤 호랑이를 들어 호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을 상호들은 비단 필(緞匹)과 화홍(花紅, 축하 예물로 쓰는 붉은 비단)을 가져와 무송의 몸에 걸어 주었다. 무송은 짐 몇 가지를 장원에 맡겨둔 채 모두 함께 장원 문밖으로 나왔다. 마침 양곡현 지현 상공(相公)이 보낸 사람들이 무송을 마중하러 와 있었다. 일동이 서로 인사를 마치자, 장객(莊客) 네

명을 불러 양교(涼轎, 시원한 가마)를 가져오게 해 무송을 태웠다. 그리고 죽은 호랑이를 앞세우고 화홍과 비단을 걸친 채 무송을 양곡현 성안으로 영접해 들어갔다.

양곡현 사람들은 한 장사가 경양강의 호랑이를 때려잡고 환호 속에 호송되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경하니, 현청 일대가 인산인해로 들썩였다. 가마에 탄 무송이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등이 겹치도록 북적거리며 골목마다 가득 메운 채 호랑이를 맞이하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무송이 현청 관아 앞에 이르자, 지현은 이미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송은 가마에서 내려 호랑이를 들어 메고 대청 앞으로 가서 길목에 내려놓았다. 지현은 무송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또 눈앞에 놓인 거대한 비단무늬 호랑이를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내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맹호를 때려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고는 곧 무송을 대청으로 불러들였다. 무송이 대청 앞에서 예를 갖추자, 지현이 물었다. "호랑이를 잡은 장사여, 대체 그 큰 짐승을 어떻게 잡았단 말이오?" 무송은 대청 앞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솜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대청 위아래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그 말에 모두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현은 대청에서 무송에게 술 몇 잔을 내리고, 마을 상호들이 추렴해 모아준 상금 천 관(貫)을 무송에게 내주었다. 무송이 아뢰었다. "소인은 사또의 덕택에 우연히 운이 좋아 이 짐승을 잡았을 뿐, 제 능력이 아니니 어찌 감히 상을 받겠습니까? 듣자 하니 이 사냥꾼들이 이 호랑이 때문에 사또께 벌을 받았다고 하니, 차라리 이 천 관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장사가 정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무송은 곧바로 그 상금을 대청에서 여러 사냥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현은 무송의 성품이 충직하고 어질다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끌어주기로 결심했다. 지현이 말했다. "비록 그대가 청하현 사람이긴 하나, 우리 양곡현과는 지척이라 다름없소. 내가 오늘 그대를 우리 현의 도두(都頭, 포교)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오?" 무송이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대답했다. "사또께서 은혜를 베풀어 끌어주신다면, 소인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현은 즉시 압사(押司, 아전)를 불러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날 바로 무송을 보병도두로 임명했다. 마을의 상호들은 모두 달려와 무송의 경사를 축하하며 며칠 동안이나 연신 술잔을 기울였다. 무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본래 청하현에 있는 형님을 뵈러 가려던 길이었는데, 뜻밖에 양곡현의 도두가 되었구나.' 이때부터 무송은 상관들의 총애를 받고 고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무송이 현청 앞을 산책하며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 도두! 이제 출세하셨는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무송이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있소?"

무송이 이 사람을 만난 이후, 양곡현은 시체가 즐비하고 피가 낭자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 칼이 울릴 때마다 사람의 머리가 굴러떨어지고, 보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결국 무 도두를 불러 세운 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4회 — 왕파가 뇌물을 탐해 풍문을 퍼뜨리고, 운가가 분노하여 찻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王婆貪賄說風情 鄆哥不忿鬧茶肆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날 무송 도두가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보고는, 얼른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무송의 친형 무대랑이었다. 무송이 절을 마치고 말했다.

"형님, 일 년 넘게 뵙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무대랑이 대답했다.

"둘째야, 네가 떠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구나."

무송이 물었다.

"형님,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이 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무대랑이 말을 이었다.

"네가 원망스러운 것은, 네가 청하현에 있을 때 술만 마시면 취해서 사람들과 싸우는 바람에 맨날 관가에 불려 다니지 않았느냐. 그럴 때마다 나는 관청에 따라가서 뒤처리를 하느라 한 달 중 온전히 쉬는 날이 없었으니,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네가 원망스러운 점이다. 또 네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근래에 아내를 하나 얻었는데 청하현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다들 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데도 편을 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참으로 막막하구나. 네가 집에 있을 때는 누가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겠느냐? 나는 지금 그곳에서 도저히 지낼 수가 없어 이곳으로 옮겨와 방을 얻어 살고 있으니, 이 점이 바로 네가 보고 싶은 점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들어보라. 본래 무대랑과 무송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다. 무송은 키가 여덟 자에 달하고 용모가 당당하며, 온몸에 천근의 힘을 품고 있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그 사나운 호랑이를 때려잡았겠는가? 반면 무대랑은 키가 다섯 자도 채 되지 않았고, 얼굴은 못생긴 데다 머리 모양까지 우스꽝스러웠다. 청하현 사람들은 그가 키가 작고 왜소한 것을 보고는 '삼촌정곡수피'라는 별명을 붙여 놀려대곤 했다.

청하현에는 한 부유한 대호(大戶) 집안이 있었는데, 그곳에 반금련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었다. 나이는 이제 겨우 스무 살 남짓이었으나 미모가 제법 뛰어났다. 그 집 대호(주인 어른)가 그녀에게 치근대며 손

에 넣으려 하자, 반금련은 주인마님에게 가서 일러바치며 결코 따르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그 대호는 이에 앙심을 품고는, 오히려 혼수까지 챙겨 보내고 무대랑에게서 돈 한 푼 받지 않은 채 그녀를 거저 시집보내 버렸다. 무대랑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뒤부터, 청하현의 간사하고 방탕한 건달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본래 이 여인은 무대랑의 체구가 작고 외모가 못생긴 데다 풍류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점은 다 괜찮은데 무엇보다도 외간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하기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다. 시로 이르되,

금련의 용모는 시로 읊기에 더욱 아름다우니,
웃을 때면 봄산처럼 굽은 눈썹이 살포시 모인다.
만약 풍류를 아는 맑은 선비라도 만난다면,
아무렇지 않게 남몰래 사랑을 약속하리라.

한편, 반금련이 시집온 뒤로 무대랑은 그저 본분에 충실하며 유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 건달들이 수시로 무대랑의 집 앞에서 "아이고, 저 귀한 양고기가 개 입속으로 굴러떨어졌네!"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 때문에 무대랑은 청하현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양곡현 자석가로 거처를 옮겨 방을 빌려 살며 매일같이 여전히 떡을 지고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날 무대랑은 마침 관청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무송을 보고는 반갑게 말했다. "아우야, 며칠 전부터 거리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말하는 걸 들었단다. '경양강에 호랑이를 잡은 장사가 있는데 성은 무 씨라고 한다. 현령께서 그를 도두로 삼으셨다더라' 하고 말이야.

나는 십중팔구 네 이야기일 거라 짐작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이렇게 마주치는구나. 장사는 잠시 접어두고 너와 함께 집으로 가자꾸나." 무송이 물었다. "형님 댁이 어디입니까?" 무대랑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 앞 자석가에 있단다." 무송은 무대랑을 대신해 떡 광주리를 짊어졌고, 무대랑은 무송을 이끌고 골목을 돌아 곧장 자석가로 향했다.

골목을 두 번쯤 꺾어 들어가니 어느 찻집 옆 벽이 나타났다. 무대랑이 "여보, 문 좀 열어주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갈대 발이 걷히며 한 여인이 발치까지 나와 대답했다. "여보, 어찌 이리 이른 시간에 돌아오셨어요?" 무대랑이 말했다. "네 시동생이 여기 와 있으니 어서 나와 인사하거라." 무대랑은 떡 광주리를 받아 안으로 들여놓고는 다시 나와 말했다. "둘째 아우야, 방으로 들어오너라. 네 형수와 인사해야지." 무송이 발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그 여인과 마주했다. 무대랑이 말했다. "여보,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아 새로 도두가 된 이 사람이 바로 내 아우라네." 여인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읍하며 말했다. "시동생님, 만복을 누리소서."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앉으십시오." 무송은 그 자리에서 금산(金山)을 밀고 옥기둥을 쓰러뜨리듯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여인이 무송을 붙잡으며 말했다. "시동생님, 이러시면 이 몸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송이 대답했다. "형수님, 제 절을 받으십시오." 여인이 말을 이었다. "'호랑이를 잡은 호걸이 관청 앞에 나타났다더라' 하는 소문을 저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구경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쉽게도 때를 놓쳐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시동생님이셨군요. 어서 위층으로 올라가 앉으세요." 무송이 그 여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눈썹은 초봄 버들잎 같아, 늘 비를 머금은 듯 슬픔과 근심이 서려 있고
얼굴은 삼월 복사꽃 같아, 은근한 정취와 달빛 같은 마음을 품었네.
가느다란 허리는 아리따워, 부지런한 제비와 꾀꼬리도 게으르게 만들고
가벼운 입술은 매혹적이어서, 벌과 나비를 미친 듯 춤추게 하네.
옥 같은 모습은 꽃처럼 말을 알아듣고, 고운 얼굴은 아리따워 향기가 배어 나오네.

그 여인은 무대랑에게 무송을 위층으로 모시라고 일렀고, 무송은 주인과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세 사람이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여인은 무대랑을 보며 말했다. "내가 시동생님 곁에서 모실 테니, 당신은 가서 술과 음식을 좀 준비해 오세요. 시동생님 대접을 잘 해드려야지요." 무대랑이 대답했다. "그러는 게 좋겠소. 아우야, 너는 우선 좀 앉아 있거라. 내가 금방 다녀오마." 무대랑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위층에 남은 여인은 무송의 늠름한 풍채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다. '무송은 저 사람과 친형제라는데 어찌 저리도 체격이 장대한가. 내가 저런 사람에게 시집갔더라면 사람으로 한 세상 사는 게 헛되지는 않았을 것을! 저 「삼촌정 곡수피」를 좀 보아라. 사람 같은 데가 삼 할이고 귀신 같은 데가 칠 할이니, 내 어찌 이리 운수가 사나운가! 무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랑이까지 때려잡았으니 분명 힘이 장사일 터. ……게다가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다 하니, 차라리 우리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하면 어떨까? ……생각지도 못한 이 인연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 여인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무송에게 물었다. "시동생님, 여기 오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무송이 대답했다. "이곳에 온 지 열흘 남짓 되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물었다. "시동생님은 어디서 묵고 계세요?" 무송이 말했다. "그저 관청에 대충 머물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시동생님, 그러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무송이 말했다. "혼자 몸이라 알아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중드는 토병(土兵)들도 있으니까요." 여인이 말했다. "그 사람들이 시동생님을 모신들 어디 제대로 챙겨드리겠어요? 차라리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사시는 게 어때요? 아침저녁으로 국물이라도 드시고 싶을 때 제가 직접 차려드릴 테니, 저런 지저분한 것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시동생님께서도 맑은 국물 한 모금이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테고요."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덧붙였다. "혹시 다른 곳에 제수씨라도 계시면 모셔와 함께 만나도 좋을 텐데요." 무송이 말했다. "저 무이(武二)는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또 물었다. "시동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무송이 대답했다. "헛되이 스물다섯 해를 보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저보다 세 살 위시네요. 시동생님은 이번에 어디서 오셨나요?" 무송이 말했다. "창주에서 일 년 넘게 지내다가, 형님이 청하현에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뜻밖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더군요." 여인이 말했다. "한마디로 다 말하기 어려워요! 당신 형님에게 시집온 뒤로, 그이가 너무 착하기만 해서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청하현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기에 이리로 옮겨 온 거랍니다. 만약 시동생님처럼 늠름한 분이 곁에 계셨다면 누가 감히 한 마디라도 했겠어요!" 무송이 말했다. "저희 형님은 본래 분수를 지키시는 분이라, 저처럼 막무가내로 굴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 어찌 그렇게 거꾸로 말씀하세요? 옛말에 '사람에게 강직한

기개가 없으면 몸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는 평생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세 번 불러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네 번 불러야 겨우 몸을 돌리는 그런 굼뜬 사람은 영 못 봐주겠어요." 무송이 말했다. "저희 형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분도 아니니, 형수님께서는 그리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위층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무대랑이 술과 고기, 과일 등을 사서 돌아왔다. 그는 그것들을 부엌에 내려놓고는 위층으로 올라와 외쳤다. "형수님, 내려와서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저 철없는 양반 좀 보세요. 시동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나를 덜컥 내려보내다니요."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인이 말했다. "옆집 왕파 할멈에게 부탁해서 준비하게 하면 될 것을, 어찌 이리 사람을 번거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무대랑은 옆집 왕파에게 부탁하여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낸 뒤, 모두 위층으로 옮겨 상 위에 차렸다. 생선과 고기, 과일과 채소 같은 것들이었으며, 곧이어 술도 데워 올렸다. 무대랑은 여인을 상석에 앉히고 무송을 맞은편에 앉혔으며, 자신은 옆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자 무대랑은 각자의 앞에 술을 따랐다. 여인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시동생님, 대접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 술 한 잔 받아주세요."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대랑은 그저 위아래로 술을 따르고 데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여인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연신 말을 건넸다. "시동생님, 어찌 생선과 고기를 한 점도 함께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골라 무송에게 건네주었다. 무송

은 성격이 곧은 사내라 그저 친형수로서 대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본래 여종 출신이라 아양 떠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게다가 무대랑은 성격이 워낙 유약하여 사람을 살필 줄도 몰랐다. 여인은 술을 몇 잔 마시면서도 눈길은 온통 무송의 몸에만 머물렀다. 무송은 그 시선이 거북하여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체했다. 그날 술을 열댓 잔쯤 마셨을 때 무송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랑이 말했다. "아우야, 몇 잔 더 마시고 가거라." 무송이 대답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다시 또 형님을 뵈러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송을 아래층까지 배웅했다. 여인이 말했다. "시동생님은 꼭 이 집으로 옮겨 와서 사셔야 해요. 만약 시동생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 부부가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친형제 사이가 어찌 남과 같겠어요. 여보, 어서 방 하나를 마련해서 시동생님을 모셔다 함께 살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이 흠 잡지 않게 하세요." 무대랑이 말했다. "마누라 말이 맞소. 아우야, 네가 이리로 이사를 와야 나도 기를 좀 펴고 살지 않겠느냐." 무송이 말했다. "형님과 형수님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밤에 짐을 좀 챙겨서 가져오겠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시동생님,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인의 정과 뜻은 더할 나위 없이 은근하고 살가우니, 과연 이러하였다.

시동생과 형수가 말을 주고받음에 예법의 금기가 엄하나,
손을 내밀어 잡는 것은 권도(權道)임을 알아야 하네.
영웅은 오직 한 가지에 이어진 형제 나무만을 생각하나,
음탕한 여인은 도리어 한 꼭지에 나란히 핀 연꽃을 그리는구나.

무송은 형님과 형수를 작별하고 자석가를 떠나 곧장 현청으로 향했다. 마침 지현이 관아 집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무송은 관아로 들어가 이렇게 아뢰었다. "무송에게 자석가에 사는 친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의 집에서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관아의 부름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감히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지현 어른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현이 말했다. "그것은 효도와 우애를 다하는 일이니 내가 어찌 너를 막겠느냐? 매일 관아로 출근하여 일을 돕도록 하거라." 무송은 감사를 표하고 짐과 침구를 챙겼다. 새로 만든 옷과 이전에 하사받은 물건들을 병사에게 짊어지게 하여 무송이 형의 집으로 가져갔다. 여인은 이를 보고 마치 한밤중에 보물을 주운 것처럼 기뻐하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었다. 무대랑은 목수를 불러 위층에 방 하나를 정비하게 했다. 침상을 놓고 그 안에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 그리고 화로 하나를 들여놓았다. 무송은 먼저 짐을 정리한 뒤 병사에게 돌아가라고 일러두고, 그날 밤 형님과 형수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인은 서둘러 일어나 세숫물을 데우고 입을 헹굴 물을 떠 왔다. 무송이 세수와 양치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것을 보고는, 그가 관아로 출근할 수 있도록 챙겨주었다. 여인이 말했다. "시동생님, 출근하신 뒤에는 밥 먹으러 일찍 돌아오셔야 해요. 다른 데 가서 드시지 말고요." 무송이 대답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무송은 곧장 관아로 가서 출근 보고를 하고 아침 내내 일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손을 씻고 손톱을 정리하며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음식을 차려놓았고, 세 사람이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무송이 식사를 마치자 여인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들어 무송에게 건넸다.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께서 이토록 극진히 대접해 주시니, 무송은 몸 둘 바를 모

르겠습니다. 관아에서 부릴 병사 하나를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시동생님, 어찌 이리 남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식구인데 다른 사람을 모실 필요가 있나요. 병사를 붙여줘 봤자, 그놈들은 부엌일이나 불 때기나 하는 지저분한 것들이라 제 눈에는 눈꼴셔서 못 봐주겠어요." 무송이 말했다. "그렇다면 형수님의 호의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말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았다. 무송이 이사 온 뒤로 은자를 조금 꺼내 무대랑에게 주며 떡과 차, 과일 등을 사서 이웃들에게 대접하게 했다. 이웃들도 앞다투어 무송에게 인사를 건네며 정을 나누었고, 무대랑이 다시 대접을 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나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 무송은 색색의 비단 한 필을 꺼내 형수에게 옷을 해 입으라고 건넸다. 여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시동생님, 어찌 이런 걸 다 주시나요. 하지만 시동생님께서 제게 주시는데 감히 거절할 수도 없으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후로 무송은 줄곧 형의 집에서 머물렀다. 무대랑은 예전처럼 거리로 나가 떡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무송은 매일 관아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명령을 수행했다. 그가 일찍 돌아오든 늦게 돌아오든, 여인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무송을 극진히 대접했다. 무송은 이런 대접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다. 여인은 종종 교묘한 말로 무송을 유혹하며 마음을 흔들려 했으나, 무송은 성격이 강직하고 곧은 사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지고, 짧아지면 짧아지는 법이다. 어느덧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러 어느덧 11월의 날씨가 되었다. 연일 매서운 북

풍이 몰아치고 사방에 붉은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우더니, 이윽고 하늘에서 큰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이 어떠한가? 바로 다음과 같다.

눈길을 슬쩍 던져두고 바람에 맡기니,
진흙 묻은 버들강아지 사연이라도 있는 듯하네.
그 화사하고 요염한 자태 세상 사람 홀리니,
무산의 구름과 비 같은 사랑도 그리 놀랍지 않으리.

그날 내린 눈은 일경(一更, 밤 7~9시 사이)이 되도록 계속되어, 온 세상이 은을 깔아놓은 듯하고 천지가 옥을 갈아 만든 듯했다. 다음 날 무송은 이른 아침 관아로 출근하여 화묘(晝卯, 출근 점고)를 하고, 정오가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무대랑은 그 여인에게 떠밀려 장사를 하러 나갔고, 여인은 옆집 왕파에게 부탁해 술과 고기 따위를 사 와서는, 무송의 방에 들어가 화로에 숯불을 가득 피워놓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그를 제대로 한번 흔들어봐야지.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그렇게 여인은 홀로 발 아래 쓸쓸히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 덮인 길을 헤치며 돌아오는 무송을 보았다. 여인은 발을 걷어 올리고 웃는 얼굴로 마중하며 말했다. "시동생님, 추우셨지요." 무송이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방 안으로 들어온 무송은 머리에 쓴 털모자를 벗었다. 여인이 두 손으로 받아주려 하자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무송은 옷에 묻은 눈을 손수 털어 벽에 걸어두고, 허리에 찬 전대를 풀고 몸에 걸쳤던 앵무록(鸚哥綠) 빛

비단 저고리를 벗어 방 안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시동생님께서는 어찌 아침 식사하러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무송이 말했다. "관아의 아는 이가 아침을 같이 먹자고 청하기에 같이 먹었는데, 또 한 사람이 술자리를 만들기에 번거로워 곧장 집으로 와버렸소." 여인이 말했다. "그러셨군요. 시동생님, 어서 불 앞으로 오세요." "좋소." 무송은 기름칠한 장화를 벗고 버선을 갈아 신은 뒤, 따뜻한 신을 신고 의자를 가져와 불 가까이에 앉았다. 여인은 앞문과 뒷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는 안주와 과일, 채소 등을 가져와 무송의 방 탁자 위에 차려 놓았다. 무송이 물었다. "형님은 어디 가셨길래 아직 안 돌아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형님은 매일 알아서 장사하러 나가시니, 시동생님과 저 둘이서 몇 잔 마시지요." 무송이 말했다. "차라리 형님이 돌아오시면 함께 드십시다." 여인이 말했다. "그 양반을 언제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술 한 주전자를 따끈하게 데워 왔다.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은 앉아 계시오. 이 무이(武二)가 가서 술을 데워오는 것이 마땅하오." 여인이 말했다. "시동생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여인도 의자를 가져와 불 가까이에 앉았다. 화롯가 탁자 위에는 잔과 접시가 놓여 있었다. 여인은 술잔을 손에 받쳐 들고 무송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동생님, 이 잔을 가득 비워주세요." 무송은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다. 여인은 다시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날이 이토록 차가우니, 시동생님도 짝수로 두 잔째를 드세요."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편하실 대로 하시오." 무송은 잔을 받아 다시 단숨에 비웠다. 그러고는 무송이 직접 술 한 잔을 따라 여인에게 건넸다. 여인은 술을 받아 마신 뒤, 다시 주전자를 들어 무송의 앞에 술을 따라 놓았다.

여인은 가슴을 살짝 드러내고 구름 같은 머리쪽을 반쯤 풀어 늘어뜨린 채,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한가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동생님께서 현청 앞 동쪽 거리에 노래하는 여자 하나를 두고 살림을 차리신다던데,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무송이 대답했다. "형수님, 바깥사람들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 무이(武二)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인이 말했다. "못 믿겠는걸요. 시동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속마음이 다를까 봐 걱정이에요." 무송이 말했다. "못 미더우시면 형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 양반이 뭘 알겠어요! 그런 일까지 알았다면 벌써 떡 장사는 안 했겠지요. 자, 시동생님, 우선 한 잔 드세요." 그렇게 연달아 서너 잔의 술을 따라 (무송에게) 마시게 했다. 여인도 술이 석 잔이나 뱃속에 들어가자 춘심이 일렁이는 것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고 자꾸만 잡스러운 말을 늘어놓았다. 무송도 여인의 속내를 십중팔구는 알아차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여인은 술을 더 가져오려고 일어섰고, 무송은 방 안에서 화로 집게를 들어 불을 살폈다. 여인이 따뜻하게 데운 술 한 주전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 손으로는 주전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송의 어깨를 덥석 쥐며 말했다. "시동생님, 옷을 이렇게만 입고 계시면 춥지 않으세요?" 무송은 이미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졌으나 대꾸하지 않았다. 여인은 무송이 반응이 없자 덥석 화로 집게를 뺏으며 말했다. "시동생님, 불을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대신 저어 드릴게요. 화로가 계속 뜨겁기만 하면 되니까요." 무송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은 욕심이 불길처럼 타올라 무송이 언짢아하는 기색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집게를 내려놓더니 술을 한

잔 따라 스스로 한 모금 마시고는, 남은 술이 반 잔 넘게 담긴 잔을 무송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시동생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남은 술이라도 좀 드셔 보세요."

무송은 잽싸게 잔을 뺏어 바닥에 쏟아버리며 말했다. "형수님, 제발 그토록 염치없는 짓은 마십시오!" 그러고는 손으로 확 밀쳐버려, 하마터면 여인을 넘어뜨릴 뻔했다. 무송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나 무이(武二)는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 우뚝 선, 이를 악물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한 사내대장부이지, 풍속을 어지럽히고 인륜을 저버리는 돼지·개 같은 놈이 아닙니다! 형수님, 제발 이런 파렴치한 짓을 그만두십시오. 만일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소문이라도 새어 나간다면, 이 무이의 눈은 형수님을 알아보아도 주먹은 형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십시오!" 여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술잔과 접시들을 거두어들이며 투덜거렸다. "그저 재미로 좀 해본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정색을 하다니! 사람 대접을 아주 못 해 주는군요!" 그러고는 세간(家火)을 챙겨 들고 부엌으로 가 버렸다. 시(詩)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술이 중매가 되어 음란한 기운이 부풀어 오르니,
탐욕과 음탕함에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린다.
자리에서 당장 요사스러운 정을 나누려 하니,
천둥 같은 분노가 한바탕 휘몰아친다.

한편, 반금련은 무송을 꼬셔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호된 꾸지람만 들었다. 무송은 방 안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앉아 있었다. 날

이 아직 일러 미시(未時, 오후 한두 시) 무렵, 무대랑이 짐을 짊어지고 돌아와 문을 밀자 반금련이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다. 무대랑은 안으로 들어와 짐을 내려놓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아내의 두 눈이 붉게 부어 있는 것을 본 무대랑이 물었다. "누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요?" 반금련이 대답했다. "다 당신이 못나서 그래요! 남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무대랑이 되물었다. "누가 감히 당신을 괴롭힌단 말이오?" 여인이 말했다. "누구인지 뻔하잖아요! 그 무이(武二) 놈이 눈보라를 뚫고 돌아오기에, 얼른 술을 차려 대접했더니 앞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는 나를 희롱하며 수작을 부렸다니까요!" 무대랑이 말했다. "내 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평소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 말이오. 괜히 큰 소리 내서 이웃들 웃음거리 만들지 마시오!"

무대랑은 아내를 뒤로하고 무송의 방으로 가서 불렀다. "둘째 형님, 아직 요기도 못 드셨을 텐데 저랑 같이 좀 드시지요." 하지만 무송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무송은 비단신을 벗고 다시 기름 먹인 가죽 장화를 신더니, 겉옷을 걸치고 전립(氈笠)을 쓴 뒤 허리에 전대(纏袋)를 매고 밖으로 나섰다. 무대랑이 뒤따라가며 외쳤다. "형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나 무송은 대답도 없이 곧장 길을 떠나버렸다.

무대랑은 부엌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불렀는데도 대답도 없이 저 앞 현청 쪽 길로만 가버리니,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소."

그러자 반금련이 욕을 하며 말했다.

"멍청하긴!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 그냥 나가버린 거죠. 내 짐작에 분명히 누구를 불러서 짐을 다 옮겨놓고는, 다시는 여기서 자고 가지 않겠다고 할 거예요."

무대랑이 말했다.

"짐을 다 옮겨버리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텐데."

반금련이 대꾸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나를 희롱한 건 그 사람인데, 왜 남들 웃음거리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든가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같이 살 순 없으니까요. 차라리 나랑 이혼한다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줘요. 당신 혼자 그 사람과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무대랑은 차마 다시 입을 떼지 못했다.

집 안에서 두 사람이 한창 말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무송이 토병(土兵, 지방 병졸)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토병은 멜대(扁擔)를 들고 있었고, 무송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무대랑이 급히 달려 나와 외쳤다. "형님, 어찌 갑자기 짐을 다 싸서 나가시는 겁니까?" 무송이 말했다. "형님은 묻지 마십시오. 말해봤자 형님 체면만 깎일 뿐입니다. 그저 제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무대랑은 차마 사정을 더 캐묻지 못하고 무송이 짐을 다 옮겨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방 안에서는 반금련이 중얼거리며 욕을 퍼부었다. "잘됐네, 잘

됐어! 친동생이 도두(都頭)가 되었다고들 떠드는데, 형님 내외를 먹여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물어뜯다니! 그야말로 '꽃모과(花木瓜) — 보기만 좋고 속은 텅 빈 격'이로구나. 당신이 나가버리니 오히려 천지신명께 감사할 노릇이지. 지긋지긋한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말이야." 무대랑은 아내가 저렇게 욕을 해대니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속이 답답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무송이 현청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무대랑은 평소처럼 매일 거리로 나가 떡을 팔았다. 원래는 현청에 가서 아우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으나, 아내가 신신당부하며 절대 무송에게 달라붙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무대랑은 감히 무송을 찾아가지 못했다.

손가락을 튕기듯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눈이 그치고 날이 갠 지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한편, 이 고을의 지현은 부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넘었다. 그동안 금과 은을 꽤 많이 모았는데, 이를 동경(東京, 북송의 수도 변경)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어 보관하고 쓰게 하면서 관직을 높일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까 걱정되어, 반드시 실력이 있고 믿을 만한 심복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문득 무송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겠어. 그만한 영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현은 즉시 무송을 관아로 불러들여 상의하며 말했다. "내 동경 성안에 사는 친척에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 보내려 하네. 가는 길에 안부 편지도 한 통 전하고 말이야. 다만 가는 길이 험할까 걱정이니, 자네처럼 용맹한 호걸이라야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네. 수고스럽더라도 나를 위해 한 번 다녀와 주게나. 돌아오면 내 반드시 두둑이 상을 내리겠네." 무송이 대답했다. "소인이 사또(恩相)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는데, 어찌 명을 거절하겠습니까? 분부

를 받자오니 곧장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마침 동경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그곳 구경도 할 겸 다녀오지요. 사또께서 내일 채비를 잘 마쳐 주십시오." 지현은 크게 기뻐하며 술 세 잔을 내려 주었으니, 그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무송은 지현의 분부를 받들어 현청 문을 나섰다. 무송은 거처에 들러 은자 몇 냥을 챙긴 뒤, 토병(土兵) 한 명을 불러 거리로 나가 술 한 병과 생선·고기·과일 따위 먹거리를 샀다. 그러고는 곧장 자석가(紫石街)에 있는 무대랑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 떡을 다 팔고 돌아오던 무대랑이 보니, 무송이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무송은 토병에게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라고 일렀다. 방 안의 반금련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무송이 술과 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자가 나를 못 잊어 다시 찾아온 모양이군.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한 것이니, 천천히 말을 걸며 떠보아야겠다!'

반금련은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분을 다시 고르게 바르고 머리 모양도 정갈히 매만진 뒤,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문앞으로 내려와 무송을 맞이했다. 반금련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주버님, 제가 어떻게 잘못 비쳤기에 그러시는지요? 며칠이나 통 발길도 하지 않으시니 제 마음이 영 갈피를 못 잡았답니다. 매일같이 형님께 현청에 가서 아주버님을 찾아뵙고 사정 말씀이라도 나누다 오시라 했건만, 돌아오시면 늘 '찾을 데가 없더라' 하시더군요. 오늘 이렇게 아주버님께서 집까지 와 주시니 기쁘기 그지없는데, 별일도 없으신데 어찌 이렇게 돈까지 쓰셨어요?" 무송이 대답했다. "내가 형님과 형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특별히 찾

아왔소." 그러자 반금련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위층으로 올라가 앉으시지요."

세 사람은 위층 손님용 자리에 앉았다. 무송은 형과 형수를 상석에 앉게 하고, 자신은 나무 의자를 끌어다 옆으로 비껴 앉았다. 군관이 술과 고기를 위층으로 날라와 탁자 위에 차려 놓자, 무송은 형과 형수에게 술을 권했다. 반금련은 그저 눈을 떼지 못하고 무송을 훑어볼 뿐이었고, 무송은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했다.

술이 다섯 차례쯤 돌았을 때, 무송은 술잔을 권하며 군관에게 술 한 잔을 따라 달라고 했다. 무송은 술잔을 손에 든 채 무대랑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현 어른의 명을 받아 동경(東京)으로 업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데, 기간은 길어야 두 달, 짧으면 사오십 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평소 성품이 유약하여, 제가 집에 없을 때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하루에 떡을 열 시루 파셨다면, 내일부터는 딱 다섯 시루만 만들어 나가십시오. 매일 늦게 나가서 일찍 돌아오시고, 남들과 술 마시며 어울리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곧장 발을 내리고 문을 일찍 닫아걸어, 구설수에 휘말릴 일을 줄여야 합니다. 혹여 누군가 형님을 괴롭히더라도 맞서 싸우지 마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따지겠습니다. 형님, 제 말을 따르겠다면 이 잔을 다 비워 주십시오."

무대랑이 술잔을 받으며 대답했다.

"내 아우 말이 옳다. 네 말대로 하마."

그러고는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무송은 다시 술 한 잔을 따라 반금련을 향해 말했다.

"형수님은 워낙 꼼꼼하고 영리한 분이니 제가 굳이 긴 말을 보탤 필요는 없겠지요. 형님은 워낙 성품이 순박하여 오로지 형수님께서 형님을 잘 보살펴 주셔야만 합니다. 옛말에 '겉이 튼튼한 것보다 속이 튼튼한 게 낫다'고 했습니다. 형수님께서 집안을 잘 다스려 주신다면 형님께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한 '울타리가 단단하면 개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반금련은 이 말을 듣고 무송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는 생각에, 귀끝부터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무대랑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더럽고 멍청한 양반아! 무슨 헛소리를 밖에 나가 떠벌려, 이 어미를 무시하는 거냐! 나는 두건만 안 썼지 당당한 사내대장부 같은, 쩌렁쩌렁 호령하는 여자다! 주먹 위에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팔뚝 위로 말을 달리게 할 만큼,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활보하는 사람이지, 찔러도 안 나오는 자라 같은 여편네가 아니란 말이다! 무대랑에게 시집온 뒤로 개미 한 마리도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못 들였는데, 무슨 울타리가 허술해서 개가 들어온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은 한 마디 한 마디 다 근

거가 있고, 벽돌이나 기와를 던지면 하나하나 다 땅에 떨어지듯 빈말이 없다!"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다만 마음과 입이 일치해야지, 입으로만 그러고 속은 딴판이면 안 됩니다. 형수님 말씀은 잘 새겨두었으니, 이 잔을 마셔 주십시오."

그러자 반금련은 술잔을 밀쳐버리고는 곧장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러다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 소리쳤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다면서, '큰형수는 어머니와 같다(長嫂為母)'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내가 처음 무대랑에게 시집올 때만 해도,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어디서 굴러들어 와서는! 친척이든 아니든 함부로 가장 행세를 하려 들다니. 내가 운이 나빠서 별 같잖은 일을 다 당하는구나!"

그녀는 울며 계단을 내려가 버렸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좋은 말 거스르며 듣는 것이 곧 원수가 되니,
웃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네.
그저 두 줄기 음탕한 재앙의 물줄기일 뿐,
슬픔 때문도 아니고 부끄러움 때문도 아니네.

한편, 반금련은 온갖 간사하고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무대랑과 무송 형제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몇 잔 더 마셨다. 무송이 형에게 작별을 고하자 무대랑이 말했다.

"아우야, 잘 가거라! 얼른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

무대랑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느덧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송은 무대랑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말했다.

"형님, 장사는 안 하셔도 괜찮으니 그저 집에 편히 계십시오. 여비는 제가 알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대랑은 무송을 배웅하며 아래층까지 따라 내려왔다. 무송이 문을 나서려 할 때 다시 한번 말했다.

"형님, 제가 드린 말씀 잊지 마십시오."

무송은 부하 병사들을 데리고 현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보따리를 단단히 묶은 무송은 지현을 찾아갔다. 지현은 이미 수레 한 대를 미리 보내 상자와 바구니를 모두 실어 놓게 했고, 건장한 토병 두 명과 관청의 심복 하인 두 명을 붙여주며 단단히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무송을 따르는 네 사람은 관청 앞뜰에서 지현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짐을 단단히 챙기고 박도를 치켜든 채 수레를 호위하며 길을 나섰다. 이렇게 다섯 명의 일행은 양곡현을 떠나 동경(東京)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무송이 떠난 후, 무대랑은 꼬박 사나흘 동안이나 그 여편네에게 욕설을 들어야 했다. 무대랑은 억울해도 꾹 참으며 그녀가 욕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두었다. 그저 아우가 했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로 매일 떡을 절반만 만들어 내다 팔고는 해가 지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곧장 휘장을 걷어치우고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 있었다.

반금련은 무대랑이 이러는 것을 보고 속이 타들어 가자, 무대랑의 얼굴을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이 망할 인간아!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대문을 쾅쾅 닫아걸다니, 남들이 우리 집에 귀신이라도 들었냐고 손가락질하면 어쩔 거야? 네 아우가 하는 말만 믿고 저러고 있으니, 남들이 비웃는 것도 겁이 안 나?"

무대랑이 말했다.

"남들이 우리 집에 귀신이 들었다고 비웃든 말든 상관없소. 내 아우가 한 말은 다 옳은 소리니, 덕분에 시비에 휘말릴 일도 줄어들지 않았소."

그러자 반금련이 쏘아붙였다.

"퉤! 이 멍청한 인간 같으니라고! 사내자식이 제 집안일 하나 결정 못 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니!"

무대랑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러려니 하시오. 아우가 한 말은 금쪽같은 말이라오."

무송이 떠난 지 열흘 남짓 된 후부터 무대랑은 매일 아침 늦게 나가 저녁 일찍 돌아왔으며, 집에 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반금련도 처음에는 몇 번이나 크게 다투며 소란을 피웠으나, 나중에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별로 개의치 않게 되었다. 이후로는 무대랑이 돌아올 때쯤 되면 반금련이 먼저 휘장을 거두고 대문을 닫아걸곤 했다. 무대랑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내심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렇게 해주니 참 좋구나!'

또 이삼일이 지나 겨울이 저물어가자, 날씨가 풀리며 약간 따스해졌다. 어느 날 무대랑이 평소처럼 돌아오자, 이미 익숙해진 반금련이 먼저 문앞으로 나와 휘장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마침 무슨 일인지, 한 사내가 휘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예부터 말하기를 '우연이 겹치면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니, 마침 반금련이 손에 든 막대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그 막대기가 사내의 머리 수건을 툭 치고 말았다.

사내는 발을 멈춰 서서 화를 내려다가, 고개를 돌려 상대를 확인했다. 그런데 눈앞에 요염하게 생긴 여인이 서 있지 않은가. 그 미모에 사내는 순식간에 마음이 녹아내려, 치밀어 오르던 화는 간데없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반금련은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다.

"제가 잠시 손을 헛디뎠습니다. 나으리, 부디 노여워 마세요."

사내는 머리 수건을 매만지며, 허리를 굽혀 답례했다.

"괜찮소. 부인, 편히 하시오."

이 광경을 담장 너머에 있던 왕파가 지켜보고 있었다. 찻집 차양 아래에서 이 모습을 본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떤 대단한 나으리가 이 집 처마 밑을 지나가시나 했더니, 아주 제대로 걸려드셨구먼!"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부족하여 부인께 실례를 범했습니다. 노여워 마십시오."

반금련이 대답했다.

"나으리,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사내는 다시 웃으며 큰 소리로 너스레를 떨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사내의 두 눈은 오로지 반금련의 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나는 순간에도 일곱여덟 번이나 고개를 돌려 그녀를 훔쳐보더니, 흐느적흐느적 팔자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반금련은 휘장 막대기를 챙겨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무대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시로 이르되,

울타리가 허술해 개가 파고들 터이니,
발을 걷어 올리고 마주 보며 잘 살펴보게나.
왕 노파여, 유혹하는 재주를 아끼지 마오,
장대 끝에 매단 것이 낚싯대임을 믿어야 하리.

그렇다면 방금 지나간 사람은 성명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 그는 바로 양곡현의 한 몰락한 가문 출신 부자로, 현청 앞에서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간사하고 교활한 데다 권법과 무술에도 능했다. 최근에는 재산을 모아 갑자기 세력을 얻더니, 현청에서 온갖 공무를 맡아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다. 남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억지를 쓰기도 하고, 돈을 써서 일을 처리하거나 관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으니, 현 전체가 그를 대접하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성은 서문(西門)이고 이름은 경(慶)이라 하는데, 형제 중 첫째라 사람들이 그를 서문 대랑이라 불렀다. 하지만 최근 돈을 벌어 세력이 커지자, 이제는 모두가 그를 서문 대관인이라 칭송하며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문경이 왕파의 찻집으로 들어오더니, 안쪽 휘장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대관인께서 방금 아주 호탕하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서문경도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리 좀 와 보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담장 너머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왕파가 농담조로 말했다.

"그 여인은 '염라대왕'의 누이동생이자 '오도장군'의 딸인데, 왜 묻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농담은 그만하시고 진지하게 말씀해 보세요."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께서 어찌 모르십니까? 그 남편이란 자는 매일 현청 앞에서 익힌 음식을 파는 사람인데……."

서문경이 말했다.

"설마 '대추떡 파는' 서삼의 아내입니까?"

왕파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만약 서삼의 아내였다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을 겁니다. 대관인, 다시 맞춰 보세요."

서문경이 말했다.

"그럼 '은 짐을 진' 이이의 아내인가요?"

왕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아내였다 해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겠지요."

서문경이 다시 물었다.

"설마 '팔뚝에 문신한' 육소을(陸小乙)의 아내입니까?"

왕파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아내였다 해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을 겁니다. 대관인,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왕파가 하하 웃으며 말했다.

"대관인께서 들으시면 한바탕 웃으실 겁니다. 그 여인은 바로 거리에서 떡을 파는 무대랑의 아내입니다."

서문경이 발을 구르며 웃으며 말했다.

"혹시 사람들이 '삼촌정곡수피(三寸丁穀樹皮)'라고 부르는 그 무대랑 말입니까?"

왕파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서문경은 그 말을 듣고는 괴롭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이 귀한 양고기가 어찌 개 입에 떨어졌단 말입니까!"

왕파가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부터 이르기를, '준마는 어리석은 사내를 태우고, 미인은 미련한 남편 곁에서 잠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하노인이 하필이면 그렇게 짝을 지어 놓았으니 말이에요!"

서문경이 말했다.

"왕 어머니, 제가 차 값이 얼마나 외상이지요?"

왕파가 말했다.

"얼마 안 됩니다. 좀 두었다가 한꺼번에 계산하시지요."

서문경이 다시 물었다.

"댁의 아들은 누구를 따라 나갔습니까?"

왕파가 말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인을 따라 회수(淮水) 일대로 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일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대관인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서문경이 말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 봅시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다가, 서문경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두 시진(약 네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문경은 다시 왕파의 가게 문 앞 휘장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랑의 집 앞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왕파가 나와서 말했다.

"대관인, 매실차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신맛이 좀 강하게 해 주면 좋겠소."

왕파가 매실차를 만들어 두 손으로 서문경에게 건넸다. 서문경은 천천히 차를 마시고는 잔 받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서문경이 말했다.

"왕 어머니, 매실차(梅湯)를 아주 잘 만드시는구려. 집안에는 매(梅)가 몇이나 있소?"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평생 중매(媒)를 들었지만, 집에 어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나는 매실차(梅湯)를 물었는데, 어머니는 중매(媒)를 든다고 하니, 대답이 어긋나지 않소."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께서 중매를 잘 놓느냐고 물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사람을 잘 이어주는 분이니, 나를 위해서도 한번 중매를 들어 좋은 혼처를 소개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두둑이 사례하겠소."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만약 댁의 안주인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이 늙은이의 뺨이 남아나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우리 집 안주인은 마음이 아주 넓어서 사람을 잘 포용해주오. 지금도 곁에 몇 명의 여인을 두고 있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이가 하나도 없소. 어머니께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하나 천거해 주시오. 와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소. 설령 한 번 시집갔다가 돌아온 여인(回頭人)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에만 든다면 상관없소."

왕파가 말했다.

"며칠 전에 아주 괜찮은 여인이 있었는데, 대관인께서 싫어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게 말해 주시오. 내가 반드시 사례하리다."

왕파가 말했다.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답지만, 나이가 좀 많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한두 살 차이야 아무 문제 없소. 대체 몇 살인데 그렇소?"

왕파가 말했다.

"그 여인은 무인년에 태어난 범띠인데, 이번 새해를 맞으면 딱 아흔 세 살이 됩니다."

서문경이 웃으며 말했다.

"이 미친 할멈 좀 보게, 사람을 놀리려고 작정을 했구려!"

서문경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왕파가 막 등불을 켜고 문을 닫으려는데, 서문경이 다시 나타나더니 휘장 아래 자리에 앉아 무대랑의 집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화합탕(和合湯)이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좋소. 어머니, 좀 달게 해 주시오."

왕파가 화합탕 한 잔을 우려내어 서문경에게 건네주었다. 서문경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니, 장부에 적어 두시오. 내일 한꺼번에 갚겠소."

왕파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일찍 다시 들러 주십시오."

서문경은 다시 웃으며 떠났다.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왕파가 막 문을 열고 밖을 살피는데, 서문경이 또 문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왕파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저 사기꾼이 아주 끈질기게 얼씬거리는구먼. 어디 한번 저놈 코끝에 달콤한 설탕이라도 발라놓고, 핥지도 못하게 약을 올려야겠다. 저놈이 현청 사람들 등쳐서 한몫 챙기곤 하니, 이번에는 이 늙은이 손에 걸려 좀 호되게 털리도록 만들어야겠어."

알고 보니 차방을 운영하는 왕파 역시 제 본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노파의 행실은 이러하였다.

말문을 열면 육가(陸賈)도 속여 넘기고, 입을 열면 수하(隋何)도 뛰어넘는구나.
외짝 난새와 외로운 봉황도, 순식간에 짝을 지어 쌍을 이루고;
홀로 된 과부와 외로운 홀아비도, 말 몇 마디에 부추겨 짝을 짓는구나.
묘한 계책을 조금만 쓰면, 아라한이 비구니를 껴안게 만들고;
교묘한 수단을 조금만 쓰면, 이천왕이 귀자모를 끌어안게 만드네.
달콤한 말로 꾀어내면, 사내가 봉섭(封涉) 같은 (정조 굳은) 자라도 마음이 동하고;
부드러운 말로 어르면, 여인이 마고(麻姑) 같은 (선녀)라도 마음이 흔들리네.
부추겨서 직녀를 상사병에 걸리게 하고, 희롱하여 항아(嫦娥)가 짝을 찾게 만드네.

한편, 왕파가 막 문을 열고 찻집 안에서 숯불을 피우며 찻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흘끗 보니, 서문경이 아침부터 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곧장 차방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것이었다. 서문경은 휘장 아래 자리에 앉아 무대랑의 집 앞 휘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왕파는 못 본 척하며 찻집에서 화로의 바람만 부채질할 뿐, 밖으로 나와 차를 권하지 않았다. 서문경이 외쳤다.

"어머니, 차 두 잔만 내오시오."

왕파가 대답했다.

"대관인께서 오셨군요. 요 며칠 뜸하셨는데, 어서 앉으십시오."

그러고는 진한 생강차 두 잔을 내와 탁자 위에 놓아주었다.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나랑 같이 차나 한잔합시다."

왕파가 하하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그림자도 아닌데 무슨 짝을 맞춥니까."

서문경도 한바탕 웃고는 물었다.

"어머니, 옆집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왕파가 말했다.

"그 집은 찐 만두랑 뜨끈뜨끈 매콤한 술국 같은 걸 팝니다."

서문경이 웃으며 말했다.

"이 할멈은 정말 미친 척 농을 거시는구려."

왕파가 웃으며 맞받아쳤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어엿한 본남편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농담 말고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집에서 떡(炊餠)을 아주 잘 만든다는데, 내가 서른에서 쉰 개 정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가 지금 나갔는지 집에 있는지 모르겠소."

왕파가 말했다.

"떡을 사고 싶으시면 잠시 후에 그 사람이 거리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면 되지, 굳이 그 집 대문까지 찾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던 서문경이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니, 장부에 적어 두시오."

왕파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노파가 장부에 꼼꼼히 적어 두겠습니다."

서문경은 웃으며 떠났다.

왕파는 찻집 안에서 일하며 차가운 눈길로 서문경을 살폈다. 서문경이 문 앞을 지나 동쪽으로 갔다 하면 한 번 쳐다보고, 다시 서쪽으로 지나가면 또 한 번 쳐다보았다. 그렇게 일곱여덟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서문경은 곧장 차방 안으로 들어왔다.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께서 요새 좀 뜸하시군요. 한동안 뵙지를 못했습니다."

서문경은 웃으며 몸을 움직여 은자 한 냥 남짓을 꺼내 왕파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차값으로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노파는 속으로 '왔구나, 이 사기꾼이 호되게 당할 때가 됐구나'라고 기뻐하며 은자를 슬쩍 챙겼다. 그러고는 말했다.

"대관인께서 목이 좀 타시는 것 같은데, 진하게 우려낸 잎차라도 한 잔하시겠습니까?"

서문경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찌 그리 잘 맞히십니까?"

왕파가 말했다.

"맞히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예부터 이르기를, '대문에 들어서서 흥망성쇠를 묻지 말라, 얼굴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파는 별의별 기괴한 일도 다 맞힌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제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맞히신다면 은 다섯 냥을 드리겠습니다."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노파는 세 번 네 번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굴려도 열 번 맞힐 만큼 맞히니까요. 대관인, 귀를 가까이 대 보세요. 요 며칠 발걸음이 바쁘고 자주 들락거리시는 걸 보니, 분명 옆집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제 추측이 어떻습니까?"

서문경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지혜는 수하(隋何)에 비길 만하고, 기지는 육가(陸賈)보다 강하시구려! 어머니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그날 그 여인이 휘장을 떠받칠 때 한 번 보고 나서부터, 마치 제 삼혼칠백(三魂七魄)을 다 거두어 가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발을 들여놓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완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왕파가 하하 웃으며 대답했다.

"대관인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 차 장사는 '귀신이 야경 도는 격(鬼打更)'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삼 년 전 유월 초사흘, 눈이

내리던 그날 차 한 잔을 팔고 난 뒤로는 제대로 된 장사 한번 못 해보고, 그저 이런 잡다한 수완을 부려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답니다."

서문경이 물었다.

"어찌하여 '잡다한 수완'이라고 하십니까?"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노파는 우선 중매를 들고, 여종을 매매하는 아파(牙婆) 노릇도 하며, 산모의 허리를 받쳐주는 조산 보조도 서고,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 노릇도 하며, 남녀 사이의 정을 돋우는 말도 할 줄 알고, '마박육(馬泊六,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뚜쟁이)'까지 할 줄 안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관 살 밑천(棺材本)으로 은 열 냥을 드리겠습니다."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여인과 정을 통하는(捱光)'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라,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일이 풀립니다. 첫째는 반안(潘安) 같은 미모요, 둘째는 나귀(驢)만큼이나 큰 물건이요, 셋째는 등통(鄧通)처럼 재물이 많아야 하고, 넷째는 솜 속의 바늘처럼 (드러내지 않고) 참아내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는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따서 '반(潘)·나

귀(驢)·등(鄧)·소(小, 인내)·한(閒)'이라 부르지요. 이 다섯 가지가 다 갖춰져야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사실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제 얼굴이 반안만은 못해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어릴 적부터 꽤나 큰 물건을 길러왔습니다. 셋째, 집안에 돈이 꽤 있어 등통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씁니다. 넷째, 인내심 하나는 끝내줘서 상대가 저를 사백 번을 때려도 절대 되갚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다섯째, 저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겠습니까? 어머니, 그저 저를 위해 일을 꾸며 주십시오. 일이 다 끝나면 제가 두둑하게 사례하겠습니다."

서문경의 눈빛에는 이미 욕망이 가득했다.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다섯 가지를 다 갖추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 한 가지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해도 허사가 되기 십상입니다."

서문경이 물었다.

"그 방해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이 노파가 직언을 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무릇 정을 통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십 푼의 일을 이루는 데 구 푼 구 리까지 돈을 써도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이지요. 제가 알기로 대관인께서는 평소 돈을 아끼시는 편이라 함부로 쓰지 않으시는데, 바로 그 점이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그건 아주 쉽게 해결할 문제이니, 그저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왕파가 말했다.

"만약 대관인께서 기꺼이 돈을 쓰실 마음이 있다면, 이 노파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인과 저 계집이 바로 만날 수 있게 해드리지요. 다만 대관인께서 제 말을 따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으니 다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묘책이 있으십니까?"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일단 돌아가십시오. 석 달이나 반년 쯤 뒤에 다시 와서 상의합시다."

서문경은 곧장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어머니, 농담하지 마시고 제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대관인께서 너무 서두르십니다. 이 노파의 계책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비록 무성왕묘(武成王廟)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건 아니어도, 손무자의 병법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열 번을 시도하면 아홉 번은 성공할 겁니다. 대관인,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요. 저 계집은 원래 청하현의 대호(大戶, 부유한 집안)에서 데려온 양녀인데, 바느질 솜씨가 아주 일품입니다.

대관인께서는 우선 흰 비단 한 필, 푸른 비단 한 필, 흰 명주 한 필을 사고, 질 좋은 면 솜 열 냥을 사서 이 노파에게 가져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계집에게 가서 차를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시주 관인께서 내 장례를 치를 옷감을 한 세트 보내주셨는데, 옷을 맞출 때를 정하려고 하니, 낭자께서 좋은 날을 골라 재봉사를 불러다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소.' 만약 그 계집이 내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하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그 계집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재봉사를 부르라고 하지도 않는다면, 일단 일이 절반은 성사된 겁니다. 그때는 제가 집으로 재봉사를 불러오겠다고 하겠지요. 만약 그 계집이 '나중에 우리 집에서 하겠다'며 오기를 거부하면,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계집이 아주 기뻐하며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바로 재단해 드릴게요'라고 한다면, 일은 이분(二分)이나 성공한 셈입니다.

만약 그 계집이 우리 집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면, 술과 음식, 간식을 대접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날에는 대관인께서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둘째 날에 그 계집이 번거롭다며 집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첫날 약속대로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면, 일은 삼분(三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이때도 대관인께서는 오시면 안 됩니다. 셋째 날 정오쯤 되었을 때, 대관인께서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오셔서 헛기침으로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러고는 문 앞에서 '어찌 며칠째 왕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서 대관인을 방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약 그 계집이 대관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바로 일어나 도망쳐 버린다면, 제가 무슨 수로 붙잡겠습니까?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계집이 대관인이 들어오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은 사분(四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자리에 앉으면 그 계집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 옷감을 보내주신 시주 관인이시라네. 참으로 대단한 분이지!' 제가 대관인을 엄청나게 칭찬하면, 그 계집은 은근히 자기 바느질 솜씨를 뽐내려 할 겁니다. 만약 그 계집이 대꾸도 안 하고 맞장구도 치지 않으면,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일은 오분(五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낭자가 내 옷을 만들어주니 참으로 고맙구려. 돈을 내는 시주와 힘을 쓰는 시주, 두 분 모두 참으로 고맙소. 내가 길에서 무턱대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마침 이 낭자가 여기 있으니, 관인께서 주인이 되어 이 낭자의 수고를 좀 덜어주셔야겠소.' 그러면 대관인께서는 은자를 꺼내어 제가 물건을 사도록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그 계집이 몸을 돌려 바로 가버

리려 한다면,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계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니, 일은 육분(六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은자를 받으면, 문을 나서면서 그 계집에게 '낭자, 대관인께서 앉아 계실 수 있게 잘 대접해 주시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그 계집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린다면, 제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계집이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일이 아주 잘 풀리는 것이니, 일은 칠분(七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제가 물건을 사서 돌아와 탁자 위에 차려놓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낭자, 어서 음식을 차려 술이라도 한잔 드시게. 이 관인께서 귀한 돈을 쓰시는데 말이야.' 만약 그 계집이 대관인과 함께 앉아 먹으려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은 팔분(八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그 계집이 술기운이 올라와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제가 술이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며 다시 사 오라고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대관인께서도 저에게 다시 사 오라고 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술을 사러 나가는 척하면서 문을 닫아걸고, 대관인과 그 계집 두 사람만 안에 가둬 버릴 겁니다. 만약 그 계집이 당황해서 도망쳐 버리면, 일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 계집이 제가 문을 닫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당황하지 않는다면, 일은 구분(九分)이나 성공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일분(一分)만 채우면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일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관인, 방 안에서 달콤한 말들을 몇 마디 건네며 그 계집을 꼬드기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굴거나 함부로 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일을 망치면 그때는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우선 실수인 척 소매를 쳐서 탁자 위의 젓가락 한 쌍을 떨어뜨리십시오. 대관인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는 척하면서, 그 계집의 발을 슬쩍 만지십시오. 만약 그 계집이 화를 내며 난리를 친다면 제가 달려와 말리겠지만, 일은 거기서 끝이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집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백 점 만점입니다. 그 계집도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이 성사될 것입니다. 이 계책이 어떻습니까?"

서문경은 이야기를 다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비록 능연각(凌煙閣)에 오를 만큼 대단한 건 아니어도, 참으로 기가 막힌 계책입니다!"

왕파가 말했다.

"저에게 약속하신 은자 열 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귤껍질 한 조각 먹는다고 해서 동정호(洞庭湖)를 잊겠습니까!' 이 계책은 언제쯤 실행할 수 있습니까?"

왕파가 말했다.

"오늘 밤이면 바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무대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제가 가서 세세하게 말해 유혹해 놓겠습니다. 대관인께서는 어서 사람을 시켜 비단과 명주, 그리고 면 솜을 가져오십시오."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서문경은 왕파와 작별한 뒤, 곧장 저잣거리의 비단 가게로 가서 비단과 명주, 그리고 질 좋은 면 솜 열 냥을 샀다. 그리고 집에서 심부름꾼을 불러 짐을 싸게 한 뒤, 은자 다섯 냥을 챙겨 바로 차방으로 보냈다. 왕파는 물건을 건네받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냈다.

시로 이르되:

어찌 풍류로 남보다 앞서려 하는가?
홀린 듯한 진법 속에서 기습을 펼치네.
열 방향에서 촘촘히 계책을 짜놓아도
결국 제 몸 망쳐 함정에 빠질 뿐이네.

왕파는 뒷문으로 나가 무대랑의 집을 가로질러 갔다. 반금련은 왕파를 2층으로 안내해 앉혔다. 왕파가 말했다.

"낭자, 어찌하여 우리 집에는 차를 마시러 오지 않으십니까?"

반금련이 대답했다.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 나가기가 귀찮아서요."

왕파가 말했다.

"낭자 댁에 달력은 있습니까? 저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옷 맞출 날을 좀 골라보려 합니다."

반금련이 물었다.

"어머니께서는 무슨 옷을 맞추시려고요?"

왕파가 말했다.

"이 노파가 열 번 병들면 아홉 번은 아프니, 혹여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 봐 미리 수의(壽衣)를 좀 마련해두려 합니다. 마침 근처에 어떤 부자가 제 말을 듣더니, 옷감 한 벌—능(綾)·주(紬)·견(絹)·단(緞)을—시주해 주고 질 좋은 면 솜도 넉넉히 주었기에, 집에 둔 지 일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몸이 부쩍 나빠진 데다 마침 윤달까지 겹쳤으니, 요 며칠 사이에라도 해두려 합니다. 그런데 그 재봉사 놈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트집을 잡고 오려 하지 않으니, 이 노파 속이 타들어 갑니다!"

그 말을 들은 반금련이 대답했다.

"제가 만들면 혹시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왕파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다.

"낭자께서 직접 손을 써주신다면, 이 노파는 죽어도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다! 낭자의 바느질 솜씨가 일품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감히 부탁드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반금련이 말했다.

"그게 무슨 어려움인가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으니 반드시 해드려야지요. 달력을 가져가셔서 황도(黃道) 길일을 골라오시면,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왕파가 말했다.

"낭자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낭자 자체가 복성(福星)이신데, 따로 날을 고를 게 무어 있겠습니까? 저도 엊그제 다른 사람에게 봐달라 했더니 '내일이 바로 황도 길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옷 맞추는 데 굳이 황도일이 필요 없다 여겨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반금련이 말했다.

"수의는 마땅히 황도 길일에 지어야 좋은 법인데, 어찌 다른 날을 고르겠어요?"

왕파가 말했다.

"낭자께서 정녕 이 노파의 일을 맡아주신다면, 외람되이 내일부터 낭자를 저희 누추한 집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반금련이 말했다.

"어머니, 굳이 그러실 것 없이, 옷감을 이쪽으로 가져오셔서 저희 집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왕파가 말했다.

"저도 낭자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집에 문 지킬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어 그렇습니다."

반금련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일 식사 후에 바로 갈게요."

왕파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 왕파는 서문경에게 (반금련과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알리고, 모레 반금련이 틀림없이 오기로 했음을 약속해 두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왕파는 방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실과 바늘을 좀 사고 차를 준비해 둔 채 집에서 기다렸다.

한편, 무대랑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짊어진 채 생업을 위해 길을 나섰다. 반금련은 발을 내리고 뒷문으로 나가 왕파의 집을 가로질러 갔다. 왕파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방 안으로 안내해 앉혔다. 그러고는 진한 차를 우려내고 새하얀 잣과 호두 알을 곁들여 반금련에게 건넸다. 탁자를 깨끗이 닦은 왕파는 미리 준비해둔 능(綾)·주(紬)·견(絹)·단(緞)의 옷감을 꺼내 놓았다. 반금련은 자로 길이를 재어 마름질

을 마친 뒤 곧 바느질에 들어갔다. 왕파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노파가 예순, 일흔을 살면서 정말 이런 일품 바느질은 본 적이 없답니다."

반금련이 한낮이 될 때까지 바느질을 이어가자, 왕파는 술과 음식을 마련해 대접하며 밀가루 국수 한 근을 삶아 그녀에게 먹였다. 반금련은 다시 한참을 더 바느질하다가, 저녁이 다가올 무렵 일감을 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무대랑이 빈 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금련은 문을 열어주고 발을 내렸다. 무대랑이 방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반금련의 얼굴에 발그레한 빛이 도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왔소?"

그러자 반금련이 대답했다.

"옆집 왕 할머니가 장례 때 입을 옷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점심때 간식을 좀 대접받았어요."

무대랑이 말했다.

"아이고, 남의 것을 함부로 얻어먹으면 안 되오. 우리도 부탁할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말이오. 그분이 옷 한 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굳이 그 집에 머물며 대접받을 필요는 없으니, 그냥 집에 돌아와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겠소. 내일 다시 일을 하러 갈 때는 돈을

좀 챙겨가서 술과 음식을 사 가며 답례를 하시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소? 사람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되오. 만약 그분이 답례를 사양한다면, 그냥 음식을 좀 챙겨와서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것이니 말이오."

반금련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가련하다, 늙은 노파의 계략이 이토록 깊으니
무대랑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네
돈을 챙겨 술을 사서 간교한 자를 달래려 했건만
도리어 제 아내를 남에게 거저 내어주고 말았구나

한편, 왕파는 이미 계책을 다 세워두고 반금련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 다음 날 식사를 마친 뒤 무대랑이 밖으로 나가자, 왕파는 곧장 반금련을 찾아가 청했다. 반금련은 왕파의 방으로 가서 바느질감을 꺼내 놓고 한창 바느질에 열중했다. 왕파는 그 곁에서 차를 달여 마시며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자, 반금련은 돈 한 꾸러미를 꺼내 왕파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술 한 잔 사 마실 수 있게 돈 좀 드릴게요."

왕파가 말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요? 이 노파가 아가씨를 불러다 일을 시켰는데, 어찌 아가씨가 내게 돈을 내놓는단 말이오?"

반금련이 대답했다.

"제 남편이 꼭 이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정말 사양하신다면, 그냥 음식을 좀 챙겨가서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왕파는 연신 감탄하며 말했다.

"무대랑이 참으로 철이 들었구려. 아가씨가 정 그렇다면 이 노파가 일단 받겠소."

왕파는 이 일을 망칠까 봐 겁이 났기에, 받은 돈으로 다시 좋은 술과 음식, 그리고 귀한 과일들을 사 와서 반금련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

여러분은 들어보시오. 세상의 여인들이란 아무리 열여덟 푼의 영리함을 갖추었다 한들, 누군가 조금만 다정하게 유혹하며 달래면 열에 아홉은 그 덫에 걸려들기 마련이라오. 한편, 왕파는 간식을 차려 반금련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정성껏 보살폈다. 반금련은 한참 동안 바느질을 하다가 저녁 무렵이 되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갈무리하리라. 셋째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왕파는 무대랑이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곧장 뒤로 가서 불렀다.

"아가씨, 이 노파가 결례를 범하겠습니다만……."

반금련이 위층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마침 저도 가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 왕파의 방으로 가서 앉은 뒤, 바느질감을 꺼내 들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왕파는 곧바로 차를 달여 왔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일을 했다. 반금련이 한참 바느질을 하여 어느덧 정오 무렵이 되었을 때, 서문경이 마침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 새 두건을 쓰고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채 은자 서너 냥을 품에 지니고 곧장 자석가로 찾아왔다. 서문경은 차방 문앞에 이르러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왕 어머니, 요 며칠 어찌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왕파가 밖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누가 이 노파를 부르는 것이냐?"

서문경이 말했다.

"저입니다."

왕파가 문을 열고 나가더니,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시주 대관인이셨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왕파는 서문경의 소매를 잡아끌어 방 안으로 데려가더니, 반금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그 시주 대관인이십니다. 저에게 옷감을 맡기셨던 그 대관인이시지요."

서문경은 반금련을 보자마자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반금련은 황급히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왕파는 반금련을 가리키며 서문경에게 말했다.

"대관인께서 저에게 맡기신 비단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일 년이 지나도록 다 만들지 못했답니다. 다행히 이 아가씨가 손을 보태주어 제때 완성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정말이지 바느질 솜씨가 베틀을 돌리는 것처럼 정교하고 촘촘하니, 참으로 보기 드문 솜씨입니다! 대관인께서도 한번 보시지요."

서문경이 다가와 살펴보더니 탄성을 내뱉으며 말했다.

"이 아가씨의 바느질 솜씨가 어찌 이리도 뛰어난가! 마치 신선의 솜씨 같구려!"

반금련이 웃으며 말했다.

"대관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서문경이 왕파에게 물었다.

"어머니, 실례지만 이분은 어느 집댁의 아가씨입니까?"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한번 맞춰보시지요."

서문경이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왕파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바로 옆집 무대랑의 아내랍니다. 엊그제 장대질하던 일이 아프지도 않으셨나 보군요, 대관인?"

그러자 반금련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날은 제가 그만 실수한 것이니, 대관인께서는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서문경이 말했다.

"별 말씀을요."

왕파가 말을 받았다.

"이 대관인께서는 성품이 워낙 온화하셔서 결코 뒤끝을 남기지 않는 참으로 좋은 분이랍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엊그제는 미처 몰라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무대랑의 아내였군요. 제가 알기로 무대랑은 오로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할 때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지요. 게다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아 참으로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왕파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아가씨도 저 무대랑에게 시집온 뒤로는 무슨 일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요."

반금련이 대답했다.

"제 남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대관인께서 웃으실 일이지요."

서문경이 말했다.

"아가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옛말에 '부드러움은 몸을 지키는 근본이요, 강함은 화를 부르는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의 남편처럼 선하게 살면 '만 길 물결에도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파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서문경은 한바탕 칭찬을 늘어놓고는 반금련의 맞은편에 앉았다. 왕파가 다시 물었다.

"아가씨, 이 대관인을 아십니까?"

반금련이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왕파가 말을 이었다.

"이 대관인은 이 현의 큰 부자라네. 지현 나리께서도 왕래를 하실 정도이니, 서문 대관인이라 불리지. 재산이 만만 관(억만 관)에 이르고, 현청 앞에 약재상을 운영하고 계시네. 집안에 쌓인 돈은 북두칠성보다 높이 쌓였고, 묵은 창고의 쌀은 너무 많아 썩어날 지경이라네. 붉은 것은 금이요, 하얀 것은 은이며, 둥근 것은 구슬이요, 빛나는 것은 보석이라네. 코뿔소의 뿔이며 코끼리의 상아까지 갖추었을 정도니……."

왕파는 오로지 서문경을 치켜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입으로 거짓 자랑을 늘어놓았다. 반금련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에만 열중했다. 서문경은 반금련의 모습에서 깊은 정취를 느끼고는, 당장이라도 그녀와 한데 어우러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왕파는 차 두 잔을 가져와 한 잔은 서문경에게, 다른 한 잔은 반금련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 대관인을 이토록 정성껏 대접하시니 참으로 보기 좋군요."

차를 마시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눈짓이 오가기 시작했다. 왕파는 서문경을 바라보며 한쪽 손을 얼굴에 대고 슬쩍 만지작거렸다. 서문경은 그 모습을 눈여겨보며, 이미 상황이 절반쯤은 넘어왔음을 직감했다.

왕파가 말을 이었다.

"대관인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늙은이가 감히 댁까지 찾아가 모시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인연이 닿아 마침 때맞춰 잘 와 주셨군요. 흔히들 '한 손님은 두 주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관인께서는 돈을 내시는 분이고, 이 아가씨는 솜씨를 보태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이 늙은이가 객쩍게 폐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아가씨께서 여기 와 계시니 대관인께서 주인 노릇을 하셔서 저를 대신해 아가씨께 한턱 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군요. 여기 은자가 좀 있습니다."

그는 은자를 꺼내 손수건째로 왕파에게 건네며 술과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반금련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다. 왕파는 은자를 챙겨 나가려는데 반금련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자, 문을 나서며 다시 한 번 말했다.

"아가씨, 수고스럽지만 대관인과 함께 앉아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반금련이 대답했다.

"어머니, 그러실 것 없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또한 인연이라, 두 사람 모두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다. 서문경은 두 눈이 온통 반금련에게만 향해 있었고, 반금련 또한 두 눈으로 슬쩍슬쩍 서문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잘생긴 그의 풍채를 보니 마음속에 이미 대여섯 할은 마음이 동했으나,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느질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파는 미리 만들어 놓은 기름진 거위 요리와 삶은 고기, 그리고 정갈한 과자들을 사 들고 돌아와 접시에 가득 담았다. 과자와 채소들을 모두 차려 방 안 탁자 위에 옮겨 놓은 왕파가 반금련을 보며 말했다.

"아가씨, 어서 이 일들을 정리하고 술도 한잔 드세요."

반금련이 말했다.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대관인을 대접하는 건 제 도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왕파가 말했다.

"딱 아가씨를 도와드리려는 것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왕파는 음식들을 탁자 위에 모두 차려놓고 셋이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따랐다. 서문경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가씨, 이 잔을 비워 주십시오."

반금련이 대답했다.

"관인께서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왕파가 거들었다.

"아가씨가 술을 시원하게 잘 드시는 걸 제가 잘 알지요. 자, 기분 좋게 두어 잔 드시지요."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예부터 남녀는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거늘,
재주를 부리며 유혹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옛날 도두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강아지가 어느덧 울타리 곁에 다다랐도다.

술과 여색이 본래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아야 하니,
음식 또한 남녀의 인연을 맺어줄 수 있다네.
도두가 일일이 당부하고 부탁할 필요도 없이,
울타리 열어두고 해가 지면 개가 와 잠들기를 기다리리.

한편, 반금련이 술잔을 받아 들자 서문경이 젓가락을 들어 말했다.

"어머니, 저를 대신해서 아가씨께 술을 좀 권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파는 좋은 안주를 골라 반금련에게 건네주며 먹으라고 권했다. 술을 세 차례나 연달아 따르고 나자, 왕파는 다시 술을 더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서문경이 말했다.

"감히 여쭙건대, 아가씨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반금련이 대답했다.

"저는 헛되이 스물세 살을 먹었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저는 어리석게도 다섯 살이 더 많습니다."

반금련이 말했다.

"관인께서는 하늘을 땅에 빗대고 계시는군요."

그러자 왕파가 끼어들며 말했다.

"참으로 영리하고 섬세한 아가씨로군요. 바느질 솜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제자백가의 학문에도 두루 능통하시니 말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그런 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대랑은 참으로 복도 많군요!"

왕파가 이어서 말했다.

"제가 시비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관인의 댁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한들 이 아가씨만 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그렇지요, 한마디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팔자가 사나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의 전처도 참 좋은 분이셨지요."

서문경이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만약 제 전처가 살아 있었다면 집안에 주인이 없어 집이 거꾸로 뒤집힌 듯한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식구가 대여섯 명이나 헛되이 밥을 먹고 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일을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반금련이 물었다.

"관인께서 그러시다면, 큰마님께서 돌아가신 지는 몇 년이나 되었나요?"

서문경이 대답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전처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아주 영리하고 야무져서 모든 일을 저를 대신해 척척 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그 뒤로 집안일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집을 나와 다니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화만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지요!"

왕파가 말했다.

"대관인, 이 늙은이가 직언하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관인의 전처도 무대랑의 아내만큼 바느질 솜씨는 좋지 못했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제 전처 또한 이 아가씨 같은 풍모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관인, 동쪽 거리에 외택(첩의 집)을 따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저를 불러 차라도 한잔 대접하지 않으십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느린 곡조를 부르는 장석석을 말씀하시는군요. 그 사람은 떠돌이 예인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파가 다시 말했다.

"관인, 이교교와는 오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집에 데려다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집안 살림을 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정실로 책봉했을 겁니다."

왕파가 말했다.

"만약 관인의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이 댁에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제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 제 마음대로 정하는 일에 누가 감히 '아니오'라고 하겠습니까!"

왕파가 말했다.

"그저 농담 삼아 해본 소리입니다만, 그렇게 급히 어디서 관인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왜 없겠습니까! 다만 제 부부의 인연이 박하여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서문경과 노파는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왕파가 말했다.

"마침 술이 한창인데 그만 떨어졌군요. 대관인, 이 늙은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탓하지 마시고, 한 병 더 사 와도 괜찮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제 손수건 속에 부스러기 은자 닷 냥쯤이 있으니, 한꺼번에 그쪽에 맡겨 두겠습니다. 술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시고, 남는 것은 노친께서 가지셔도 좋습니다."

왕파는 대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반금련의 얼굴을 슬쩍 훑어보았다. 술 한 잔이 뱃속에 들어가자 반금련의 춘심이 일렁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 속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깃들었으나, 반금련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왕파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가서 술 한 병을 더 가져올 테니, 아가씨께서 대관인과 한 잔 더 나누십시오. 수고스럽지만 아가씨께서 대관인을 모시고 잠시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술병에 술이 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다면 두 잔 정도 더 따라 대관인께 대접해 드리시지요. 저는 현청 앞 그 집까지 가서 좋은 술을 한 병 사 올 테니, 한참 걸릴 겁니다."

반금련은 입으로는 "그러실 것 없어요"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왕파는 방 문 앞까지 나가서는 문을 밧줄로 묶어 잠가 버리고,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버렸다.

한편, 서문경은 방 안에서 직접 술을 따라 반금련에게 권하더니, 소매로 탁자를 슥 훑어 젓가락 두 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것 또한 인연이 맞아떨어졌는지, 그 젓가락은 반금련의 발치에 떨어졌다. 서문경이 급히 몸을 굽혀 젓가락을 주우려는데, 반금련의 뾰족하고 작은 두 발이 마침 젓가락 옆에 살짝 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서문경은 젓가락은 주울 생각도 않고 반금련의 수놓인 꽃신을 슬쩍 한번 꼬집었다. 반금련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관인, 함부로 굴지 마세요! 정말 저를 꾀려는 건가요?"

서문경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부디 아가씨께서 이 소생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반금련이 서문경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왕파의 방에서 옷을 벗고 띠를 풀며, 한 베개를 베고 즐거움을 나누었다.

마치 서로 목을 껴안은 원앙이 물놀이를 하고, 머리를 맞댄 난봉이 꽃 사이를 누비는 듯하였다. 기쁨에 겨워 연리지가 자라나듯, 달콤하게 동심결이 맺히듯, 입술은 붉게 맞닿고 고운 얼굴은 비스듬히 기댄다. 비단 버선은 높이 올라가 어깨 위로 하얀 살결이 초승달처럼 드러나고, 금비녀는 거꾸로 흘러내려 베갯머리에 검은 구름 한 송이가 쌓인 듯하다. 산해와 같은 굳은 맹세를 나누며 온갖 정답고 아리따운 몸짓을 보이고, 운우의 정에 부끄러워하듯 만 가지 요염한 몸짓으로 서로를 어루만진다. 꾀꼬리 같은 고운 목소리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달콤한 입맞춤 속에 웃음 섞인 혀끝이 오간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는 봄기운이 완연하고, 앵두 같은 입술은 가쁜 숨을 몰아쉰다. 별 같은 눈동자는 몽롱하고 고운 살결에는 향기로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며, 출렁이는 가슴에서는 모란꽃 심장에 떨어지는 이슬방울처럼 영롱한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정식으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이라 한들, 이렇게 몰래 나누는 정의 맛이야말로 참으로 달콤하고 아름답구나.

두 사람이 한바탕 정사를 마치고 막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는데, 왕파가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두 사람, 아주 좋은 일을 저질렀구나!"

서문경과 반금련은 깜짝 놀랐다. 왕파가 말을 이었다.

"좋구나, 좋아! 내가 옷을 맞추라고 불렀지, 남자를 몰래 끌어들이라고 부른 줄 아느냐? 만약 무대랑이 알게 되면 나까지 연루될 판이니, 차라리 내가 먼저 자백해야겠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반금련이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문경도 거들었다.

"어머니,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왕파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를 용서해주려면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겠다."

반금련이 즉시 대답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라도 다 따를게요, 어머니."

왕파가 말했다.

"오늘부터 무대랑 몰래 만나되, 매일 약속을 어겨서 대관인을 실망시키지 마라. 만약 단 하루라도 약속을 어기면 내가 당장 무대랑에게 다 말해버릴 테니까."

반금련이 말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왕파가 다시 서문경을 보며 말했다.

"서문 대관인께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이 즐거운 일은 이미 다 끝났으니, 약속한 물건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신다면 저도 무대랑에게 다 말할 것입니다."

서문경이 대답했다.

"어머니, 안심하십시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이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나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다. 반금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무대랑 그놈이 곧 돌아올 테니,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반금련은 뒷문으로 돌아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막 휘장을 내리는데, 마침 무대랑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편, 왕파는 서문경을 보며 말했다.

"수단이 아주 좋으시군요?"

서문경이 말했다.

"정말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대로 은 한 덩이를 가져다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약속한 것을 어기는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왕파가 말했다.

"'깃발이 오기만을 바라며 좋은 소식만 기다리겠네.' 부디 저를 두고 '관짝이 나오는데 곡하는 사람을 부르는 꼴'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서문경은 웃으며 자리를 떴고,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반금련은 그날부터 매일 왕파의 집을 몰래 드나들며 서문경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정은 옻칠한 듯 진했고, 마음은 아교처럼 끈끈하게 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예부터 "좋은 일은 문밖을 나가지 못하고, 나쁜 일은 천 리를 간다"라고 하더니,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웃 주민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오직 무대랑 혼자만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잠시 스쳐 가는 풍류가 무슨 소용인가,
그저 흔한 맛일 뿐이니 뽐낼 것도 없네.
훗날 집안 내부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
오늘 들꽃에 빠져 지낸 것을 후회하리라.

이야기는 갈래가 나뉘어 다른 쪽으로 흐른다. 한편, 이 현에는 열다섯 혹은 열여섯 살 정도 된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성은 교 씨였다. 그의 아버지가 군인으로 복무할 때 운주(鄆州)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이름을 운아(鄆哥)라 지었으며, 집에는 늙은 아버지 한 분만 계셨다. 이 소년은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여, 평소 현청 앞의 여러 주막을 돌며 제철 과일을 팔아 생계를 꾸렸는데, 서문경이 종종 노자(盤纏)를 챙겨 주곤 했다. 어느 날, 마침 잘 익은 배 한 바구니를 구한 소년은 그것을 들고 서문경을 찾으러 거리를 헤맸다. 그때 입이 가벼운 한 사내가 말했다.

"운아, 그를 찾고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마."

운아가 말했다.

"수고스럽게 해 드려 죄송해요, 아저씨. 그분을 만나서 돈 몇십 푼이라도 벌어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입이 가벼운 사내가 말했다.

"서문경 그놈은 요즘 떡 파는 무대랑의 마누라와 눈이 맞아서, 매일 자석가(紫石街)에 있는 왕파의 찻집에 틀어박혀 있단다. 이맘때면 틀림없이 거기 있을 게야. 너 같은 어린애는 그냥 불쑥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없다."

운아는 그 말을 듣고 아저씨에게 가르쳐 주어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영악한 꼬마는 배 바구니를 들고 곧장 자석가를 향해 걸어가더니, 거침없이 찻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침 왕파가 작은 의자에 앉아 실을 잣고 있었다. 운아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왕파를 향해 읍하며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왕파가 물었다.

"운아, 여긴 어쩐 일이냐?"

운아가 대답했다.

"서문 대관님을 좀 뵈러 왔어요. 돈 몇 푼이라도 벌어서 아버지를 봉양하려고요."

왕파가 되물었다.

"무슨 서문 대관님이냐?"

운아가 말했다.

"할머니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바로 그분 말이에요."

왕파가 다시 물었다.

"그 대관님이 누구인지 성함이라도 있어야 알지 않겠느냐?"

운아가 말했다.

"두 글자예요."

왕파가 말했다.

"두 글자라니, 그게 대체 뭐냐?"

운아가 말했다.

"할머니, 자꾸 장난치지 마세요. 전 서문 대관님과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왕파가 운아를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이 녀석아, 어디를 가느냐? 남의 집 안에는 안팎이 있는 법이다."

운아가 말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찾아내면 되잖아요."

왕파가 쏘아붙였다.

"이 망할 놈의 원숭이 같은 녀석아, 내 집에 서문 대관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운아가 맞받아쳤다.

"할머니, 혼자서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말고 저한테도 국물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왕파가 욕을 퍼부었다.

"이 조그만 원숭이 녀석이 뭘 안다고 나서!"

운아가 말했다.

"할머니는 마치 '말발굽 칼로 나무 국자에서 채소를 써는 것' 같아서, 빈틈없이 꽉 짜여서 물 한 방울도 새나가지 않게 하시네요. 제가 입을 열면 떡 파는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왕파는 이 아이가 정말로 속내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이 망할 놈의 원숭이 같은 녀석이, 감히 이 할미 집에서 헛소리를 지껄여!"

운아가 대꾸했다.

"제가 원숭이면, 할머니는 '마박륙(馬泊六)' — 음탕한 정사를 알선하는 뚜쟁이로군요!"

화가 난 왕파는 운아를 붙잡고 머리에 알밤 두 대를 사정없이 먹였다. 운아가 비명을 질렀다.

"왜 때리는 거예요!"

왕파가 욕을 했다.

"이 도둑 원숭이 같은 놈, 목소리 좀 높이지 마라! 따귀를 갈겨서 쫓아버릴 테니!"

운아가 소리쳤다.

"이 고약한 할멈아, 할 일 없으면 그냥 때리기나 하세요!"

왕파는 한 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에 알밤을 먹이며 거리까지 사정없이 끌어내 쫓아냈고, 배 바구니도 내팽개쳐졌다. 바구니에 담겼던 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굴러갔다. 이 영악한 꼬마는 그 노파에게 당한 것이 분해, 욕을 하면서도 울고, 울면서도 도망치듯 길바닥에 떨어진 배를 주워 담았다. 그러고는 왕파의 찻집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고약한 할멈아, 두고 봐요! 내가 그 형님한테 말 안 한다고? — 말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운아는 배 바구니를 챙겨 들고 곧장 그 사람을 찾아 떠났다. 예전부터 저지른 일이 있어 재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닥치는 법이다. 여우와 토끼의 굴속 풀을 헤집어 놓으니, 모래 위에서 잠자던 원앙이 놀라 깨어난다. 결국 운아가 찾아가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